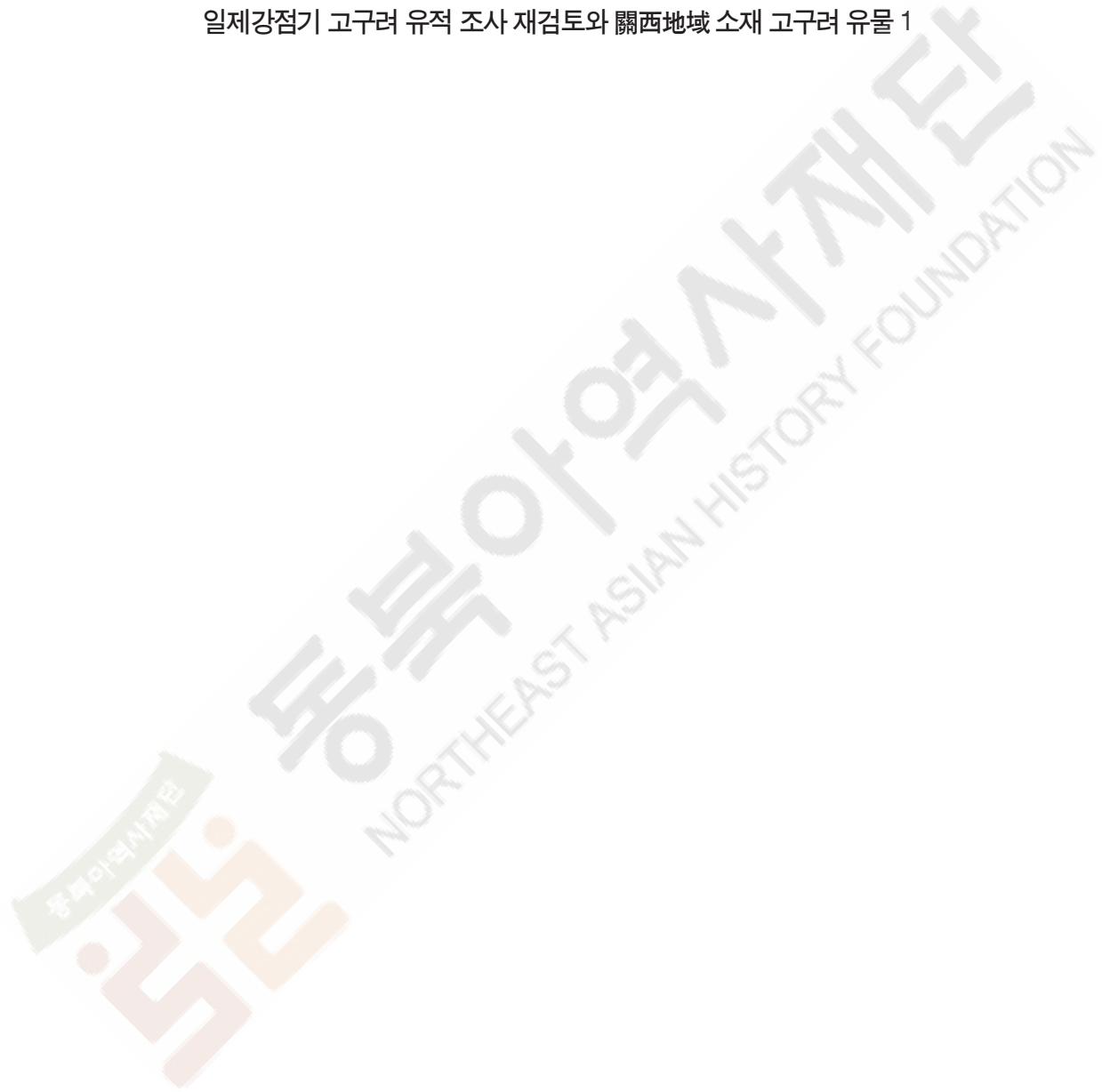


# II

##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일제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 재검토와 關西地域 소재 고구려 유물 1



#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 II

일제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 채검토와 關西地域 소재 고구려 유물 1

## | 발 간 사 |

우리 재단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 연구자들의 고구려 유적 발굴조사 과정에 대한 연구와 일본 각지에 있는 고구려 유물에 관한 조사 연구를 다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유물이 고구려 옛 땅에서 발굴되어 일본으로 건너가 각 기관에 소장되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해당 유물의 특징과 현재 상태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2007년 이래 연속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 책은 그 두 번째 해인 2008년 자료조사 결과와 유물 사진을 종합하여 발간한 것입니다.

고구려인들이 남긴 물질문화인 고고학 자료는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을 줍니다. 당대 사람들이 만든 유물은 그 시대의 사회상과 문화수준, 산업발전의 정도, 그리고 나아가 그들의 의식까지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있는 고구려 유물은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된 유적들에서 나온 것으로서 관련 보고서 발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체적인 파악과 세부적인 정보 등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재단에서는 장기 계획 아래 일본의 여러 기관에 있는 흩어져 있는 고구려 유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고구려 역사와 문화의 재조명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작업을 충실히 진행하여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고구려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께 고구려 문화의 일면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국내외 여러 학자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전폭적인 도움 아래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물 사진 촬영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일본 연구자들과 관계 기관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구논문을 작성해 준 정인성, 요시이 히데오(吉井秀夫) 교수와 유물 자료 제공과 사진 촬영에 도움을 주신 교토 국립박물관의 미야카와 테이이치(宮川禎一), 나라 국립박물관의 이와토 아키코(岩戸晶子) · 요시자와 고(吉澤悟), 나라 문화재연구소의 다카다 칸타(高田貫太) · 오자와(小澤毅), 텐리대학 부속 텐리참고관의 오다기 하루타로(小田木治太郎), 교토대학 부속 인문과학연구소의 오카무라 히데노리(岡村秀典) · 무카이 유스케(向井佑介), 테츠카야마대학 부속 박물관의 모리 이쿠오(森郁夫) · 양종현, 고려미술관의 이수혜 · 후지이 카즈오(藤井和夫) 등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명력 있는 유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사진 촬영을 해 준 김광섭 작가, 일본 현지 조사에 다각도로 도움을 준 도쿄대학 박사과정의 주홍규, 테츠카야마대학 박사과정의 양종현 씨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2009년 2월 19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응 덕

## | 일러두기 |

- 1 이 책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고구려 유적의 조사 과정과 내용을 재검토하고 일본에 소재하는 고구려 관련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 2 이 책에는 일본 소재 고구려 자료 중 관서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정리·수록하였다. 그러나 유물의 양이 많고 소장기관의 사정도 있어 이를 한번에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1·2차로 나누어 현지조사하기로 하고, 이 책에는 우선 1차 조사분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3 관서지역 고구려 관련 유물에 대한 사전조사와 현지와의 협의, 조사의 진행은 김현숙과 정인성이 주도하였으며 도쿄대학의 주흥규, 영남대학교의 김은경·강은진이 보조하였다. 또한 현지조사에서는 각 기관의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배려와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준 연구자를 기관별로 명기하여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고려미술관 : 이수혜, 藤井和夫  
교토대학 부속 인문과학연구소 : 岡村秀典, 向井佑介  
교토 국립박물관 : 宮川禎一  
나라 국립박물관 : 岩戸晶子, 吉澤悟  
나라 문화재연구소 : 高田貫太, 小澤毅  
텐리대학 부속 텐리참고관 : 小田木治太郎  
테츠카야마대학 부속 박물관 : 森郁夫, 양종현
- 4 유물의 사진 촬영은 김광섭이 담당했다. 다만 요시이 히데오의 논고에 들어간 사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요시이 본인이 촬영하였다.
- 5 유물설명은 김은경, 강은진의 보조로 정인성이 작성하였다.

1

논문편

일제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연구 재검토 Ⅱ ————— 10  
 - 烏居龍藏과 關野貞의 集安지역 조사를 중심으로  
 京都大學 總合博物館 所藏 山田鈺次郎 寄贈 ————— 78  
 고구려 기와의 검토

2

유물편

고려미술관 ————— 232  
 교토대학 부속 인문과학연구소 ————— 242  
 교토 국립박물관 ————— 250  
 나라 국립박물관 ————— 256  
 나라 문화재연구소 ————— 266  
 텐리대학 부속 텐리참고관 ————— 272  
 테츠카야마대학 부속 박물관 ————— 296

3

유물설명

고려미술관 ————— 436  
 교토대학 부속 인문과학연구소 ————— 437  
 교토 국립박물관 ————— 438  
 나라 국립박물관 ————— 439  
 나라 문화재연구소 ————— 440  
 텐리대학 부속 텐리참고관 ————— 441  
 테츠카야마대학 부속 박물관 ————— 444

K O G U R Y O R E L I C S I N J A P A N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  
록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일제강점기 고구려 유적조사 · 연구 재검토 Ⅱ

鳥居龍藏과 關野貞의 集安지역 조사를 중심으로

정인성 \_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I. 머리말
- II. 도리이 류조의 조사
- III. 세키노 다다시의 1913년 조사
- IV. 세키노 다다시의 1917년 조사
- V. 그 후의 집안 조사

# I 머리말

**평**양지역의 고구려 유적과 마찬가지로 천도 이전의 수도였던 집안지역에 산재한 고구려 유적 역시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일본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광개토대왕비의 해석 문제를 포함하여 국내성과 환도성의 위치 문제, 왕릉 피장자의 문제 등 고구려사 연구의 핵심 논쟁은 일본인 연구자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집안의 고구려 유적은 광개토대왕비가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일본인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감행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다. 물론 출토된 유물의 많은 수가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에서 열거한 고고학적 현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광복 후에도 고구려의 수도였던 집안과 평양을 둘러싸고 전개된 엄중한 정치 정세는 한국 연구자들의 현지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드물었고 그나마 일본어로 작성된 점에 더해, 현지조사를 경험한 연구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점은 고구려사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를 오랫동안 더디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중국과의 수교로 상황은 나아졌지만 중요유적과 출토유물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다. 일본에 반출된 고구려 관련의 고고자료가 아직도 그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고고자료들이 채집되어 반출된 정황과 당시의 조사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가장 먼저 고구려 유적을 촬영하고 학계에 보고한 사람이 프랑스의 중국학자인 샤반느(E. Chavannes)라고 소개되는 사실(서길수, 2006)은 그러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혹자는 조사 내용과 확보된 자료의 성격이 중요하지, 누가 먼저 조사하고 사진을 찍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학문 외적인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전개된 초기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했던 인물과 함께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고구려 연구사의 흐름을 바르게 정리해 낼 수 없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이때 확보된 고고유물의 자료적 가치와 의의에 대한 판단

도 주체적으로 해낼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일본으로 반출된 고구려 관련 유물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목적과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전개된 일본인 연구자의 고구려 유적의 조사·연구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리된 것으로 지난 해에 작성된 논고(정인성, 2008)에 연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집안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는 이미 1895년에 시작되어 광복 직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한번에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917년까지 인류·고고학자 도리이와 건축·고고학자 세키노가 활발하게 조사한 이 지역에서의 조사는 일시 중단되었다가 1935년에 재개되는데 조사단의 구성과 조사 내용에서 두 시기가 서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 1917년까지의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II

### 도리이 류조의 조사

#### 1. 1895년의 요동지역 조사

집안의 고구려 유적을 가장 먼저 학술적으로 조사한 사람은 도쿄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하던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이다. 그가 집안을 조사한 것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1905년이다. 그런데 도리이가 만주지역을 조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 후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을 통해 요동지역을 일시 획득하자 25세의 젊은 나이로 현지 일본 주둔군의 도움을 받으면서 요동반도를 종횡하는 답사 여행을 감행한다(圖1의 답사경로 참고).

1895년에 이루어진 요동반도에 대한 조사는 인류학적 조사뿐만이 아니라 지질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당시 도쿄대학에서 아이누어를 연구하던 진보[神保]박사의 요동반도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에 도리이가 동행할 뜻을 비쳤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도쿄대학 인류학연구실의 스승인 쓰보이[坪井]에게 부탁하여 일본 인류학회의 파견이라는 형식을 갖추어 요동반도로 향하게 되었다. 그의 수기(手記:鳥居 1953)를 참고하면 여행경비는 당시 잡지 『태양(太陽)』의 발행인인 박문관(博文館)의 오하시

[大橋]가 30원, 국민신문사(國民新聞社)의 도쿠토미[德富]가 20원, 자작(子爵)인 아베 마사코토[阿部正功]가 50원을 원조하였다(鳥居, 1953). 경비를 걱정하는 도리이에게 도쿠토미가 육군병참부(陸軍兵站部)의 지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하였고, 도쿄대학 이과대학에서大本營(大本營)에 요동을 조사하겠다는 원서(原書)를 제출하고 허가를 얻은 것을 보면 당시 연구자들의 요동 조사는 군 당국에서도 그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당시 일본 내에서 요동반도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편이어서 조사여행을 떠나기 전에 도리이가 접할 수 있었던 자료는 도쿄지학협회(東京地學協會)에서 발행한 『만주지도(滿洲地圖)』와 일본군 참모본부가 공개한 『만주지(滿洲地誌)』가 전부였다. 때문에 도리이의 조사는 사전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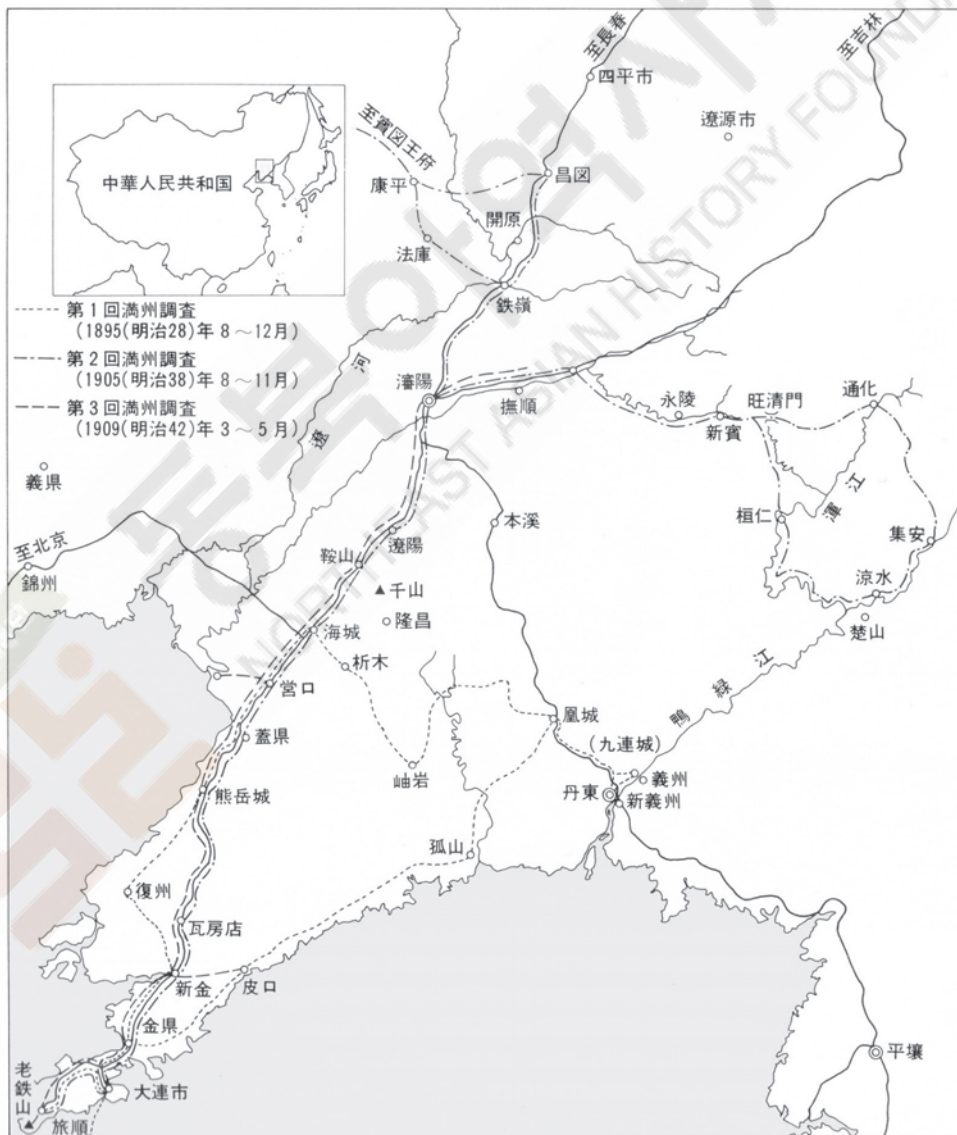


圖1 \_ 도리이 류조의 요동지역 답사 경로 (東京大學總合研究資料館, 1991)

도리이의 요동행은 히로시마에서 시작되었다. 히로시마에서 어용선(御用船)을 타고 도착한 요동은 대련에서 가까운 유수둔(柳樹屯)이었다. 당시 일본군 사령부가 금주(金州)에 있었기 때문에 도보로 금주까지 이동했는데, 주변은 거의가 고랑밭이고 그 사이로 민가가 띄엄띄엄 보였다고 한다. 8월 중에 금주에 도착한 도리이는 곧바로 군사령부를 방문하여 요동을 방문한 뜻을 전했고 이에 고급부관인 오니시[大西]라는 1등군의[軍醫]를 소개받아 그와 함께 제반 조사여행을 준비하였다(鳥居, 1953).

먼저 금주에서 도보로 여순까지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해군 소장(小將)의 배려로 군용선으로 산동성의 유공도를 짧은 기간 조사하기도 하였다. 금주로 돌아온 다음 본격적인 북방행을 시작하여 보란점(普蘭店)에 도착 복주(復州), 웅악성(熊岳城), 개평(蓋坪), 대석교(大石橋), 해성(海城)을 지나는 경로로 답사를 진행했다. 도리이가 요동에서 처음으로 고고유물을 발견한 것은 웅악성에서이다. 도중 보란점에서도 통역관이 석기를 발견했다는 제보를 하였으나 당시 그가 일본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재질의 것이어서 믿지 않고 있던 터였다. 보란점에서 석창을 발견하면서 만주(滿洲)에도 선사시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물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때의 감격은 대단한 것이어서 그 후 도리이의 연구방향이 정해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鳥居, 1953).

또한 웅악성 근처에서 오수전 문양이 있는 전(塼)을 발견했는데, 당시 도리이는 이를 한족(漢族)이 아니라 고구려 종족이 남긴 유물이라고 생각했다. 1896년에 작성된 논문에는 1895년에 요동지역 답사에서 확인한 다수의 전곽(실)묘(算槨(室)墓)마저도 모두 고구려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鳥居, 1896a·1896c). 이는 『동경인류학잡지(東京人類學雜誌)』 123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더욱 분명해진다(鳥居, 1896a). 도리이가 이들 벽돌을 고구려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현지의 중국인들이 이를 고려전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사실에 근거한다. 도리이는 웅악성을 포함한 발해만 부근과 황해 부근에서 다수의 문양전을 확인했는데 이를 『당서(唐書)』 고려전(高麗傳)에 나오는 와(瓦) 기사와 관련시켰다. 한발 더 나아가 북삼십리보(北三十里堡)의 광대(墩臺)와 금주성(金州城)에서 확인된 문양전은 당장(唐將) 설인귀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요동으로 데려온 고구려 공인이 제작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고구려인들은 이들 전(塼)으로 무덤과 건물과 성곽을 만들었다고 판단했으며, 같은 문양의 전(塼)을 사용해서 만든 무덤을 조선총[전실묘, 朝鮮塚(塼室墓)]이라 하였다. 또한 전실묘에서 출토된 토기류를 고구려 토기로 판단하여 이것이 일본이나 한반도 내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소위 축부토기(祝部土器)<sup>1</sup>와 같은 종류의 것이라 여기고 당시 조선에

1 삼국시대의 경질토기나 일본 고분 출토의 스에키나 도질토기를 말하는 것이다.

서 제작되던 토기(옹기류)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 후 황해에 면한 홍수성(紅水城)에서 무문전(無紋搏)을 발견하고는 고구려의 전을 기하학 문양전과 무문전으로 2분하였으며(鳥居, 1896a), ‘五十’이라는 문자가 새겨진 문양전은 고구려가 중국 화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판단했다. 도리이는 요동지역에서 확인되는 문양전(紋樣搏)이야말로 고구려인과 관련되는 문양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자료가 된다고 판단하여 연구방법까지 제시했다. 즉 전의 문양면을 구성하는 문양 요소를 여러 개의 단일분자(單一分子)로 분해하고 이들이 모아진 문양을 집합분자(集合分子)라고 하여 그것을 고구려 문양분자(紋樣分子)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현대 고고학의 유물 분류법에서 구사되는 속성분류와 이를 조합하는 형식분류법(型式分類法)과 통하는 점이 있어 놀랍다. 또한 고구려 전의 문양조합을 산포문양(散布紋樣), 병렬문양(並列紋樣), 연속문양(連續紋樣)으로 구분하고 고구려인들이 가장 좋아한 문양은 병렬문양이라고 하였다(鳥居, 1896a).

뿐만 아니라 요동지역에서 발견한 많은 수의 석성도 고구려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 역시 현지인들이 이를 고려성(高麗城)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고 또한 광개토대왕비 등에 성(城)과 관련된 기술이 많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확인되는 산성 역시 고구려성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요동지역에서 확인되는 전축(搏築)의 성(城)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고구려성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도리이가 만주의 여러 유적을 한족(漢族)이 아니라 고구려와 관련시킨 사실은 대단히 흥미로운데, 당시 중국(청)과의 대립이 지속되는 정세에서 만주라는 공간을 중국과 구분하고자 했던 학문 외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도리이는 오늘날의 조선 인민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고구려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언급하고 있음이 주목된다(鳥居, 1896a).

## 2. 1905년의 집안 조사

한편 도리이가 집안을 조사한 것은 러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만주, 즉 중국 동북지방을 완전히 손에 넣은 1905년이다. 당시 군경의 도움을 받은 도리이는 요동(遼東)의 여러 곳을 답사하였는데, 이때 처음으로 집안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德島縣立博物館, 1993).

도리이는 그의 수기(手記)에 1905년의 만주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두고 있다. 여기에는 그가 만주를 다시 답사하기 전인 3월에 만주에서 육군 관련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도쿄대학의 인류학 교실을 방문하여 요동에서 채집한 토기를 보여준 일이 적혀 있다. 이것이 만주 답사를 다시 마음 먹은 계기라 하였으나 실제의 조사에서는 집

안 답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鳥居, 1953). 물론 1895년의 조사에서는 선사토기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던 터라 일본 민족의 기원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도리이가 흥미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문적 욕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1895년의 조사에서 선사토기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일본의 조몬토기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조사 과정에서 일본의 조몬토기와 닮은 문양을 가진 토기만을 발견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문양 없는 선사토기가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다(鳥居, 1953).

그러던 즈음 마침 도쿄제국대학은 러일전쟁으로 확보한 만주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교원을 요동으로 파견할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은 곧장 실행에 옮겨져 문과대학에서 이치무라, 공과대학 건축학 연구실에서 이토츠히타, 그리고 이과대학에서는 이미 만주에 대한 조사 경험이 있는 인류학교실의 도리이를 파견하게 된다. 러일전쟁 직후에 국가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제국대학의 학자들을 만주에 파견한 것을 보면 서구 열강과 마찬가지로 제국을 꿈꾸던 일본이 무력으로 획득한 만주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다.

9월에 도쿄를 떠난<sup>2</sup> 3명은 우시나[宇品]에서 같은 배를 타고 요동으로 향했는데, 대학의 교원이 된 도리이에 대한 대우는 1895년<sup>3</sup>과 사뭇 달랐다(鳥居, 1953).

요동에 도착한 도리이는 10년 만에 러시아 풍의 도시로 바뀐 여순의 면모에 놀라며 일본이 접수한 요동지역을 본격적으로 답사한다. 당시 그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만주 민족의 인종학적인 연구였는데 이를 위하여 체질과 언어, 토속과 심성을 집중 조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대의 각종 유적과 전세 유물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주변 지역의 유적과 고고유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는 등 그가 관심을 가진 분야는 실로 다양했다.

그가 요동에서 가장 먼저 조사한 곳은 석기가 출토되었다는 보란점 주변의 유적이었다. 여기에서 석기와 각종 토기를 채집한 도리이는 1895년에 문양진을 채집했던 웅악성을 다시 방문하였는데(鳥居, 1953), 조사 당시 여전히 이들 유물을 고구려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러일전쟁으로 일본군이 장춘(長春)까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도리이는 1895년 때보다 더 넓은 지역을 조사할 수 있었다. 1903년에 러시아가 설치한 철도를 이용하여

2 「滿洲調査復命書」에는 8월 8일에 도쿄대학의 명령으로 도쿄를 출발하여 동월 18일에 대련에 도착하였다고 적고 있다.

3 1895년의 조사에서는 특별한 직위가 없었기 때문에 요동에 도착할 때까지 감관으로 나올 수도 없는 처지였다.

심양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은 전쟁을 끝낸 일본군 사령부의 주둔지가 설치된 곳이었다. 도리이는 사령부의 명령을 받아 정해진 숙소에서 체재하며 그들의 지시로 청령궁(淸寧宮) 등의 유물을 조사하였다(鳥居, 1906). 심양의 청령궁에서 청대(淸代)의 각종 문서와 소장품을 조사한 도리이는 흥경으로 조사지를 옮겨 비슷한 성격의 유적과 유물을 조사하였다.

그 후 다시 심양으로 돌아온 다음 드디어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조사를 결심한다. 고구려 유적이라고 해도 그 중심은 광개토대왕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884년도에 일본군 장교였던 사카와 가케노부가 광개토대왕비를 발견하면서 촉발된 일본 내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특히 1889년 광개토대왕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성과인 『회여록(會餘錄)』이 발간되면서 집안 고구려 유적은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내성과 환도성의 위치 논쟁도 학계에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도리이의 집안 조사를 도운 것은 주둔군 장군이었던 가와무라[川村]와 고급 부관인 미우라[三浦] 대좌였는데, 그들은 집안으로 가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호위군인은 물론 통역과 중국인 마부까지 지원받고 중국 마차에 군에서 마련해 준 1개월 분량의 식량과 짐을 싣고 흥경을 출발하였다. 도리이는 여행 도중에 흥경과 통화 사이의 지리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 통화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회인(懷仁, 환인)과 통화 사이는 그들이 말하는 비적(匪賊)들이 출몰하는 곳으로 호위군인과 함께 조사단이 통과한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중국인이 모여들어 행동을 같이했다(鳥居, 1953). 통화에서 백두산의 지맥에 해당하는 험준한 고개를 넘어 압록강으로 나오는데 3일을 소비한 도리이는 압록강을 따라 내려와 집안에 도착해서 3일간에 걸쳐 고구려 유적을 조사한다(鳥居, 1909).

### 광개토대왕비

도리이가 처음으로 집안평야의 광개토대왕비 앞에 섰을 때, 이미 비석에는 탁본을 만들기 위한 나무 발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것은 당시 유명세를 탄 광개토대왕비의 탁본이 수시로 작성되고 있었던 정황을 잘 말해 준다. 그는 비석의 단면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왜곡이 있음을 지적하고 석갈(石碁)이나 선돌로 부를 수도 있다고 하였다(鳥居, 1953).

1909년의 강연을 옮긴 글(鳥居, 1909)에는 당시의 간단한 조사보고가 실려 있는데 이를 부분적으로 정리해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광개토왕의 고비는 하나의 긴 사각형 화강암으로 이루어졌는데, 높이는 2丈 정도이고

폭은 정면이 5척이며 그 오른쪽은 폭이 4척 8촌, 왼쪽은 5척, 후방이 6척 5촌으로, 비의 臺石은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알 수 없다. 정면은 압록강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큰 돌을 여기까지 운반한 것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동 비문 중에 “永樂五年, 歲在乙未 ……”라고 적힌 부분을 참고하면 지금의 鴨家河[모아강] 부근에서 人馬를 사역하여 끌어 온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羊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풍습이겠지만 지금으로 보면 이상하다. 오른쪽의 大塚에 마주하여 이 大石碑가 서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가장 조화롭다. 고구려 연구에는 이 古墓와 비석을 따로 떼어 살핀다면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조사 당시 도리이는 광개토대왕비를 태왕릉과 관련시키고 있음이 주목된다.

한편 광개토대왕비를 기술하기 전에 고구려와 일본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 주목되는데, 이미 조사 전의 선행연구를 통해 신묘년 기사를 일본이 한반도로 건너와 고구려와 대등하게 전쟁을 치른 관계로 이해하며, 아울러 신공황후의 신라 정복설까지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鳥居, 1909).

이러한 사실은 도리이가 당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집안 지역을 기어이 조사한 동기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 ❁ 집안의 고구려 고분

광개토대왕비를 본 다음에는 장군총을 답사하고 주변의 고분을 둘러본 정황이 수기(手記)에 나타나 있다. 그는 당시의 조사에서 고구려 고분을 1,300기까지 확인했는데 자세히 조사하면 1,400~1,500기의 고구려 고층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鳥居, 1953).

또한 도리이는 집안의 고구려 무덤을 토총과 석총으로 나누고 석총은 평면 원형인 것과 방형인 것으로 구분하였다(鳥居, 1909). 그중 피라미드 형의 장군총이 가장 크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장군총**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7단의 무덤인데 위에서 3단계에 석곽이 있고, 그 속에는 2개의 석관이 존재한다. 이 석관을 만든 돌은 석회암처럼 보인다. 이 두 개의 석관은 깨진 상태이다. 이 두 개의 석관은 왕과 왕비의 것일 것이다. 석곽 내벽을 쌓는 방법은 일본의 고분과 많이 달라서 아주 규칙적이고, 화강암을 연마한 것처럼 아주 훌륭하게 조립하였다. 그리고 무덤은 이미 말한 것처럼 전부 화강암으로 쌓았는데, 이 석단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 지탱석을 두고 있다. 이 무덤을 위에서 보면 큰 상자를 아래에 두고 점점 작은 상자를 포개 쌓은 것 같다. 그 위쪽에는 기와를 얹은 집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포목이 있는 와편이 있다. 이 커다란 고분은 일본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형태이다.

**태왕릉**<sup>4</sup> 그리고 또 하나의 장군총이라고 불리는 고분이 있는데, 지금 무너져서 형태를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그림과 같은 것이다. 앞의 고분과 비교하면 그 형태를 잘 알 수 있다. 그 하부에 커다란 돌을 세워 놓은 것은 여러 단으로 쌓은 돌이 무너지지 않게 위함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윗부분의 석곽은 앞의 고분과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이 장군총이라는 것은 원래 앞의 것과 같은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위 석곽의 횡단면을 보면 도면과 같다. 폭은 4척 8촌, 길이는 1장 5척, 이 (석곽)벽의 조립 형태도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잘 보인다. 이런 종류의 무덤도 그 속은 흙과 작은 돌로 이루어져 여기에 화장암을 층층이 쌓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무덤에서 2~3丁 정도 떨어진 곳에 고량밭이 있는데 그곳에는 주위가 7척이고 8각으로 된 대석이 있다. 이 부근을 조심스레 살펴보면 오래된 기와가 발견된다. 이곳은 옛날 殿堂이 있었던 흔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변에는 회백색의 토기와 같은 파편이 많이 산포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주목해야 될 것은 장군총에서 출토된 전이다. 그것은 육군인 모씨가 도쿄 제실박물관에 기부한 것인데, 이 塹에는 “願大王之墓安如山固如丘”라고 적혀 있다. 아마도 호태왕 무덤의 묘명인 것으로 보이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이것이 이곳에서 나왔는지 앞의 무덤(지금의 장군총)에서 나왔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 두 개의 무덤 중에서 하나가 호태왕의 무덤이라는 것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할 수 있다.

우선 장군총의 상부에 기와집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과, 장군총과 지금의 태왕릉 중 하나가 호태왕의 무덤일 것이라고 판단한 최초의 연구자가 도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태왕릉에서 가장 먼저 채집된 기와를 군인이 도쿄제실박물관에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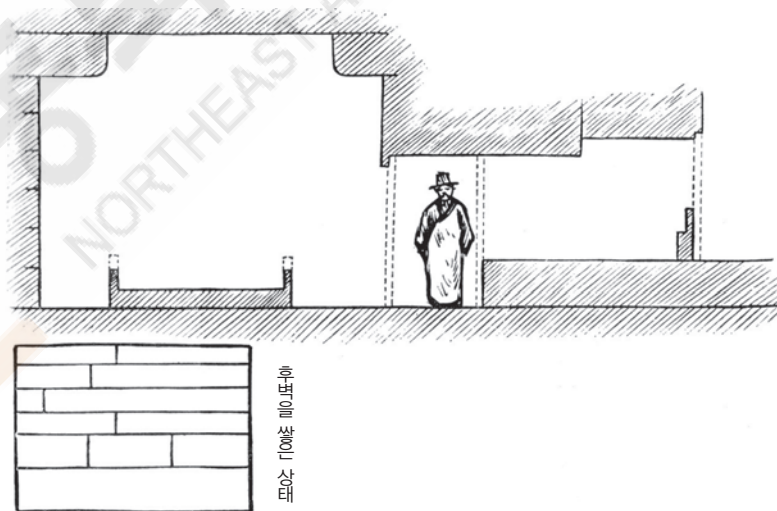


圖2 \_ 도리이 조사단이 그린 장군총 석실 단면(갓을 쓴 조선 사람을 그려 두었다)

4 도리이는 이를 태왕릉이라 하지 않고 장군총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도리이가 조사할 당시 현지인들은 지금의 장군총과 태왕릉을 모두 장군총이라 부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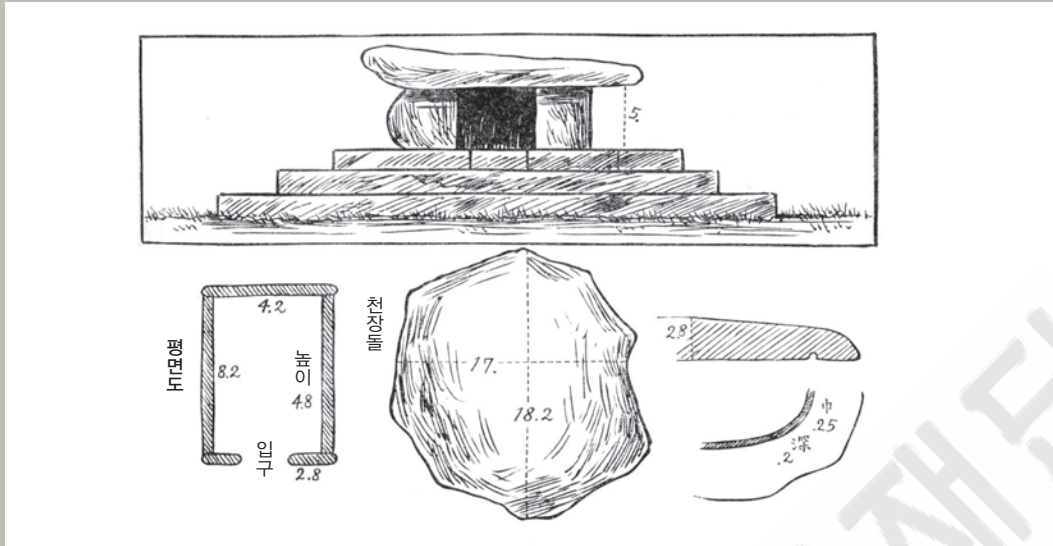


圖3 \_ 장군총 배총 약측도(鳥居, 1909에서 전제 - 이하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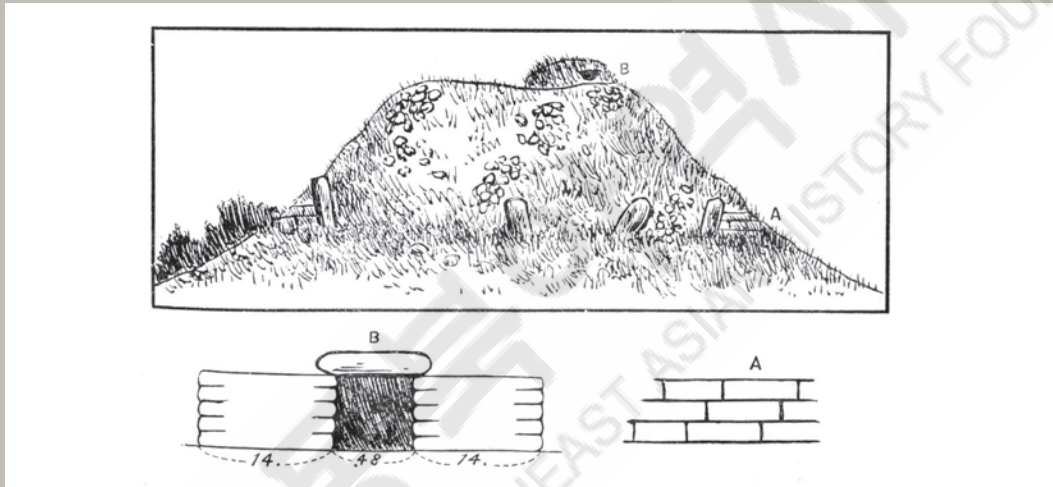


圖4 \_ 도리이 조사단이 그린 태왕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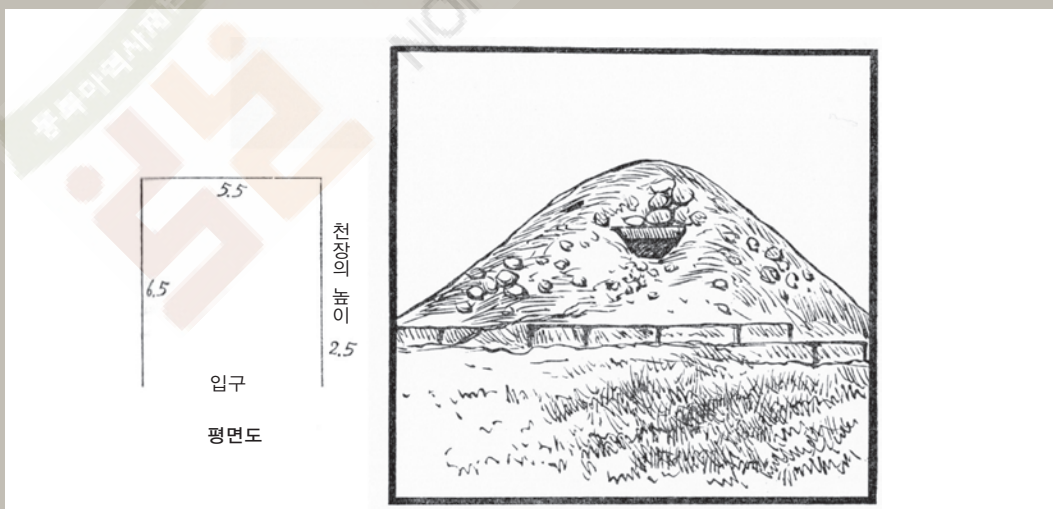


圖5 \_ 기단식 토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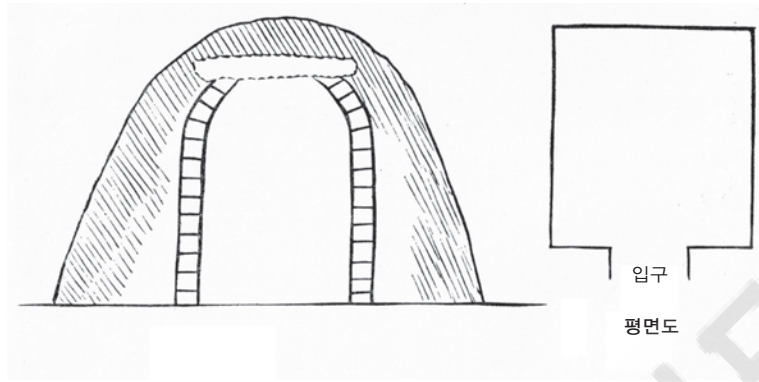


圖6 \_ 연통형 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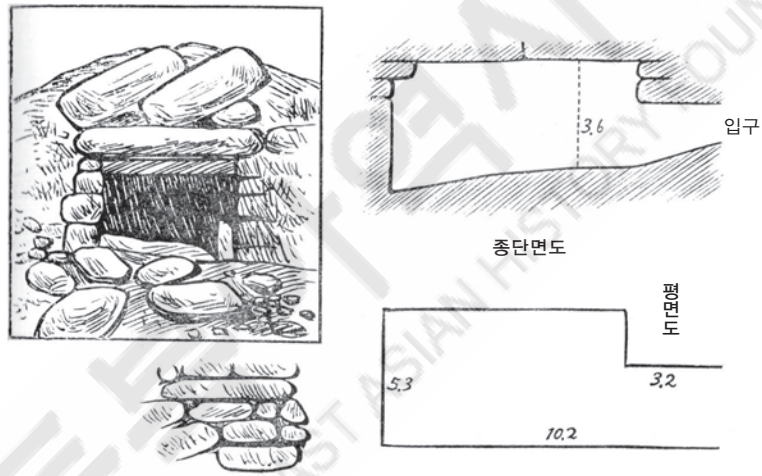


圖7 \_ 횡혈식 토총(봉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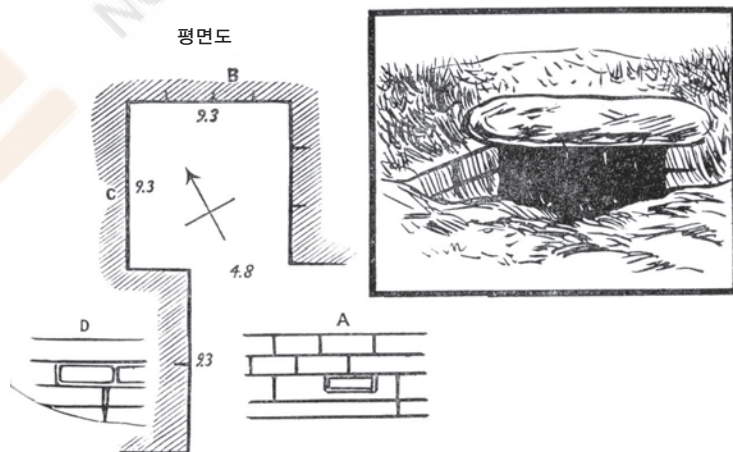


圖8 \_ 수혈식 토총(봉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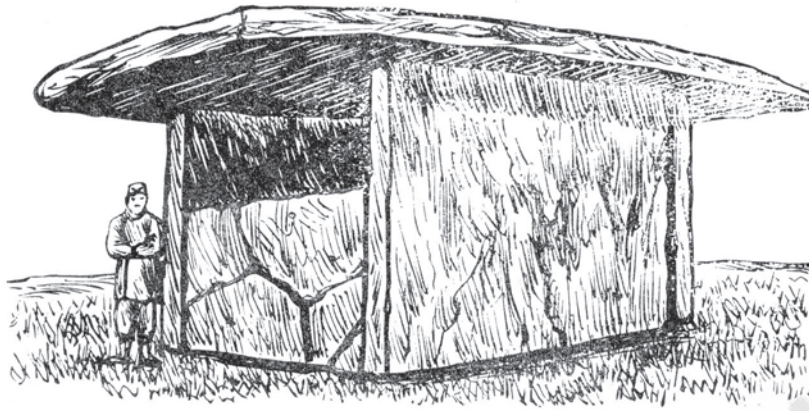


圖9 \_ 도리이가 장군총 배총과 비슷하다고 여긴 탁자식 지석묘

했다는 사실도 주목되는 바이며, 현지에서 기와를 채집한 정황은 확인되지만 도리이가 스스로 명문전을 확인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도 눈에 띈다. 그리고 이러한 대형 무덤이 고구려의 능묘(陵墓)라 판단하고 이를 문헌사가와 같이 연구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하부에 기단을 가지나 상부가 봉토인 형태의 무덤을 일본의 고분과 유사하다고 그중 하나를 도면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지금 집안 현지의 어떤 무덤인지는 알 수 없다. 조사 당시 이미 파괴(도굴)되어 석곽 입구가 반 정도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장군총의 배총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기록(圖3 참조)하고 있는데, 이를 유럽의 스톤헨지와 비교하였다. 그 형태를 기술한 다음 전방의 장군총과 다르지만 하부 형태는 닮았다고 하였으며 장군총을 간략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상석의 아래 부분 주연(周緣)을 따라 홈(圖3 참조)이 있음을 지적하고 문을 설치하거나 비가 내부로 스미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 생각했다. 재미있는 것은 도리이가 이를 요동과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는 지석묘와 관련지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요동반도의 절목성(折木城) 부근에서 그가 발견한 탁자식 지석묘의 도면을 게재하여 배총과 비교하고 있는 것(圖9 참조)이다. 이미 요동반도에서 탁자식 지석묘를 관찰한 경험이 있는 도리이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 고고학에서 실물자료에 대한 관찰경험이 새로운 자료를 해석하는 데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지를 역설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키노가 1909년에 평양에서 처음으로 전실묘를 조사하고 이를 고구려 무덤이라고 판단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외에 자연돌로 벽석을 만들고 천장을 2장의 판석으로 덮은 횡혈식 석실을 소개하고(圖7 참조) 이것이 일본의 고분과 가장 유사하다고 하였다. 또한 입구가 두 군데이

지만 천장석을 같은 뚜껑돌로 덮은 고분을 소개하고 이는 석재 부족이 원인이라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석실의 면적이 좁지만 천장이 매우 높은 고분(圖6 참조)을 발견하고 이를 연통형 고분(煙筒形古墳)이라고 이름지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도리이가 설명하는 고분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분류된 고분은 집안 뿐만이 아니라 압록강을 따라 그 하류와 환인까지의 사이에도 많다고 한 것을 보면 집안조사 후의 귀로(歸路)에서도 많은 고구려 고분을 발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집안의 여러 곳에서 각종 건물지를 확인하고 초석과 유물이 산란되어 있던 곳에서 와전편을 채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길을 이용하여 흥경으로 돌아간 도리이는 가와무라 장군과 미우라 부관에게 인사를 하고 심양으로 돌아가 그 주변을 다시 조사하였다.

그 후 요양에 들러 백탑(白塔) 등을 조사하던 도중에 근처 군병원의 이토[伊藤] 군의 관이 찾아와서 병원 부지 옆에 벽돌로 만든 유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곧바로 군의 허가를 얻어 조사한 결과 이것이 전실묘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내부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때 한경(漢鏡)과 토기(土器) 그리고 오수전(五銖錢) 등이 출토되어 요동지역의 전실묘가 한족(漢族)과 관련 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된다. 이는 학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실로 요동지역의 전축(塼築) 유구가 고구려가 아니라 한(漢)문화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물론 이전 웅악성과 요동의 각지에서 채집한 문양전도 고구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



圖10 \_ 요양에서 전곽묘를 조사하는 도리이(오른쪽 끝)

러한 조사 경험은 세키노 다다시가 1909년에 발굴한 평양의 석암리 전실묘를 고구려 고분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비판하고, 이를 한(漢, 낙랑군)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경험 증거가 되었다(정인성, 2006).

그 후 1907년에는 프랑스의 중국 학자 샤반느가 집안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관련 유적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때의 조사내용은 「북지나고고도보(北支那考古圖譜)」에 수록되었는데, 최근 서길수가 그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였다(서길수, 2006). 다만 서길수는 1907년에 샤반느가 촬영한 집안의 고구려 고분과 광개토태왕비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서길수, 2006) 이는 잘못된 이해이다. 1905년에 도리이가 촬영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sup>5</sup> 또한 샤반느가 『통보(通報)』에 게재한 논문도, 실은 도리이의 1905년조사 결과보고인 「남만주조사복명서(南滿洲調査復命書)」를 일본 방문 중이던 샤반느가 읽고난 후 인용하겠다는 의사를 도리이를 찾아와 직접 타진했다고 한다(鳥居, 1909). 즉 샤반느의 1907년 조사는 도리이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조사는 아니지만 이후 1909년에 도리이는 다시 한 번 요동반도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 조사를 통해서 요동지역의 전축 유구가 한문화(漢文化)와 관련 있다는 그의 인식은 확고한 것이 된다. 그것은 이 조사에서 조사한 다수의 전실분에서도 한식(漢式)유물이 다수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 3. 1912년의 집안 조사

1912년에는 도리이에 의한 집안 고구려 유적 2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때의 조사는 「조선고적조사사업(朝鮮古蹟調査事業)」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같은 집안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조사 성과가 만주에 대한 조사·연구 성과 목록에서 빠지고 조선 고적 조사와 관련된 목록에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여기서는 우선 도리이가 조선고적조사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다. 1912년경의 도리이는 3차에 걸친 만주 조사로 제법 명성을 얻게 되어 여러 학회에서 강연하고 잡지에 기행문을 실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가 몽고에서 조사한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프랑스의 중국 연구가인 샤반느에게 알려져서 『통보』에 소개되었고 그 덕분에 유럽 유학을 권유받기도 했다. 그러나 도리이는 그의 학문이 동

5 1896년의 조사에서는 카메라를 사용한 기록이 없고 사진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1904년의 대만 조사에서 학교에 부탁하여 처음으로 카메라를 구입하였으며, 스스로 사용법을 배워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물론 1905년의 조사에서도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그 결과물이 그의 논고의 삽도로 사용되고 있다.

양학이기 때문에 충실한 현지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당장 유학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당시 도쿄에서 『세계(世界)』라는 잡지를 간행하고 있던 니미야(二宮)를 만나게 된다. 니미야는 당시 군부 중요 인물의 시베리아 횡단을 후원하고 야마가타(山縣) 공작의 비서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위층과 면이 넓게 통하는 사람이었는데, 도리이는 이 『세계』에 몽골 여행과 관련된 글을 여러 차례나 실고 있었다. 이는 러일전쟁 후 일본에서도 서양인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오지(奧地) 탐험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인기가 높아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런데 이 니미야가 초대 조선총독이 된 데라우치(寺內)와 아주 친밀한 사이였던 터라 조선에 대한 조사를 희망하던 도리이의 조사 의향을 전달한 것이 그가 조선고적조사에 참가하는 계기가 되었다(鳥居, 1953). 즉 데라우치의 배려로 집안유적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1910년 여름에 조선에 대한 간단한 예비조사를 마친 도리이는 1912년에 2차 조사를 감행한다. 조사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화가인 사토(佐藤)와 사진가인 사와 슌이치(澤俊一)가 도리이의 조사를 보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주 경찰서에서는 고성건이 통역으로 파견되었고, 헌병대에서 후지이와 세키타니를 조사단에 합류시켜 주었다(鳥居, 1913). 특히 세키타니는 집안에서 조사 호위를 맡은 것으로 여겨진다. 도리이는 1912년 10월 10일에 도쿄의 신바시를 출발해 16일에 경성에 도착했고 21일에 경성을 출발해 기차로 심양까지 간 후 다시 기차로 여순으로 가서 총독인 후쿠시마 장군에게 인사하고 그의 저택에서 숙박하였다(鳥居, 1913). 이후 후쿠시마의 지원으로 기차로 장춘으로 가서 주변을 조사하고 길림의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건판사진자료(國立中央博物館, 1997)는 당시의 동선(動線)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1913년에 『동양시보(東洋時報)』에 실린 「만주(滿洲)에서 북조선(北朝鮮)으로의 여행」을 통해 조사 내용을 어느 정도 복원해낼 수 있다.

이를 분석하면 우선 여순 부근에 도착한 도리이는 그 부근의 선사시대 유물을 조사하고 철령으로 이동한다. 철령 발권산에서 각종 석기와 토기 등을 관찰하고 명도전(明刀錢)과 오수전(五銖錢)과 같은 유물을 조사하고 사진을 촬영하며 답사한 정황이 확인된다. 그런 다음 개원으로 가서 석탑과 성지(城地)를 수집하고 장춘으로 이동하였다. 개원과 철령 부근은 몽고와 남만주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으로 판단하고 인종학적인 측면에서 선사 이전의 유물을 조사하는 한편 요금대의 유적도 살폈다고 한다(鳥居, 1913).

군에서 지원한 짐을 마차 3대에 나누어 싣고 도착한 장춘에서도 석기시대의 유적을 조사하고 서풍을 지나 길림성 매하구시(梅河口市)에 있는 해룡성으로 이동하면서 조사를 계속했다. 그런 다음 길림성 유하현(柳河縣)을 들러 토성을 조사하고 통화에 이르게

된다. 이때 통화현에서는 혼강의 전경과 고려성 산성(山城), 삼십청리 고성(古城)의 원경 등을 찍었다(國立中央博物館, 1997). 통화현을 지난 조사단은 환인현에 도착하여 여러 지점의 고구려 유적을 조사한 정황이 확인된다.

우선 고려묘자 고분군의 전경을 찍고 여러 곳에서 고구려 고분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려묘자 부근은 14~15년 전에 대대적인 삼림채벌이 이루어진 곳인데 그 과정에서 다수의 고분이 발견되었다. 석마합달과 조마자구구 등지에서 다수의 고구려 고분을 발견한 도리이는 오룡산성, 즉 오녀산성의 전경을 찍고 산성을 오르게 된다(國立中央博物館, 1997). 오녀산성에서는 혼강과 환인을 내려다보면서 전경사진을 찍고 우물지와 건물지를 조사하였다. 그런 다음 서문지와 산성의 동쪽 허리를 오가면 조사하고 동쪽 사면과 서쪽 사면의 고분군을 조사한다.

포수자(泡水子) 고구려 고분을 조사하면서 오녀산성의 원경촬영을 잊지 않았으며 흑혈사에서 고구려 고분을 조사하고 사진촬영하는 것으로 환인에서의 조사를 마무리한다.

조사 후 도리이는 환인에서 조사한 오녀산성을 고구려 국내성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문헌비고(文獻備考)』에서 위나암성의 ‘위나’와 현지 중국인들이 부르는 ‘오룡’이 같은 발음인 것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오녀산성 내에서 확인한 우물지를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등장하는 위나암성의 우물기사와 관련시켜 이를 확신하였다. 한편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에서 환도성으로 지목한 홍석립자 주변을 조사하고 주변에 성의 흔적



圖11 \_ 노령고개를 넘는 도리이 조사단 (東京大學綜合研究資料館, 1991)

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부이강과 혼강의 합류점에 있는 간만산 산성은 졸본성일 가능성이 있지만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국내성과 졸본성이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할 것이기에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다(鳥居, 1913).

환인에서의 조사를 끝내고는 집안으로 향하는데, 신개하를 따라가다 1905년과는 달리 노령고개를 넘었다(圖11 참조). 그런 다음 압록강을 따라 걸어 외차구문을 지나 유수림자(榆樹林子)에 당도하여 그곳의 고구려 고분을 조사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된 유리건판은 유수림자에 이르기까지는 강연에서 도리이가 밝힌 동선과 그 순서가 잘 일치한다. 그런데 건판번호 '120176' 부터는 촬영년도가 1913년으로 바뀌고 도리이의 조사 동선과 다른 것이 확인된다. 즉 1913년의 강연에서는 유수림자를 조사한 다음 12월 27일에 초산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으나(鳥居, 1913), 사진자료는 장군총이 뒤를 잇는다. 당시 도리이는 유수림자에서의 조사를 마친 다음 1월 4일까지 초산에 머무르면서 주변의 고구려 유적을 조사하고 위원(渭原), 고산진(高山鎭), 벌등진(伐登鎭) 등에서 고구려 유적을 답사하고 1월 5일에 초산을 떠나 압록강변을 걸어 집안으로 들어간다(鳥居, 1913).

집안에서의 동선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국립중앙박물관의 건판 '120176' 이 도리이 조사단의 촬영이라면 장군총을 가장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 호태왕비, 태왕릉으로 이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도리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913년에는 도리이가 아니라 세키노가 집안을 조사한 해이기 때문에 목록에 나오는 장군총 이하 사진의 조사 주체가 누구인지는 추가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도리이는 1913년의 강연에서 집안평원의 지리적 특징을 설명하고 호태왕비가 서 있는 동강(東崗)에서 마선구에 이르는 구역에 거의 1만 기에 가까운 고분이 있다고 하였다. 앞에서 살폈듯이 1905년의 조사에서는 1,400기 정도라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집안평원을 비교적 꼼꼼히 조사했음을 뒷받침한다. 강연에서의 장군총에 대한 설명은 1905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벽면의 질석을 짜 맞추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잘라내고 돌을 끼워 넣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석실 벽면에 무엇인가를 그린 것처럼 잘 갈아냈다고 했다. 무덤 위에서 많은 수의 기와가 채집된다고 기록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는 비각을 세운 증거라고 하였다. 또한 주변의 대형묘를 왕과 왕족의 무덤으로 이해하고 그 상부에서 채집되는 기와를 근거로 장군총과 마찬가지로 무덤 위에 비각을 새웠던 흔적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개원(開原)에서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조사한 수많은 고분에서 전실묘(塼室墓)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과 집안에서 확인되는 1만 기 이상의 고분에서 전실묘가 없다는



圖12 \_ 관구검 기공비의 탁본 (『조선고적도보』 I)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고구려 고분에는 전실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광복 후에 발굴되어 최근 연구자들의 주목을 모으고 있는 우산하 3319호는 기단식 적석총이지만 매장주체부가 전실묘이다. 1912년의 도리이가 이를 확인했다라면 아마도 크게 고민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대동강 유역의 고구려 고분과 비교 연구할 필요를 역설하였다. 이는 세키노 다다시가 1909년에 조사한 평양 서암리의 낙랑 전실묘를 고구려 고분이라 주장한 것을 다분히 의식한 발언임이 분명하다.

장군총에 이어 태왕릉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1905년에는 이를 장군총으로 불렀던 터이나 1913년의 강연에서는 이를 태왕릉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태왕릉과 비문의 서쪽에 절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반느의 사진자료 19에 보이는 기와건물일 가능성이 높다(서길수, 2006). 1912년 당시 태왕릉의 주변은 토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토벽의 동쪽에 붙어서 호태왕비가 서 있었다고 한다. 도리이는 태왕릉과 호태왕비가 인접해 있다는 점과 무덤에서 ‘大王(대왕)’이 들어간 명문전이 발견되는 점을 들어 이 무덤을 광개토태왕의 무덤으로 판단하는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1905년의 조사에서는 명문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일본군이 채집하여 제실박물관에 기증한 명문전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고 한 발언과는 다른 것이어서 도리이가 1912년에 태왕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문전을 채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이번 일본 현지 조사에서 확인한 나라문화재 연구소 소장 도리이 기증 문자전이 1912년의 조사에서 수집된 것임을 증명해 준다.

1912년의 조사에서는 환도산성과 국내성, 그리고 관구검 기공비가 출토된 소관석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913년의 강연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들 유적에 대해서는 1914년에 『사학잡지(史學雜誌)』에 발표한 글에서 설명하고

있다.

우선 환도성에 대해서는 그가 조사를 떠나기 이전에 발견된 관구검 기공비를 의식하여 그 출토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도리이는 비석이 발견되었다는 지점이 환도성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현지를 찾는다. 그런데 답사 결과 판석령은 한군데가 아니었다. 한 곳은 소판석령이고 다른 한 곳은 대판석령이었다. 그런데 이 대판석령이라는 곳은 통화에서 집안으로 나오는 길이고 소판석령은 환인에서 혼강과 부이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경과하여 집안으로 오는 높은 고개라는 지리 관계를 파악하게 되었다. 먼저 도리이는 수소문하여 비석 발견에 관여했다는 집안현의 병졸을 찾아내서 대동하고 대판석령을 올랐지만 그곳은 고비가 나온 곳이 아니었다(鳥居, 1914). 그곳에서 다시 청취조사를 한 결과 비석이 나온 곳은 반대쪽의 소판석령이라고 하였다. 결국 도리이는 대판석령의 뒤로 내려와 혼강과 부이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흐르는 신개하의 상류지역으로 내려와 다시 산기슭을 올라 소판석령의 비석 출토 지점을 확인하였다.

비석의 출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소유자인 오광국은 러일전쟁 때 도로 개수 과정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였으나, 오래 전에 소판석령 주위를 밭으로 경작하는 과정에서 비석이 출토되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당시 이를 발견한 농부는 비석의 글자를 알지 못했지만 신비하게 여겨 이를 출토지의 큰 나무 밑에 세워 두었다. 그 후 이 고개를 왕래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를 우르러 예배하는 자가 나타났다. 그 소문이 퍼지자 곧바로 지역 유지인 오광국이 비석을 손에 넣은 것이다.

비석이 출토된 곳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관구검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비석을 세웠다고 보았다. 현지조사에서 도리이는 주변에서 또 다른 파편을 수습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본인도 주변을 조사하였으나 눈이 많이 쌓였던 터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비석이 파괴된 것은 수도를 회복한 고구려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구검비의 출토지를 확인하고 그 지세를 둘러본 도리이는 그 곳을 문헌상의 환도산으로 확신했다. 그것은 관구검이 마차를 매단 말을 부려서 환도에 올랐다는 기록과 지세가 부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판석령에서 환도에 이르는 길에서 재갈과 화살촉 그리고 오수전을 채집한 사실도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데 힘을 보탤었다.

소판석령을 답사한 도리이는 환도성의 위치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수정해서 환도성은 결코 소판석령이 있는 환도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산성하 고분군을 내려다보고 조성된 산성자 산성이었다. 산성자 산성을 답사한 도리이는 입지가 천혜의 요새이고 성의 내부에 석단이 있는 궁전지가 있으며 그 내부에서 고구려 기와가 출토되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또 성벽의 내부에서 연못지를 발견하고 망루의 흔적을 발견하였으며 수백 기의 고분이 성의 내부에 축조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성벽의 쌓는 방법이 지극히 고구려적이라 하여 환도성이 산성자 산성임을 확신했다.

산성의 바깥에 수많은 고구려 고분이 축조되어 있는 사실도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관구검이 환도성을 함락시켰을 때의 공격로는 성의 후방이라 보았다. 그리고 문헌에 등장하는 환도의 별칭으로 집안의 석성(국내성)을 지목하였다.

도리이는 국내성의 위치에 대해서 한때 집안의 석성으로 판단한 적이 있으나, 앞서서도 밝힌 것처럼 1912년의 현지조사를 토대로 울자산성, 즉 오녀산성을 국내성이라 생각하게 된다. 그 근거는 음운학상의 유사성에 있었다.

귀로는 1차와 달리 환인으로 가지 않고 압록강을 따라 내려와 초산을 거쳐 신의주까지 답사한 것으로 알려진다(德島縣立博物館, 1993).

### III

## 세키노 다다시의 1913년 조사

한편 당시 도리이의 경쟁자이면서 「조선고적조사사업(朝鮮古蹟調査事業)」에서 일찌감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도쿄대학 공학부 건축학연구실의 세키노 다다시(關野貞)도 1913년 9월 12일부터 12월까지 집안의 고구려 유적을 조사한다. 세키노는 도리이와는 달리 처음부터 조선고적조사의 일환으로 집안을 방문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촉탁이라는 신분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관련 비용은 조선총독부에서 부담했을 것이다.

조사단은 세키노 다다시를 단장으로 하고 야쓰이 세이이치, 이마니시 류, 구리야마 등이 보조하였는데, 사진촬영은 도리이의 조수이기도 했던 사와 슌이치가 담당했다. 즉 이 때의 조사에서 촬영되어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I에 실린 사진은 그 대부분을 사와가 촬영한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 이마니시 류는 도쿄대학 문학부 사학과 출신이고 구리야마는 세키노와 마찬가지로 도쿄대학 공학부 출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키노가 꾸린 조사단은 그야말로 도쿄대학 조사단이라 할 수 있다.

1913년에 세키노는 바쁜 일정을 보내는데, 지난 글(정인성, 2008)에서 밝힌 것처럼 진남포에서 여러 고구려 고분을 조사한 다음 용강에서 쌍영총과 용강대총 등을 조사하고 육로로 북상하여 안주, 희천, 강계를 지나 압록강을 건너 집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에서는 11일간에 걸쳐 각종 유적을 조사하고 다시 압록강을 건너 아득령, 황초령을 지나, 함흥까지 가서 조사를 수행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조사과정에서 그는 그가 지나온

길이 고구려 시기에 집안에서 평양으로 혹은 함흥 방면으로 통하던 고대 교통로라고 판단했다. 즉 이는 관구검이 침입했을 때의 추격로로 판단하였는데, 세키노가 조사 전에 이미 관련 문헌을 꼼꼼히 파악하고 조사에 임했음을 확인시켜 준다. 즉 세키노의 현지답사라는 것은 관련되는 문헌기사를 현지답사를 통해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3년의 집안 답사에서 세키노의 구체적인 동선은 현재 도쿄대학에 남아 있는 '세키노 컬렉션'<sup>6</sup>의 사진목록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목록집은 세키노 다다시가 조선고적조사와 관련된 조사에서 촬영한 유리건판과 함께 총독부 박물관에 제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의 사진 목록은 대개 사진이 촬영되는 순서대로 작성된다는 사실(國立中央博物館, 1997)을 감안하면 집안에 도착한 세키노 조사단이 가장 먼저 조사한 것은 국내성이다. 그런 다음 산성자 산성으로 이동하여 조사하고, 그 주변에서 철천정총과 석총(아마도 형제총)을 현지조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다음 마선구로 다시 내려와 천추총과 오회분을 순서대로 사진 촬영하였다. 오회분의 개별 고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 태왕릉과 호태왕비를 차례대로 조사하고 광개토대왕릉은 가장 마지막에 조사하였다. 집안의 조사를 마친 세키노는 이후 아득령과 장진군, 황초령의 진흥왕순수비 비각, 천불산 개심사로 이동하면서 조사를 계속하였는데(세키노 컬렉션 사진목록 참조), 이는 세키노가 강연에서 밝힌 동선과 대체로 일치한다.

여러 고분들을 제쳐두고 국내성과 산성자 산성을 가장 먼저 조사한 것을 보면 1913년의 조사에서 세키노가 가장 주목한 것은 고분이 아니라 국내성과 산성자 산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국내성과 환도성의 위치 비정 문제가 일본 학계의 중요한 이슈였고, 라이벌 관계였던 도리이가 세키노보다 한 발 앞서 집안을 답사하고 환도성과 국내성의 위치 비정 문제를 선점당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된다.

세키노는 답사 전에 일본고고학회에서 강연했을 때 국내성의 위치를 통구성 또는 산성자로 비정했지만 환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실지를 답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조사 전인 같은 해(1913년) 3월 27일에 동양협회(東洋協會)에서 '만주 집안현의 고구려 시대 유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을 때 환도성의 위치를 통구에서 약 17~18리 하류에 있는 유수림자구 근처라고 판단했다.

『고고학잡지』에 수록된 답사보고를 살펴보면 세키노는 우선 압록강을 중심으로 집안

6 세키노 다다시가 평생의 조사과정에서 남긴 방대한 양의 조사 기록으로 야장, 도면, 탁본, 사진류가 포함된다. 현재 도쿄대학의 종합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나 공과대학 건축학연구실에서 관리한다.



圖13 \_ 소판석령을 오른 세키노 일행(『조선고적도보』 I 에서 전재)

분지의 자연지리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다음 통구 주위를 견고한 석성(石城)으로 구축했음을 설명하고 산성자(山城子)에는 자연지형을 절묘하게 이용한 산성자 산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산성에 대해서 개괄한 세키노는 집안과 마선구, 산성자를 포함하여 집안에 1만기 이상의 고분이 있으며 이들 모두를 고구려 고분으로 판단하고 있다(關野, 1914c ·

1914d)

세키노가 이때 집안의 석총들을 고구려 고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학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1909년에 평양에서 석암리 벽돌무덤을 조사하고 그 전실묘를 고구려무덤으로 발표하였다가 도리이 류조의 비판을 받은바 있기 때문이다(정인성, 2006). 즉 일정 기간 세키노는 이미 도리이가 요동지역에서 고구려와 한족(漢族)의 고분을 분명히 구분하고 그 내용을 잡지에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벽돌무덤을 고구려의 것으로 판단하였다. 도리이가 적절한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회장에서는 주류학자 세키노와 상반된 주장을 하는 도리이에 대해 심한 비난이 쏟아졌고, 이후 조선고적조사에서 그 역할이 크게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도리이는 후일 세키노의 그러한 해석이 청일전쟁과 관련된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의심했다(鳥居, 1953).<sup>7</sup> 그러한 맥락에서 1913년에 이루어진 집안 조사는 세키노가 고구려와 낙랑고분의 차이를 현지 조사경험을 바탕으

<sup>7</sup> 즉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중국문화와 구별되는 고구려 유적을 발견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로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된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광개토대왕비를 관찰하고 동대자(東臺子)에서 건축물의 초석군과 많은 기와를 발견하는데, 이를 통해 통구(집안)가 고구려 시대에 오랫동안 국도(國都)로 기능하였음을 확신했다. 나아가 그 국도가 국내성인지 환도성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는지에 의문을 가지면서 답사를 진행하였다.

세키노는 답사 결과 통구는 고구려의 국내성이고 산성자 산성은 고구려대의 위나염성이라고 결론내리는데, 당시 참고한 문헌은 도리이의 그것보다 폭 넓어서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삼국사략』, 『동사강목』, 『문헌비고』,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 등을 아우른다. 세키노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근무하던 오다 쇼고의 도움으로 이러한 서적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정약용이 『대한강역고』에서 국내성을 초산 부근의 북쪽 강을 건넌 땅이라고 한 점을 주목했다. 그리고 『동삼성여지도설(東三省輿地圖說)』에 처음으로 광개토대왕비가 소개되면서 “그 비가 출토된 통구의 땅은 개국내성(蓋國內城)의 근교가 된다”고 적어 두고 있음을 참고했는데, 이는 시라토리와 같은 의견이다.

한편 환도성의 위치 비정을 둘러싸고 1906년에 발견된 관구검 기공비에 세키노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당시 관구검 기공비의 탁본을 일본군인 호리미[堀米]가 오가와[小川柳波]에게 건넸는데, 이를 확인한 오가와는 비석이 발견된 판석령을 환도성이라 했다. 이미 살핀 것처럼 도리이는 처음 통구가 국내성인 위나염성이고 판석령이 환도성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내성과 위나염성을 동일시한 것이다. 그 뒤 1912년의 현지조사 후에 생각을 바꾸어 『동사강목』이나 『문헌비고』를 참고로 국내성을 환인의 오녀산성이라 하고 환도산성을 산성자라고 했다. 당시 문헌학의 마쓰이와 같은 연구자는 여전히 환도성을 판석령에 비정하고 『요사(遼史)』를 참고하여 국내성을 압록강의 상류인 임강현으로 비정하기도 하였다.

세키노는 정약용의 국내성 비정이 타견이라 평가하면서 광개토대왕릉비의 발견으로 그 물적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판석령에서 관구검 비석이 발견되면서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를 환도성으로 비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 하였다. 나아가 판석령 답사에서 산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산성자 산성을 지목한 도리이의 설을 평가하면서도 국내성 비정 문제에서는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결과적으로 세키노는 국내성을 지금의 통구(집안)로 판단하고 위나염성을 산성자로 비정했다. 그 근거로는 『삼국사기』 유리왕조의 기사에서 말하는 국내, 위나염성의 설명이 통구, 즉 집안의 그것과 유사함을 들었다. 또한 국내성은 발해의 신주(神州), 요대의 녹주(濬州)에 해당한다고 확신했다.

집안 답사과정에서 이 문제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야쓰이와 이마니시에게 조

사를 의뢰하였다. 두 사람이 마선구를 2리 정도 올라갔더니 길이 두 개로 갈라졌는데, 오른쪽을 택해 올라가니 다시 길이 나누어지는데 오른쪽을 선택하면 통화로 가고 왼쪽을 선택하면 대판석령을 지나 환인으로 통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왼쪽 계곡을 거슬러 올랐더니 소판석령이 나왔는데 관구검 비편이 나온 곳이 그곳, 즉 소판석령임을 확인했다.

당시 세키노도 도리이와 마찬가지로 비석의 출토 경위에 대해 현지에서 청취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었는데, 오광국의 증언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

처음 비석이 출토된 것은 이 소판석령의 고개 정상부 오른쪽에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한 인부가 발견하고 이를 집안현 지사인 오광국에게 건네었는데 그는 이를 관구검의 기공비라고 판단하였다. 즉시 인부 10여 인을 사역시켜 비편이 발견된 지점의 돌들을 전부 조사시켜 다른 과편도 획득했다.

야쓰이와 이마니시의 현지답사 결과 그곳이 통구의 서북쪽 6리 정도에 해당하며 조망이 좋아 멀리 조선의 낭림산이 보이는 것을 확인했지만 주위에 성으로 인정할 만한 평지나 유적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나중에 이 지역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손에 넣어 이를 확인해 보았더니 그곳이 통구에서 환인으로 가는 교통로로는 적합하지만 도저히 산성이 축조될 지형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앞에서 살핀 것처럼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도리이와 너무도 흡사하다. 이곳을 환도라고 비정하는 것은 직접 현지를 답사하지 않았던 결과라 비판하고 이곳을 환도라 추정하고 국내성을 임강현 부근으로 판단한 설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답사 후 환도를 산성자로 비정하는 도리이의 주장마저 비판한 사실이다. 그것은 산성자가 험하여 성내에 왕궁 등을 만들 공간이 없으며 겨우 창고지 정도가 인정된다고 하여 도저히 성내의 지형이 도성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즉 도리이는 관구검 기공비 잔편이 출토된 소판석령을 환도산이라 하고 산성자 산성을 환도산이라고 했으나 세키노는 그 거리가 4리에 이르고 지세가 연속되는 산맥이 아니기 때문에 『위지(魏誌)』의 환도기사(丸都記事)인 ‘도어환도지하(都於丸都之下)’와 관구검의 기사를 참조하여 환도성은 환도산의 허리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산성자성을 환도성으로 보는 설에 분명히 반대한 것이다.

세키노는 1913년의 조사범위가 통구지역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환도(丸都)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통구가 국내성이라면 『요사』 등의 기록으로 보건대 환도는 압록강의 하류 20리 지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소판석령이 환도성이 아니라면 관구검 기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관구검이 고

구려를 정벌할 때 왕이 환도성을 도망쳐 국내성에 이르러 강을 건너 조선의 강계로 들어가 도망하므로 이를 쫓아 함흥(咸興), 종성(鏡城) 부근까지 이르렀는데, 관구검은 귀로에 다시 환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여 소관석령을 지나면서 그곳에 기공비만을 세워두고 곧장 환인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키노는 집안(통구)성이 국내성이지만 산성자성은 위나염성이라고 판단하고 환도성은 『도리기(道里記)』나 『요사』의 기록을 근거로 집안에서 압록강을 따라 더 하류에 있는 유수림자 부근일 것으로 예상했다.

도리이와 세키노를 중심으로 문헌과 현지답사를 통한 국내성과 위나염성, 그리고 환도성의 비정 문제는 그 후에도 한동안 논란이 되었다. 1914년에 시라토리는 환도성이 산성자에 있다는 도리이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국내성이 오녀산성이라는 설에는 반대하였다. 그 후 1935년에 이케우치 히로시는 집안을 답사하고 시라토리의 주장에 동조했다.

광복 후 중국 학자들은 집안의 성을 유리왕이 천도한 국내성이라 인정하고, 천도 동시에 쌓았다는 위나염성은 본래 산성자 산성인데, 산상왕 재위시에 산성자 산성을 석성으로 고쳐 쌓은 다음 이를 환도성이라 부르고, 산상왕 재위 53년에 왕궁을 산성으로 옮겼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연구자도 있어 도리이와 세키노가 촉발시킨 국내성과 환도성의 위치 비정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田村, 2001)

## 1. 통구성(국내성)의 조사기록

세키노의 통구성의 조사기록을 부분적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통구성은 동서 약 7丁 반, 남북 약 5丁 반 정도의 범위를 비교적 높은 성벽으로 쌓아두었는데 동북 모서리와 서남 모서리에는 모서리각을 없애서 내면 전자는 3개의 둔각으로, 후자는 2개의 둔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남북 양쪽의 문을 폐쇄하였는데, 북쪽에는 별도로 작은 출입문을 뚫어둔 상태라고 하였다. 그리고 동서면은 옛날 그대로 통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둔 상태이다. 서문은 2개이고 남쪽의 문은 성벽에 웅성을 만들고 북쪽 면에는 일반적인 웅성을 설치했다. 동문은 남쪽 것이 남았는데 역시 웅성이 있다. 북쪽의 것은 후세에 폐쇄된 것으로 보이고 다소의 형적을 남긴다. 성벽의 두께는 약 30척이고 높이는 20여 척인데 모두 돌로 쌓았다. 그 허리 이하는 돌을 약간씩 내어 쌓았는데 이는 성벽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고안이다.

그리고 4면 모두에 치를 설치하였고 그 밖에는濠(해자)를 둘렀다. 그 해자는 지금 물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북변의 것이 가장 잘 남아 있다. 성벽 위에는 女牆이 있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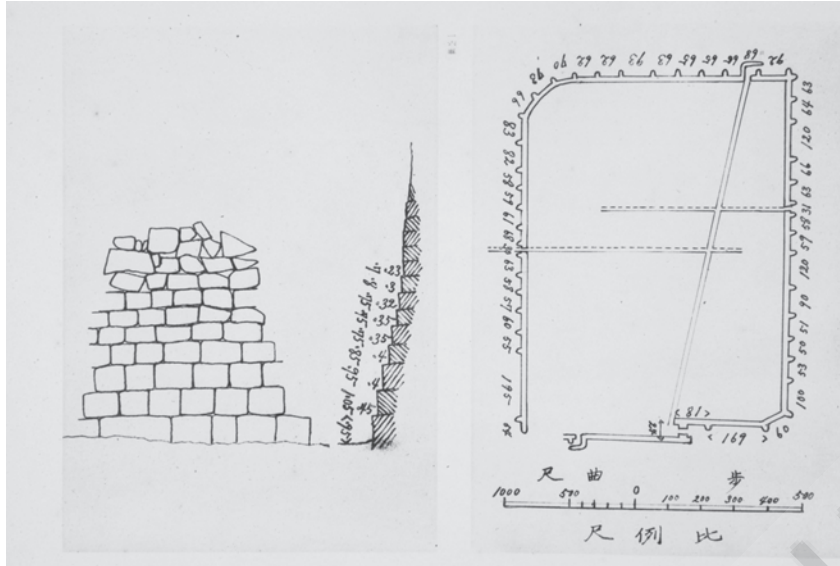


圖14 \_ 국내성 약측도(야쓰이 작도)



圖15 \_ 국내성 근경



圖16 \_ 국내성 성벽과 출토유물 (이상 『조선고적도보』 I 에서 전재)

같지만 붕괴되어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통구성에 집안현치가 설치될 무렵에는 민가 13호 정도만이 있었는데, 현치가 설치된 후에는 館舍 외에 약 150戶가 성내에 살게 되었다.

세키노가 조사할 당시 성 내부의 여기저기에 붉은색 기와가 흩어져 있었는데, 그는 이를 고구려 말경의 유물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간간이 발견되는 회색 기와를 천 사오백 년(1913년 기준) 전의 고구려 것이라고 보았다. 즉 회색기와를 고식으로 보고 적색기와를 신식으로 판단했는데 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성내 서북부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고구려 시대의 것으로 인정되는 초석이 발견되었고, 성밖 동쪽에서 동대자에 이르는 구간에 적색 기와가 많으며 동대자에서는 다수의 초석군을 발견하고 와당과 평기와 파편을 발견하였다. 그 기와는 연관문과 귀면, 그리고 남북조 시대 특유의 인동문을 가지는 것도 있었는데, 모두가 고구려 말기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때 발견한 많은 양의 기와는 일본으로 반출되었음이 확인된다(圖 53~62).

세키노가 국내성의 조사에서 확인된 적색과 회색의 기와를 각각 시기가 다른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미 평양 주변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조사경험이 바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세키노가 평양에서 조사해서 『조선고적도보』 I에 게재한 평양 출토 기와가 대부분 적색이기 때문에, 멸망 당시까지 수도로 기능하던 평양 출토 유물이 고구려에서는 가장 늦을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대자(東臺子)에서 출토된 기와는 국내성 내부에서 출토되는 것과 형태와 제작기법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세키노는 성의 안팎에서 전형적인 고구려 기와와 초석이 발견되고 성벽에도 일부 수축이 인정되지만 고구려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고구려의 국내성 고지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1913년의 집안 조사를 마치고 기차로 돌아오는 길에 경원철도선의 중간에 해당하는 삼방(三防)에서 화재를 만나, 지니고 있던 서류와 약측도 등을 몽땅 불태우는 변을 당한다. 세키노의 보고는 다행히도 화재의 피해를 입지 않은 나머지 세 사람의 자료와 표본<sup>8</sup>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즉 『조선고적도보』 I에 제시된 약측도는 대부분 세키노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세키노의 다른 도면과 비교하여 필체가 다르고 그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8 여기서 말하는 표본이란 고구려 와당과 문자전을 말한다. 도료를 중심으로 일본에 있는 많은 집안 출토 유물은 이때의 세키노 조사단이 채집하여 온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확인되는 집안 자료 중에서 조사 단장인 세키노와 관련된 것이 드문 이유는 이 화재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

## 2. 산성자 산성

산성자 산성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통구를 서쪽으로 흐르는 통구하에 접하는 비교적 좁고 깊은 협곡을 따라 올라가면 산성자의 산성에 도착할 수 있다. 성은 山骨을 노출시킨 험준한 봉우리로 둘러싸인 谷地에 만들어졌고 남쪽이 가장 낮는데 그곳으로 성내의 물이 모여서 밖으로 배출된다. 그리고 그 주변 봉우리의 약간 낮은 외곽선을 따라서 석축의 성벽을 쌓았는데 남쪽의 낮은 지점에 성문을 만들었다. 산성의 전면에는 溪流가 동쪽에서 서로 흐르는데 급하게 꺾여서 남쪽으로 흘러 통구에 이른다. 그 왼쪽에는 바로 山路를 물고 右岸의 산성과의 사이에는 좁은 평지가 있는데 많은 고분이 그곳에 분포한다. 그 산성이 만들어진 산은 험준하여 그 봉우리를 연결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산성이 되는 것이다.

산성은 천혜의 요새로 공격하기가 무척 어렵고, 방어하기에 쉬운 천혜의 구조인데 그 둘레가 1리에 이른다.

산성자 산성의 도면을 작성한 사람은 구리야마 보조원인데, 고고학잡지의 보고문에 실린 것이 그의 도면이다. 도면은 산성자 산성이 등고와 함께 표현되었고 계야강을 중심으로 주변의 고분군과 그 대안의 절벽을 등고선으로 표현하였다. 비교적 잘 그려진 도면이지만 정식 지형도를 바탕으로 그린



圖17 \_ 산성자 산성의 약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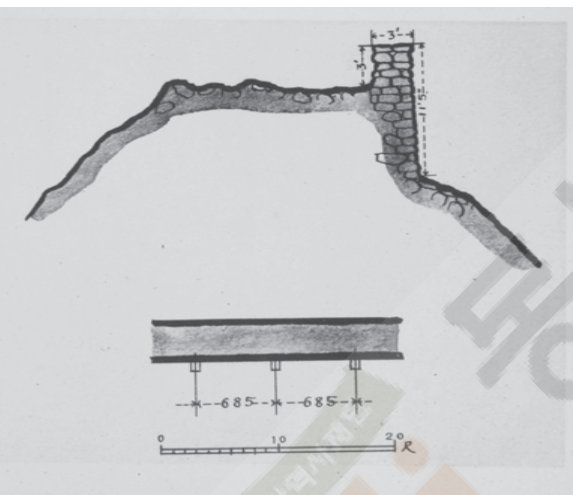


圖18 \_ 성벽 단면



圖19 \_ 성의 내부



圖20 \_ 성의 내부(이상 『조선고적도보』 I에서 전재)



圖21 \_ 산성자 산성에서 채집한 유물(『조선고적도보』 I 에서 전재)



圖22 \_ 산성자 산성 채집 유물(『조선고적도보』 I 에서 전재)

것은 아니다. 이 도면을 살펴보면 조사단이 산성자 산성의 내부를 답사하면서 다수의 기와를 채집하고 산줄기의 성벽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면서 그 위치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벽에는 성벽 아래에서 소형 배수공이 확인되었고, 성문 오른쪽은 축조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남기는데, 이는 국내성의 성벽 축조 형태와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성내에서 창고로 인정되는 터가 있고 그 주변 밭에 적색 기와가 널려 있었다. 그중에는 와당도 있으며 평와 파편도 획득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가 국내성으로 믿는 통구성의 채집품과 유사하다 판단하였다. 또한 이들 적색 기와의 시기는 고구려 말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문헌에 등장하는 위나염성이 곧 산성자 산성이라 판단했다. 세키노 일행은 성내에서 고분으로 의심되는 분구를 발견하고 연못지도 확인했다.

이상 1913년의 조사에서 세키노 일행이 답사한 성지는 지금의 국내성과 산성자 산성으로 한정되며 나머지는 전부 고분이다. 이들 성지에서 다수의 기와를 채집한 정황이 드러나는데, 현재 일본 각지에서 확인되는 세키노 혹은 이마니시 기증 산성자 유적 출토 기와들은 이때의 조사에서 채집한 것이다.

### 3. 고구려 고분군의 답사

세키노는 1913년의 집안 조사에서 집안평야의 고분이 1만 기를 넘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는 토구자 산록, 집안에서 산성자로 이르는 길에 늘어선 고분군을 관찰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선구에도 계류(溪流)의 좌우와 동서 산록에 수천 기의 고분이 분포한다고 하였다. 또 한 지방에서 동일한 성격의 고분이 이렇게 많이 형성된 것은 그때까지 보지 못했다고 감탄하였다. 집안과 마선구는 동북에서 서남으로 이어지는 구릉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평지를 이루고 이러한 지형을 의식하여 고분이 축조된 것으로 보았다. 집안 고분군은 7~8 내지는 수십 기가 곳곳에 군을 이루어 분포하며 열을 이루는데, 이것이 옛날 동족 집단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이 지역의 고분들은 대개 서남으로 연도를 내고 삼실총의 경우 연도가 달린 남쪽에 주작을 배치한 것으로 보아 방향을 의식한 무덤 축조라고 보고 있다(關野, 1914c·1914d).

집안의 분묘를 관찰하고 세키노는 이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가 흙으로 분구를 만든 토총(土塚)이고 다른 하나가 돌로 쌓아서 만든 석총(石塚)이었다. 석총은 『위지(魏志)』에 ‘적석위봉(積石爲封)’이란 기사와 관련시키고 또한 여러 군집에서 석총과 토총이 군집을 이루는 현상을 바탕으로 이것이 시기차가 아니라고 보았다.

조사 당시 대부분의 고분이 후세에 파손되어 온전한 것이 없었는데, 석총 중에서는 토구자산 아래의 장군총이 비교적 잘 남아 있었고 산성하 고분군 중에는 형제총(兄弟

塚)만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형제총이란 크기가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모양의 석총이 나란히 배치된 현상을 주목한 세키노의 명명이다.

토총으로는 유산산록(楡山山麓)의 오희분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나머지도 대개 석총에 비해 파괴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석총의 경우 축조 후 천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석재를 이용하기 위하여 토민들이 돌을 뽑아내었고, 반면 토총은 전통적으로 무덤을 경원시하는 풍습 때문에 보존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였다.

### 1) 장군총과 배총

장군총(將軍塚)이라고 알려진 고분은 세키노가 집안을 조사할 때도 보존상태가 가장 좋은 고분이었다. 이는 광개토태왕비에서 동북으로 약 13~14정(町) 정도에 위치한다고 적고 있다.

세키노는 장군총의 구조를 꼼꼼히 기술하고 있는데, 장군총에서 다수의 기와를 채집한 사실도 적어 두었다. 현재 일본의 여러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세키노·이마니시 기증의 기와들이 이때 채집되어 일본으로 반출된 것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된다.

이들 기와들이 장군총 위에서 출토되는 현상을 두고 세키노는 고분 내부로 빗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이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단의 외연을 따라 확인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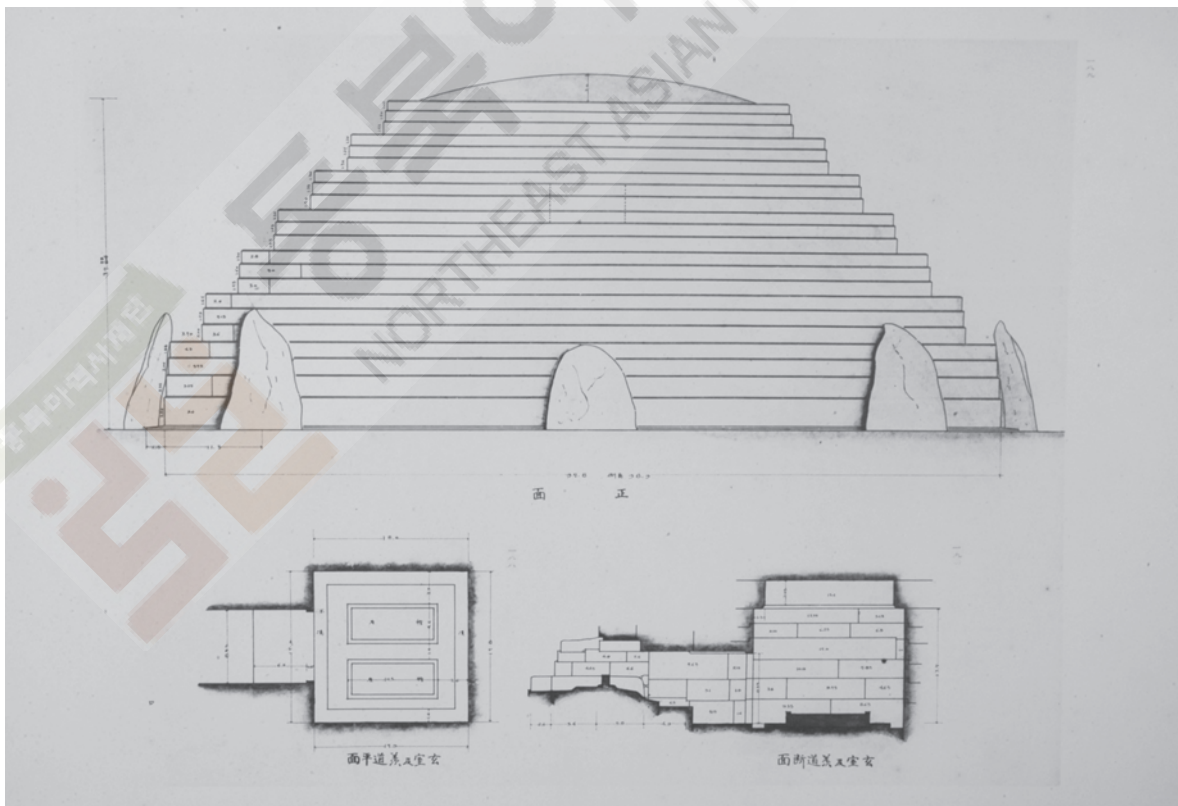


圖23 \_ 장군총의 실측도(『조선고적도보』 I 에서 전재)



圖24 \_ 장군총의 원경



圖25 \_ 근경



圖26 \_ 세부



圖27 \_ 세부



圖28 \_ 석실 천장의 형태



圖29 \_ 석실 내부의 형태(이상 『조선고적도보』 I 에서 전재)



圖30 \_ 석실 입구

구멍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최하단에 세워져 걸친 대석(臺石)은 고분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라 보았고, 고분의 정상부에는 콘크리트와 같은 것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흙만두를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샤반느는 상부 기단 외연을 따라 확인되는 구멍열을 고분 위에 기와를 씌운 지붕 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한 기둥 자리라고 판단한 바 있다. 도리이는 고분의 정상에 기와를 씌운 비각이 있었다고 말했으나 세키노는 이를 비판했다. 즉 고분을 웅장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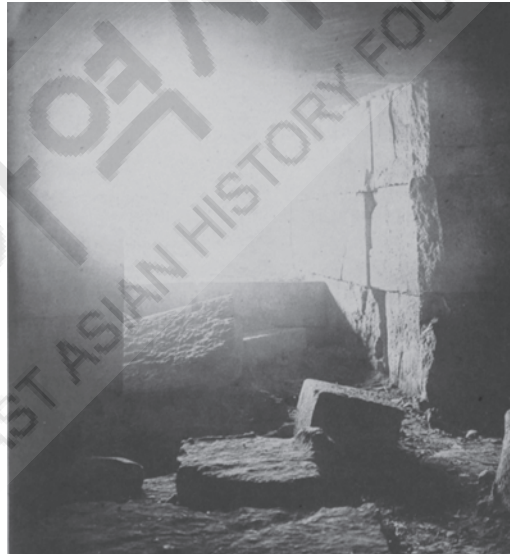


圖31 \_ 연도부 형태

보이기 위해서 난간 같은 것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현장을 관찰한 세키노의 판단이었다.

세키노가 장군총을 답사했을 때도 석실은 이미 열려 있었는데, 이는 도굴자들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석실로의 출입은 너무 간단하여 연도와 현실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연도에는 원래 3군데에서 폐쇄흔이 관찰되었는데, 현실문은 돌로 된 여닫이문이고 바깥쪽의 두 개는 큰 돌로 폐쇄한 상태였다. 석실내부의 벽은 큰 돌을 가공하여 쌓았고 천장은 평행 내어쌓기를 하고 지붕을 덮었는데, 곳곳에서 석회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벽면이 그다지 곱지 않은 것은 원래 전체 벽에 석회미장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석회와 관련된 판단은 도리이나 샤반느의 보고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圖32 \_ 장군총에서 채집되어 일본으로 반출된 기와 (『조선고적도보』 I 에서 전재)

석재 관대는 2개인데 도리이와 마찬가지로 왕과 왕비의 것이라 판단했다. 도리이 류 조는 이를 석관(石棺)을 올려두는 것이라 했지만 세키노는 목관(木棺)이라고 단언했다.

세키노는 석실내부의 축조 방법도 세세하게 관찰하고 있다. 즉 석실벽은 교묘하게 잘 쌓았지만 벽석 내부는 크게 가공하지 않은 돌로 쌓았고 이를 콘크리트(아마도 석회)로 굳힌 것이라 보았다. 무덤의 기저는 천석을 돌려가며 깔았고, 그 밖으로는 묘역을 표현하는 목책이 둘러쳐져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關野, 1914c · 1914d).

고분의 기단(基壇)에서 발견된 기와는 와당(瓦當)과 평와(平瓦)인데 당초문이 시문된 기와도 있다고 하였다. 세키노가 말한 당초문 기와가 어떤 것인지는 『조선고적도보』 I 에 실린 사진자료를 통해서 알 수 없다. 또 이들 기와가 일정부분 한와(漢瓦)의 느낌이 있고 제작법이 정교하며 음각된 글자가 있다고 하였다. 『조선고적도보』 I 에 실린 기와 사진을 보면 완전한 형태의 와당이 1점이고 지두압흔이 있는 암키와가 2점, 그 외 평키와가 15점 정도인데, 대부분의 기와에는 문자가 새겨져 있다. 우선 원와당은 주연이 그리 높지 않고 2중 권선으로 8분할하여 각 구획에는 능선이 있는 연판이 배치되며 연판의 좌우에는 연자가 배치된다. 문양이 없는 주연의 아래에는 한 줄의 원권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근년 전형적인 장군총형 와당으로 이해되는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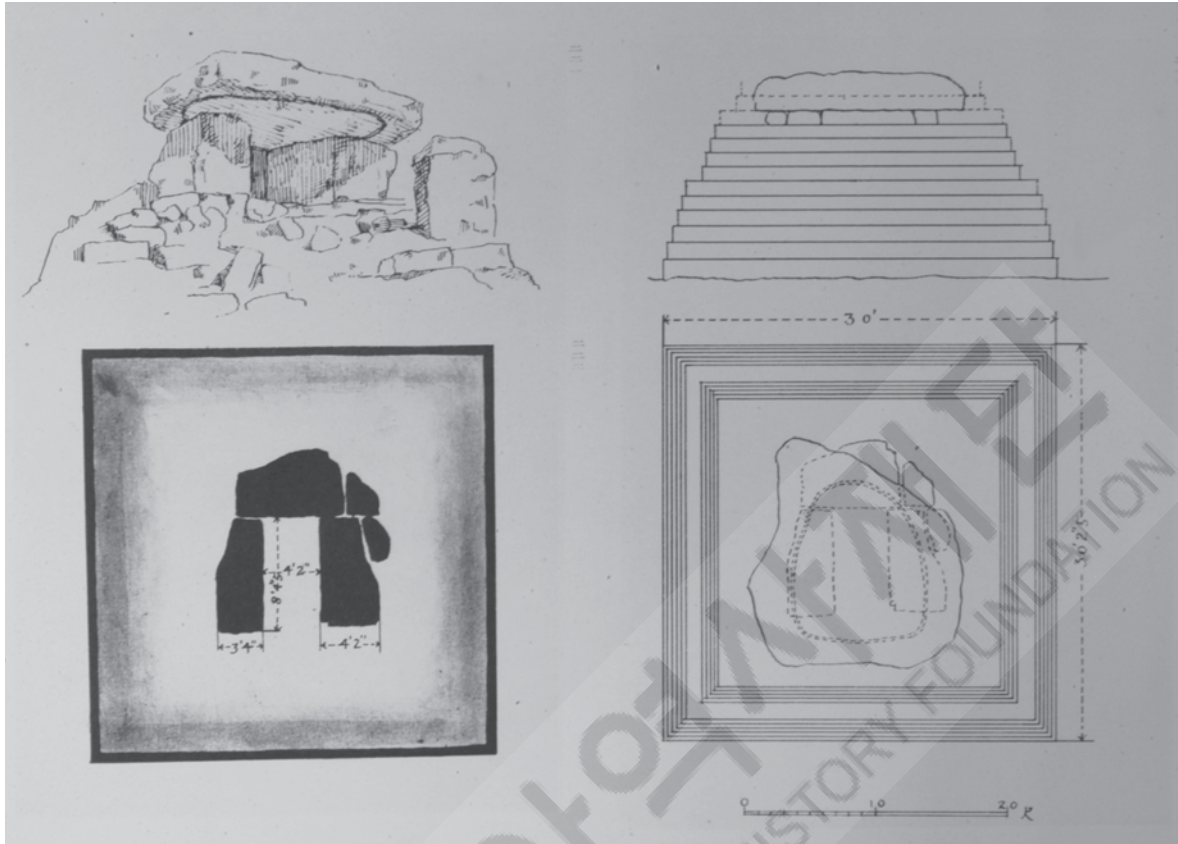


圖33 \_ 장군총 배층의 스케치와 실측도 (『조선고적도보』 I 에서 전재)



圖34 \_ 장군총 배층 근경 (『조선고적도보』 I 에서 전재)

지두압흔이 있는 평기와는 둘 다 무문인데, 깨어진 단면으로 보아 점토띠를 붙여 올려서 성형한 것이다. 내면에는 선명한 포흔이 남는 것이 일반적이다. 암기와의 대부분이 문양이 지워지고 없지만 부분적으로 승문타날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된다.

기와에 새겨진 음각은 건조 전에 이루어진 공정임이 확실하다. 확인되는 문자로는 ‘第三’, ‘漢’, ‘上二’, ‘川’, ‘下’ 등인데 그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발해 문자와가 글자를 새긴 도장으로 누르는 것이라면, 장군총 등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되는 기와의 문자는 모두 소성 전에 도구로 그어서 새기는 것이 많다.

『조선고적도보』 I 에는 장군총의 입면도와 매장주체부의 평면도 및 단면도가 실려 있는데, 필치로 보아 세키노나 야쓰이 등이 그린 것은 아니고 구리아마 혹은 조사를 수행했던 총독부의 건축 기사가 그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살펴보면 당초 연도 바닥에 흙이 차 있는 상태로 표현되어 있어 조사를 수행하면서의 굴착행위는 없었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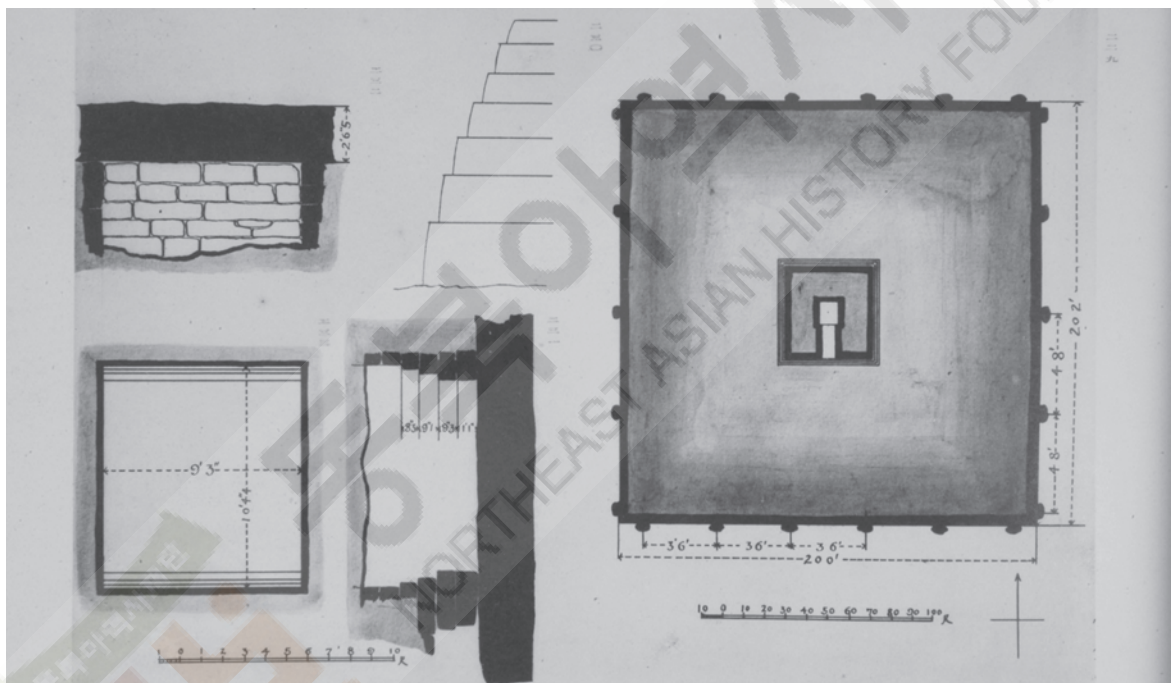


圖35 \_ 태왕릉의 간이 실측도



圖36 \_ 태왕릉 전경



圖37 \_ 태왕릉 근경 (이상 『조선고적도보』 I 에서 전재)

으로 보인다.

사진을 보면 고분에는 잡목이 무성한데 1905년에 도리이가 남긴 사진, 그리고 1907년에 샤반느가 남긴 사진과 거의 동일한 상태이다.

## 2) 태왕릉

태왕릉은 집안분지 서쪽의 토구자산에서 서남방으로 뻗어내리는 구릉에 위치하고 그 크기는 장군총을 크게 능가한다. 세키노가 조사할 당시 붕괴되어 있었는데, 매장주체부에 해당하는 석곽이 일부 관찰되고 기단의 네 모서리에 해당하는 돌들이 관찰되는 정도라고 하였다(關野, 1914c·1914d). 세키노 일행은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하여 고분의 평면형을 그리려고 노력하였으며 석곽내부도 석재 결구상태도 도면으로 나타내고 있다(關野, 1914c·1914d).

세키노 일행은 태왕릉의 답사에서 도리이와 마찬가지로 ‘原太王陵安如山固如岳(원태왕릉안여산고여악)’이라고 읽히는 문자전을 발견하였으며 다수의 기와도 채집하였다.



圖38 \_ 1913年 조사시 태왕릉에서 채집된 각종 유물 (『조선고적도보』 I 에서 전재)

지금 일본에 남아 있는 태왕릉 관련 유물도 대개 이때 세키노 일행이 채집한 것이다. 『조선고적도보』 I에는 3점의 와당과 4점의 암키와 그리고 4점의 문자전이 실려 있다. 와당은 2종류로 훗날 다무라 고이치[田村晃一]와 다니 도요노부[谷豊信]가 고구려 왕릉출토 와당의 편년을 살피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되었으며 왕릉 비정 문제를 둘러싸고는 지금도 그 자료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는 유물이다.

암키와의 단부에는 주름이 있는 목판으로 누른 자국이 남는 것과 내면에 포목흔이 뚜렷하게 남는 것이 있다. 포흔이 남는 암키와는 포흔 위로 상하 부분적인 마연자국이 남아 있다. 문자전은 대개 ‘願太王陵……’에 속하는 것으로 완형도 2점이다. 완형 문자전 2점 중 한 점은 도리이 류조가 가져온 것인데, 『조선고적도보』 I에 본부장(本府藏)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총독부박물관 즉 지금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고고학잡지』의 보고문에 소개된 자료는 이와는 다른 문자전이어서 세키노 일행이 상당히 많은 문자전을 채집하여 반출한 정황을 읽을 수 있다. 2007년에 이루어진 일본 현지 고구려 유물 조사에서 확인된 태왕릉 출토 기와 자료는 대부분 이때의 조사와 관련된 것이다.



圖39 \_ 천추총 원경



圖40 \_ 천추총 출토유물 (『조선고적도보』 I에서 전재)

### 3) 천추총

천추총(千秋塚)은 마선구의 계곡 좌안에 있는 평야에 위치하는 대총이다. 세키노가 조사했을 때 전부 붕괴되어 일부 매장주체부의 흔적과 기단의 흔적만이 보이는 상태라고 하였다. 원래 천추총의 형태는 장군총과 유사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조선고적도보』 I에는 추수가 끝난 밭 가운데 위치하는 장군총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기와들도 소개되어 있다(圖39·40 참조).

이때 채집된 와당(瓦當)은 2점인데, 태왕릉에 비해



圖41 \_ 천추총에서 채집된 각종 유물



圖42 \_ 서대총 근경 (2008년 필자 촬영)



圖43 \_ 서대총 기단 형태 (2008년 필자 촬영)

주연이 높지 않은 것이 특징이고 중앙에 돌기가 있는 중방의 바깥으로 2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문양면은 6분할, 각 구역에는 연판(連瓣)이 배치된 것이다. 연판의 상위 좌우에는 연자(蓮子)가 위치하고 주연 아래에는 2조의 원권(圓圈)이 돌아가는다. 측면에는 수키와가 부착된 상태이다. 다른 하나도 동일한 문양 구성이나 와당 제작에 사용된 거푸집은 다른 것이 분명하다. 평기와는 외면에 성형흔이 남지 않은 작은 편으로 4번에 걸쳐서 수평으로 그은 와부호가 관찰된다(圖40 참조). 이들 기와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기증되었으므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천추총에서는 다수의 명문전(銘文磚)도 출토되었는데, 이미 알려진 ‘千秋萬歲永固(천추만세영고)’와 ‘保固乾坤相畢(보고건곤상필)’ 명문전이다. 『조선고적도보』 I 에 게재된 것은 전자가 5점이고 후자가 2점이다. 후자의 ‘坤’은 실제 탁본을 보면 ‘川’을 닮았으나 ‘坤’으로 읽는 것이 맞다고 한다(關野, 1914c·1914d). 이 고분이 천추총이라 명명된 것도 이 명문전의 존재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물론 세키노 다다시의 작명(作名)이다.

도리이의 조사에서는 천추총에서 문자전을 발견한 기록이 없는 반면 세키노 조사단이 유독 많은 수의 명문전을 확보한 것을 보면 조사 과정에서 부분적인 굴착행위가 수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세키노는 천추총에서도 완형(完形)의 평기와가 발견되었고 태왕릉이나 장군총에서



圖44 \_ 임강총의 표지석 (2008년 필자 촬영)

도 기와들이 발견되는 점을 들어 이들 석  
총의 기단에 빗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단마다 지붕을 씌운 결과라고  
보았다. 또한 문자전의 귀퉁이가 잘려 있  
는 것은 각 기단에 기와를 덮고 여기에  
전을 겹쳐 엮기 위한 가공이고 한편으로  
는 인접하는 전(塼)들과 용이하게 겹치기  
위한 고안이라고 판단했다.

#### 4) 기타 석총

1913년에 세키노는 이 외에도 임강총  
(臨江塚)과 오도신총(五道神塚), 서대총(西  
大塚) 등을 답사했다. 그렇지만 이들 개별

고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아쉽다.

세키노는 산성하 고분군도 답사하였는데, 님은꼴의 기단식 적석총을 형총과 제총으  
로 명명하기도 하고 그 형태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사아천정총과 절천정총의 도면이



圖45 \_ 임강총에서 발견되는 각종 기와 (2008년 필자 촬영)

『고고학잡지』에 게재되어 있는데, 도면 자체는 필체로 보아 구리야마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조선고적도보』에는 임강총과 그곳에서 채집된 평기와의 사진이 소개되어 있다. 임강총은 광개토태왕비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위치하는 고분이다. 출토된 기와는 외면에 굵은 승문타날흔이 관찰되는 것으로 단부는 타날이 지워진 상태이다. 서대총에서도 주름이 있는 도구로 눌러서 단부를 만든 평기와를 채집했다.

『조선고적도보』 I 에 게재된 절천정총과 사아천정총의 도면은 『고고학잡지』에 게재된 것과 약간 다르기는 하나 자세히 관찰하면 구리야마의 도면을 약간 손질해서 그대로 게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고분의 도면을 보면 연도에 토사가 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양에서의 일부 고분과 마찬가지로 유구 내부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채 도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5) 오회분 3층과 2, 4층

세키노는 현재 오회분이라 불리는 고분군을 동북에서 서남으로 열을 지운 것으로 판단하고 전열(前列)을 3층과 2층으로 부르고 후열을 4층으로 명명하였다. 3층과 2층은 모두 동쪽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대형이었는데, 세키노가 조사하였을 때는 이미 모두가 도굴을 당한 것이었다.

후열의 4층 중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것은 봉토가 삭평되고 그 전방(前方)도 삭토되어 현실로 들어가는 구멍이 뚫린 상태였다. 이 고분은 평면이 거의 방형이고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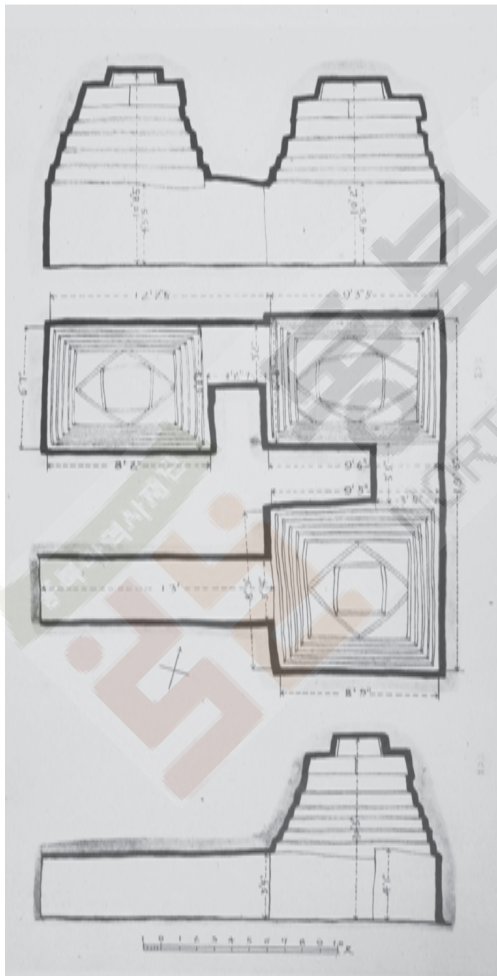
圖46 \_ 오회분의 원·근경 (『조선고적도보』 I 에서 전재)

은 평면이 장방형으로 4벽을 모두 1장의 돌로 조립한 것이다. 천장부에서 약간의 평행 내어쌓기가 인정되고 그 위에 1매의 천장석을 덮은 것이다. 이 고분은 『조선고적도보』에 그 간략한 도면이 제시되어 있다. 역시 필체로 보아 세키노가 그린 것은 아니고 구리아마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4층 중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하는 고분(1층)은 그 정상부(頂上部)에 1장의 천장석이 있었다. 그리고 2층과 3층에도 천장에서 1매의 천장석이 발견되었다.

『조선고적도보』 I 에는 오회분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3층의 3번째 고분은 분구 기저(基底)의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 그런데 당시의 조사에서 오회분에 대해서는 4층 현실의 평면도와 단면도를 작성했을 뿐, 분포도나 고분의 외형을 그린 도면은 보이지 않는다.

## 6) 삼실총

4층의 서북쪽에 위치하는 것이 삼실총(三室塚)인데, 세키노가 조사할 당시에는 현실이 붕괴되어 사다리를 이용하면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다리를 이용하여 삼실총의 내부로 들어간 정황은 『조선고적도보』 I 에 실린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사진을 살펴보면 연도에 토사가 가득 차 있어 입구를 통한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삼실총은 무덤방이 3개인 고분으로 연도에 접한 무덤방의 좌벽에 통로를 만들어 또 하나의 무덤방을 만들고 그 남쪽으로 다시 연결 통로를 만들어 비슷한 규모의 무덤방을 하나 더 만들어 두었다. 무덤방이 3개이기 때문에 삼실총이라 이름지었는데, 이 역시 세키노 일행의 명명이다. 무덤방은 4번에서 5번 정도의 평행 내어쌓기를 한 다음 모서리에 삼각모출임을 하고 그 위에 천장석을 덮은 구조이다. 무덤방은 벽면과 천장에 두꺼운 석회가 발린 상태였는데, 천장의 무너진 틈으로 관찰하건데

圖47 \_ 삼실총의 실측도 (『조선고적도보』 I 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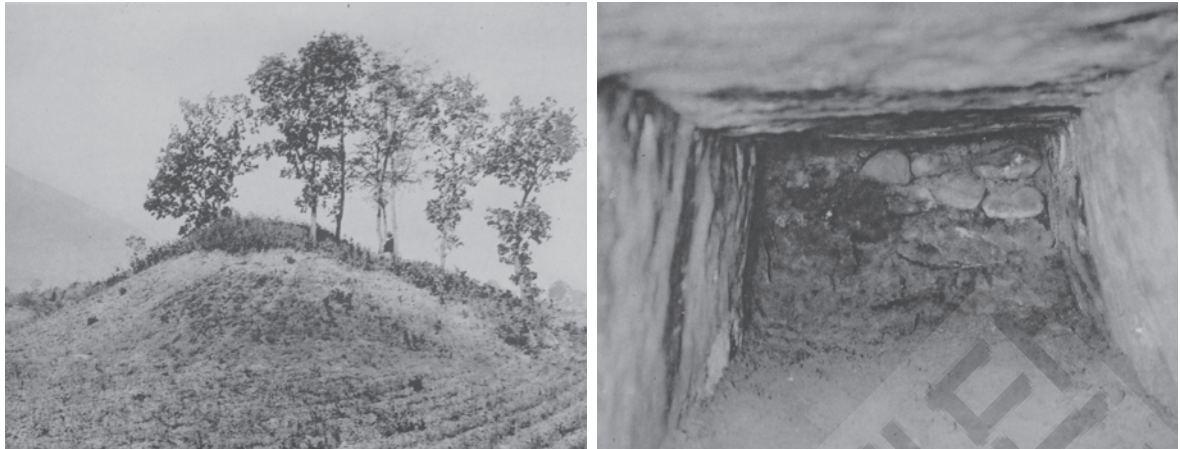


圖48 \_ 삼실총 근경(왼쪽)과 석실 내부(오른쪽)

석회 뒤쪽의 석재는 적당한 크기의 자연석이었다고 한다.

세키노가 조사하였을 당시의 고분은 제1 무덤방이 크게 붕괴된 상태였는데, 도굴된 흔적이 역력했다. 도굴로 파괴된 천장을 통해 빗물이 스며들었음은 물론 근처 부락민이 무덤방으로 드나들었기 때문에 제1 무덤방에 그려진 벽화는 그 보존상태가 현저히 나빴다. 다만 오른쪽 벽에 기마 무사 두 사람이 관찰되는 정도였다. 그 외 각 실의 벽화 중에서 중요한 것은 『조선고적도보』에 실려 있으나 전모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고분은 1935년과 1936년에 재조사되어 좀 더 충분한 설명이 추가되었고 1970년대에는 중국 조사팀에 의해 바닥면의 정리가 이루어져 인골과 철못, 토기류가 발견되었다.

1913년도에 조사에서는 이 외에도 오회분의 후방에서 산연화총을 발견하고 그 특징을 간단하게 보고했다. 『고고학잡지』에 실린 도면은 구리야마가 작성한 것이다. 산연화총은 세키노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이미 1907년도에 샤반느가 그 내부를 조사하고 촬영한 사진이 잡지에 공개된 바 있다(서길수, 2006). 물론 이 고분은 1889년에 이미 이운중이란 사람이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당시 호태왕비를 탁본한 사실과 함께 용과 봉이 그려진 무덤에 대한 기록이 있다(서길수, 2006).

산성자 고분에서는 귀갑총과 미인총 등을 조사했는데, 이는 세키노 조사단을 통해서 그 존재가 학계에 처음 알려진 것이다.

조사가 끝난 후 1914년 2월에 발간된 『고고학잡지』에는 세키노가 태왕릉 등지에서 채집한 100여 점의 명문전과 와편을 세키노와 야쓰이가 고고학회에 기증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그 중 추첨을 통해 회원들에게 전 5점과 기와 10여 점을 기증하였다고 하며, 당시 희망자가 많았기 때문에 학회 간부의 결의를 통해 학회에 금전을 기부한 회원들에게 기와를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關野, 1914c).



圖49 \_ 산연화총의 실측도와 벽화 (『조선고적도보』 I 에서 전재)

## IV

### 세키노 다다시의 1917년 조사

세키노 다다시[關野貞]는 1917년 여름에 압록강 유역을 다시 조사한다. 1913년도에 과제로 남겼던 환도성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집안의 고분에 대한 재조사를 포기하고 압록강을 따라 양쪽의 대안을 오가면서 위원군 밀산면, 위원군 위원하류역 고분, 운산군 동신면 용호동 고분, 집안 하류방면에 있는 유수림자 부근의 대고력자 고분, 이실총, 무개총 등을 조사하였다.

이때의 조사와 관련하여 1918년도에 간단한 행정보고가 이루어졌고<sup>9</sup> 1920년에 『대정6년도 고적조사보고(大正6年度古蹟調查報告)』로 공간되었으나 그 내용은 1918년에 이루어진 행정보고를 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의 조사 기록은 1929년이 되어서야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의 유적(遺蹟)』으로 공간되었으나 아쉽게도 조사 내용에 대한 원고 없이 도면과 도판만으로 이루어진 보고였다. 만년에 세키노는 이들 유구(遺構)의 원고를 쓰려고 노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세키노는 1917년 6월 11일에 기차로 경성을 출발하여 12일에 평안북도 운산군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야쓰이와 합류하여 동신면 용호동 고분군을 발굴조사하고 위원면 만호동 고분군 등을 조사한 다음 압록강을 건너 고력묘자, 고려묘자, 유수림자 고분군 등을 조사하였다. 그가 조사를 마치고 경성으로 돌아온 것은 7월 15일이다.

1920년의 보고에서는 동신면 용호동의 발굴내용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다. 조사 일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나 이와 관련된 정보는 ‘세키노 컬렉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키노 컬렉션에는 당시의 조사일지<sup>10</sup>가 남아있는데, 용호동 고분을 조사한 것은 정확히 1917년 6월 18일이다.

<sup>9</sup> 세키노는 경성에서 행정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sup>10</sup> 필체로 보아 세키노가 작성한 것은 아니고 야쓰이의 필체와도 다르기 때문에 구리아마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圖50 \_ 세키노일행의 압록강변 조사 일지 일부 [세키노 컬렉션(도쿄대학 건축학연구소 소장)]

## 1. 용호동 고분군

용호동 고분군은 전체 3기인데 구룡강에 면한 고분을 1호라 하고 차례로 2호와 3호로 명명하였다. 가장 먼저 용호동 1호를 발굴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용호동 1호** 용호동 1호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17년 6월 18일: 고분은 원래 기단상의 석층이지만 파괴되어 아래 3층만이 남아 있다.

고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봉황 장식을 발견했다.

6월 19일: 1호분의 유물 위치를 기록하다.

6월 20일: 위원으로 출발

일지에는 출토유물도 기록해 두고 있는데 알려진 철제 화덕과 봉황장식, 철제껍쇠, 철못 이외에도 철부와 토기 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키노의 보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파괴되어 상부가 움푹 패인 매장주체부를 조사하였더니 목곽과 연도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 바닥에서 각종 유물이 출토되었음을 밝혔다.

**용호동 2호** 1호에서 북으로 77척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봉토분이다. 봉분의 규모는 동서가 90척이고 남북이 85척이다. 봉토의 상부에 이미 구멍이 나 있어 현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2호도 굴착하였는데 연도로 들어가서 현실 내부에 찬 토사를 걷어내고 조사를 진행했다. 현실은 자연적으로 벽을 쌓은 다음에 회를 발랐으며 천장은 3단의 평행모줄임과 2단의 삼각모줄임 다음에 뚜껑돌을 덮었다. 연도는 커다란 판석을 좌우로 세운 다음 1장의 돌을 덮어 씌운 구조이다. 벽석 등의 파손이 심하며 출토유물은 없었으나 세키노는 1호와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구려시대의 유적』에는 용호동 2호의 실측도가 실렸는데, 짧은 조사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m 등고선이 들어간 분구 측량도와 석실내부 전개도를 작성되었다.

**용호동 3호** 용호동 3호는 1호의 동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단식 적석총이다. 기단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파괴가 심한 것이지만 원래 동서 방향으로 3개의 석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세키노는 1호와 동 시기 동 형식의 구조라 하면서

그가 압록강 이남에서 확인한 그 어떤 석총보다도 대형이라고 하였다.

‘세키노 컬렉션’의 조사 일지에는 2호와 3호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조사일지에는 6월 20일부터의 행적을 아래와 같이 적어두고 있어 조사의 동선과 조사 경과를 생생하게 복원할 수 있다.

6월 20일: 위원으로 여행하기 위해 온정리에서 숙박

6월 21일: 운산 계곡을 북상하면서 금광 옆을 지나 보리밭으로 덮인 장성(長城) 일부를 보고 우현령을 지나 회목동에 있는 현병 숙소에서 숙박

6월 22일: 회목동을 지나 관묘령의 비탈을 넘어 계곡을 따라 10여 리 진행하여 오후 10시경에 객주에 숙박

6월 23일: 계곡의 산도를 지나 고개를 넘어 위원천을 따라 북으로 전진하여 오후 9시경에 읍성으로 들어감

6월 24일: 위원 읍내 시찰

6월 25일: 위원천에 면하여 북으로 올라가 만호동 고분군을 관찰하였으나 모두가 작은 석총으로 붕괴되었음

6월 26일: 구읍(舊邑)을 나와 밀산면 구읍동의 고분군을 관찰함. 압록강에 면한 석총으로 3기만이 유존함

6월 27일: 하산하여 배후의 언덕을 넘어 강안의 구읍동의 석총에 이르렀는데, 기단식으로 대표이지만 약간 붕괴되어 남아 있을 뿐이다. 북측에는 거석을 쌓아 기단으로 삼고 (현실)은 삼실로 남아 있다. 중앙부에 연도처럼 돌을 쌓았는데, 약실측을 하고 돌아왔다

6월 28일: 위원 구읍을 출발하여 배를 타고 강을 내려와 초산군 신천동(新川洞) 현병과 출소에 도착

6월 29일: 현병 통역을 포함하여 일행 8명이 강을 건너 대안의 간도지로 들어가 유수림자 주재(駐在)의 집안현 순관(巡官) 왕씨를 방문하고 대고력묘자 고분을 보고 신천동으로 돌아옴

6월 30일: 집안현 대고력자의 고분 실측을 위해 강을 건너 유적을 조사하고 오후 7시에 유수림자에 도착

7월 1일: 어제에 이어서 대고력묘의 고분을 실측

7월 2일: 대고력자 부근의 유적을 방문하고 저녁 무렵에 강을 건너 신천동으로 돌아옴.

7월 3일: 신천동 고분의 실측(제6호분)

7월 4일: 신천동 6호의 실측과 발굴

7월 5일: 발굴을 진행하였으나 유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중지

- 7월 6일: 신천동을 출발하여 강을 1리 정도 내려와 초산읍으로 들어감
- 7월 7일: 초산을 떠나 강을 내려와 운매천리 현병 파출소 도착
- 7월 8일: 운매천리 부근 고분군의 배치도 약도를 작성
- 7월 9일: 강을 내려가기 위해 배를 기다림
- 7월 10일: 운매천리를 떠나는 정크선을 타고 압록강을 내려와 간도 석주(間島石柱)에 도착
- 7월 11일: 석주를 출발하여 포석에 도착
- 7월 12일: 포석을 출발하여 의주에 도착

7월 12일까지를 적고 있는데, 조사 내용에 대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 2. 위원하류역 고분군

1920년의 보고에는 위원군 위원하류역 고분으로 덕암동 고분군과 만호동 고분군을 설명하고 있는데, 6월 25일에 조사한 고분으로 여겨진다.

위원천의 상류에는 제법 고구려 고분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조사한 곳은 덕암동 고분군과 만호동 고분군이라고 하였다.

**덕암리 고분** 위원읍의 동동남(東東南)에 있는 위원천의 좌안에 대소 8기가 유존하는데 붕괴되어 그 형태만을 간신히 유지하는 고분군이다. 고분의 형식은 석총과 토총이 혼재하며 석총 중에 큰 것은 직영이 45간 정도라고 한다. 여기에서 동남남 방향 강의 우안에 2기의 고분이 있는데 이를 이총(二塚)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 북쪽에 있는 것은 석총이고 평면형이 방형이다. 기단식인데 상부에는 다량의 적석을 했다고 하고 그 내부는 흙으로 충만할 것이라 판단했다. 덕암리 고분군에는 분구가 유실되어 석곽이 노출된 것이 있다.

**만호동 고분** 덕암리 고분군에서 동북으로 약 20간 떨어진 강의 우안에 있는데, 도로 북방의 밭에 43기의 고분이 소재한다. 당초에는 석총과 토총이 혼재하고 있었을 것인데, 석총은 할석으로 축조된 것과 자갈돌로 축조된 것으로 나누어진다.

## 3. 위원군 밀산면 구읍동 사장리 고분군

위원군 구읍에서 북쪽으로 약 1리 반 떨어진 압록강 좌안에 3기의 고구려 고분이 있는데, 이를 1호, 2호, 3호라 명명하였다.

**사장리 1호** 대형의 석총인데, 상부가 붕괴되었으나 하부는 기단부를 유지한다. 현실은 파괴되었으나 전실과 연도는 남아 있다. 석총으로 연도가 폐쇄된 채로 남아 있는 유일한 사례라고 한다. 1929년의 보고에는 사장리 고분군의 평면도와 연도부 약 측도가 남아 있는데, 연도에 좌우로 감실이 달린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세키노가 말한 연도 폐쇄석이란 연도를 사이에 두고 현실의 반대쪽을 말하는 것이다. 도면에는 사장리 1호의 추정 복원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집안분지의 장군총과 거의 흡사한 형태라서 흥미롭다. 그리고 도록의 도판을 보면 사장리 1호를 조사하는 과정에는 여러 명의 조선인 인부가 동원되었던 상황이 확인된다.

**사장리 2호, 3호** 2호는 1호의 배총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석총으로 평면 방향의 고분이다. 그리고 사장리 3호는 1호분의 동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당초는 토총이었는데, 분구의 흙이 유실되면서 석곽이 노출된 것이라 판단하였다.

#### 4. 유수림자 지역 고분

유수림자(榆樹林子)는 위원과 초산을 잇고 환인과 집안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결절지로 물산이 집결하는 곳이다. 대고력자와 소고력자를 포함하는 곡간을 따라서 백수십 기의 고구려 고분이 산재하고 압록강을 끼고 대안인 평안북도 위원군 신천동에도 다수의 고구려 고분이 분포한다. 또 유수림자 거리의 서북 약 4리 지점에 고력묘자라 칭하는 지점에서 여러 기의 고구려 고분이 확인되었다.

##### 1) 대고력묘자 고분군

백수십 기의 고구려 고분 중에서 대고력묘자(大高力墓子)에서는 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6기를 선별하여 굴착조사하였다.

**이실총** 원래 토총인데 봉토가 유실되어 석곽이 노출된 것이다. 석곽은 좌우 이실로 이루어지는데 둘 다 장방형 구조이다. 큰 석재로 뚜껑을 덮었는데 내부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상태였다.

**무개총** 이실총과 마찬가지로 원래 토총이었으나 봉토가 결실되어 석곽이 노출된 고분이다. 석곽의 형태도 이실총과 닮아 있는데, 격벽을 사이에 두고 좌측에 연도가 달린 석곽이 나란히 설치된 고분으로 뚜껑돌이 없어 무개총이라 명명했다. 이실총과 마찬가지로 출토유물은 없다.

**고총** 방형의 석총인데 단상의 기단이 일부 확인되나 대부분 붕괴되었다. 2단으로 이루어진 기단부가 확인되고 모서리에는 일부 3단으로 추정되는 곳도 있다.

**석곽노출층** 토층인데 봉토의 절반 이상이 유실되어 석곽이 대부분 유실되어 석곽 노출층이라 하였다. 현실은 돌로 쌓아 올린 다음 석회로 미장하였는데 붕괴로 분명하지 않으나 모줄임이 관찰된다. 석재가 산란하여 분명하지 않으나 연도는 남쪽 중앙으로 달린 상태이나 그 구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대총** 규모가 큰 평면 방형의 석총인데 연도는 서남방으로 달려 있다. 이층의 기단이 확인되며 그 위로는 약간의 대석과 잡석이 섞여 있는 상태이다.

**삼실층** 대총과 마찬가지로 방형의 석총이다. 붕괴가 심하지만 부분적으로 단을 이루고 있으며 매장주체부는 석곽이 3개가 연결하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 2) 소고력묘자 고분군

소고력묘자(小高力墓子) 고분군은 대고력묘자 고분군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고력자산의 서쪽 대지에 형성된 고분군이다. 백여 기의 고분이 산재하는데 석총과 토층이 혼재하나 대형 고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 3) 유수림자 하구 고분군

유수림자(楡樹林子)의 하구(河口)에 형성된 고분군을 조사하기 전에 대대구(大臺丘)와 하대구(下臺丘) 고분군의 소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상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유수림자의 하구에는 북방의 구산(丘山)과 대산(大山) 중간에 형성된 골짜기에 고구려 고분이 분포한다. 도로의 동쪽에 약 25기, 그리고 동쪽에서 약 115기가 확인되었다.

석총과 토층이 혼재하는데 석총은 대부분 붕괴되었고 토층은 봉분이 유실되어 석곽이 노출된 것이 많은 상태였다.

## 4) 위원군 신천동 고분군

신천동의 압록강 좌안의 고지에서 37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 앞에서 살핀 일정을 참고하면 7월 3일에서 5일에 걸쳐서 조사한 고분군이다. 신천동 고분군 역시 석총과 토층으로 이루어진 고분군이다. 중요한 고분에 표주(標柱)를 세우고 1에서 9번까지 번호를 준 다음 3호와 6호를 선택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굴착조사를 하였으나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조사를 중지하고 말았다.

3호는 평면 방형의 기단식 적석총인 것으로 보이는데, 기단부의 외연 형태를 약간 남기는 정도로 그 내부에는 다량의 자갈돌이 퇴적된 상태이다. 매장주체부는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6호 역시 3호와 동일한 구조이다. 평면 방형으로 외연에 기단이 크게 자리를 잃지 않고 남아 있으며 그 내부에 무수한 자갈돌이 퇴적된 상황이다. 3호와

마찬가지로 매장주체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출토유물은 없다.

신천동 고분의 발굴조사에는 용호동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조선인이 동원된 정황이 『고구려시대의 유적』에서 확인된다.

세키노가 집안 조사를 포기하고 압록강을 따라 유수림자 부근의 고구려 유적을 상세히 조사한 것이 환도성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음은, 앞에서 살핀 세키노의 조사·연구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이 지역의 조사에서는 환도성과 관련된 성곽시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서도 집안을 사이에 두고 압록강의 상류인 모아산 지방과 비류고지에 대한 답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역설했지만 그 희망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 V

### 그 후의 집안 조사

1917년에 이루어진 세키노의 조사 이후에는 1918년 8월에 구로이타 가쓰미가 호태왕비를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구로이타는 호태왕비에 나무 발판을 설치하고 탁본을 작성하였으며 나아가 비석의 기초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주변을 굴착하였다. 구로이타의 조사는 조선총독부의 정식 조사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이때 사와 준이치가 찍은 사진이 조선총독부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가 20여 년 뒤에 이케우치 히로시가 중심이 되어 발간한 『통구(通溝)』에 실렸다. 그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역사지리(歷史地理)』 35-2에 간략한 강연 원고가 실린 정도이다.

1918년 이후 집안 주변의 정치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더 이상의 학술조사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집안에 대한 조사가 재개된 것은 그 후 1935년 가을이다. 원래 1935년의 조사는 세키노가 조사하지 않았던 2기의 벽화고분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도쿄로 날아든 것이 발단되었다.

벽화고분을 발견한 사람은 만주국 안동성의 시학관이던 이토인데, 그가 주장하여 만주국 문교부가 그 벽화를 조사, 촬영할 것을 정해 같은 해 가을에 도쿄의 '좌석보강학회'에게 촬영을 맡기려고 하였다. 촬영시에는 세키노 다다시도 동행하려고 하였으나

직전에 급사하고 만다. 이에 세키노를 대신하여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교토제국대학교고고학연구실의 하마다 고사쿠이다. 물론 하마다는 짧은 기간 현지에 머물렀고 현지조사는 전적으로 우메하라에게 맡겨졌다. 이때 작성된 보고서에 실린 도면은 그 대부분이 우메하라의 손으로 작성된 것이다.

조사는 1935년 9월 23일 조선 경성에서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위원회(朝鮮總督府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委員會)’ 제2회 총회가 열렸는데, 하마다는 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조선으로 건너와서 집안으로 갔다. 24일 기차로 경성을 떠나 평양을 도착하여 유적 발굴현장을 견학하고 희천, 강계 등을 거쳐 목적지로 갔는데, 이는 처음 세키노가 지났던 길과 동일한 코스이다.

희천까지는 열차로 이동하고 희천에서부터는 승용차를 이용하였다. 당시 조사에 참가한 사람은 하마다 이외에도 경성제국대학의 후지타 료사쿠, 교토제국대학의 우메하라 스에지, 당시 조선총독부 촉탁이었던 오바 쓰네키치 등 화려한 멤버로 구성되었다.



圖51 \_ 구로이타 조사대가 찍은 광개토대왕비 (『조선고적도보』 I 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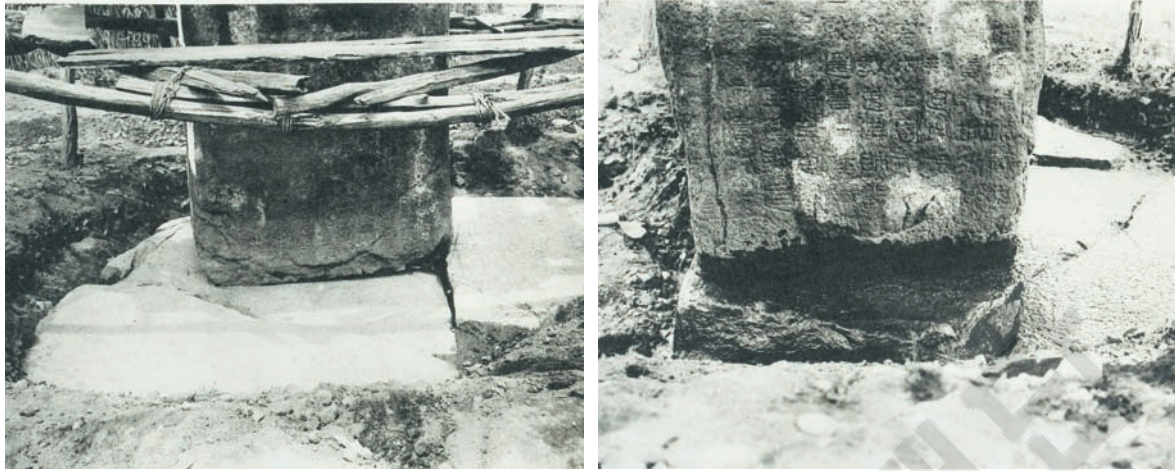


圖52 \_ 구로이타 조사대가 굴착한 광개토대왕비의 하부구조

일행은 희천과 강계에서 1박 썩을 하고 압록강의 만포진에 도착하여 강을 건너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때에는 이토는 물론 좌우보간행회의 사이토 우키쿠타로도 집안에서 있었고, 조사는 이토의 안내로 진행되었다.

일행은 도착 당일 광개토대왕릉과 태왕릉, 장군총 등을 보고 다음 날에 새로 발견되었다는 고분을 답사했는데, 새로 붙여진 이름이 무용총과 각저총이다.

3일째에는 산성자 산성과 천추총, 서대총, 삼실총 등 저명한 고분을 둘러보았다.

다음 날 아침인 10월 1일 만포진의 숙소를 나와 압록강변을 따라 국경도로를 드라이브하면서 신의주로 향하는 아주 짧은 여행을 하였는데, 도중에 모두루총과 환문총을 답사한다. 당시 이미 내부가 열려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현지 확인결과 무덤의 입구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본 조사대는 이토만을 현지에 남기고 압록강변의 조사를 계속했다. 그 뒤 오회분의 근처에서 사신도가 있는 벽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지조사를 감행하여 강서삼묘에 필적하는 훌륭한 벽화고분을 확인하게 된다. 이름하여 사신총이 그것이다. 이해에 새롭게 5기의 벽화고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만주국 당국은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의 필요를 확인하고 1936년의 조사를 기획하게 된다.

1936년에는 외무성 문화사업부의 원조를 구해서 일만문화협회의 사업으로 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때의 조사단은 이케우치 히로시를 비롯하여 교토제국대학의 하마다 고사쿠, 우메하라 스에지, 동방문화학원 교토연구소의 연구원이던 미즈노 세이이치, 만몽문화연구원(滿蒙文化研究員)이던 미카미 쓰기오를 조사원으로 하여, 1935년과 마찬가지로 좌우보간행회의 사이토와 오카자키가 촬영원으로 참가하여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9월 30일: 모두루총, 환문총, 사신총, 삼실총을 조사했는데 담당 조사원은 하마다와 이케우치이다. 또 모두루와 환문총의 실측은 우메하라와 미카미가 담당하였다.

10월 1일: 태왕릉과 장군총, 천추총, 서대총을 하마다와 이케우치가 조사하고 태왕릉과 사신총의 측량을 우메하라와 미카미가 담당하였다.

10월 2일: 산성자 산성을 미즈노와 미카미, 이케우치가 조사하고 산성하 고분군을 우메하라가 조사하였다.

10월 3일: 통구성 즉 국내성을 미즈노와 이케우치가 조사하고 삼실총을 우메하라와 미카미가 조사하였다.

10월 4일: 장군총을 우메하라와 미즈노, 미카미, 이케우치가 공동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고분의 도면을 작성한 것은 우메하라 스에지였는데, 지금 도쿄의 동양문고에는 그 원도가 남아 있다. 1936년의 조사에는 경성제국대학의 다나카 교수를 포함해 평양부립박물관의 고이즈미 아키오 등 다수가 참가했다. 이때에도 조사단은 조선 측의 만포진에 숙소를 잡았으며 연일 압록강을 건너다니면서 조사를 수행했다. 하마다는 10월 2일에 먼저 자동차로 집안을 떠나고 나머지 조사원들은 모두 끝까지 남아서 조사를 수행했다고 한다.

『통구』를 간행하는 과정에서 상권은 전체 유적의 개요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케우치가 원고를 작성하였고 하권은 하마다와 우메하라가 집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하마다와 우메하라의 역할관계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원고작성을 우메하라가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편 1935년부터는 이와 별도로 경성제국대학의 후지타 료사쿠가 매년 집안을 답사했는데, 1936년에 평양 근교의 토포리와 내리에서 고구려 유적의 조사·경험을 쌓은 아리미쓰 교이치도 1940년 무렵에 집안을 처음 방문하였다. 후지타 료사쿠의 답사와 관련된 조사 내용과 성과는 그가 촬영한 유리원판을 소장한 성균관대학 박물관에서 검토한 바 있다(성균관대학교 박물관, 2006).

이 외에도 많은 연구자가 집안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193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집안의 고구려 유적의 조사에 대한 정리는 그 연구 보고서인 『통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다.



圖53 \_ 1913년 세키노 조사단이 태왕릉에서 채집한 기와 (도쿄대학 소장)



圖54 \_1913년 세키노 조사단이 태왕릉에서 채집한 기와 (도쿄예술대학 소장)



圖55 \_1913년 세키노 조사단이 태왕릉에서 채집한 문자전 (도쿄예술대학 소장)



圖56 \_1913년 세키노 조사단이 태양릉에서 채집한 문자전 (도쿄예술대학 소장)



圖57 \_1913년 세키노 조사단이 태왕릉에서 채집한 자료 (도쿄예술대학 소장)



圖58 \_1913년 세키노 조사단이 천추총과 태왕릉에서 채집한 유물 (도쿄예술대학 소장)



圖59 \_1913년 세키노 조사단이 천추총에서 채집한 명문전 (도쿄예술대학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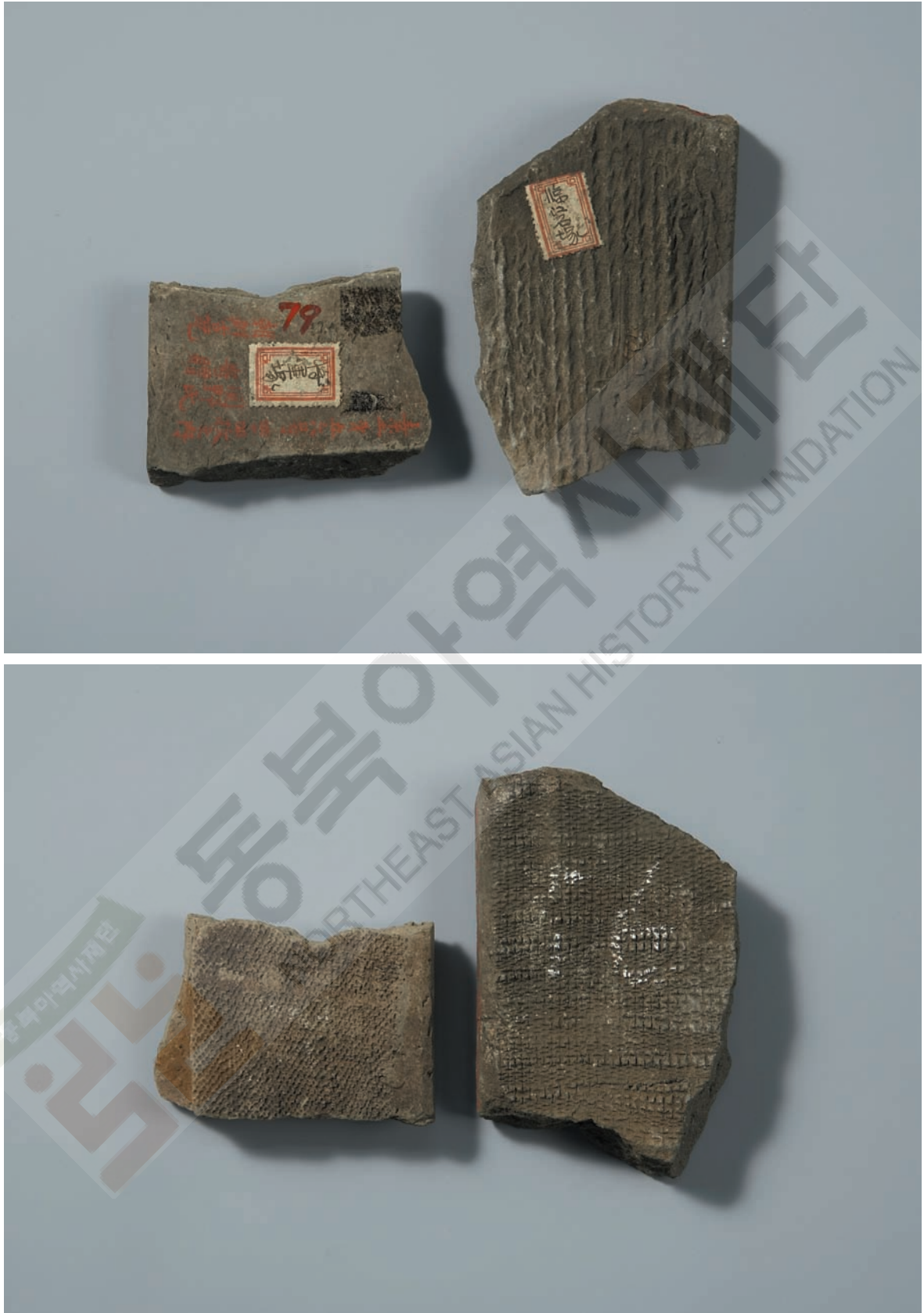


圖60 \_1913년 임강총에서 채집한 기와 (도쿄예술대학 소장)



圖61 \_1913년에 세키노 조사단이 천추총에서 채집한 문자전 (도쿄예술대학 소장)



圖62 \_1913년에 세키노 조사단이 산성자 산성에서 채집한 와당 (도쿄예술대학 소장)

## Ⅰ 국문 Ⅰ

- 國立中央博物館, 1997, 『유리원관 목록집 I - 소관 1909년~1930년』.
- 서길수, 2006, 『한말 유럽학자의 고구려 연구』, 여유당.
-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2006, 『集安 高句麗 유적의 어제와 오늘』.
- 李盛周, 1995, 「帝國主義時代 考古學과 그 殘迹」, 『古文化』 47, 韓國大學博物館協會.
- 이희준, 1990, 「解放前의 新羅·伽耶古墳 發掘方式에 대한 研究 - 日帝下 調査報告書의 再檢討 (2)」, 『韓國考古學報』 24輯, 韓國考古學會.
- 정인성, 2006, 「關野貞의 낙랑유적 조사·연구 재검토」, 『湖南考古學報』 24輯, 湖南考古學會.
- 정인성, 2008, 「일제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연구 재검토」,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I, 동북아역사재단.

## Ⅰ 일문 Ⅰ

- 高橋潔, 2001, 「關野貞を中心とした朝鮮古蹟調査行程 - 1909~1915年」, 『考古學史研究』 第9號.
- 谷井濟一, 1920, 「黃海道鳳山郡 平安南道順川郡及平安北道雲山郡古蹟調査略報告」,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 關野貞, 1914a, 「朝鮮平壤附近並滿洲輯安縣附近における樂浪及高句麗の遺蹟」, 『朝鮮教育會雜誌』 第25號.
- 關野貞, 1914b, 「高句麗時代の壁畫(一)」, 『國華』 294.
- 關野貞, 1914c, 「滿洲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蹟(一)」, 『考古學雜誌』 5-3.
- 關野貞, 1914d, 「滿洲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蹟(二)」, 『考古學雜誌』 5-4.
- 關野貞, 1915, 『朝鮮古蹟圖譜』 I, 朝鮮總督府.
- 關野貞, 1920a, 「平安北道及滿州高句麗古蹟調査略報告」,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 關野貞, 1920b, 「丸都城考」,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 關野貞, 1941,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 關野貞 外, 1929, 『古蹟調査特別報告 第五冊 高句麗時代之遺蹟 圖版上冊』, 朝鮮總督府.
- 關野貞 外, 1930, 『古蹟調査特別報告 第五冊 高句麗時代之遺蹟 圖版下冊』, 朝鮮總督府.
- 內田好昭, 2001, 「日本統治下の考古學的發掘調査(上)」, 『考古學史研究』 第9號.
- 德島縣立博物館, 1993, 『鳥居龍藏の見たアジア』.
- 東京大學綜合研究資料館, 1991, 『乾板に刻まれた世界-鳥居龍藏の見たアジア』.
- 藤田亮策, 1951, 「朝鮮古文化財の保存」, 『朝鮮學報』 1, 朝鮮學會.
- 藤田亮策·梅原末治, 1959, 『朝鮮古文化綜鑑』 3, 養德社.

- 梅原末治, 1969, 「日韓合併の期間に行われた半島の古蹟調査と保存事業にたずさわった一考古學徒の回想」, 『朝鮮學報』 5.
- 梅原末治, 1973, 『考古學六十年』, 東京:平凡社.
- 木耳社, 1988, 『好太王碑と集安の壁畫古墳』.
- 三上次男, 1955, 「朝鮮考古學の發達」, 『日本考古學講座』 2.
- 西川宏, 1966, 「在日朝鮮文化財と日本人の債務」, 『歴史地理教育』.
- 西川宏, 1968, 「帝國主義下の朝鮮考古學-はたして政策に密着しなかつたか」, 『朝鮮研究』 7, 朝鮮史研究會.
- 西川宏, 1970, 「日本帝國主義下の朝鮮考古學-年表」, 『考古學研究』 第16卷 第4號, 考古學研究會.
- 日滿文化協會, 1938, 『通溝』 卷上 高句麗卷通化省輯安縣高句麗遺蹟.
- 日滿文化協會, 1940, 『通溝』 卷下 高句麗卷通化省輯安縣高句麗壁畫墳.
- 鳥居龍藏, 1896a, 「高麗種族の紋様」, 『東京人類學會雜誌』 123號.
- 鳥居龍藏, 1896b, 「遼東半島」, 『太陽』 2卷.
- 鳥居龍藏, 1896c, 「遼東半島ニ於ケル高麗ノ考古學上ノ事實」, 『史學雜誌』 7編 8號.
- 鳥居龍藏, 1906, 「滿洲調査復命書」, 『史學雜誌』 17編 2・3・4號.
- 鳥居龍藏, 1909, 「南滿洲旅行談」, 『東洋時報』 第131・132號.
- 鳥居龍藏, 1910a, 「洞溝における高句麗の遺蹟と遼東における漢族の遺蹟」, 『史學雜誌』 21編 5號.
- 鳥居龍藏, 1910b, 「鴨綠江畔洞溝における高句麗の遺蹟」, 『東洋時報』 第137・140號.
- 鳥居龍藏, 1910c, 『南滿洲調査報告』, 東京帝國大學.
- 鳥居龍藏, 1910d, 「洞溝に於ける高句麗の遺蹟と遼東に於ける漢族の遺蹟」, 『史學雜誌』 第21編 第5號, 史學會.
- 鳥居龍藏, 1913, 「滿洲より北朝鮮の旅行 - 高句麗遺蹟の一斑」, 『東京人類學會雜誌』 123號.
- 鳥居龍藏, 1914, 「丸都城及び國內城の位置に就きて」, 『史學雜誌』 25編 7號.
- 鳥居龍藏, 1922, 「文獻上より溯り觀たる南滿洲最古の住民」, 『人類學雜誌』 37卷 10號.
- 鳥居龍藏, 1931, 「鳥居研究員遼陽發掘報告講演」, 『東方學報』 東京 1號.
- 鳥居龍藏, 1953, 『ある老學者の手記』, 朝日新聞社刊.
-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 早乙女雅博, 1997, 「關野貞の朝鮮古蹟調査」, 『精神のエクスペディション』, 東京大學創立百二十周年記念東京大學展 學問の過去 現在 未來「第二部」.
- 黑板勝美, 1916, 「朝鮮史蹟遺物調査復命書」; 黑板勝美先生生誕百年記念盒編, 1974 『黑板勝美先生遺文』, 吉川弘文館, 1974.
- 田村晃一, 2001 『樂浪及高句麗の考古學』, 同成社.

● 수막새 관찰표

번호	외당 문양	외당 두께	表面色	斷面色	胎土	燒成	모래	접착 기법	비교자료	번호	朱書
1	복선연화문	1.8	灰	灰	砂粒極少	硬質				1285	
2	복선연화문	1.1	靑灰	靑灰	砂粒極少	硬質		대갈		1285	
3	복선연화문	1.2	赤褐	赤褐	砂粒極少	硬質				1285	
4	복선연화문	1.9	灰	灰	砂粒極少	硬質				1285	
5	복선연화문	1.7	灰	灰	砂粒極少	硬質				1285	
6	복선연화문	1.5	灰	灰	砂粒極少	硬質		대갈		1285	
7	복선연화문	2.0	灰	灰	砂粒極少	硬質				1285	
8	복선연화문	1.8	灰	灰	砂粒極少	硬質				1285	
9	복선연화문	>0.8	灰	灰	砂粒極少	硬質				1285	
10	복선연화문	1.2	灰	灰	砂粒極少	硬質				1285	
11	복선연화문	1.8	灰	灰	砂粒極少	硬質				1285	
12	복선연화문	1.3	灰	灰	白色	硬質				1285	
13	복선연화문	1.9	靑灰	灰	砂粒極少	硬質		대갈		1285	
14	복선연화문	>1.5	靑灰	靑灰	砂粒極少	硬質				1285	
15	복선연화문	>1.5	灰	灰	砂粒極少	硬質				1285	
16	복선연화문	1.6	灰	灰	白色	硬質				1285	
17	복선연화문	2.2	灰	灰	砂粒極少	硬質		대갈		1285	
18	복선연화문	1.5	灰	灰	砂粒極少	硬質				1285	
19	복선연화문	1.5	灰	灰	砂粒極少	硬質				1285	
20	복선연화문	1.3	灰	灰	砂粒極少	硬質			井16	1285	
21	복선연화문	2.0	灰	灰	砂粒極少	硬質			井16	1285	
22	복선연화문	1.8	灰	灰	砂粒極少	硬質			井16	1285	
23	복선연화문	1.3	灰	灰	砂粒極少	硬質		대갈	井16	1285	
24	복선연화문	2.6	靑灰	靑灰	砂粒極少	硬質	앞			1285	
25	복선연화문	2.1	黃褐	赤褐	褐色	軟質	앞,수	대갈		1285	
26	복선연화문	1.8	黃褐	黃褐	砂粒極少	軟質	앞	대갈		1285	
27	복선연화문	2	灰	灰	砂粒極少	軟質		대갈		1285	
28	복선연화문	1.5	灰褐	灰褐	砂粒極少	軟質	앞	대갈		1285	
29	복선연화문	1.6	灰	灰	砂粒極少	軟質	앞,뒷			1285	
30	복선연화문	1.9	灰	灰	砂粒極少	軟質	앞			1285	
31	복선연화문	>1.2	黃褐	赤褐	砂粒極少	軟質				1285	
32	복선연화문	1.6	灰	灰	砂粒極少	硬質	수			1285	
33	복선연화문	1.5	灰	灰	白色	硬質	앞			1285	
34	복선연화문	2.1	黃褐	黃褐	砂粒極少	硬質				1285	
35	형식불명	—	灰褐	赤褐	褐色	軟質				1285	
36	복선연화문	—	赤褐	赤褐	砂粒極少	軟質		대갈?		1286	
37	복선연화문	2.2	暗赤褐	暗赤褐	砂粒極少	硬質	수		井105, 關99	1286	東
38	복선연화문	2.2	赤褐	赤褐	砂粒極少	硬質			井105, 關99	1286	東
39	복선연화문	1.7	灰	灰	砂粒極少	硬質	앞,뒷	다치구?	關60~64·72·75	1287	
40	복선연화문	1.8	灰	灰	白色	硬質		다치구?		1287	
41	복선연화문	1.8	赤褐	赤褐	砂粒極少	軟質				1287	
42	복선연화문	2.3	赤褐	赤褐	褐色	軟質		다치구 (뒷면,수 키와내면)	井84	1287	酒
43	복선연화문	2.2	赤褐	赤褐	白色	軟質		다치구	井84	1287	
44	복선연화문	1.5	赤褐	赤褐	褐色	硬質	앞,뒷,주연		關96·97	1286	
45	복선연화문	2.1	赤褐	赤褐	褐色	硬質	앞,뒷,주연	다치구?	關96·97	1286	
46	복선연화문	1.7	暗赤褐	褐色	硬質					1286	

번호	와당 문양	와당 두께	表面色	斷面色	胎土	燒成	모래	접착 기법	비교자료	번호	朱書
47	복선연화문	2.3	暗赤褐	赤褐	褐色	硬質		다치구	關108	1287	酒岩
48	복선연화문	2.2	暗赤褐	赤褐	褐色	硬質			井74·關110	1287	酒岩
49	연화복합문(1)	1.5	黃褐	灰	砂粒極少	軟質	앞		井17·30, 關115	1285	
50	연화복합문(1)	1.6	赤褐	赤褐	砂粒極少	硬質			井17·30, 關115	1285	
51	연화복합문(1)	2.0	灰	灰	砂粒極少	硬質			井17·30, 關115	1285	
52	연화복합문(1)	1.7	暗灰	灰	砂粒極少	硬質	앞		井17·30, 關115	1285	
53	연화복합문(1)	2.7	黑灰	灰	砂粒極少	硬質	앞		井17·30, 關115	1285	
54	연화복합문(1)	1.5	靑灰	靑灰	白色	硬質			井17·30, 關115	1285	
55	연화복합문(1)	1.6	灰	灰	白色	硬質	주연	대갈	井17·30, 關115	1285	
56	연화복합문(1)	1.6	靑灰	靑灰	砂粒極少	硬質	뒷	대갈	井17·30, 關115	1285	
57	연화복합문(1)	1.3	靑灰	靑灰	砂粒極少	硬質			井17·30, 關115	1285	
58	연화복합문(5)	1.2	灰白	灰白	白色	軟質				1285	
59	연화복합문(2)	1.8	黃褐	灰	砂粒極少	軟質			井37, 關120·121·125	1285	
60	연화복합문(2)	1.7	黃褐	黃褐	褐色	軟質			井37, 關120·121·125	1285	
61	연화복합문(2)	2.1	赤褐	赤褐	褐色	軟質	앞	물손질	井37, 關120·121·125	1285	
62	연화복합문(2)	2.4	黃褐	赤褐	褐色	軟質			井37, 關120·121·125	1285	
63	연화복합문(2)	1.5	灰褐	灰褐	褐色	硬質	앞, 주연		井37, 關120·121·125	1285	
64	연화복합문(2)	2.2	灰	靑灰	砂粒極少	硬質	앞, 주연		井37, 關120·121·125	1285	
65	연화복합문(2)	1.3	灰	赤褐	褐色	軟質	앞		井37, 關120·121·125	1285	
66	연화복합문(2)	1.7	灰褐	暗赤褐	砂粒極少	硬質	앞, 뒷?		井37, 關120·121·125	1285	
67	연화복합문(3)	1.7	暗灰	灰	白色	硬質	앞, 뒷, 주연	대갈	井23~25, 關132~133	1285	
68	연화복합문(3)	1.8	靑灰	靑灰	砂粒極少	硬質		대갈	井23~25, 關132~133	1285	
69	연화복합문(3)	>1.1	靑灰	靑灰	白色	硬質		다갈	井23~25, 關132~133	1285	
70	연화복합문(3)	1.7	灰	灰	砂粒極少	硬質	앞, 뒷		井23~25, 關132~133	1285	
71	연화복합문(3)	1.6	灰	灰	白色	硬質	뒷		井23~25, 關132~133	1285	
72	연화복합문(4)	>1.3	黃褐	赤褐	砂粒極少	軟質	주연?			1285	
73	연화복합문(4)	2.2	靑灰	赤褐	砂粒極少	硬質	주연		關138	1285	
74	연화복합문(6)	1.7	灰	赤褐	砂粒極少	軟質			井18·19·21, 關116·123	1285	
75	연화복합문(6)	1.1	灰	灰	白色	軟質			井18·19·21, 關116·123	1285	
76	연화복합문(6)	>1.5	灰	灰	白色	軟質			井18·19·21, 關116·123	1285	
77	연화복합문(6)	2.0	赤褐	灰	白色	軟質			井18·19·21, 關116·123	1285	
78	연화복합문(6)	1.2	靑灰	靑灰	白色	硬質	앞, 주연		井18·19·21, 關116·123	1285	
79	연화복합문(6)	1.0	靑灰	靑灰	白色	硬質			井18·19·21, 關116·123	1285	
80	연화복합문(7)	>1.5	黑褐	黃褐	白色褐色	軟質	앞	다치구?	井64, 關140~142	1285	
81	연화복합문(7)	1.5	灰褐	灰褐	白色褐色	軟質	앞	다치구	井64, 關140~142	1285	
82	연화복합문(7)	1.4	明褐	明褐	白色褐色	軟質			井64, 關140~142	1285	
83	연화복합문(7)	>1.2	灰	灰	白色褐色	軟質			井64, 關140~142	1285	
84	연화복합문(7)	2.0	暗赤褐	明褐	白色褐色	軟質		다치구	井64, 關140~142	1285	
85	연화복합문(7)	1.5	黃褐	黃褐	白色褐色	軟質		다치구	井64, 關140~142	1285	
86	연화복합문(7)	>1.4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軟質	주연?		井64, 關140~142	1285	
87	연화복합문(7)	>1.2	灰褐	灰褐	白色褐色	軟質	앞		井64, 關140~142	1285	
88	연화복합문(7)	>1.1	灰褐	赤褐	白色褐色	軟質	앞		井64, 關140~142	1285	
89	연화복합문(7)	1.3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軟質	앞		井64, 關140~142	1285	
90	연화복합문(7)	1.3	黃褐	黃褐	白色褐色	軟質			井64, 關140~142	1285	
91	연화복합문(7)	1.6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앞, 주연	다치구	井64, 關140~142	1285	
92	연화복합문(7)	1.3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앞	다치구	井64, 關140~142	1285	
93	연화복합문(7)	1.3	黃褐	黃褐	白色褐色	軟質	앞		井64, 關140~142	1285	
94	연화복합문(7)	>1.2	明褐	明褐	白色褐色	軟質	앞, 주연	다치구	井64, 關140~142	1285	

번호	외당 문양	외당 두께	表面色	斷面色	胎土	燒成	모래	접착 기법	비교자료	번호	朱書
95	연화복합문(7)	2.0	赤褐	赤褐	白色褐色	軟質	앞, 주연	다치구	井64, 關140~142	1285	
96	연화복합문(7)	1.5	灰褐	明褐	白色褐色	軟質	뒷, 주연		井64, 關140~142	1285	
97	연화복합문(7)	1.5	灰褐	明褐	白色褐色	軟質	앞, 주연	다치구 (뒷면, 수키와 광단면)	井64, 關140~142	1285	
98	연화복합문(7)	1.5	黃褐	黃褐	白色褐色	軟質			井64, 關140~142	1285	
99	연화복합문(7)	1.2	灰褐	灰褐	白色褐色	軟質	앞, 주연	다치구 (뒷면, 수키와 광단면)	井64, 關140~142	1285	
100	연화복합문(7)	1.1	黃褐	黃褐	白色褐色	軟質	앞	다치구	井64, 關140~142	1285	
101	연화복합문(7)	1.6	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다치구	井64, 關140~142	1285	
102	연화복합문(8)	1.6	靑灰	靑灰	白色褐色	硬質				1285	
103	연화복합문(9)	>1.8	灰	黑褐	白色	軟質			關119	1285	
104	연화복합문(9)	1.4	黑褐	灰	砂粒極少	軟質			關119	1285	
105	연화복합문(9)	1.5	灰	灰	褐色	軟質			關119	1285	
106	연화복합문(9)	1.2	黑褐	灰	砂粒極少	軟質			關119	1285	
107	연화복합문	>1.3	灰	灰	褐色	軟質				1285	
108	연화복합문	1.8	黑褐	黑褐	褐色	硬質				1286	
109	연화복합문	>1.3	灰白	灰白	白色	軟質	앞? 주연?			1285	
110	연화복합문(10)	1.5	暗赤褐	赤褐	褐色	硬質				1285	
111	연화복합문(10)	1.8	赤褐	赤褐	白色褐色	軟質		다치구	井225, 關171~173	1285	
112	연화복합문(10)	1.2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주연?		井225, 關171~173	1285	
113	연화복합문(10)	1.3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井225, 關171~173	1285	
114	연화복합문(10)	2.0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다치구 (수키와 광단면)	井225, 關171~173	1285	
115	연화복합문(10)	0.9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井225, 關171~173	1285	
116	연화복합문(10)	1.3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井225, 關171~173	1285	
117	연화복합문(10)	>1.1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軟質			井225, 關171~173	1285	
118	연화복합문(10)	1.2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井225, 關171~173	1285	
119	연화복합문(10)	0.9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井225, 關171~173	1285	
120	연화복합문(10)	1.5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井225, 關171~173	1285	
121	연화복합문(10)	1.5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井225, 關171~173	1285	
122	연화복합문(11)	2.5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井151·152·154, 關169·170	1285	
123	연화복합문(11)	2.0	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앞, 주연	다치구	井151·152·154, 關169·170	1285	助王
124	연화복합문(11)	1.8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뒷, 주연, 수	다치구	井151·152·154, 關169·170	1285	
125	연화복합문(11)	2.6	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앞	다치구	井151·152·154, 關169·170	1285	
126	연화복합문(11)	>1.4	赤褐	赤褐	白色褐色	軟質		다치구	井151·152·154, 關169·170	1285	
127	연화복합문(11)	2.5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뒷?	다치구 (뒷면, 수키와 내면)	井151·152·154, 關169·170	1285	
128	연화복합문(11)	1.4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뒷	다치구 (수키와 내면)	井151·152·154, 關169·170	1285	
129	연화복합문(11)	>1.6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다치구	井151·152·154, 關169·170	1285	濕
130	연화복합문(11)	>0.7	赤褐	赤褐	白色褐色	軟質			井151·152·154, 關169·170	1285	
131	연화복합문(11)	2.2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앞, 주연, 수	다치구	井151·152·154, 關169·170	1285	
132	연화복합문(11)	>1.0	赤褐	赤褐	白色褐色	軟質			井151·152·154, 關169·170	1285	
133	연화복합문(11)	>0.8	赤褐	赤褐	白色褐色	軟質		다치구	井151·152·154, 關169·170	1285	

번호	외당 문양	외당 두께	表面色	斷面色	胎土	燒成	모래	접착 기법	비교자료	번호	朱書
134	연화복합문(11)	1.8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井151·152·154, 關169·170	1285	
135	연화복합문(11)	>0.7	赤褐	赤褐	白色褐色	軟質			井151·152·154, 關169·170	1285	
136	연화복합문(12)	2.0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다치구	井167	1285	
137	연화복합문(12)	>1.1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井167	1285	
138	연화복합문(12)	2.2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다치구	井167	1285	
139	연화복합문(12)	1	灰?色	赤褐	白色褐色	硬質			井167	1285	
140	연화복합문(12)	1.5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주연		井167	1285	
141	연화복합문(12)	1.2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다치구	井167	1285	
142	연화복합문(12)	1.8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주연?	다치구	井167	1285	
143	연화복합문(12)	2.1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수?	다치구	井167	1285	
144	연화복합문(13)	2.6	赤褐	赤褐	白色褐色	軟質	앞	대칼?	井159, 關158	1287	酒
145	연화복합문(14)	2.0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井167	1285	
146	연화복합문(15)	1.8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주연?	다치구 (뒹면, 수키와 내면)	井160, 關156	1286	
147	연화복합문(14)	1.4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앞, 주연	다치구	井161, 關155	1286	南
148	연화복합문(15)	2.0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井160, 關156	1286	
149	연화복합문(16)	>0.8	赤褐	赤褐	褐色	軟質	앞, 주연	다치구	關167	1288	南
150	연화문	2.0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앞, 뒷, 주연		關167	1288	南
151	연화복합문(17)	1.8	赤褐	赤褐	불명	軟質		다치구	關167	1288	芦
152	연화복합문(17)	1.7	赤褐	赤褐	白色	軟質		다치구	關167	1288	芦
153	연화문	1.4	赤褐	赤褐	褐色	硬質	앞, 주연		井124, 關224?	1286	西北
154	연화문	1.4	灰白	赤褐	褐色	硬質		다치구	井119, 關218·222	1286	
155	연화문	1.3	赤褐	赤褐	褐色	硬質		다치구	井119, 關218·222	1286	
156	연화문	1.4	暗赤褐	赤褐	褐色	硬質			井119, 關218·222	1286	西北??
157	연화문	1.6	靑灰	赤褐	褐色	硬質	앞, 뒷?	다치구	井119, 關218·222	1286	
158	연화문	1.8	灰褐	赤褐	褐色	硬質	앞?	다치구	井120?	1286	
159	연화문	1.7	灰褐	赤褐	褐色	硬質			關223?	1286	
160	연화문	1.9	赤褐	赤褐	褐色	硬質		다치구		1286	江
161	연화문	1.4	赤褐	赤褐	褐色	硬質	앞, 주연			1286	
162	연화문	1.5	暗赤褐	赤褐	褐色	硬質	앞, 주연	다치구	井115, 關216	1286	岸
163	연화문	1.8	黑褐	赤褐	褐色	硬質	앞, 주연		井115, 關216	1288	芦
164	연화문	1.5	赤褐	赤褐	褐色	硬質	앞, 뒷?			1286	鐵
165	연화문	2.1	赤褐	赤褐	褐色	硬質		다치구	井72, 關162	1286	
166	연화문	1.7	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앞? 주연?	다치구	井162, 關221	1286	永
167	연화문	2.4	赤褐	赤褐	褐色	硬質	앞?, 주연	다치구	井125·126, 關226	1286	西
168	연화문	>0.8	赤褐	赤褐	砂粒極少	軟質	주연?		井125·126, 關226	1286	
169	연화문	>0.6	赤褐	赤褐	褐色	軟質				1286	
170	연화문	1.2	赤褐	赤褐	褐色	硬質	앞, 주연	다치구?	井2·123, 關227	1286	
171	연화문	1.3	赤褐	赤褐	褐色	硬質	앞, 주연	다치구	井2·123, 關227	1286	西北
172	연화문	1.8	暗赤褐	赤褐	砂粒極少	硬質			井122	1285	
173	연화문	1.9	暗赤褐	黑褐	砂粒極少	硬質			井122	1285	
174	연화문	1.9	暗赤褐	赤褐	褐色	硬質	앞?, 주연	다치구	井169, 關198	1286	
175	연화문	1.6	赤褐	赤褐	褐色	硬質		다치구	井169, 關198	1286	南
176	연화문	1.4	暗赤褐	赤褐	褐色	硬質	앞, 주연	다치구	井171, 關175·176	1286	芦
177	연화문	1.9	赤褐	赤褐	褐色	軟質		다치구	井173, 關44·239·241	1286	芦
178	연화문	1.0	暗赤褐	赤褐	褐色	硬質			井170	1286	
179	연화문	1.4	靑灰	赤褐	불명	硬質		다치구		1288	芦

번호	외양 문양	외양 두께	表面色	斷面色	胎土	燒成	모래	접착 기법	비교자료	번호	朱書
180	연화문	1.9	赤褐	赤褐	褐色	軟質		다치구	井211	1288	芦
181	연화문	1.6	明褐	明褐	褐色	硬質	앞	다치구	井209, 關235	1286	南
182	연화문	>0.5	明褐	明褐	褐色	硬質	앞	다치구	井209, 關235	1286	南
183	연화문	1.9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앞?	다치구	井209, 關235	1286	
184	연화문	2.4	灰白	灰白	褐色	軟質			井46, 關199	1285	
185	연화문	>1.9	灰白	灰白	褐色	軟質			井46, 關199	1285	
186	연화문	>1.4	灰	灰	褐色	軟質			井46, 關199	1285	
187	연화문	1.2	靑灰	靑灰	褐色	硬質	주연?		井46, 關199	1285	
188	연화문	2.0	灰	靑灰	砂粒極少	硬質	주연??		井45	1285	
189	연화문	1.7	灰	灰	白色褐色	軟質			井45	1285	
190	연화문	>1.5	灰褐	灰褐	白色褐色	軟質		물손질?	井50(48), 關106·107	1287	
191	연화문	1.5	黃褐	黃褐	白色褐色	軟質		물손질?	井50(48), 關106·107	1287	酒西
192	연화문	1.7	黑褐	赤褐	白色	硬質	앞, 주연	다치구		1288	芦
193	연화문	2.0	暗赤褐	赤褐	褐色	硬質	앞, 수?		井118	1286	南
194	연화문	1.7	赤褐	赤褐	褐色	硬質		다치구	井116, 關196	1283	
195	연화문	1.8	黃褐	黃褐	褐色	硬質				1286	
196	연화문	1.6	暗灰褐	暗灰褐	砂粒極少	硬質				1286	
197	연화문	1.6	黑褐	黑褐	砂粒極少	硬質			井132	1286	
198	연화문	2.0	黃褐	黃褐	白色	硬質				1286	酒西
199	연화문	>0.6	赤褐	赤褐	褐色	硬質	앞			1286	
200	형식불명	1.0	暗赤褐	赤褐	褐色	硬質				1285	
201	형식불명	>1.0	暗赤褐	赤褐	褐色	硬質	앞, 주연	다치구		1285	
202	형식불명	>0.8	暗赤褐	赤褐	褐色	硬質				1285	
203	중권문	1.5	暗赤褐	赤褐	褐色	硬質	앞	다치구	井221, 關271	1286	芦
204	중권문	1.8	暗赤褐	赤褐	褐色	硬質	앞, 주연	다치구	井221, 關271	1286	南
205	중권문	2.0	暗赤褐	灰	白色褐色	硬質	앞, 주연	다치구 (뒷면, 수키 와 광단면 및내면)	井221, 關271	1286	南
206	중권문	>1.0	暗赤褐	赤褐	褐色	硬質	앞, 주연	다치구	井221, 關271	1286	
207	중권문	1.7	靑灰	靑灰	불명	硬質				1288	芦
208	중권문	1.7	赤褐	赤褐	褐色	硬質		다치구	井221, 關271	1286	
209	복선문	1.8	暗赤褐	赤褐	褐色	硬質	앞, 주연	다치구	井213·214, 關268	1286	南
210	복선문	>1.8	暗赤褐	赤褐	褐色	硬質	앞, 주연	다치구	井213·214, 關268	1286	
211	복선문	1.3	赤褐	赤褐	褐色	硬質	앞			1288	芦梅洞
212	와선문	3.1	赤褐	赤褐	白色褐色	軟質			井196, 關278	1286	
213	와선문	2.3	赤褐	赤褐	白色褐色	軟質			井196, 關278	1286	北
214	반규문	1.5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주연	다치구	井207, 關276	1286	
215	반규문	1.5	暗赤褐	赤褐	白色褐色	硬質	주연	다치구	井207, 關276	1286	南
216	귀면문	1.8	暗赤褐	赤褐	褐色	硬質			井222·223, 關260~263	1287	酒岩
217	귀면문	1.7	暗赤褐	赤褐	褐色	硬質			井222·223, 關260~263	1287	酒岩
218	귀면문	1.9	褐色	褐色	褐色	硬質			井222·223, 關260~263	1287	酒
220	연화문	1.5	灰	灰	불명	軟質			井190	1289	長
221	연화문	1.7	靑灰	靑灰	褐色	軟質			關193	1289	城山附近

● 암막새 관찰표

번호	외당 문양	외당 두께	表面色調	斷面色調	胎土	燒成	모래	비교자료	번호	朱書
219	당초문	1.8	灰	灰	雲母粒	軟質			1286	
222	당초문	>1.4	灰	灰	砂粒極少	軟質			1289	大城山附近
223	당초문	1.6	灰	灰	불명	硬質	表??		1289	
224	당초문	>1.6	灰	灰	불명	硬質	表??		1289	

● 착고와 관찰표

번호	외당 문양	외당 두께	表面色調	斷面色調	胎土	燒成	모래	비교자료	번호	朱書
225	귀면문	2.2	灰	灰	砂粒極少	硬質		井263, 關312~314	1285	
226	귀면문	2.1	灰	灰	砂粒極少	硬質		井263, 關312~314	1285	
227	귀면문	2.3	灰褐	灰褐	砂粒極少	硬質		井263, 關312~314	1285	
228	귀면문	2.1	靑灰	靑灰	砂粒極少	硬質			1285	

\* 수치(외당 두께)의 단위는 cm이다.

\* 모래가 부착된 위치는 아래와 같이 표기했다.

앞: 외당 앞면, 뒷: 외당 뒷면, 주연: 외당 주연부, 수: 수기와 외면

\* 접착기법은 아래와 같이 표기했다.

대칼: 대칼 새기기 기법, 다치구: 다치구 긁기 기법

\* 비교자료는 아래와 같이 표기했다.

關: 關野1927, 井: 井內1976

● 평기와 관찰표

번호	구분	外面		內面				側面		色調		胎土	燒成	두께	其他事項	朱記 (소장 번호)
		文樣	單位 文樣 (幅)	등쪽흔	포흔 (3cm내 올수)	사 질 흔	점토 합흔	단부조정 (구간 및 방식)	분 할 면	분 할 폭	表面					
229	수	銘文 '樂?'			18×19					赤褐	沙	沙粒極少	硬質	1.5~1.7	印刻(圓形)의 銘文 外面 타날문의 調整	(1285)
230	암	선문계 복합문 (평행선문 +사선문)			?×24			外面	2/5	灰褐	赤	沙粒多量	硬質	1.4~1.8	外面에 沙粒부착	南 (1286)
231	암	격자문계 변형문			?×26			外面	2/5		赤	沙粒多量	硬質	2.0~2.4	外面에 沙粒부착 內面 調整	(1286)
232	암	격자문계 변형문			21×?						黃赤	沙粒多量	硬質	1.6~1.8	內面の 壓痕	(1286)
233	암	석문		○				外面	2/3	赤褐		沙粒少量	硬質	1.7~2.2	外面에 沙粒부착 分割界点?	江 (1286)
234	암	석문계 복합문 (+草花)	약 7.5	○	24×23		단부의 내면쪽 모서리만 깎기조정	外面	2/5	赤褐		沙粒少量	硬質	1.5~1.9	外面에 沙粒부착 分割界点?	南 (1286)
235	암	석문			28×24			外面	3/5	赤褐	赤	沙粒少量	硬質	1.4~1.6	內面の 壓痕, 內面 調整	(1286)
236	암	능형문		○	27×22			外面	4/5		赤	沙粒少量	硬質	1.5~1.8	外面에 沙粒부착, 內 面 調整 分割界点?	江 (1286)
237	암	기타		○	24×23					赤褐	赤	沙粒少量	硬質	2.3~2.5	外面에 沙粒부착南	南 (1286)
238	암	기타			19×21		1.8cm구간 깎기조정			褐赤		沙粒少量	硬質	2.1~2.3	外面에 沙粒부착 外面下部의 橫方向 壓痕	(1286)
239	암	기타		○	?×28		모서리만 얇게 깎기 조정			褐赤		沙粒少量	軟 硬質	1.7~1.9	外面에 沙粒부착 內面の 넓은 縱方向? 文帶	(1286)
240	암	기타		○	35×32					黃赤		沙粒多量	硬質	1.7~2.1	外面에 沙粒부착	南 (1286)
241	암	기타		○	?×26					黃赤		沙粒少量	硬質	1.7~2.0	外面에 沙粒부착 內面の 넓은 縱方向?文帶	(1286)
242	암	기타						外面	1/2	赤		沙粒少量	硬質	1.7~2.1	外面에 沙粒부착 內面은 심하게 마모됨	(1286)
243	암	기타								黃赤		沙粒多量	硬質	1.7~2.1	外面에 沙粒부착	(1286)
244	암	기타			29×30		부분적 물 손질 조정			赤黃		沙粒少量	硬質	1.3~1.6	外面과 下端에 沙粒부착 內面の 縱方向 壓痕 (꼬여진 흔적)	南 (1286)
245	암	기타								黃赤		沙粒少量	硬質	1.3~1.6	內面은 심하게 마모됨 內面的 縱方向 壓痕	(1286)
246	암	기타								赤色		沙粒少量	硬質		外面의 일부분만 확인가능	(1288)
247	수	선문계 복합문 (+'官')			32×33					暗灰褐		沙粒少量	硬質	1.3~1.5	外面을 부분적으로 縱方向 調整 內面的 縱方向 壓痕	(1285)

번호	구분	外面		內面				側面		色調		胎土	燒成	두께	其他事項	朱記 (소장 번호)
		文樣	單位 文樣 (幅)	통쪽흔	포흔 (3cm내 올수)	사 질 흔	점 토 흔	단부조정 (구간 및 방식)	분 할 면	분 할 폭	表面					
248	암	선문계 복합문 (+'官')								黃赤	沙粒少量	硬軟 質	1.8	內面이 심하게 마모됨	(1285)	
249	암	선문계 복합문 (+'官')			32×22	○		內面	1/3	暗灰褐	沙粒極少	硬質	1.7~1.8	上端을 橫方向으로 調整 內面의 縱方向 壓痕	(1285)	
250	암	선문계 복합문 (+'官')				○				灰	沙粒少量	硬質	1.6~1.8	上端을 橫方向으로 調整	(1285)	
251	암	격자문계 변형 복합문 (+평행선)			28×26					灰	沙粒極少	硬質	1.7~2.1	內面의 넓은 壓痕永	(1286)	
252	암	격자문계 복합문 (+평행선)			25×27	○		內面	1/3	灰	沙粒極少	硬質	2.3~2.5	內面에 橫方向의 띠흔 分割界線	(1286)	
253	암	격자문				○				灰/ 赤	灰/ 赤	沙粒少量	硬質	1.5~1.8	外面을 부분적으로 調整	(1286)
254	암	격자문계 변형문								黃	沙粒少量	硬軟 質	1.3~1.5	內面이 심하게 마모됨	南 (1286)	
255	암	격자문계 복합문 (+草花)	약 4.5			○				灰黃	沙粒少量	硬質	2.2~2.5		(1286)	
256	암	격자문계 복합문 (+명문? +기타)	약 4.5		26×32	○				灰褐	沙粒少量	硬質	0.8~1.3	上端을 橫方向으로 調整	(1286)	
257	암	격자문계 복합문 (+평행선)								暗灰	沙粒少量	硬質		內面이 심하게 박리됨	南 (1286)	
258	암	어골문	약 5.0		28×31	○				黃灰	灰黃	沙粒極少	硬軟 質	1.7~2.0	上端을 橫方向으로 調整	(1286)
259	암	어골문계 변형문	약 6.5			○		內面	1/11	灰褐	沙粒多量	硬質	2.3~2.4		(1286)	
260	암	어골문계 변형문				○		內面	1/5	暗灰	灰	沙粒多量	硬質	1.5~1.7	內面調整	(1286)
261	암	어골문계 변형문	약 5.0		22×25	○	○	內面	1/7	褐灰	沙粒極少	硬質	1.8~2.6	外面을 部分的으로 縱方向 調整 分割界線?	(1286)	
262	수 (무)	어골문	약 4.0							灰黃	沙粒極少	硬質	1.2~1.5	上端의 橫方向 調整 內面의 불규칙한 縱方向 壓痕	(1286)	

번호	구분	外面		內面				側面		色調		胎土	燒成	두께	其他事項	朱記 (소장 번호)
		文樣	單位 文樣 (幅)	등쪽흔	포흔 (3cm내 올수)	사 절흔	점토 합흔	단부조정 (구간 및 방식)	분 할면	분 할쪽	表面					
263	암	어골문계 복합문 (+평행선)	약 5.2		22×25	○					黃灰 灰	沙粒多量	硬質	1.8-2.1		(1286)
264	암	어골문계 복합문 (+격자)	약 5.5								灰黃	沙粒極少	硬質	2.1-2.3	내면이 심하게 박리됨	南 (1286)
265	암	어골문계 복합문 (+격자)			21×25	○					灰黃	沙粒極少	硬軟 質	1.4-1.8	外面을 部分的으로 調整	(1286)
266	암	어골문계 복합문 (+기타)	약 4.8		25×28	○	○	3cm구간 짜기조정			灰褐 灰	沙粒極少	硬軟 質	1.4-1.6	外面을 部分的으로 調整	(1286)
267	암	어골문계 복합문 (+격자 +평행선)	약 5.0		26×22				內面	1/8	灰	沙粒少量	硬軟 質	1.8-1.9	分割界線	(1286)
268	암	집선문계	약 5.0			○			內面	3/5	黃	沙粒多量	硬質	1.1-1.6		(1286)
269	암	어골문계 변형문	약 5.9		26×36	○					暗灰	沙粒少量	硬質	1.9-2.1		(1286)
270	암	집선문계			30×35	○					灰	沙粒少量	硬質	1.9-2.1	內面에 橫方向의 띠흔	崇 (1286)
271	암	집선문계				○			內面	1/5	灰	沙粒多量	硬質	1.6-1.9		(1286)
272	암	집선문계				○					灰褐	沙粒極少	硬質	1.2-1.4		(1286)
273	암	집선문계			24×23	○					灰	沙粒極少	硬質	1.5-1.7	外面을 部分的으로 調整	(1286)
274	암	집선문계	약 4.5								灰	沙粒多量	硬質	1.2-1.5	內面이 심하게 박리됨	南 (1286)
275	암	집선문계				○	○				灰	沙粒少量	硬質	1.7-2.1	外面을 部分的으로 調整	(1286)
276	암	집선문계	약 5.5						外面		黃	沙粒少量	硬質	2.1-2.3	縱方向의 壓痕永	(1286)
277	암	수파문계 복합문 (+蓮華)	약 5.0		19×24	○			內面	1/7 ~ 1/2	灰褐	沙粒少量	硬質	1.8-2.6	上端의 橫方向 調整 外面의 部分的인 調整 內面上部에 두 줄의 橫方向 띠흔	(1286)
278	암	수파문계 복합문 (+蓮華)			?×23				內面	1/3 ~ 1/4	黃赤	沙粒少量	硬質	2.2-2.6	外面을 部分的으로 調整 內面的 橫方向 띠흔	(1286)
279	암	수파문계 복합문 (+평행선)			32×31	○					灰	沙粒少量	硬質	1.5-1.8		(1286)
280	암	기타				○					灰褐	沙粒少量	硬質	1.5-1.8		(1286)
281	암	기타									暗灰褐	沙粒極少	硬質	1.7-1.9		(1285)

\* 수치(單位文樣, 두께)의 단위는 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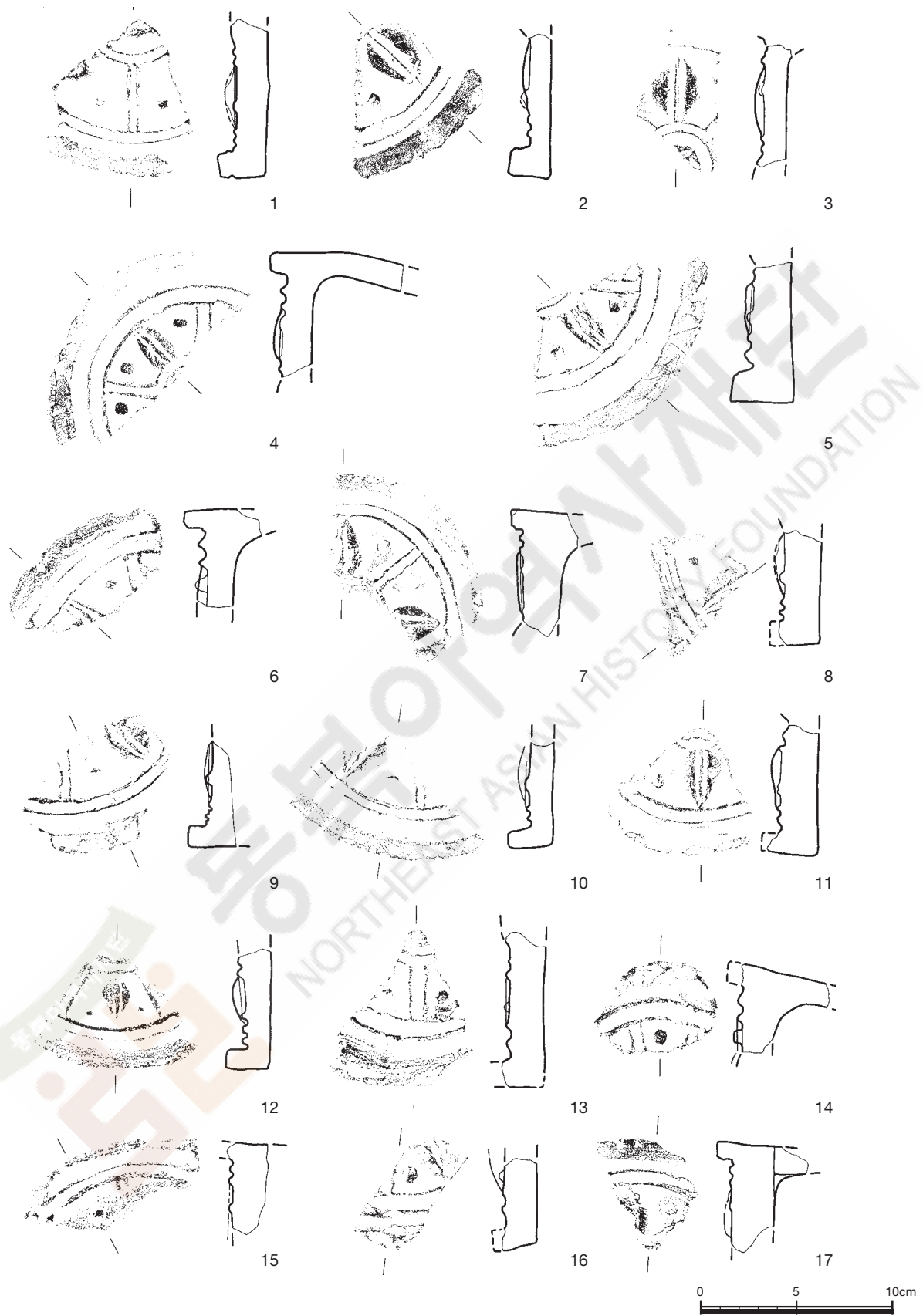
\* 통쪽흔, 사절흔, 점토합흔의 경우 잔존상태에서 확인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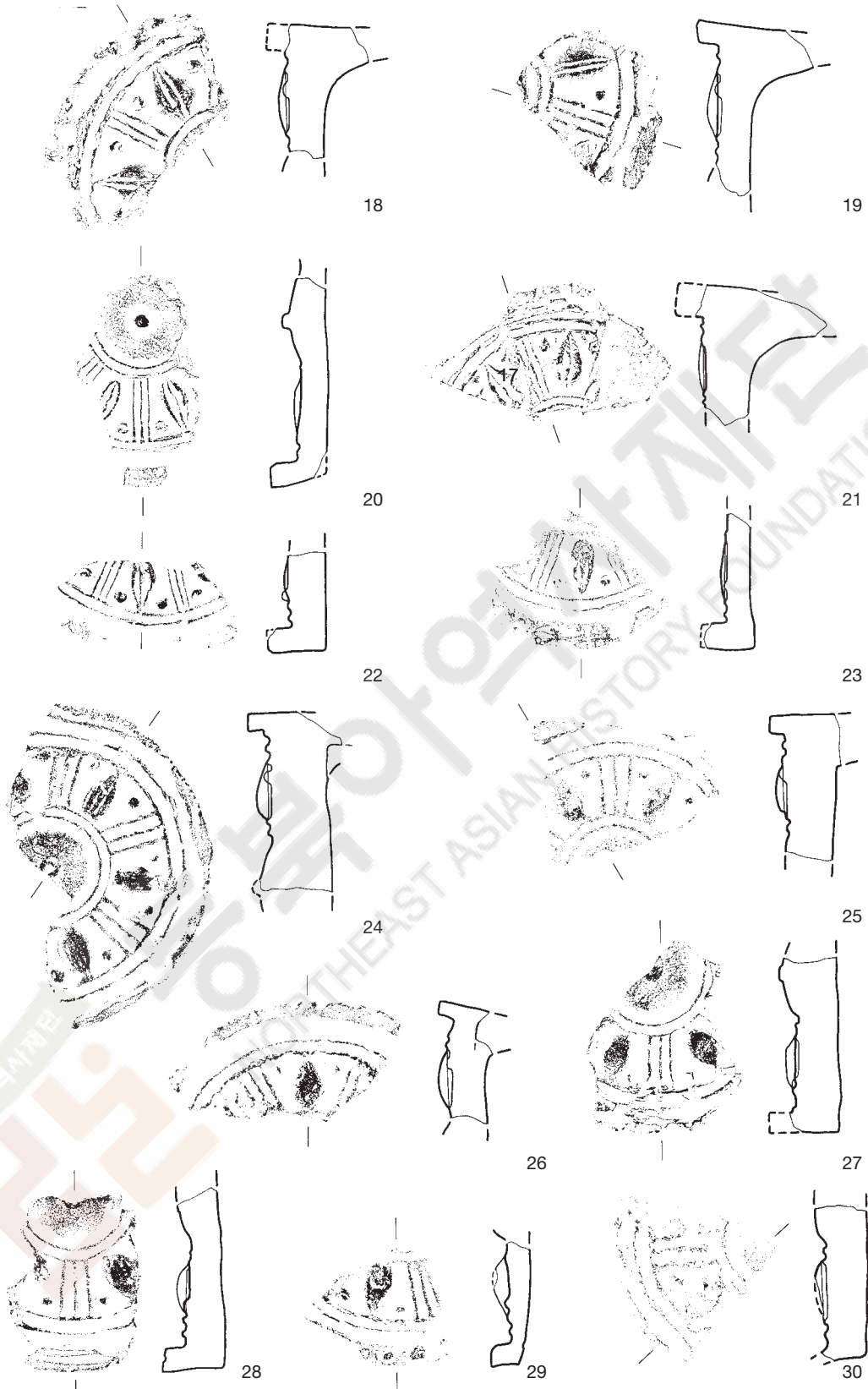
\* 분할 폭은 측면 전체 두께에 대한 分割截面의 비율로 표기하였다.

\* 평기와의 内外面에 남은 凹凸의 흔적 가운데 그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壓痕으로 표기하였다.

\* 胎土는 沙粒多量·沙粒少量·沙粒極少로, 燒成상태는 硬質·硬軟質·軟硬質·軟質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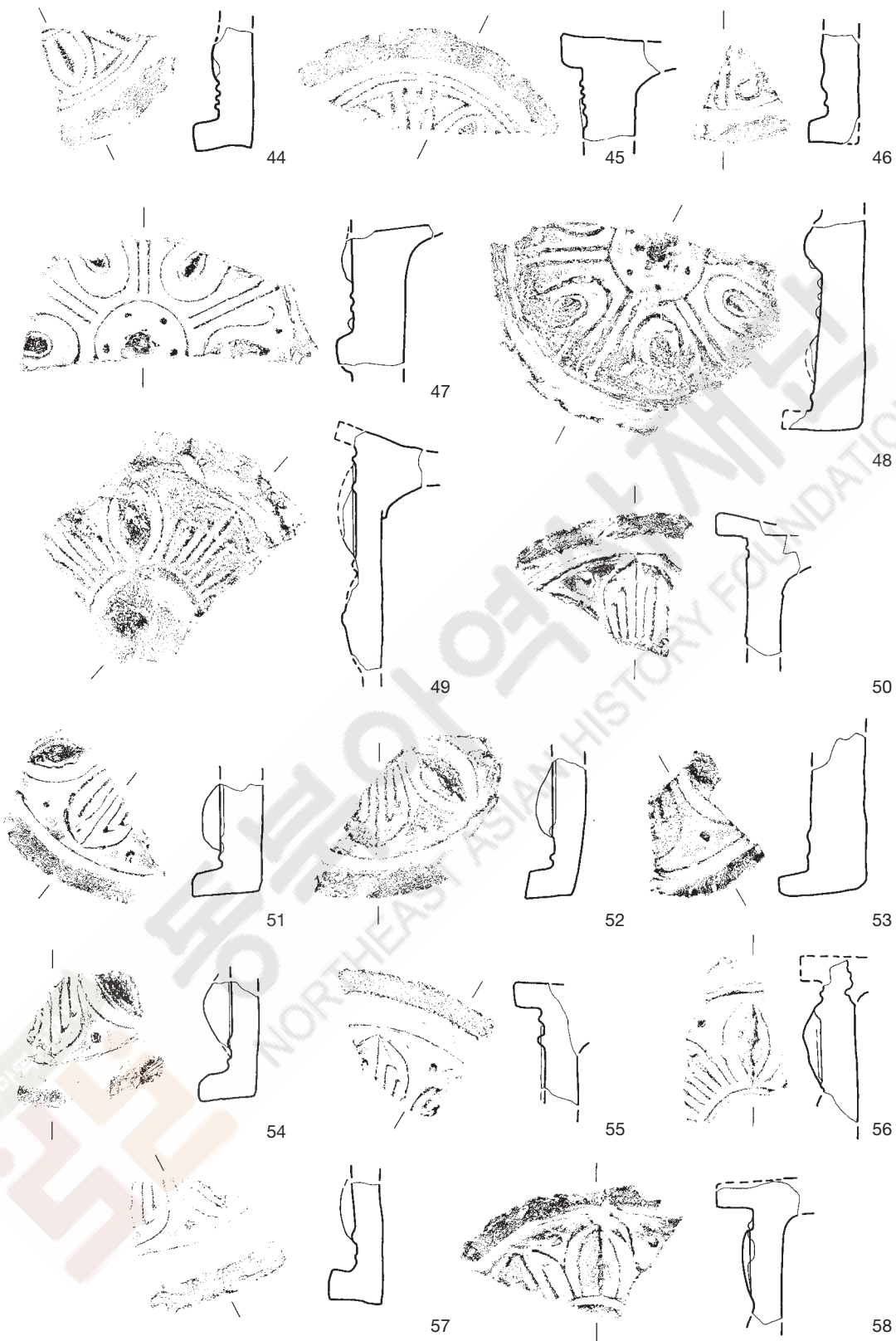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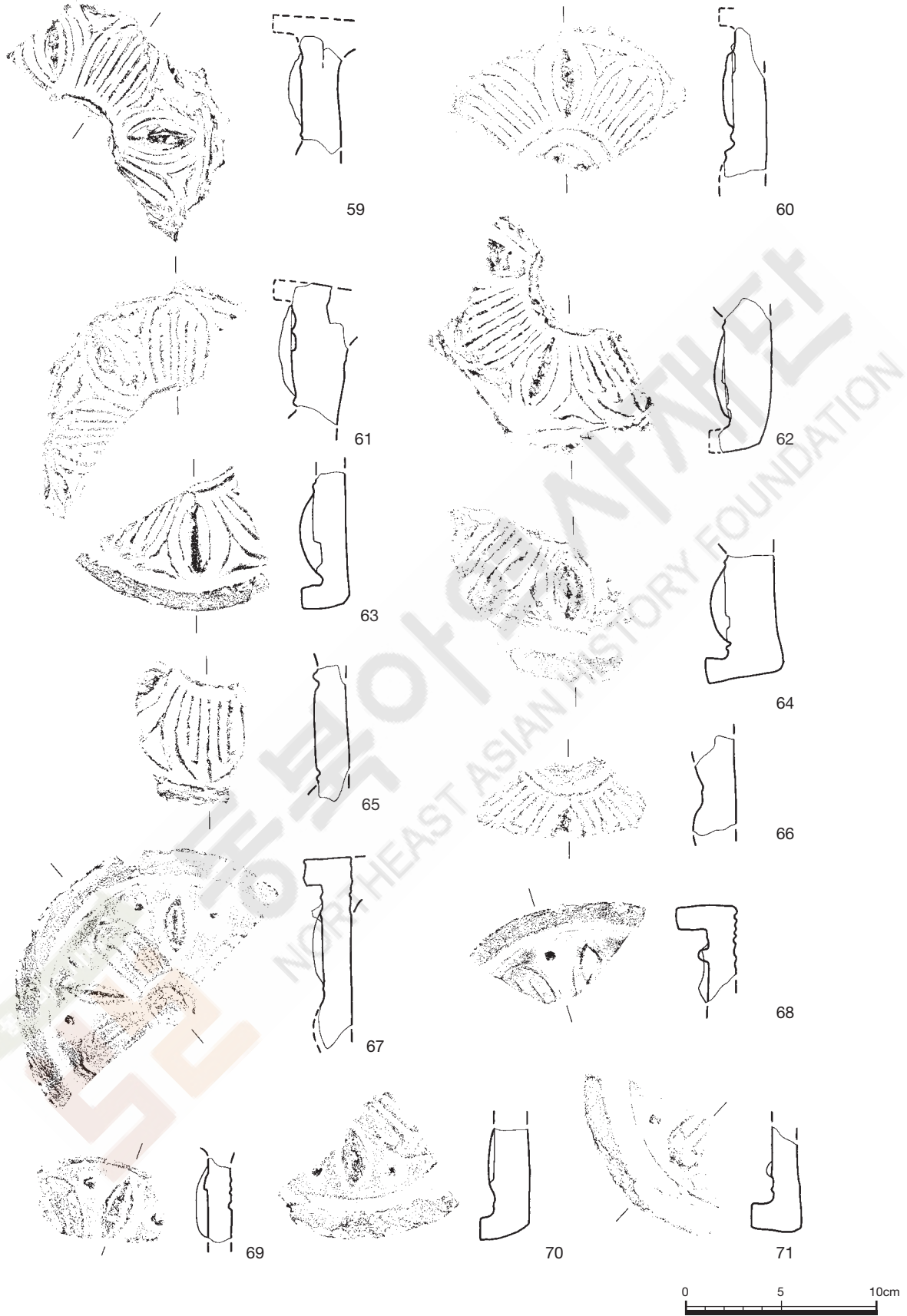
도면 2 야마다 기증 수막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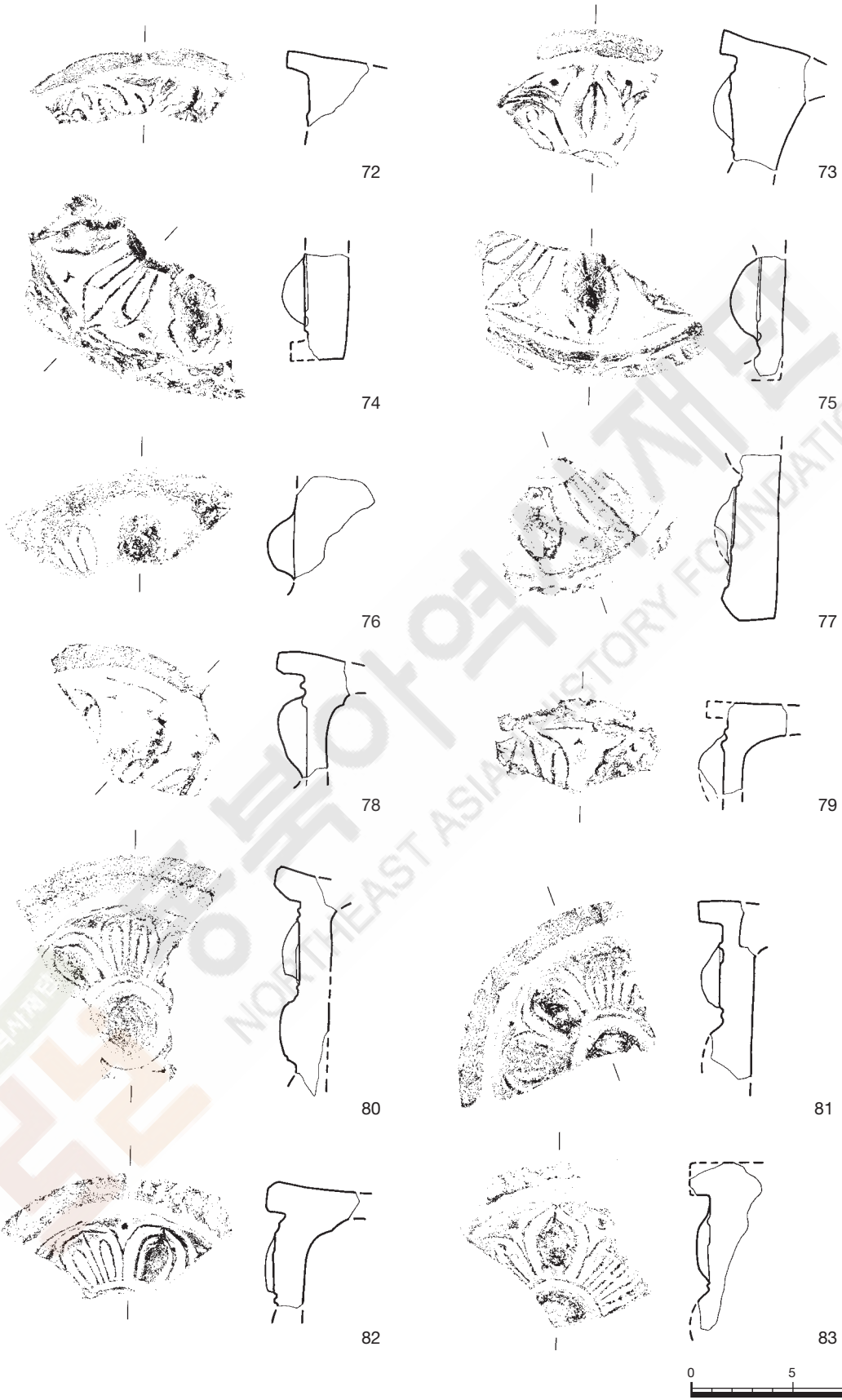
도면 3 야마다기증 수막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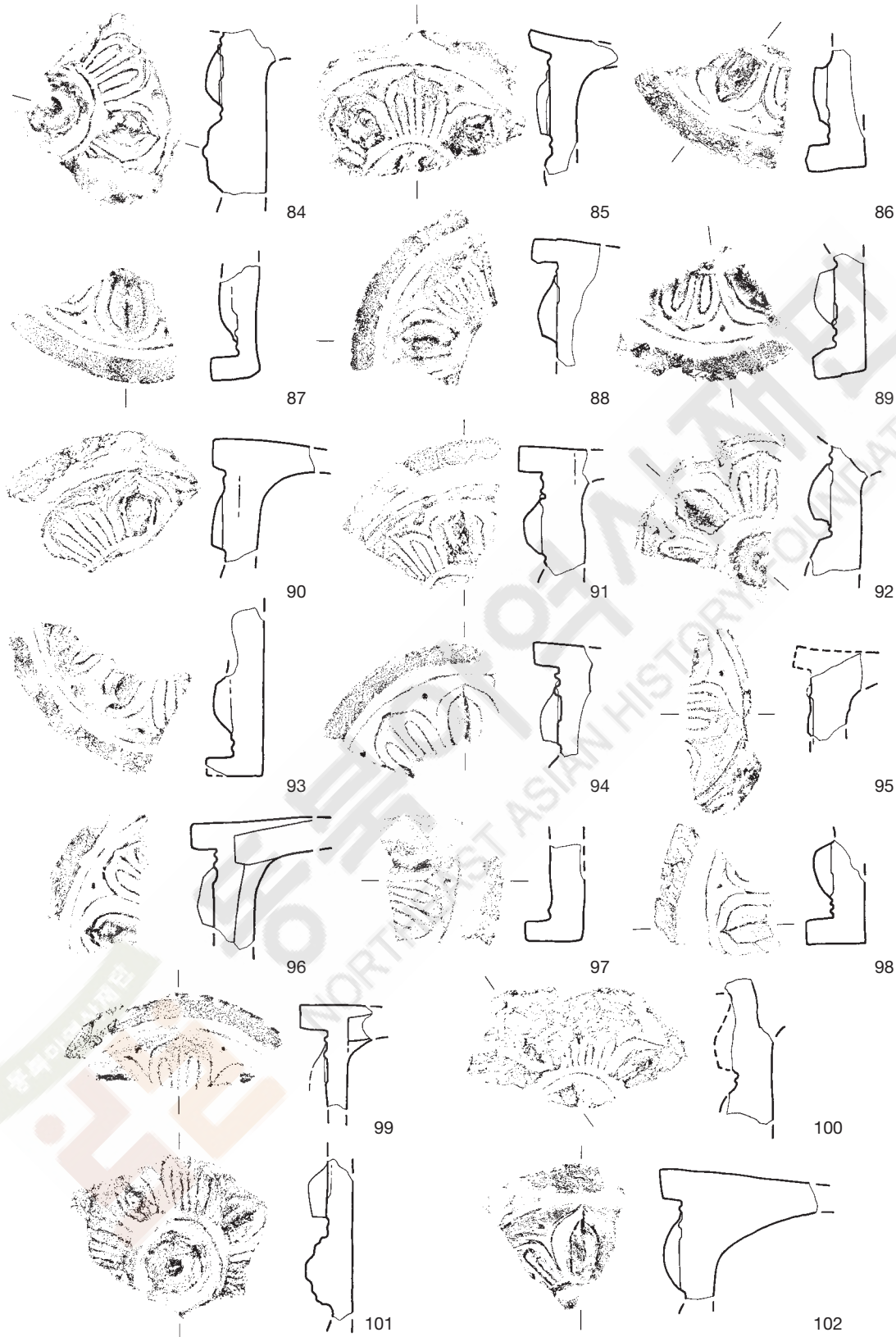
도면 4 야마다 기증 수막새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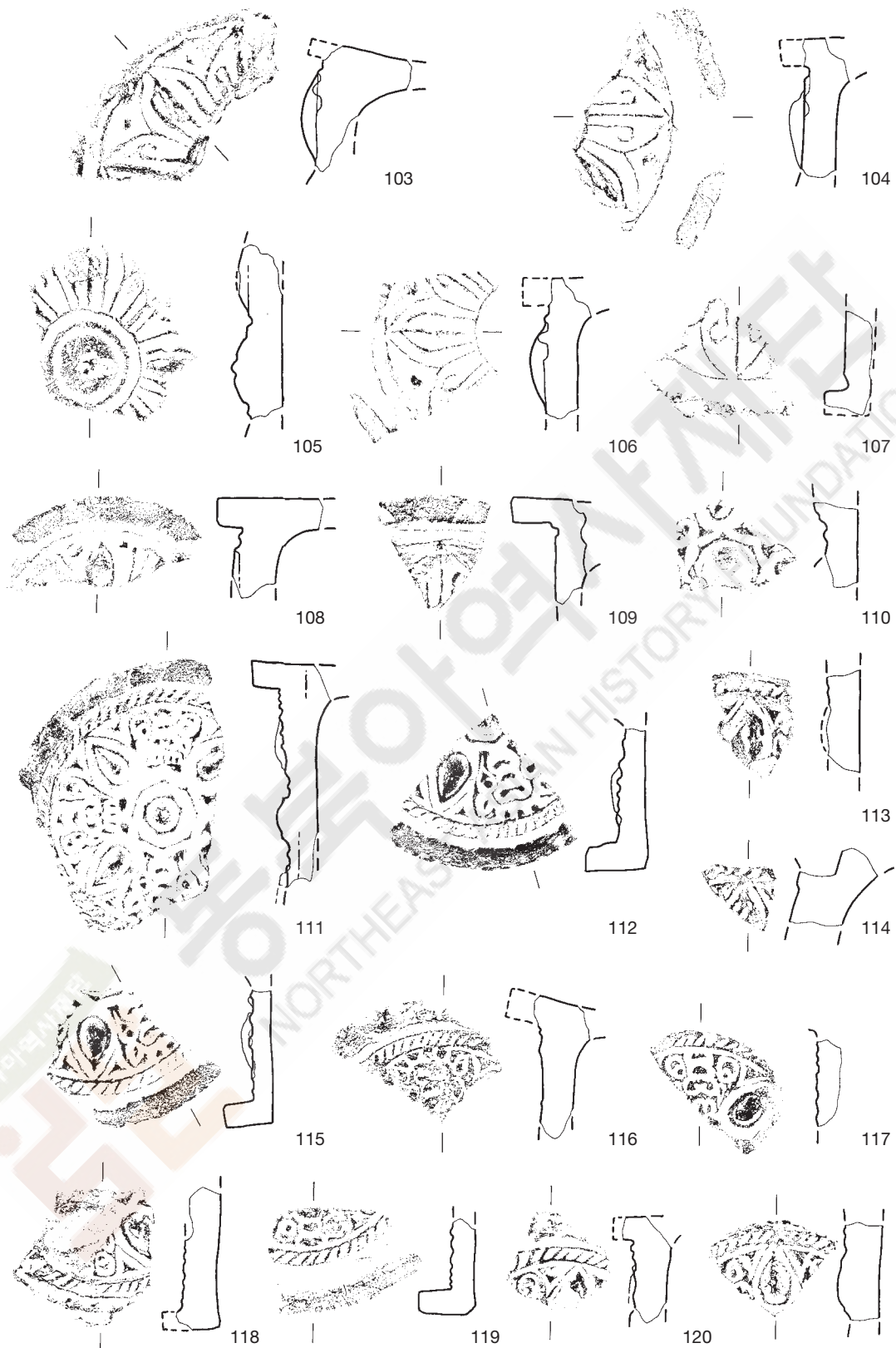
도면 5 야마다기증 수막새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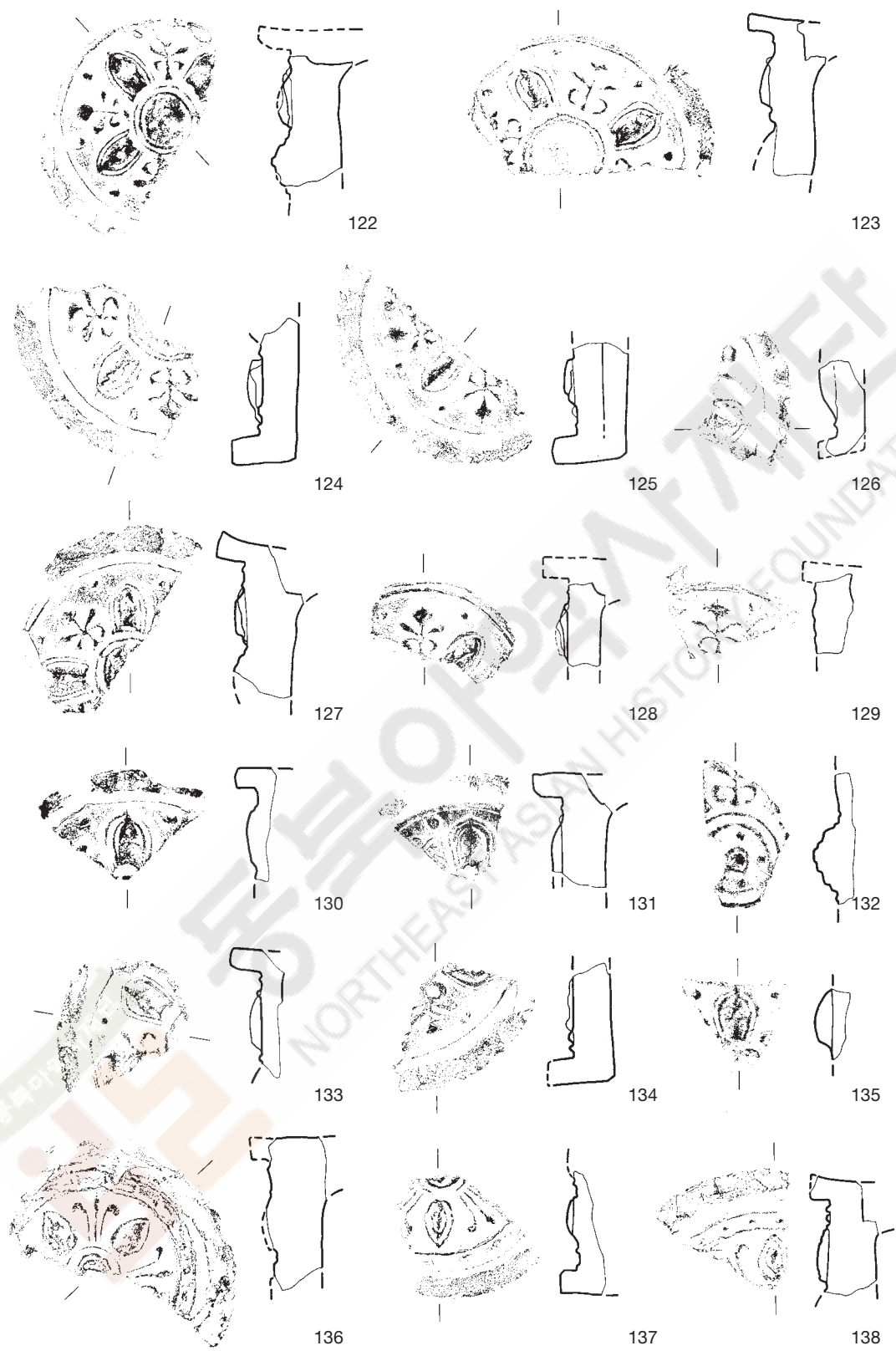
도면 6 야마다 기증 수막새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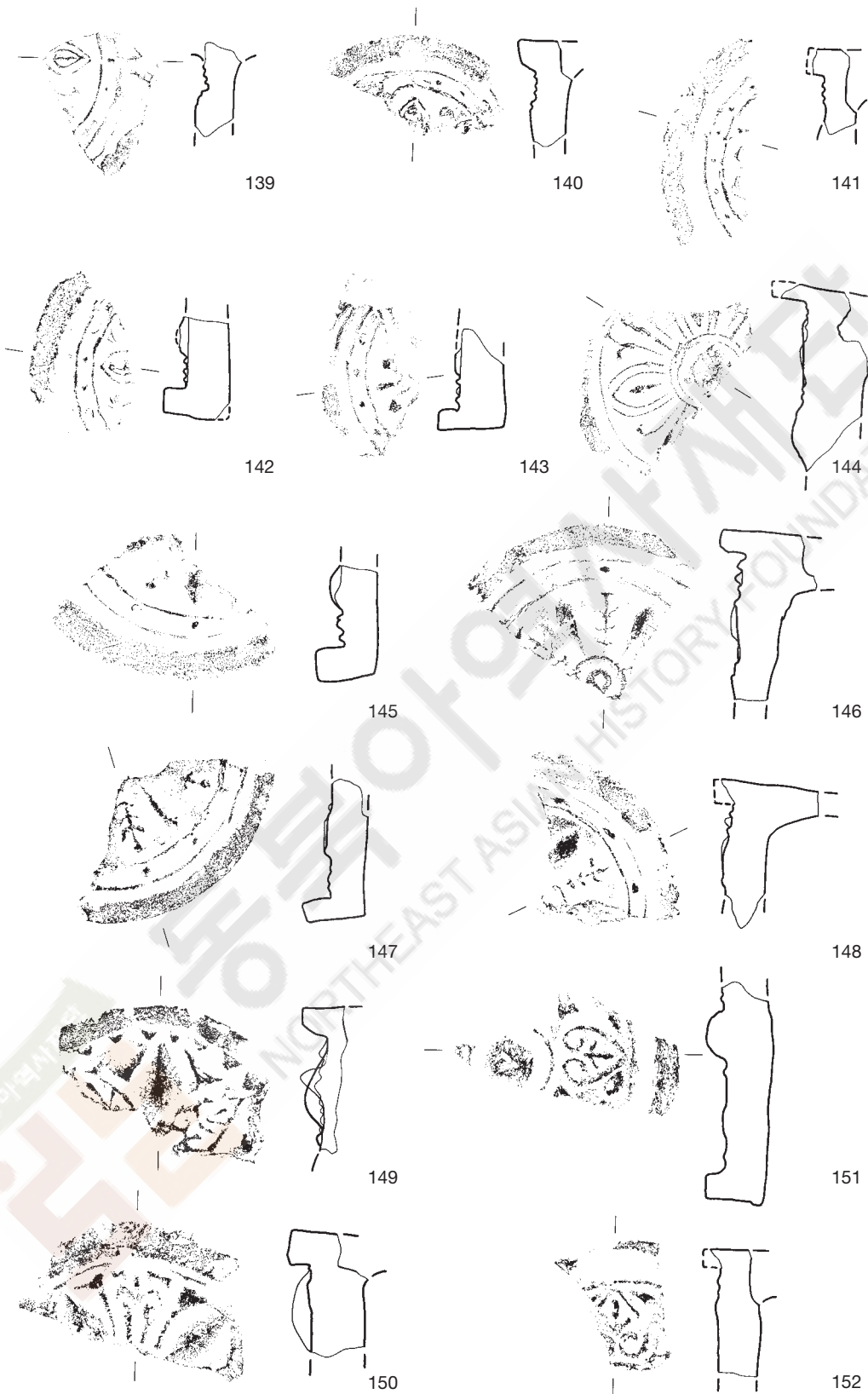
도면 7 야마다기증 수막새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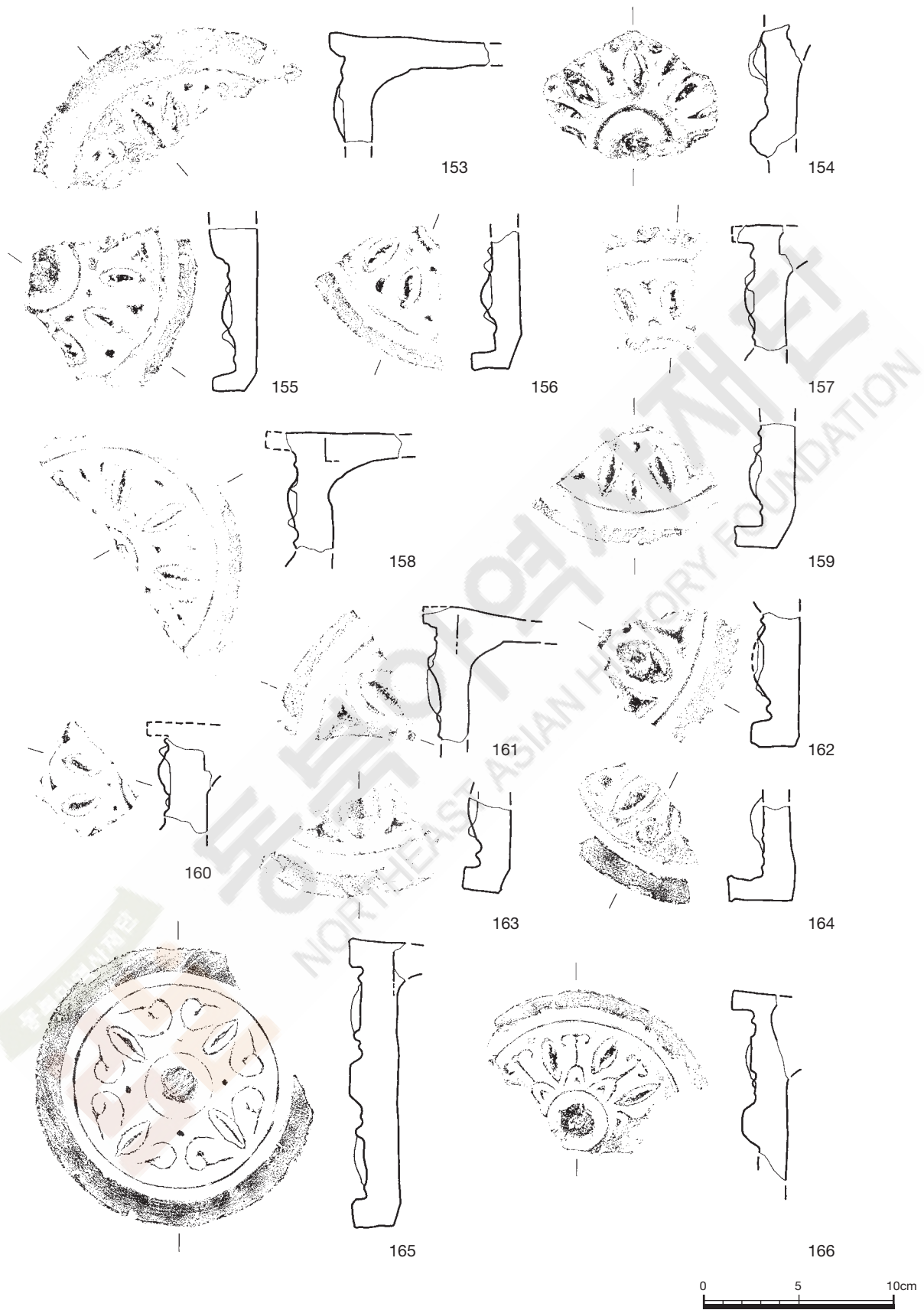
도면 8 아마다기증 수막새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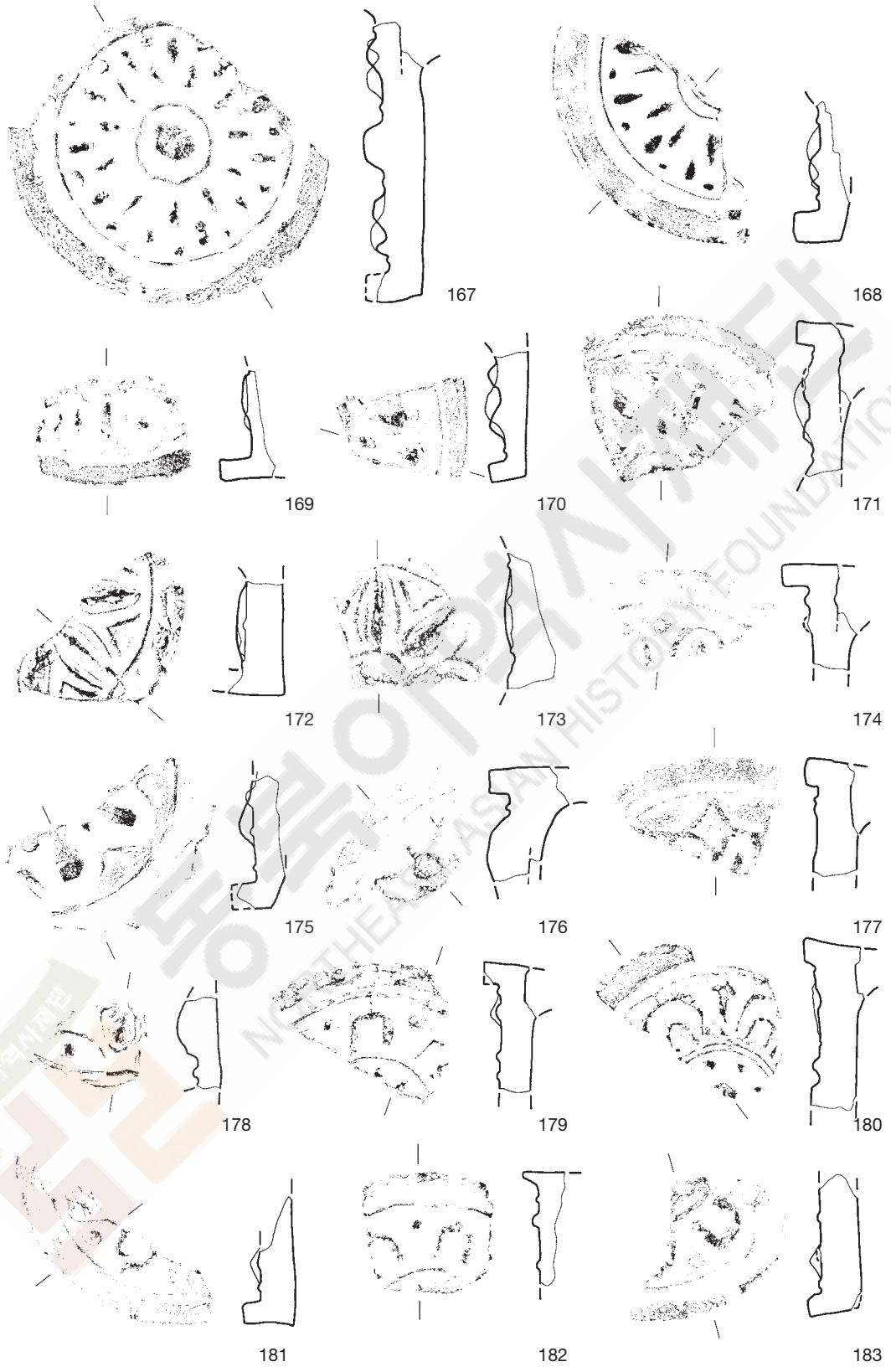
도면 9 야마다기증 수막새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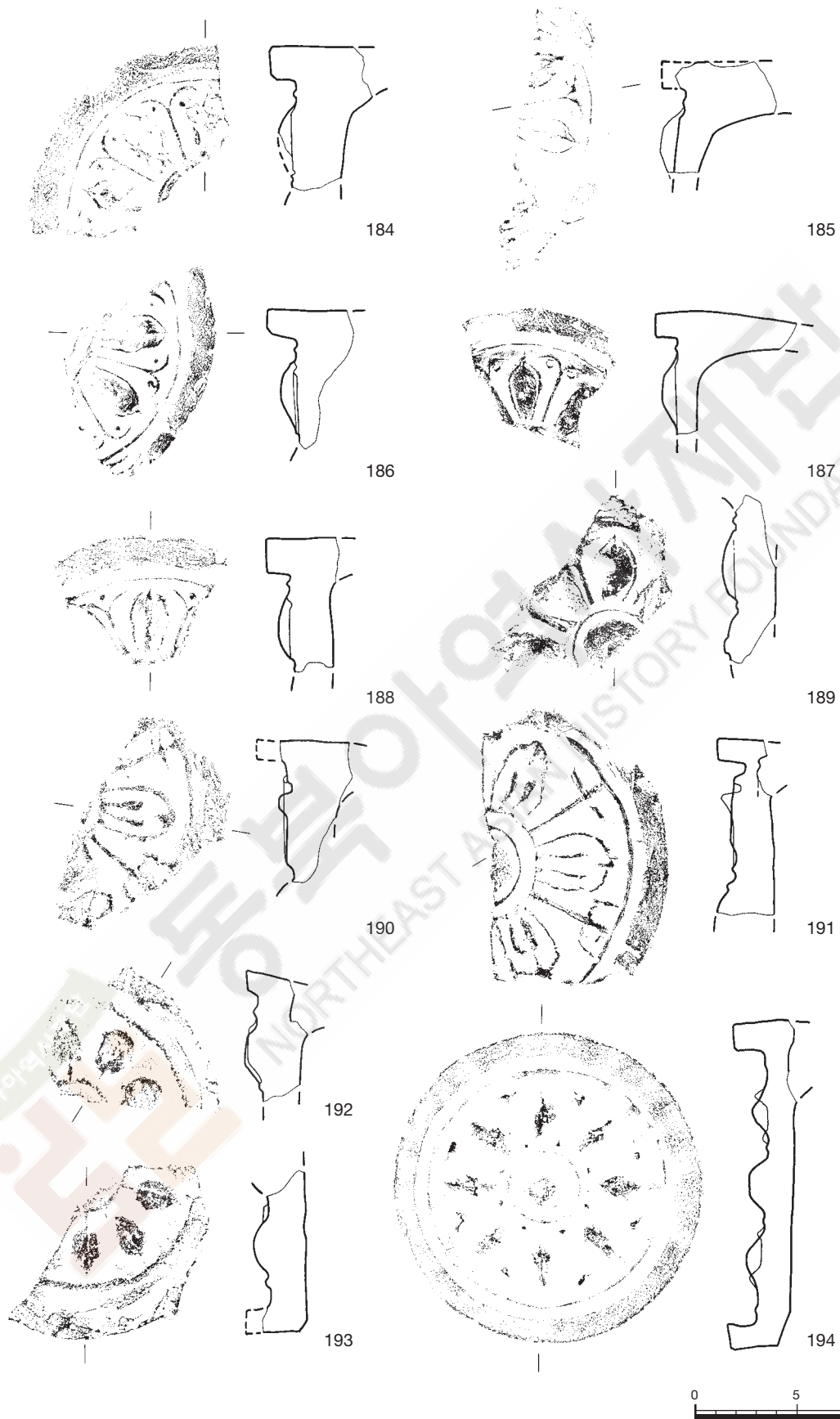
도면 10 야마다 기증 수막새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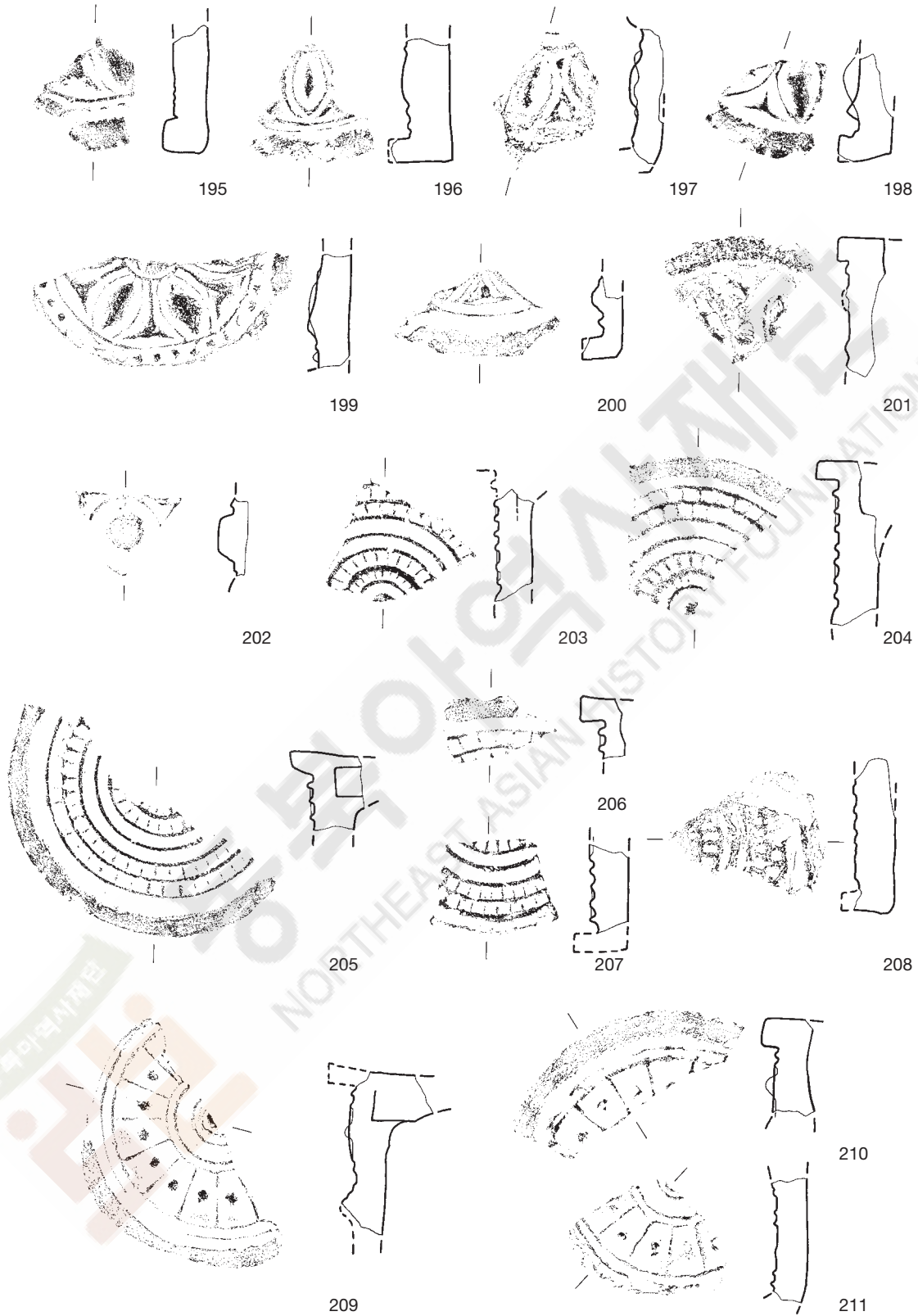
도면 11 야마다기증 수막새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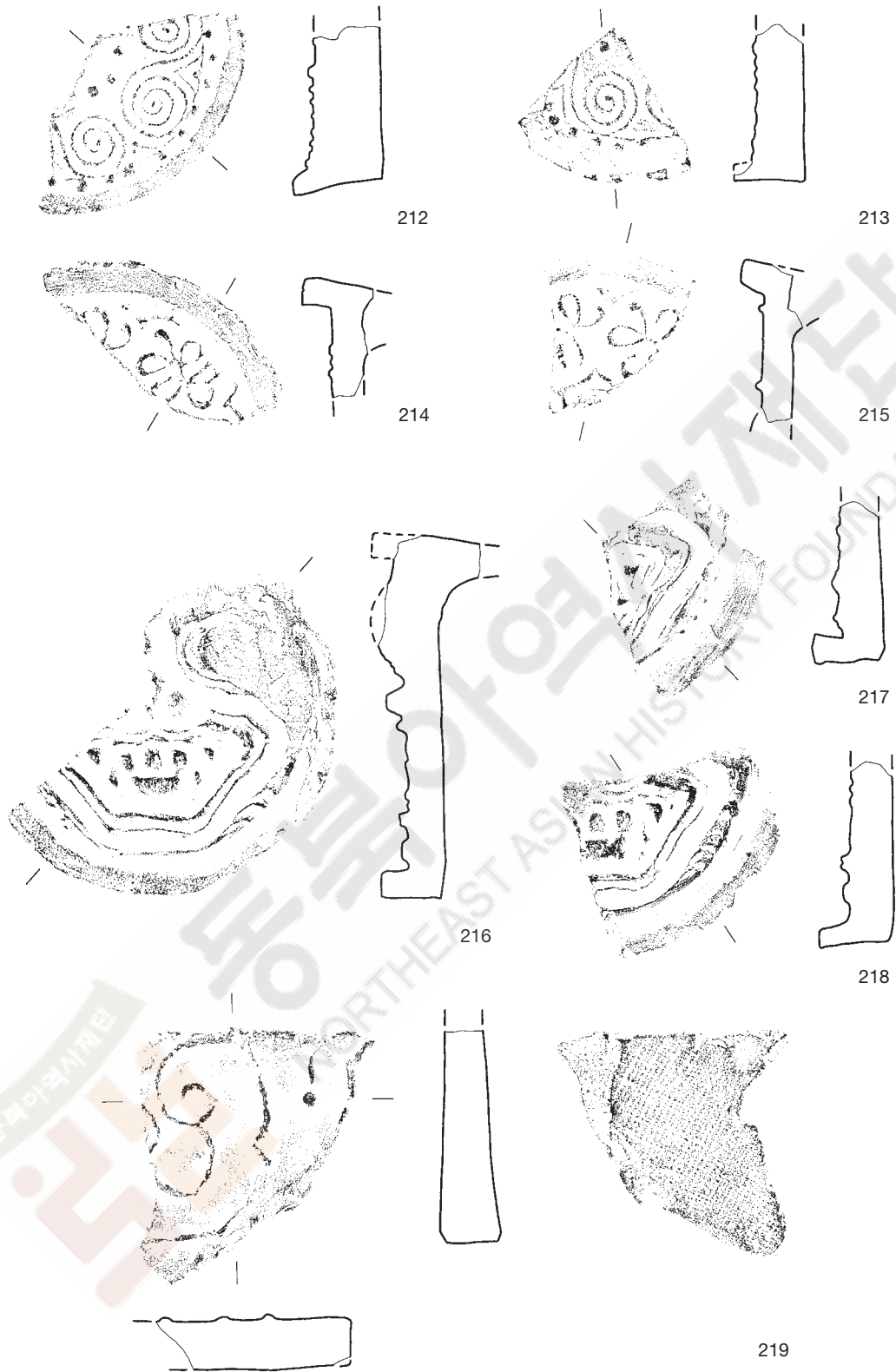
도면 12 야마다 기증 수막새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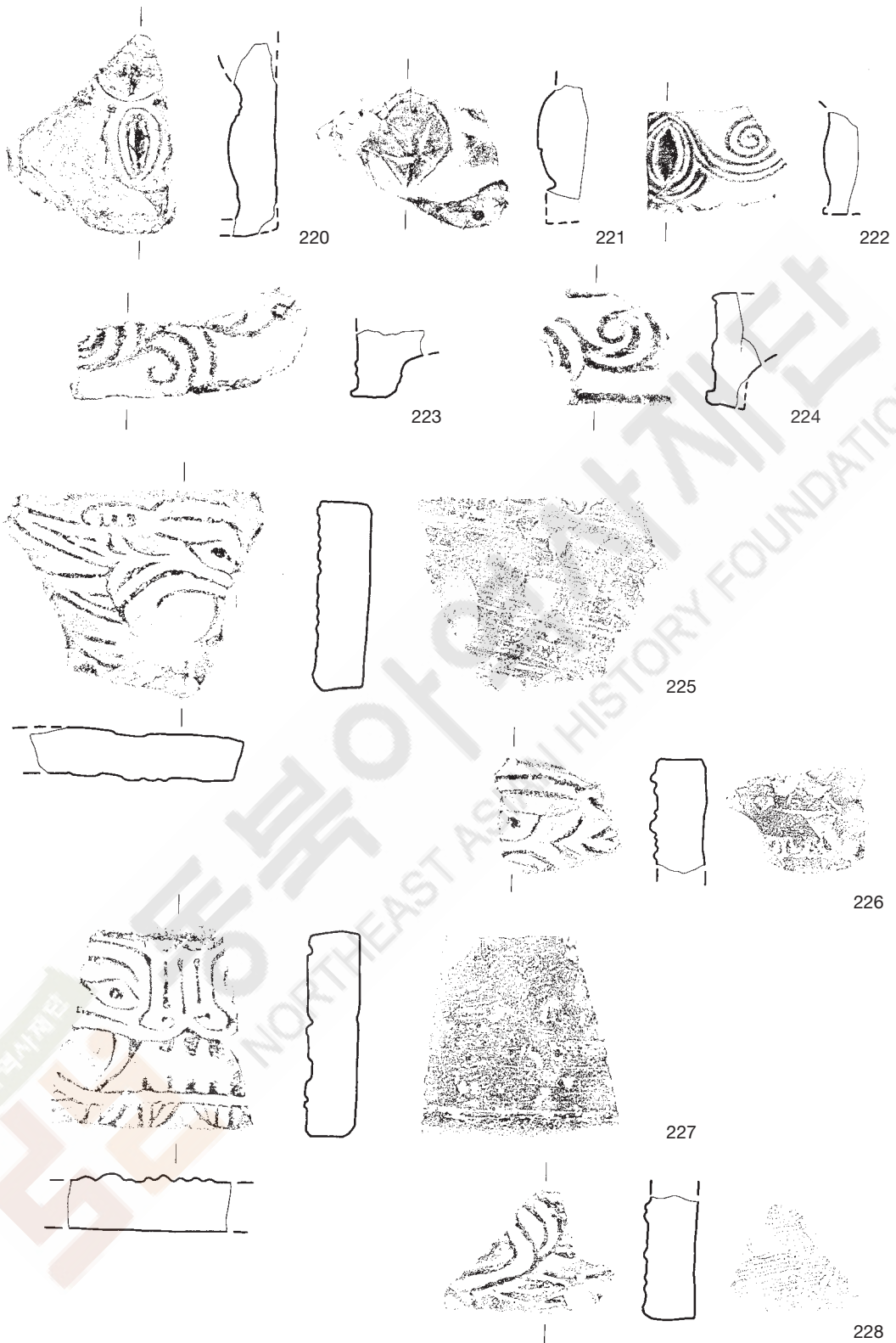
도면 13 야마다기증 수막새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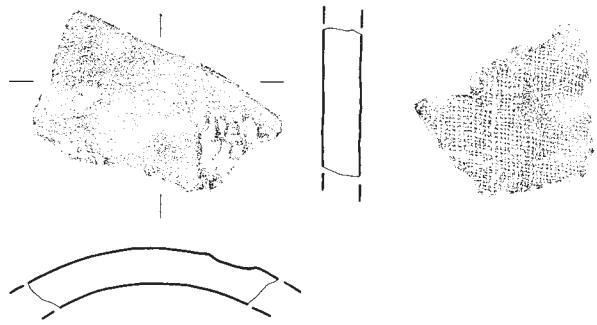
도면 14 야마다기증 수막새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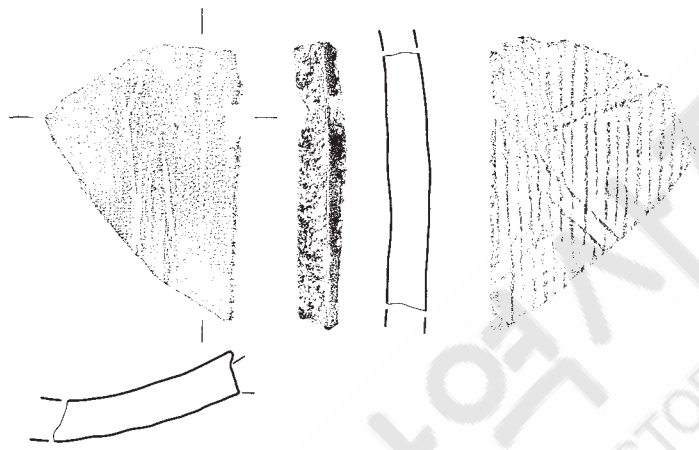
도면 15 야마다 기증 수막새 (15) · 암막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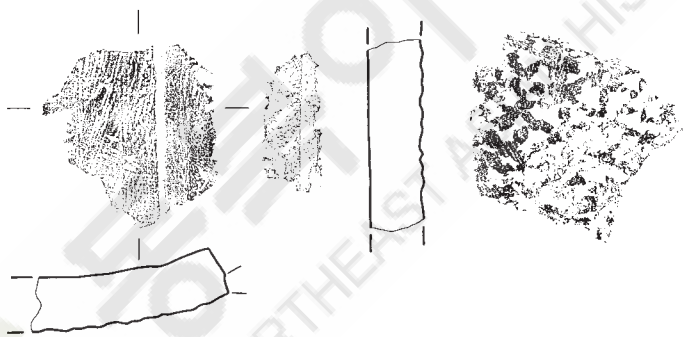
도면 16 야마다 기증 수막새 (16) · 암막새 (2) · 착고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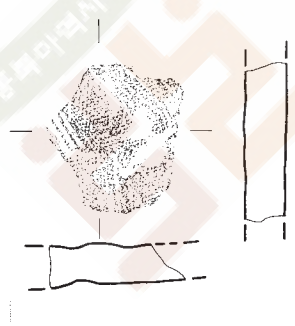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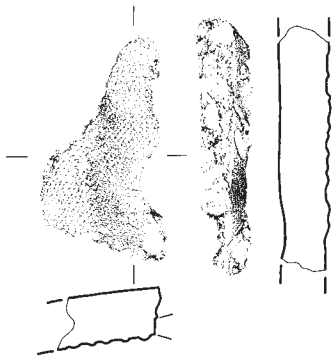
230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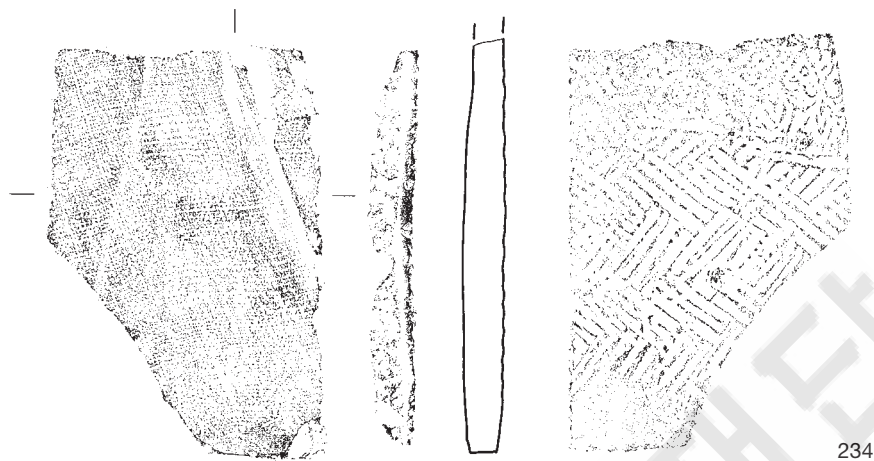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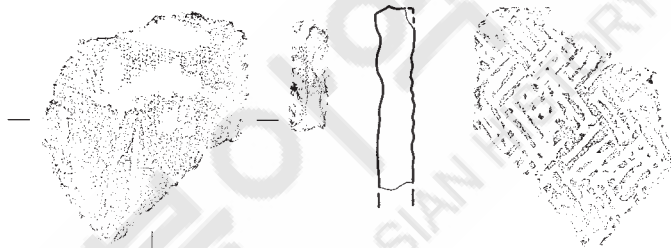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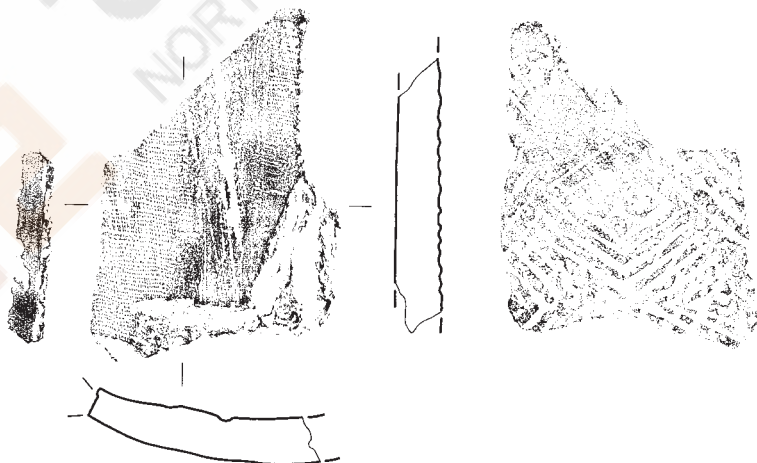
도면 17 야마다 기증 평기와 (1)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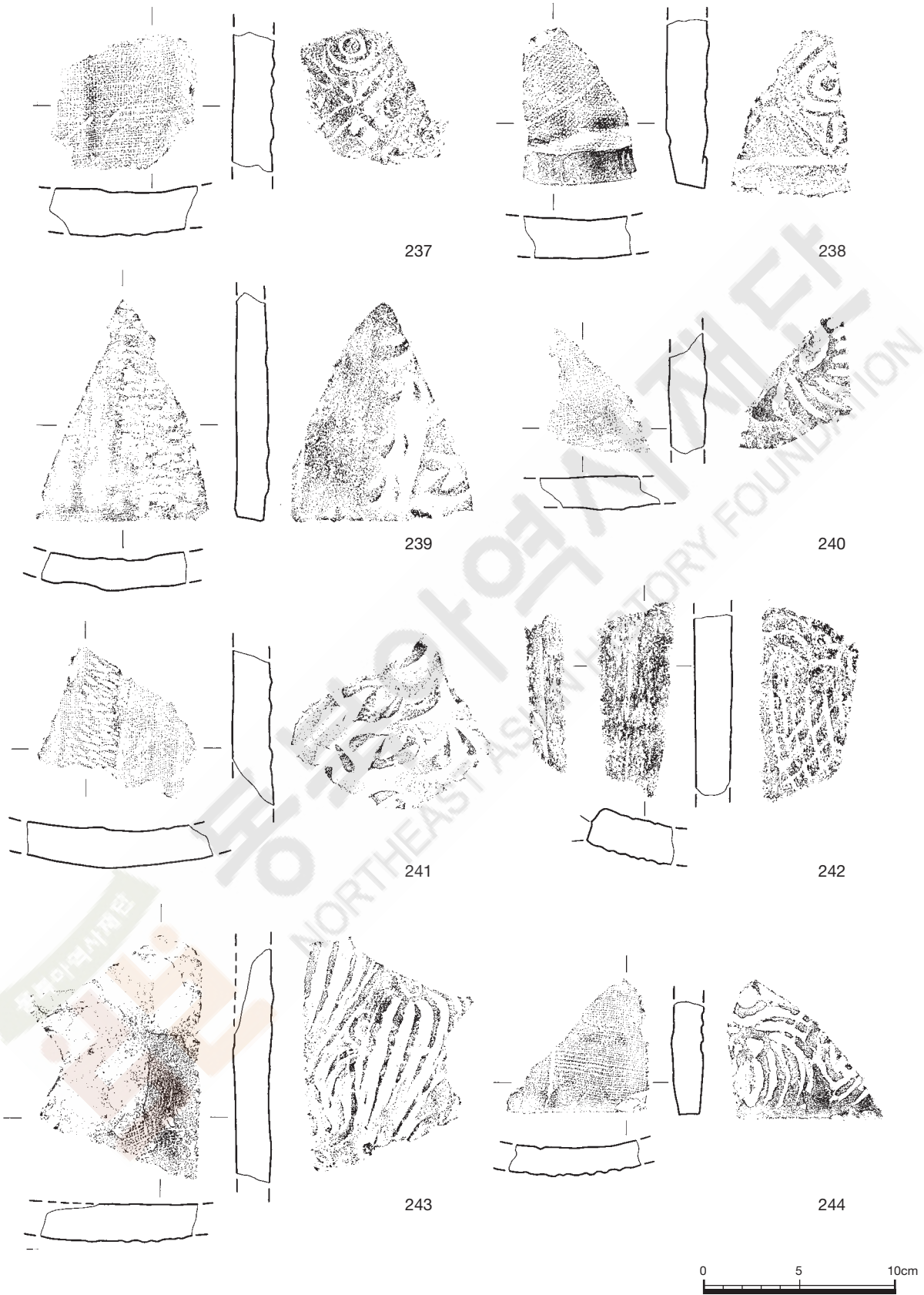
235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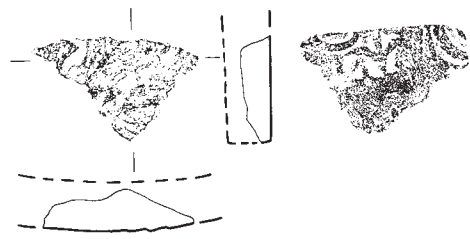
도면 18 야마다기증 평기와 (2)



도면 19 야마다 기증 평기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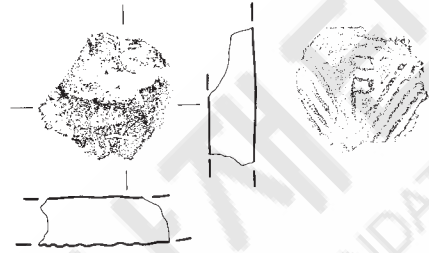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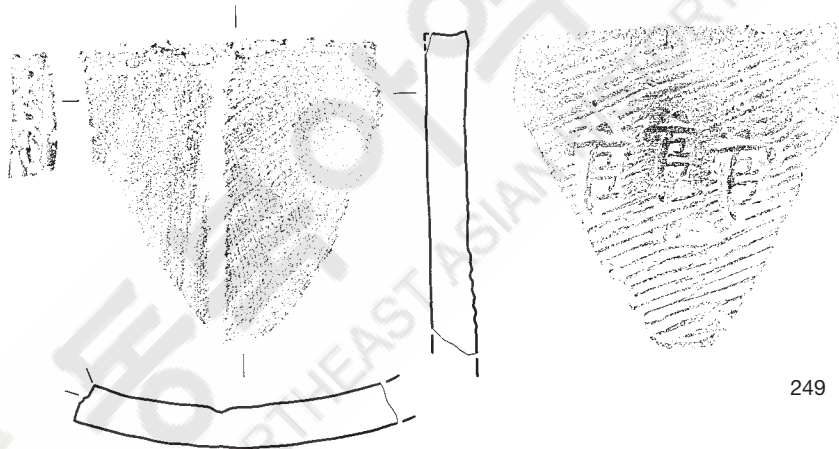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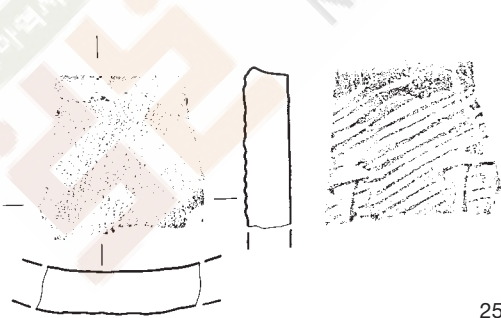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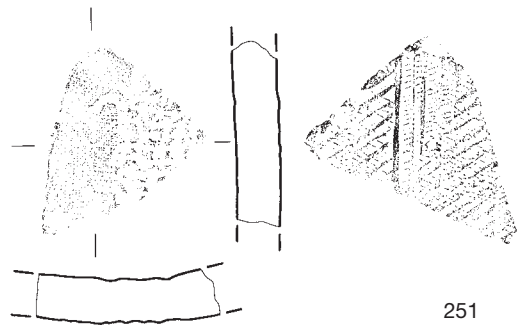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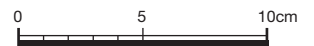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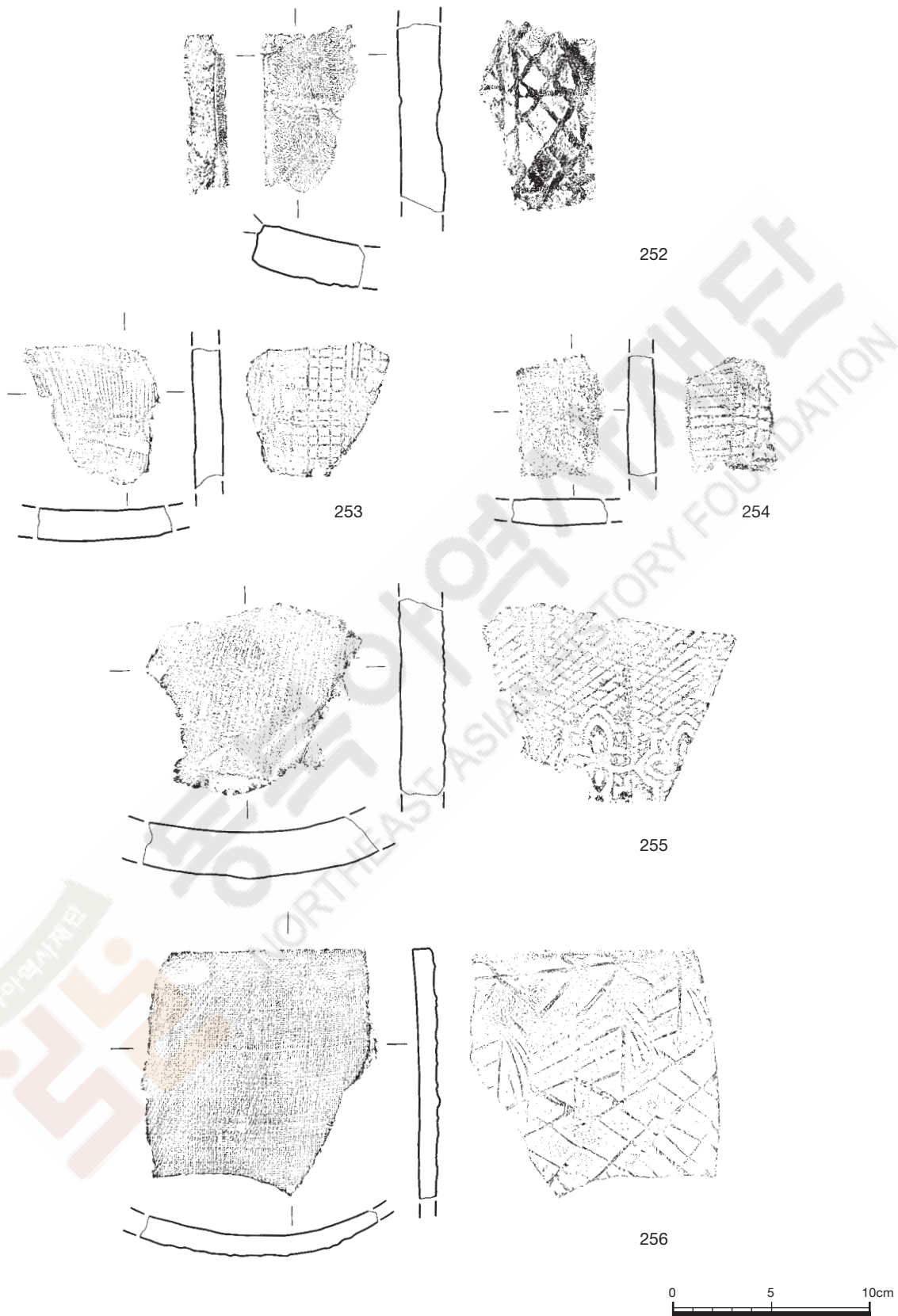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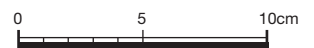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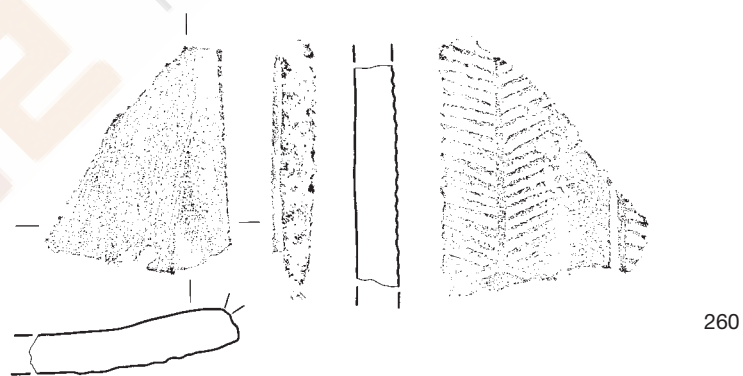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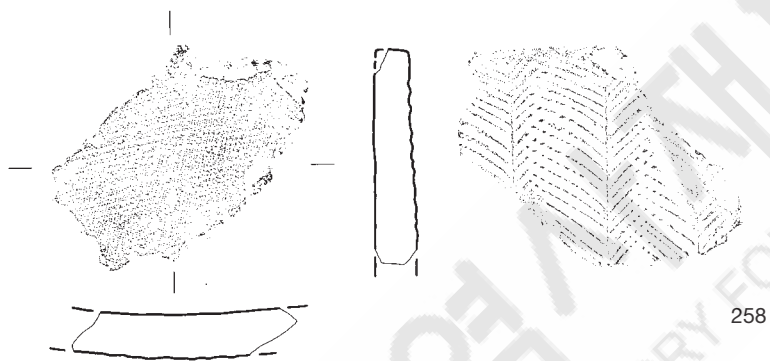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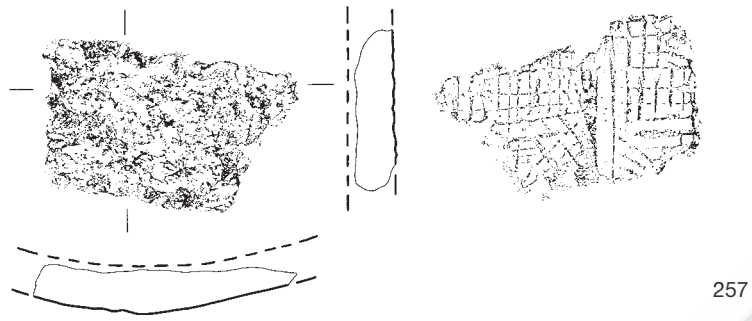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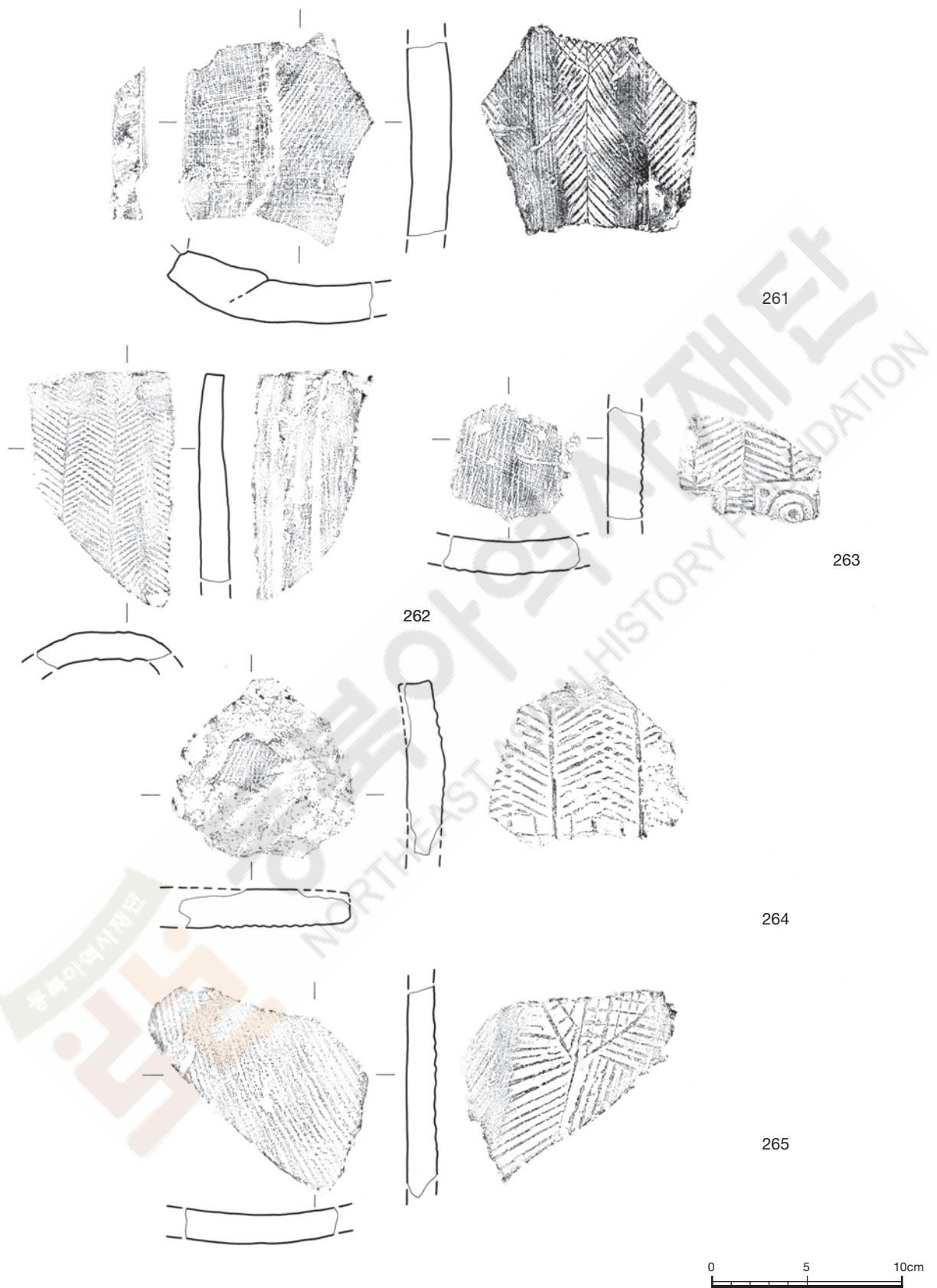
도면 20 야마다기증 평기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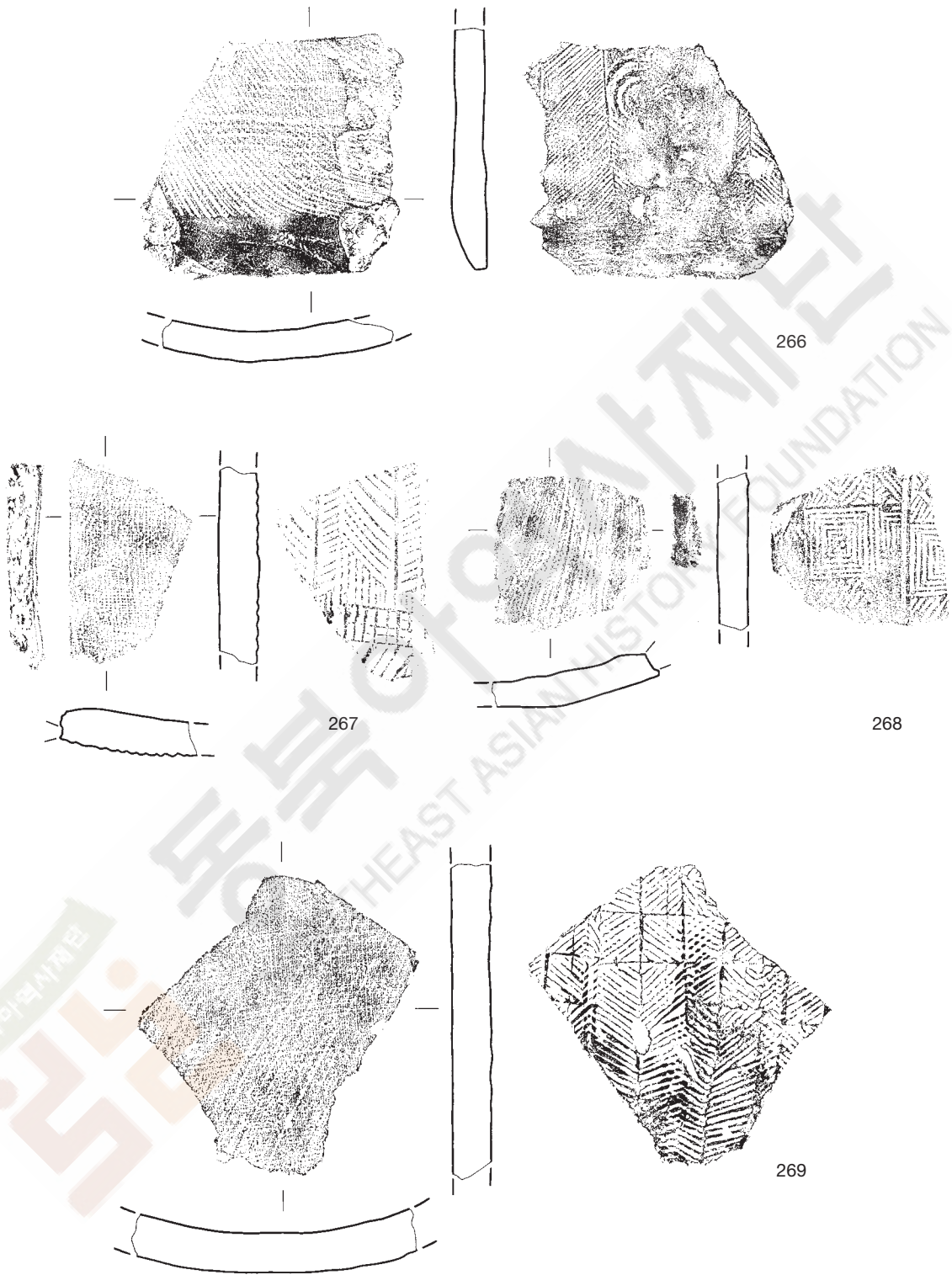
도면 21 야마다 기증 평기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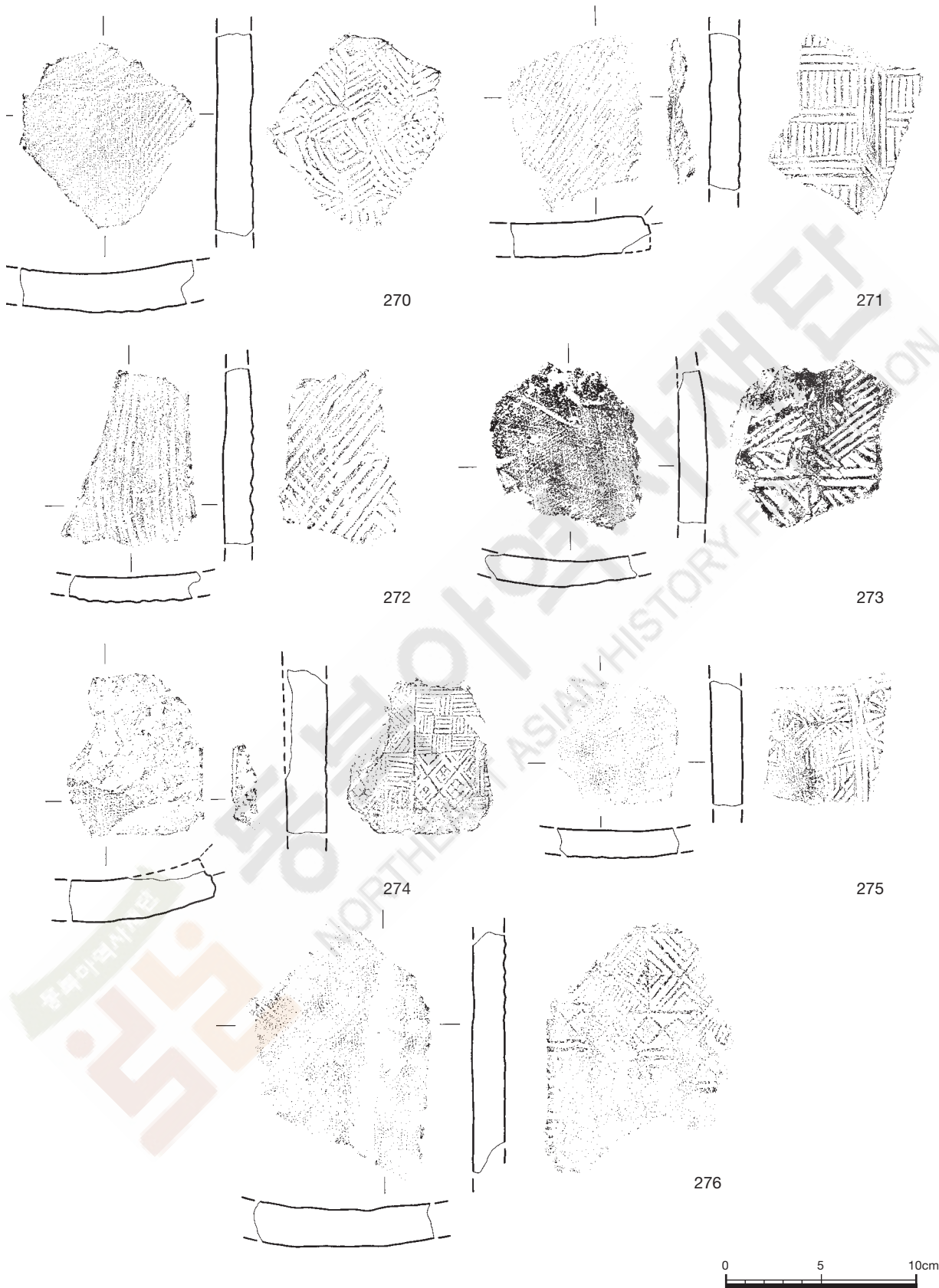
도면 22 야마다 기증 평기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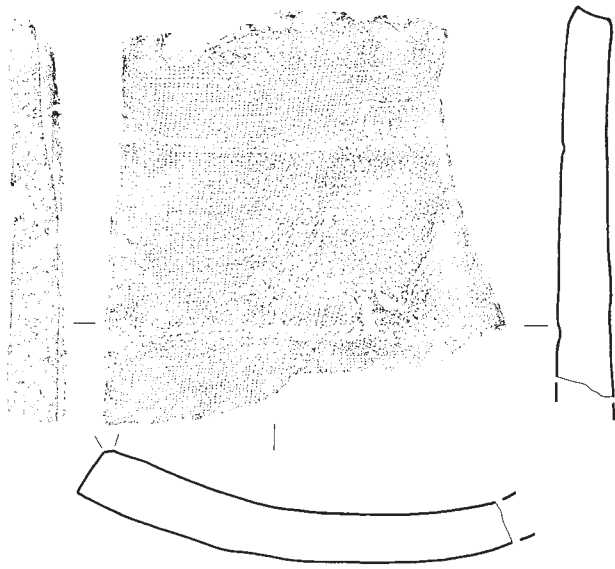
도면 23 야마다 기증 평기와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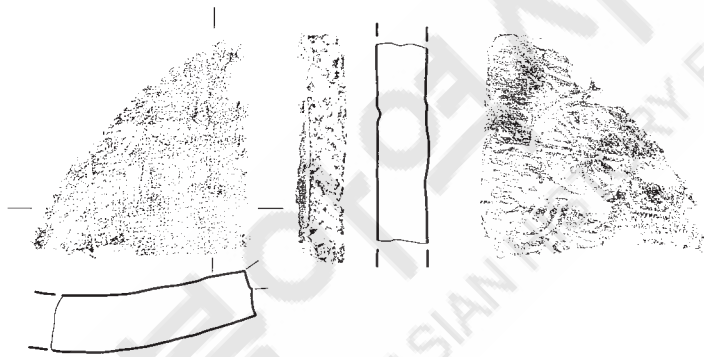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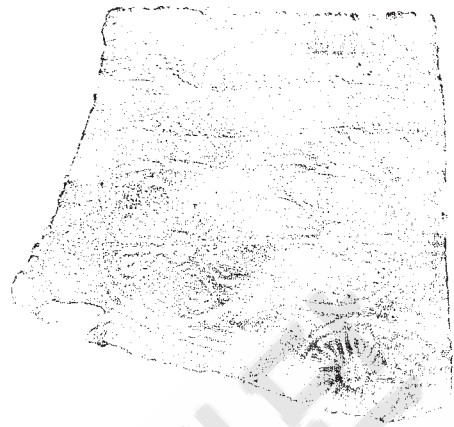
도면 24 야마다기증 평기와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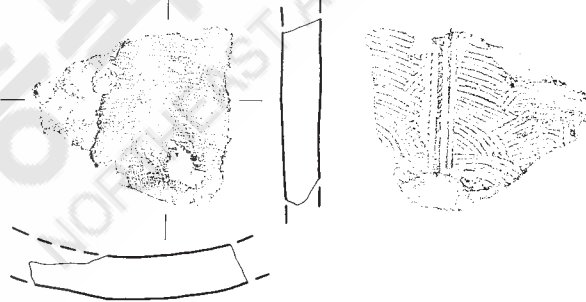
도면 25 야마다 기증 평기와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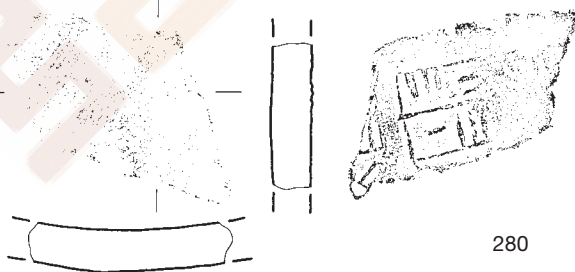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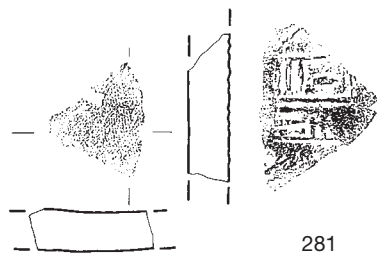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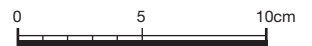
279



280



281



도면 26 야마다기증 평가와 (10)



사진 1 야마다 기증 수막새 (1)



사진 2 야마다 기증 수막새 (2)



사진 3 야마다 기증 수막새 (3)



사진 4 야마다 기증 수막새 (4)



사진 5 야마다 기증 수막새 (5)



사진 6 야마다 기증 수막새 (6)



23



24



25

사진 7 야마다 기증 수막새 (7)



26



27



2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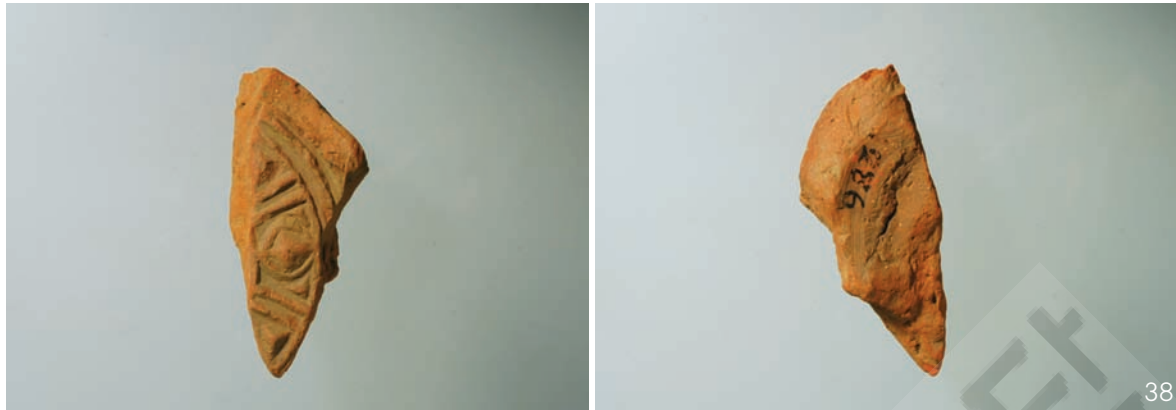
사진 8 야마다 기증 수막새 (8)



사진 9 야마다 기증 수막새 (9)



사진 10 야마다 기증 수막새 (10)



38



39



40



41

사진 11 야마다 기증 수막새 (11)



42 세부



42



43



44

사진 12 야마다 기증 수막새 (12)



45



46



47 세부



47

사진 13 야마다 기증 수막새 (13)



48



49



50



51

사진 14 야마다 기증 수막새 (14)



52



53



54



55

사진 15 야마다 기증 수막새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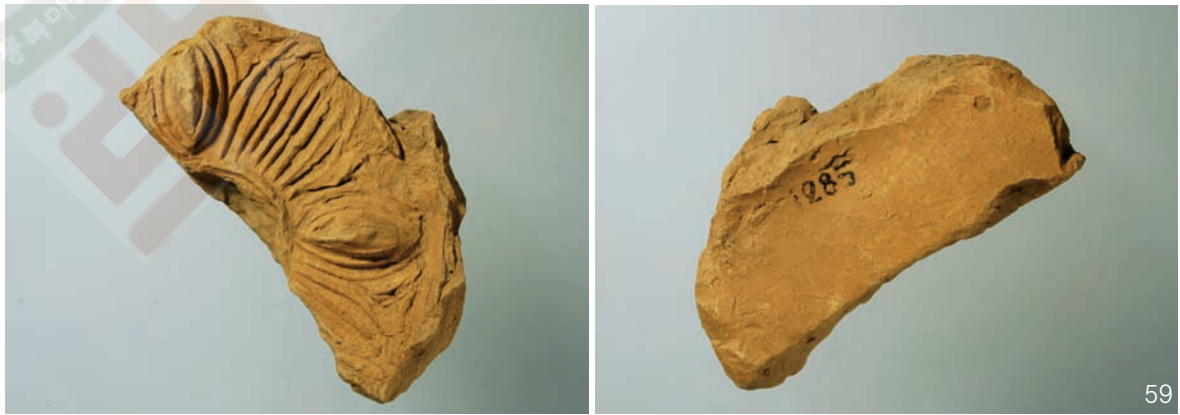
56



57



58



59

사진 16 야마다 기증 수막새 (16)



사진 17 야마다 기증 수막새 (17)



사진 18 야마다 기증 수막새 (18)



67



68



69

사진 19 야마다 기증 수막새 (19)



70



71



72



73

사진 20 야마다 기증 수막새 (20)



74



75



76



77

사진 21 야마다기증 수막새 (21)



78



79



80



81

사진 22 야마다 기증 수막새 (22)



82



83



84 세부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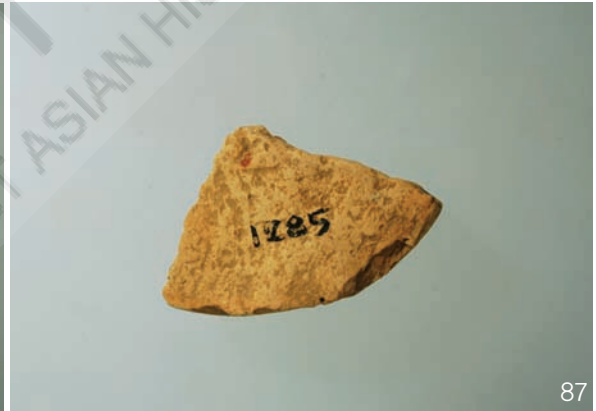
사진 23 야마다 기증 수막새 (23)



85



86



87



88

사진 24 야마다 기증 수막새 (24)



89



90



91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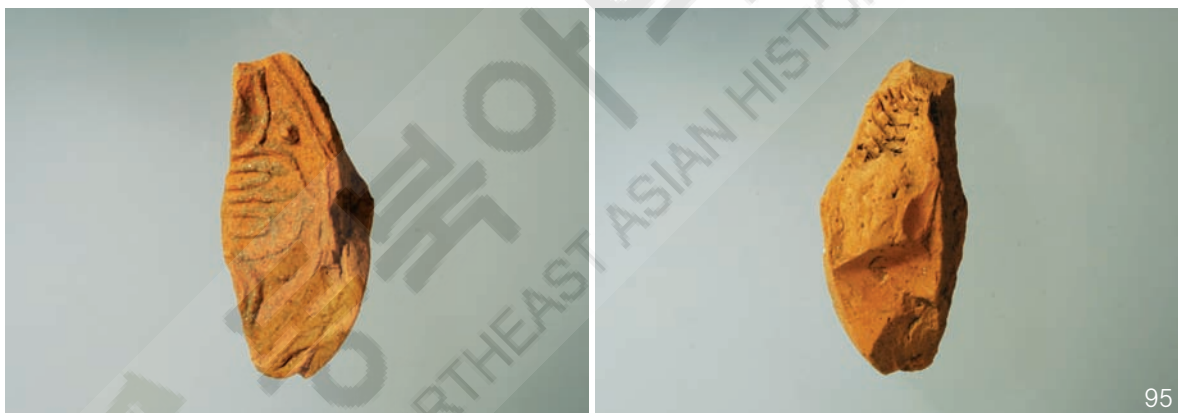
사진 25 야마다 기증 수막새 (25)



93



94



95



96

사진 26 야마다 기증 수막새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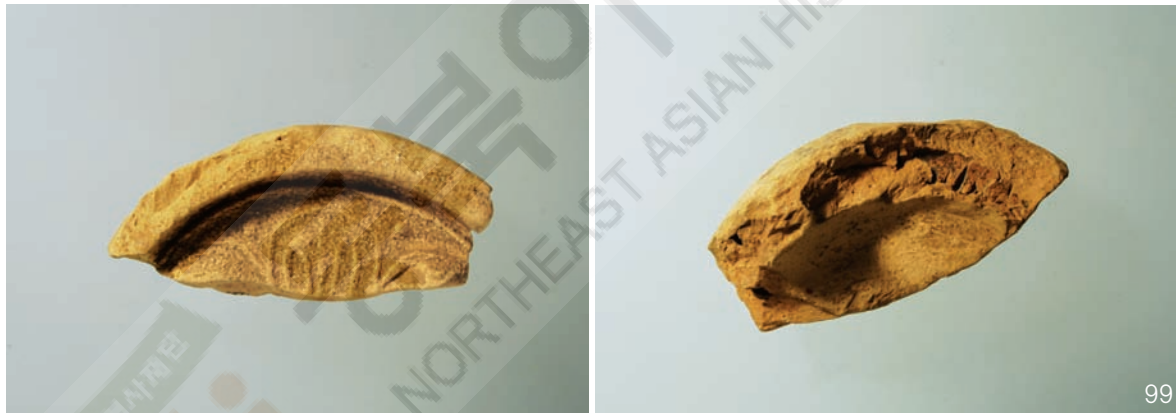


사진 27 야마다 기증 수막새 (27)



101 세부



101



102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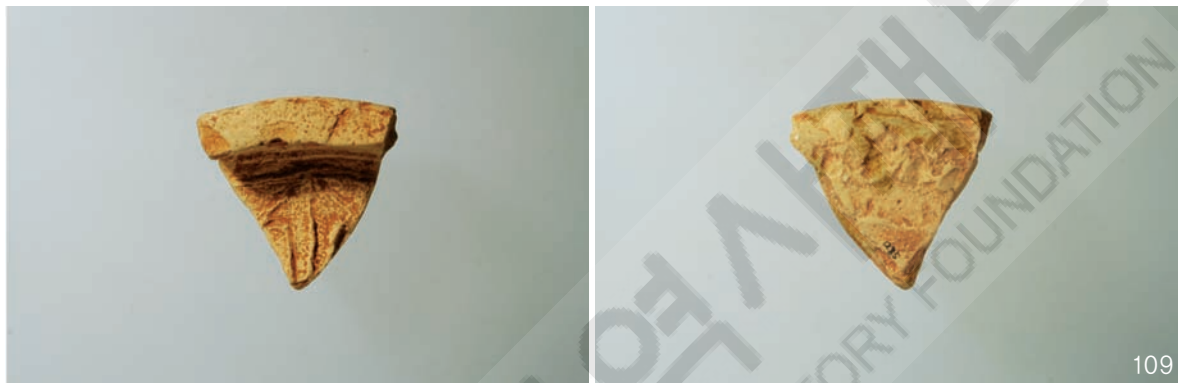
사진 28 야마다 기증 수막새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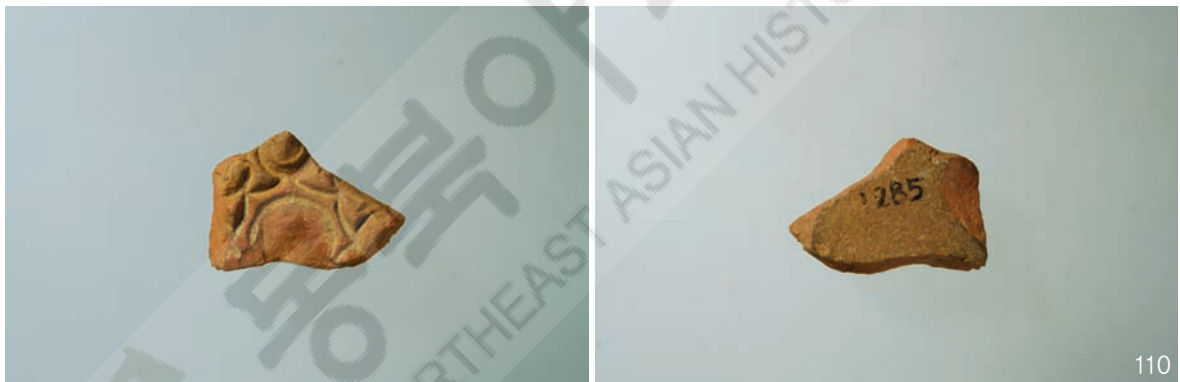
사진 29 야마다 기증 수막새 (29)



108



109



110



111

사진 30 야마다 기증 수막새 (30)



112



113



114 세부



114

사진 31 야마다 기증 수막새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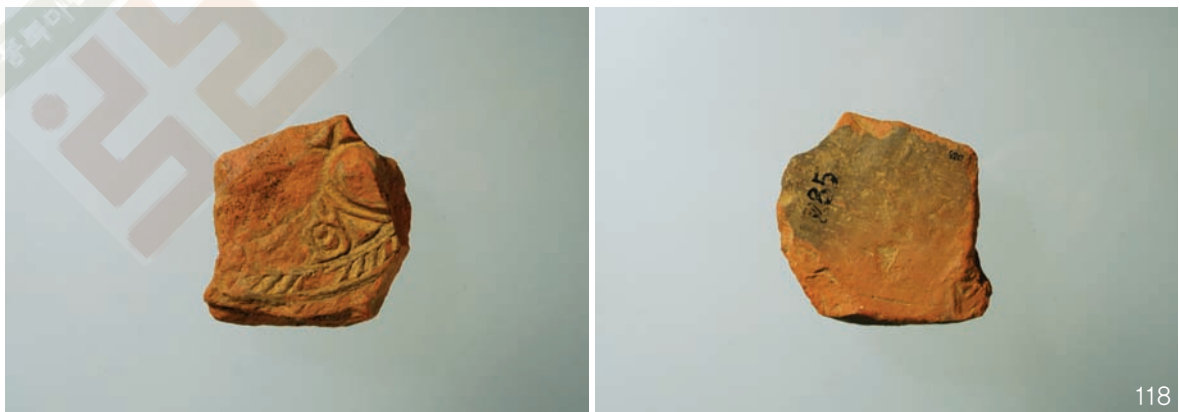
115



116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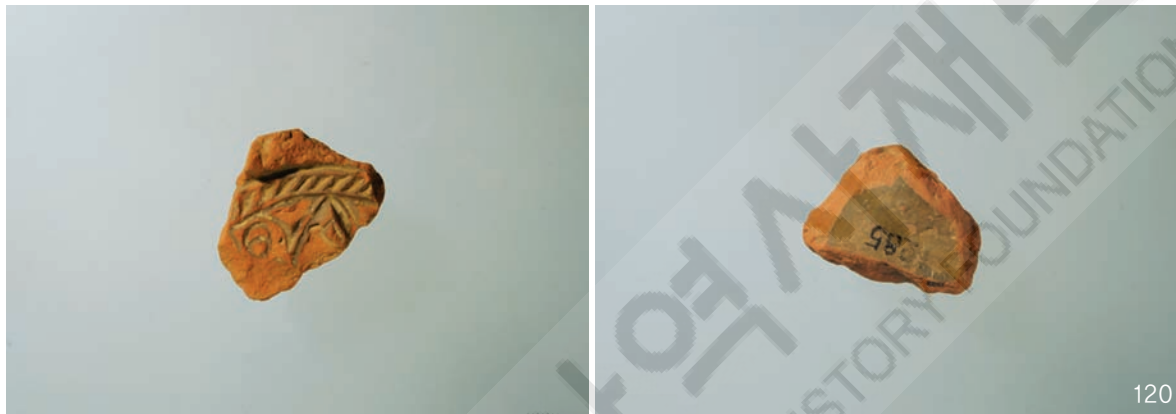


118

사진 32 야마다 기증 수막새 (32)



119



120



121



124

사진 33 야마다 기증 수막새 (33)



122 세부



122



123 세부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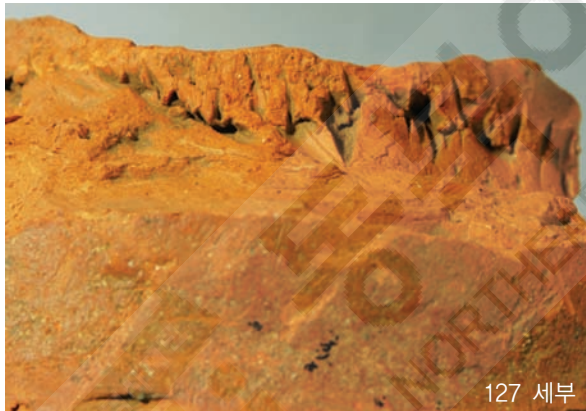
사진 34 야마다 기증 수막새 (34)



125



126



127 세부



127

사진 35 야마다 기증 수막새 (35)



128 세부



128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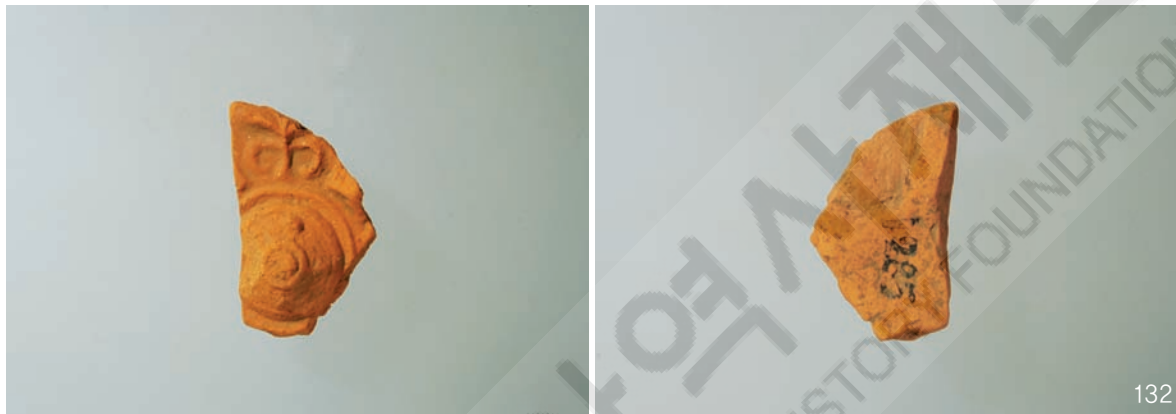


130

사진 36 야마다 기증 수막새 (36)



131



132



133



134

사진 37 야마다 기증 수막새 (37)



135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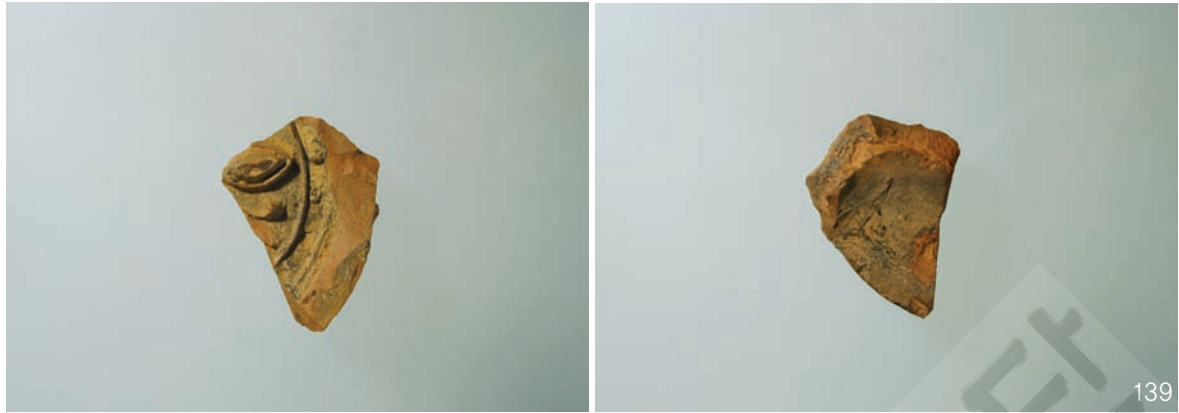


137



138

사진 37 야마다 기증 수막새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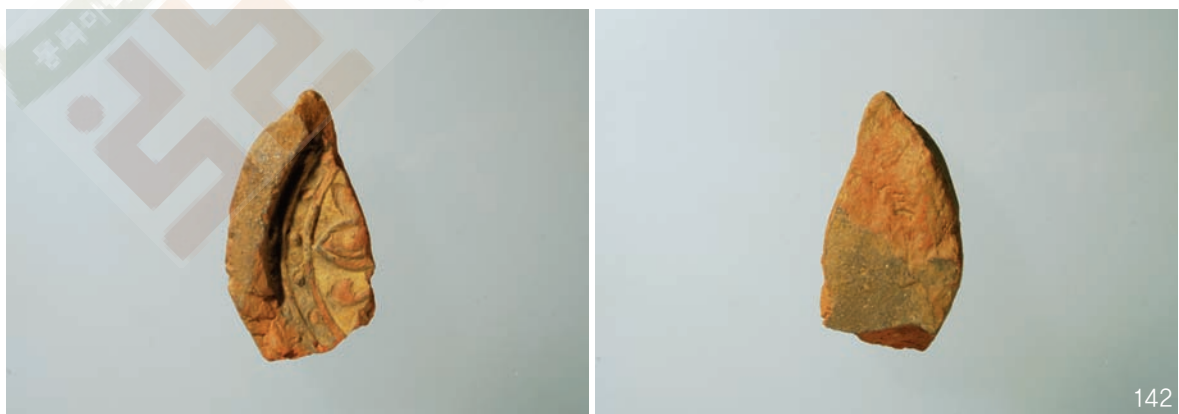
139



140



141



142

사진 39 야마다 기증 수막새 (39)



143



143 세부



144



145

사진 40 야마다 기증 수막새 (40)



146



147



148



149

사진 41 야마다 기증 수막새 (41)



150



151



152



153

사진 42 야마다 기증 수막새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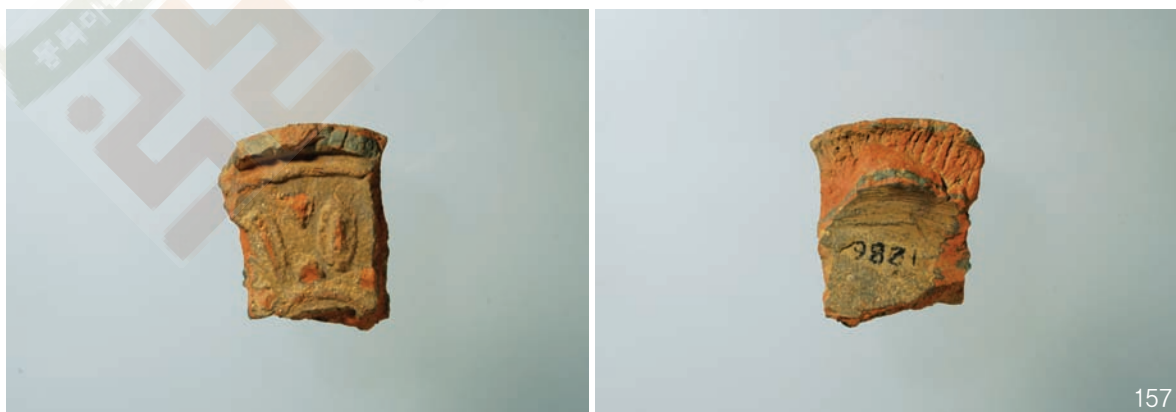
154



155



156



157

사진 43 야마다기증 수막새 (43)



158



159



160

사진 44 야마다 기증 수막새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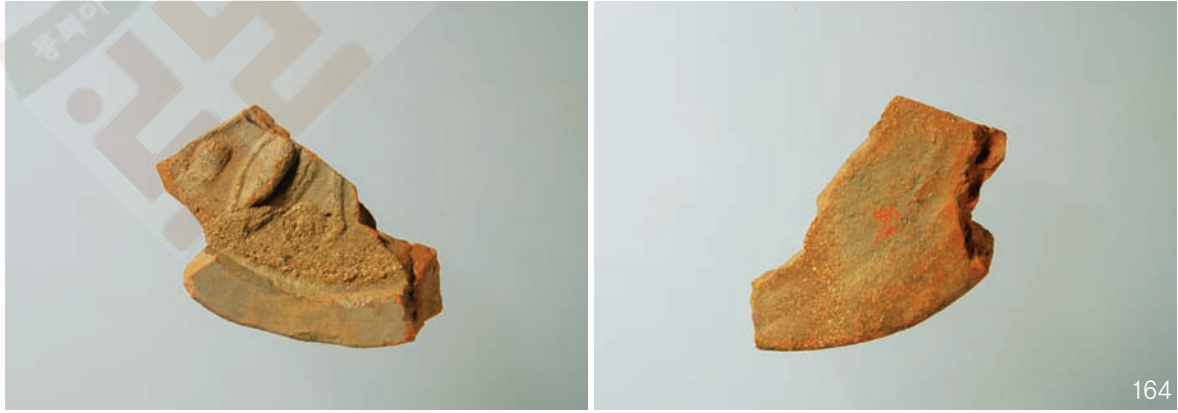
161



162



163



164

사진 45 야마다 기증 수막새 (45)



165



166



167

사진 46 야마다 기증 수막새 (46)



168



169



170



171

사진 47 아마다기증 수막새 (47)



172



173



174



175

사진 48 야마다 기증 수막새 (48)



176



177



178



179

사진 49 야마다 기증 수막새 (49)



180



181



182



183

사진 50 야마다 기증 수막새 (50)



184



185



186

사진 51 야마다 기증 수막새 (51)



187



188



189



190

사진 52 야마다 기증 수막새 (52)



191



192



193

사진 53 야마다 기증 수막새 (53)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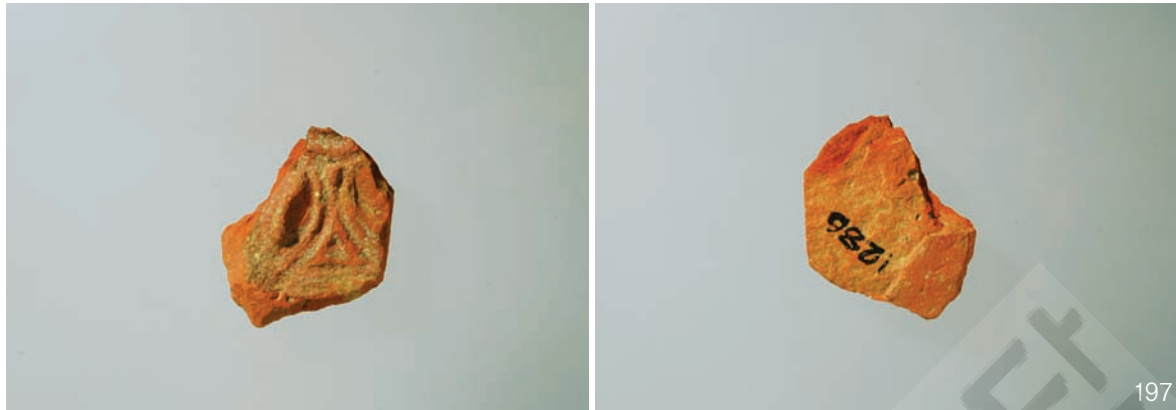


195



196

사진 54 야마다 기증 수막새 (54)



197



198



199



200

사진 55 야마다 기증 수막새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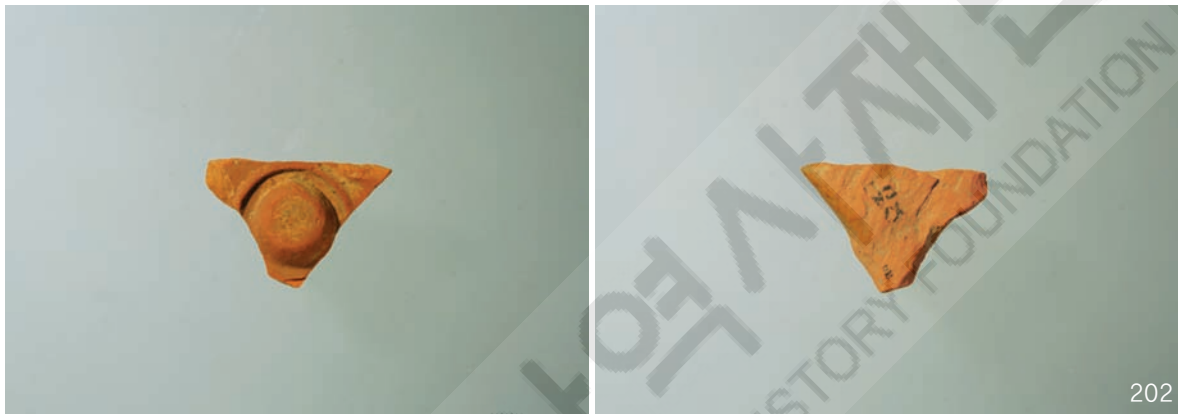


사진 56 야마다 기증 수막새 (56)



사진 57 아마다기증 수막새 (57)



208



209



210

사진 58 야마다 기증 수막새 (58)



211



212



213



214

사진 59 아마다기증 수막새 (59)



215



216



217

사진 60 야마다 기증 수막새 (60)



218



219



220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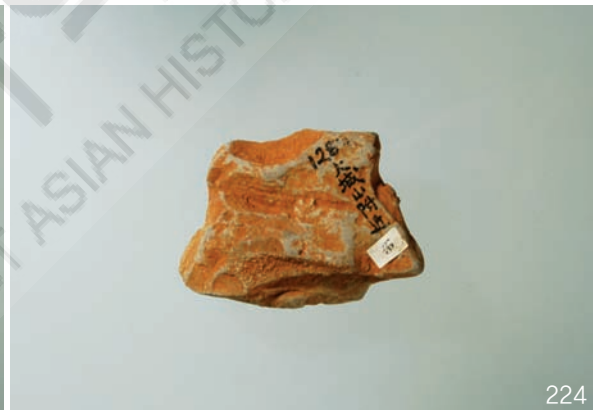
사진 61 야마다 기증 수막새 (61) · 암막새 (1)



222



223



224

사진 62 야마다 기증 암막새 (2)



225



226



227



228

사진 63 야마다 기증 착고와



229 세부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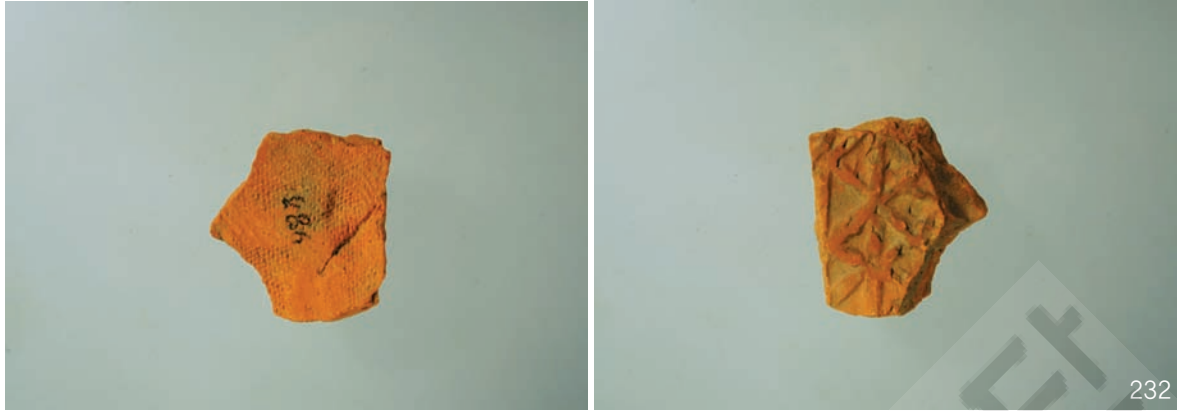


230



231

사진 64 야마다 기증 평기와 (1)



232



233



234

사진 65 야마다 기증 평기와 (2)



235



236



237

사진 66 야마다 기증 평기와 (3)



238



239 세부



239



240

사진 67 야마다 기증 평기와 (4)



241 세부



241



242



243

사진 68 야마다 기증 평기와 (5)



244



245



246



247

사진 69 야마다 기증 평기와 (6)



248



249



250

사진 70 야마다 기증 평기와 (7)



251



252



253



254

사진 71 야마다 기증 평기와 (8)



255



256



257



258

사진 72 야마다 기증 평기와 (9)



259



260



261



262

사진 73 아마다기증 평기와 (10)



263



264



265



266

사진 74 야마다기증 평기와 (11)



사진 75 야마다기증 평기와 (12)



270



271



272



273

사진 76 야마다 기증 평기와 (13)



274



275



276



278

사진 77 야마다기증 평기와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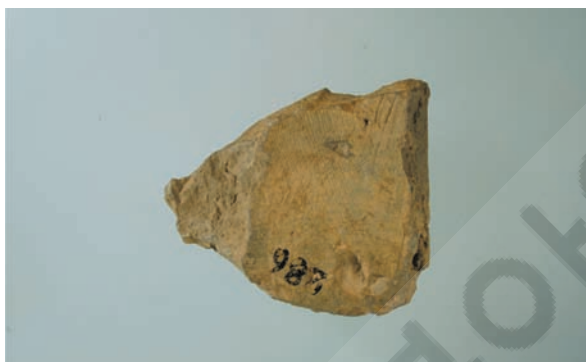


사진 78 야마다 기증 평기와 (15)

京都大學 総合博物館 所藏  
山田 姫次郎 寄贈 古우려 기와의 검토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吉井秀夫 · 崔英姬 \_ 京都大學大學院 文學研究科

- I. 머리말
- II. 교토제국대학에 기증된 경위에 대해서
- III. 야마다 기증 기와의 개요
- IV. 고찰 - 수막새의 제작기술에 대해서
- V. 맺음말

## I 머리말

교토대학[京都大學] 종합박물관(總合博物館)에는 교토제국대학 진열관(陳列館) 시절에 수집된 고구려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소장유물의 개요는 공개된 목록(京都大學文學部, 1963; 한국국제교류재단, 1997)을 바탕으로 요시이[吉井]가 소개한 바 있다(吉井, 2001). 또 요시이는 집안(集安)의 고분에서 채집된 토기류, 천추총(千秋塚)과 태왕릉(太王陵)에서 채집된 전돌을 실측하여 소개하였다(吉井, 2001). 이상과 같은 작업에 이어 이번에는 야마다 세이지로[山田熾次郎]<sup>1</sup>가 교토제국대학(당시)에 기증한 평양 주변 출토 고구려 기와(이하, 야마다[山田] 기증 기와로 부름)의 정리 성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야마다 기증 기와를 정리하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현재 교토대학 종합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집안 출토 고구려 유물에 관해서는 이미 유물사진이 실린 목록이 간행되어 있다(京都大學文學部, 1963). 그리고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將軍塚)에서 채집된 와전과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谷, 1989; 吉井, 2001). 반면 평양 주변에서 채집된 고구려 유물은 기와 사진 일부가 소개되었으나(한국국제교류재단 1997, 사진 43), 구체적으로 어떤 유물이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교토대학 종합박물관 소장 고구려 유물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서는 평양 주변에서 채집된 유물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집안보다 남쪽에 위치한 평양에서 채집된 기와의 실태를 밝히는 것은 최근 서울 주변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각지에서 출토 예가 늘어나고 있는 고구려 기와를 생각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후술하듯이 야마다가 채집한 고구려 기와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에도 기증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아직 그 실태를 알 수 없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구려 기와의 상황을 알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교토대학 종합박물관에 남아 있는 등록 대장에는 기증자 이름이 '山田熾次郎'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本稿에서는 藤田亮策(1932)의 표기에 따라 '熾次郎'으로 통일한다.

이번 정리는 야마나카 이치로[山中一郎] 종합박물관 관장(당시)의 허가와 협조를 얻어 요시이 히데오[吉井秀夫, 京都大學大學院 文學研究科 准教授]와 최영희(京都大學大學院 博士後期課程)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기와의 실측·탁본·분류는 두 명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최종적인 정리작업은 막새와 특수기와는 요시이가, 평기와는 최영희가 담당하였다. 도면의 정서는 최영희가, 사진 촬영과 편집은 주로 요시이가 담당하였다.

## II

### 교토제국대학에 기증된 경위에 대해서

우선 교토제국대학이 야마다 세이지로에게서 평양 주변에서 채집한 고구려 기와를 기증받은 경위를 정리해 본다. 교토대학에 남아 있는 『표본수리지(標本受理誌)』에 따르면, 이번에 정리한 고구려 기와는 1916년 11월 5일 야마다 세이지로가 기증한 유물로 등록되어 있다. 당시 등록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등록번호 1283 朝鮮土城<sup>2</sup> 發見 樂浪瓦 破片

등록번호 1284 同 博

등록번호 1285 高句麗瓦(破片)

등록번호 1286 平壤 發見瓦(破片)

등록번호 1287 酒岩<sup>3</sup> 發見瓦(同)

등록번호 1288 蘆梅洞<sup>4</sup> 發見瓦

등록번호 1289 大城山 附近<sup>5</sup> 發見瓦

이 유물들 가운데 분명히 낙랑 유물이라고 판단되는 등록번호 1283, 1284 유물은 이

2 낙랑토성으로 추정된다.

3 주암리토성 내에서 채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 舊大同郡 南串面 長梅里의 일부라고 추정된다. 田村晃一은 명문와를 통해서 여기에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田村, 1933).

5 기와의 특징으로 보아 安鶴宮에서 채집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大城山城이나 주변 지역에서 채집되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번 정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sup>6</sup> 또 아마다 기증 기와에는 대성산(大城山) 부근 채집 기와(등록번호 1289)와 같이 고구려 기와가 아닐 가능성이 논의되어 있는 자료와 현재의 연구 상황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기와라고 생각되는 자료도 적지 않다.<sup>7</sup> 이들 자료에 관해서는 고구려 기와와 함께 보고하면서, 그 시기에 대해 필자들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아마다 기증 기와에는 교토대학에 기증되었을 때의 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다. 또 출토지가 밝혀져 있는 등록번호 1287·1288·1289 기와에는 출토지도 기입되어 있다. 이들 문자와 별도로 주자(朱字)가 기입된 예도 있다. 1287 기와에는 ‘酒’, ‘酒西’, 1288 기와에는 ‘芦’<sup>8</sup>가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글자가 주암리(酒岩里)와 노매리(蘆梅里)의 약호임을 알 수 있다. 1286 기와에도 같은 글자가 기입된 유물이 있어, 이들은 원래 1287과 1288에 등록되어야 할 유물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외에 ‘助王’, ‘江’, ‘鐵’, ‘永’, ‘岸’, ‘崇’ 자도 지명의 약호일 가능성이 있다. ‘南’, ‘北’, ‘西’, ‘西北’ 자는 지명의 약호인지, 어느 유적 내의 채집 지점을 표시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정리에서는 출토지 별로 정리하지 않고, 기입된 내용을 관찰표에 표시하였다.

기증자인 아마다 세이지로에 대해서는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와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가 간략히 경력을 소개한 적이 있다(關野 外, 1927; 藤田, 1932). 이들 글에 따르면, 아마다는 평양에 살았던 일본인이며, 세키노 다다시가 낙랑토성을 조사한 것을 계기로 1913년경부터 대동강면 일대의 유적을 답사하면서 낙랑과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수천 점의 유물을 수집했다고 한다. 이들 자료 가운데 낙랑과 고구려 기와 수백 점은 1916년에 총독부박물관, 도쿄제국대학, 교토제국대학, 평양 진열소에 기증되었다(關野 外, 1927, 5~6). 이번에 보고할 고구려 기와는 당시 교토제국대학에 기증된 것으로 판단된다.<sup>9</sup> 그 후 당시 평양 복심법원 검사장이었던 세키구치 나카바[關口半]<sup>10</sup>의 알선으로 1922년과 1923년에 그 수집품의 대부분이 총독부박물관 소장품이 되었다. 이들 수집품 목록(樞本, 1932) 가운데 고구려 기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6 다만 등록번호 1283에 포함되어 있는 고구려 막새 1점은 정리 대상으로 하였다.

7 이외에 빗살무늬토기라고 생각되는 토기편도 있다.

8 ‘芦’는 ‘蘆’의 俗字이다.

9 도쿄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고구려 기와를 정리·보고한 정인성도 이들 기와 가운데 山田 嫻次郎이 기증한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동북아역사재단, 2008, 201).

10 關口半은 1921년경부터 낙랑 유물을 열심히 수집하였으며, 그 수집품의 일부는 평양부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었다. 1930년 關口가 별세한 후, 그 수집품은 총독부박물관이 소장하게 되었고, 그 목록이 작성되어 공개되었다(藤田, 1933).

8464	고구려 와당	完形	평안남도 평양부내	64
8465	고구려 와당	破損品(1/2 이상)	평안남도 평양부내	47
8466	고구려 와당	파손품(1/2 정도)	평안남도 평양부내	67
8467	고구려 와당	파손품(1/2 이하)	평안남도 평양부내	182
8468	고구려 菴 <sup>11</sup> 付	완형	평안남도 평양부내	3
8469	고구려 菴瓦	완형	평안남도 평양부내	1
8470	고구려 平瓦	殘片	평안남도 평양부내	90
8471	고구려 平瓦	완형	평안남도 평양부내	1
8472	고구려 半瓦	파손품(1/2이상)	평안남도 평양부내	2
8473	고구려 平瓦	파손품(1/2이하)	평안남도 평양부내	5
8474	고구려 悉尾	파손품(1/2정도)	평안남도 철교 부근	2
8475	고구려 와당	완형	평안남도 平川里	5
8476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이상)	평안남도 平川里	13
8477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정도)	평안남도 平川里	4
8478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이하)	평안남도 平川里	6
8479	고구려 와당	완형	평안남도 大同郡 林原面 清岩里	7
8480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이상)	평안남도 大同郡 林原面 清岩里	4
8481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정도)	평안남도 大同郡 林原面 清岩里	9
8482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이하)	평안남도 大同郡 林原面 清岩里	35
8483	고구려 와당	완형	평안남도 大同江面 猿綠里 <sup>12</sup>	3
8484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정도)	평안남도 大同江面 猿綠里	1
8485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이하)	평안남도 大同江面 猿綠里	14
8486	고구려 菴瓦	파손품(1/2이상)	평안남도 大同江面 猿綠里	1
8487	고구려 와당	완형	평안남도 大同江面 土城부근	3
8488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이상)	평안남도 大同江面 土城부근	2
8489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정도)	평안남도 大同江面 土城부근	14
8490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이하)	평안남도 大同江面 土城부근	102
8491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이상)	평안남도 林原面 北四里 安鶴宮址	3
8492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정도)	평안남도 林原面 北四里 安鶴宮址	8

11 수키와라고 생각된다.

12 '猿巖里'의 오자라고 생각된다.

8493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이하)	평안남도 林原面 北四里 安鶴宮址	34
8494	고구려 華瓦	파손품(1/2이상)	평안남도 林原面 北四里 安鶴宮址	40
8495	고구려 와당	완형	출토지 불명	1
8496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이상)	출토지 불명	3
8497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이하)	출토지 불명	3
8498	문자가 있는 平瓦殘片	‘上’字, 型이 있음	평안남도 대동강면 토성리	4
8499	문자가 있는 평와 잔편	‘上’字, 음각	평안남도 대동강면 토성리	1
8500	문자가 있는 평와 잔편	‘念云云’자, 양각	평안남도 대동강면 토성리	1
8501	문자가 있는 평와 잔편	‘人云云’자, 양각	평안남도 대동강면 토성리	1
8502	문자가 있는 평와 잔편	‘老’자, 음각	평안남도 대동강면 토성리	1
8503	문자가 있는 평와 잔편	‘元作云云’, 양각	평안남도 대동강면 토성리	1
8504	문자가 있는 평와 잔편	‘樂’자, 型	평안남도 대동강면 토성리	5
8505	문자가 있는 평와 잔편	‘西’, 양각	평안남도 대동강면 토성리	1
8506	문자가 있는 평와 잔편	‘官’, 양각	평안남도 대동강면 토성리	18
8507	문자가 있는 평와 잔편	문자 불명	평안남도 대동강면 토성리	3
8508	문자가 있는 평와 잔편	‘申’, 음각	평안남도 대동강면 토성리	1
8522	고구려 와당	완형	평안남도 평양부내	24
8523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이상)	평안남도 평양부내	39
8524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정도)	평안남도 평양부내	39
8525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이하)	평안남도 평양부내	91
8526	고구려 半瓦	파손품(1/2정도)	평안남도 평양부내	2
8527	고구려 와당	완형	평안남도 平川里	4
8528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이상)	평안남도 平川里	9
8529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정도)	평안남도 平川里	3
8530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이하)	평안남도 平川里	40
8531	고구려 와당	완형	평안남도 大同郡 林原面 清巖里	1
8532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이상)	평안남도 大同郡 林原面 清巖里	8
8533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정도)	평안남도 大同郡 林原面 清巖里	4
8534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이하)	평안남도 大同郡 林原面 清巖里	64
8535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이상)	평안남도 大同郡 大同江面 土城 부근	8
8536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정도)	평안남도 大同郡 大同江面 土城 부근	18

8537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이하)	평안남도 大同郡大同江面土城里	198
8538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정도)	평안남도 林原面 北四里 安鶴宮址	4
8539	고구려 와당	파손품(1/2이하)	평안남도 林原面 北四里 安鶴宮址	40
8540	고구려 唐草瓦	파손품(1/2이하)	평안남도 林原面 北四里 安鶴宮址	65
8541	명문 平瓦잔편	'官' 양각	평안남도 大同江面 土城里	40

이상의 목록을 집계해 보면, 기증된 고구려 기와의 총수는 1,515점이며, 이들 가운데 완형의 수막새가 115점, 1/2이상의 파손품이 136점, 1/2정도 남아 있는 파손품이 171점, 1/2이하의 파손품이 809점이다. 1929년에 간행된 『고구려시대의 유적[高句麗時代之遺蹟, 도판 상책]』에 게재된 수막새 239점 가운데, 총독부박물관 소장품은 137점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완형품 혹은 1/2이상 남아 있다. 구체적인 대응관계는 알 수 없으나, 기와의 기증시기와 책의 간행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 책에 게재된 고구려 기와 가운데 야마다 기증품이 많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반면 교토대학에 기증된 고구려 수막새는 218점으로, 이들 가운데 1/2정도 혹은 그 이상 남아 있는 기와는 15점(약 7%)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수막새 1331점 가운데 1/2정도 혹은 그 이상 남아 있는 것이 총 422점(약 32%)인 총독부박물관 기증분과 비교할 때, 교토대학 기증 기와는 야마다가 수집한 기와 가운데 주로 작은 파편 자료가 선택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번 정리 결과 야마다 기증 기와에는 다양한 문양의 고구려 수막새가 골고루 몇 점씩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토대학 소장 야마다 기증 기와는 야마다가 채집한 것을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크기와 종류를 선택한 것이 기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기증 경위를 통해 떠올려지는 것은 1913년에 세키노 다다시와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집안을 조사했을 때 채집된 와전류의 일부가 도쿄제국대학, 도쿄제실박물관, 교토제국대학으로 기증된 사실이다(吉井, 2001). 1910년대의 낙랑과 고구려연구는 세키노 다다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1913년의 경우와 같이 1916년에 야마다 채집 기와가 기증될 때에도 세키노의 의지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앞으로 관계 자료의 수집과 검토가 필요한 과제이다. 또 이상과 같은 추측이 타당하다면 교토대학의 야마다 기증 기와의 분석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야마다 기증 고구려 기와를 분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 Ⅲ

## 야마다 기증 기와의 개요

### 1. 정리의 경위

먼저 이번에 야마다 기증 기와를 어떻게 정리하였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의뢰를 받은 요시이는 야마나카 이치로 교토대학 종합박물관 관장(당시)의 양해를 얻어서 최영희와 함께 야마다 기증 기와가 현재 어떻게 수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기와는 크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소장되어 있으며, 어느 시기에 기와의 분류작업이 시도되었다가 중단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소장상황을 기록하면서 새롭게 정리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흙이 묻어 기와의 색깔과 제작시의 흔적을 관찰하기 어려운 기와에 대해서는 세척작업을 실시하였다. 다만 주자(朱字)가 기입된 것이나 이전 정리시 메모지가 붙여진 기와는 충분히 세척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종래의 소장상황을 기록하면서 각 기와를 탁본하고 단면도를 작성하였다. 이상의 작업이 끝난 후 요시이와 최영희가 의논하면서 공동으로 기와를 분류하고, 보고서 도면과 관찰표를 작성하였다.

### 2. 수막새

수막새는 와당의 문양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전술했듯이 야마다 기증 기와는 대부분이 전체의 1/2이하만 남은 파편이기 때문에 같은 와당의 다른 부분을 서로 다른 문양의 와당으로 분류해버릴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고구려 시대의 유적(圖版 上冊)』(關野 外, 1929)에 게재된 총독부박물관, 하타 미노스케[八田巴之助], 모로오카 에이치[諸岡榮治] 소장 기와와 『조선와전도보』Ⅱ(井內 編, 1976)에 게재된 이우치고문화연구소(井內 古文化研究所) 구장(舊藏) 기와와 비교하여 동형(同形)·동범(同范) 기와를 찾고, 와당 전체의 문양을 염두에 두면서 분류하고자 노력하였다.<sup>13</sup>

<sup>13</sup> 야마다 기증 기와의 동형 혹은 동범 기와라고 판단한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 上冊)』(關野 外, 1929), 『朝鮮瓦博圖譜』Ⅱ(井內 編, 1976) 게재 기와에 대해서는 '關野20(사진 번호)', '井內20' 과 같이 표기하였다.

이번 정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면서<sup>14</sup> 아마다 기증 수막새를 와당 문양을 기준으로 ① 복선연화문(輻線<sup>15</sup> 蓮華紋) 수막새, ② 연화복합문(蓮華複合紋) 수막새, ③ 연화문(蓮華紋) 수막새, ④ 기타 수막새로 크게 나누고, 여러 속성의 분석을 통해 세분한 결과에 따라 설명하겠다. 각 수막새는 실측도, 사진, 관찰표에 공통된 번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동형 혹은 동범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형식을 설정하였다.

각 유물의 특징은 관찰표로 정리하였다. 이번에 관찰한 특징 가운데 태토는 모래의 양과 색깔에 주목하였으며, 이하의 설명에서는 ‘거의 모래가 섞여 있지 않음(砂粒極少)’, ‘백색(白色) 모래가 섞여 있음’, ‘갈색 모래가 섞여 있음’, ‘백색과 갈색 모래가 섞여 있음’의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색깔은 표면과 단면을 별도로 표기하였고, 이하의 설명에서는 ‘회색계(灰色系, 회색·청회색·회백색 등)’, ‘황갈색계(黃褐色系, 황갈색·회갈색·명갈색 등)’, ‘적갈색계(赤褐色系, 赤褐色·暗赤褐色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해서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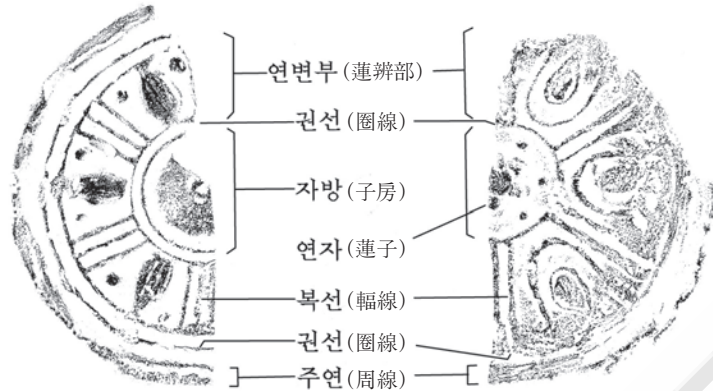
또한 종래에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속성인 막새 표면의 모래 부착 유무와 와당과 수키와의 접합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아마다 기증 수막새의 경우, 모래가 와당 앞면에 부착된 경우가 가장 많지만, 주연부나 와당 뒷면에 부착된 예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관찰표에서는 모래의 유무와 함께 모래가 부착된 범위를 기술하였다. 와당과 수키와의 접합방식은 고찰에서 검토하겠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수키와를 접합하기 위해서 와당 뒷면에 대칼과 같은 도구로 음각선을 새기는 기법(이하 ‘대칼 새기기 기법’이라고 가칭함)과 빗과 같은 다치구(多齒具)로 와당 뒷면을 긁는 기법(이하 ‘다치구 긁기 기법’이라고 가칭함)의 유무에 주목하여 기술하겠다. 수막새의 부분명칭은 삼도 1을 참조하기 바란다.

## 1) 복선연화문 수막새

2줄 또는 3줄의 복선(輻線)에 의하여 4~8개로 나누어진 구획(區劃) 안에 행인상(杏仁狀)으로 용기된 연변(蓮弁)을 배치하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수막새이다. 다니 도요노부

14 고구려 수막새의 전체적인 분류에 관해서는 關野貞(1940)과 關口廣次(1977)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또 평양 주변에서 출토된 고구려 수막새의 분류에 관해서는 주로 谷豊信(1989·1990), 千田剛道(1993·1996), 김희찬(2006a·2006b)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15 輻線이라는 용어는 바퀴살을 의미하며, 본고에서는 행인상으로 용기된 연변을 구획하는 放射狀의 陽刻線을 가리킨다.



삽도 1 \_ 수막새의 부분명칭

[谷豊信]가 평양 천도 이전의 막새로 추정한 것(토성리 A~D형)(谷, 1990)과 형식적으로 한층 낮은 것이 포함된다.

1~23은 복선이 2줄 내지 3줄이며, 행인상 연변의 중앙에는 2줄의 음각선이 있고, 자방 주위와 연변부 바깥쪽에 2줄의 권선(圈線)이 있는 수막새이다. 이 가운데 1~17은 복선이 2줄인 것이다. 연변이 4개인 것(谷의 토성리 A형에 해당됨)과 6개인 것(谷의 토성리 B형에 해당됨)으로 구분된다고 생각되나, 과편이 작아서 세분하기 어렵다. 색깔은 회색계이다. 태토에는 모래가 거의 섞여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나, 12는 백색 모래가 비교적 많이 섞여 있다. 2, 6, 13, 17의 와당 뒷면에는 대칼로 음각선을 새긴 흔적이 남아 있다. 18~23은 복선이 3줄인 것이다. 18과 19는 연변 6개(谷의 토성리 B형에 해당됨), 20~23은 8개(谷의 토성리 C형에 해당됨)라고 생각된다. 색깔은 회색계이며, 태토에는 모래가 거의 섞여 있지 않다. 23은 대칼로 와당 뒷면에 음각선을 새긴 흔적이 남아 있다. 이상의 수막새는 기본적으로 와당 뒷면에 수키와가 바로 접합된 것 같고, 접합을 위해서 수키와 주변에 보충된 점토의 양도 적은 편이다.

24~33은 복선이 3줄이며, 행인상 연변의 측면에 두세 줄의 음각선이 있고, 자방 주위와 연변부의 바깥쪽에 2줄의 권선이 있는 수막새이다(谷의 토성리 D형에 해당됨). 색깔은 회색계와 황갈색계가 있다. 태토에는 모래가 거의 섞여 있지 않으나, 와당 앞면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5~28의 와당 뒷면에는 대칼로 음각선을 새긴 흔적을 관찰할 수 있으며, 수키와는 와당 뒷면에 바로 접합된 것이 많다. 24는 수키와를 접합한 다음에 와당 뒷면에 전체적으로 점토가 보충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막새에 비해서 두껍다.

37~48은 전형적인 복선연화문 수막새와는 문양이나 색깔에 차이를 보인다. 37과 38은 자방이 크고, 행인상 연변의 모양이 작은 능형에 가깝다. 연변에는 윤곽을 따라 1줄

의 음각선을 돌렸다. 자방 주위와 연변부 바깥쪽에는 2줄의 권선이 있다.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37은 수키와 외면의 일부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태도에는 모래가 거의 섞여 있지 않다.

39는 복선이 2줄이며, 행인상 연변의 양 측면에 1줄씩의 음각선이 새겨진 것이다. 자방에는 1+5개의 연자가 있고, 자방 주위에는 1줄의 권선이 있다. 색깔은 회색계이며, 와당 앞면과 뒷면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태도는 백색 모래가 약간 섞여 있다. 자방이 남아 있지 않은 40은 39와 유사한 와당 문양으로 판단된다.

42와 43은 복선이 2줄이며, 행인상 연변의 양 측면에 1줄씩의 음각선이 새겨져 있고, 자방에 1+6의 연자가 있는 문양이다. 자방의 주위에 2줄, 연변부의 주위에 1줄의 권선이 있다. 색깔은 적갈색계이다. 42 와당 외연(外緣)의 수키와가 떨어진 부분을 보면, 다치구를 써서 와당 뒷면을 긁은 흔적과 함께 수키와 내면을 다치구로 긁은 흔적의 압흔(壓痕)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흔적을 통해서 ① 와범에 두께 0.8cm 정도까지 흙을 충전(充填)함, ② 와당 뒷면을 다치구로 긁음, ③ 단부 내면을 다치구로 긁은 수키와를 와당 뒷면에 접합함, ④ 와당 뒷면 전체에 두께 1.5cm 정도 점토를 보충하는 막새 제작순서를 추정해 볼 수 있다. 43도 기본적으로 같은 제작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태도에는 갈색 혹은 백색의 모래가 섞여 있다. 자방이 남아 있지 않은 41도 42, 43과 유사한 문양의 와당이다.

44와 45는 복선이 2줄이며, 퇴화된 행인상 연변 양쪽에 주문 대신 췌기 모양<sup>16</sup>이 배치되는 막새이다.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와당 앞면, 뒷면과 측면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45는 와당 뒷면을 다치구로 긁은 다음에 와당 뒷면 전체에 점토를 보충하면서 수키와를 접합하였다. 태도에는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47과 48은 행인상 연변에 꽃받침과 같은 장식이 조합된 것이다. 1줄의 권선을 돌린 자방에는 연자(1+4+6?)가 있고, 연변부 외주에도 1줄의 권선이 돌아간다. 색깔은 적갈색이다. 47 와당의 수키와가 떨어진 부분을 보면, 다치구를 이용해서 와당 뒷면을 긁은 흔적과 수키와 내면 포목의 압흔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흔적을 통해서 ① 와범에 두께 1.0cm 정도까지 흙을 충전함, ② 와당 뒷면을 다치구로 긁음, ③ 수키와를 와당 뒷면에 접합함, ④ 와당 뒷면 전체에 두께 1.5cm 정도 점토를 보충하는 순서로 수막새를 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태도에는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46은 47, 48과 유사한 문양의 와당일 가능성이 있는데, 파편이 작아서 구체적인 형식을 복원하기 어렵다.

36은 2줄의 복선과 2줄의 외주 권선이 관찰되지만 상세한 문양은 알 수 없다. 색깔

16 연변 사이에 배치되는 삼각형이나 부채꼴 모양의 문양을 종합하여 본고에서는 '췌기 모양'으로 기술한다.

은 적갈색이며, 와당 뒷면에서 관찰되는 흔적은 수키와 광단면(廣端面)에 새겨진 음각선의 압흔일 가능성이 있다. 35는 주연부와 2줄의 권선만이 남아 있고, 상세한 형식은 알 수 없다.

## 2) 연화복합문 수막새

용기된 연변과 양각선 및 음각선으로 표현된 연화문, 인동문(忍冬紋), 귀면문(鬼面紋) 등이 조합된 막새(김희찬, 2006b)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49~109는 4개의 용기된 연변과 양각선으로 표현된 연변이 조합된 것이다.

49~57은 양쪽 측면에 1줄씩의 음각선이 있는 4개의 용기된 행인상 연변과 중앙선의 좌우에 2개씩의 꽃술이 표현된 연변이 조합된 것이다(연화복합문1). 꽃술의 끝은 짧게 외절(外折)되며, 연변 사이에는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색깔은 주로 회색계이다. 태토에는 모래가 거의 섞여 있지 않으나, 와당 앞면과 뒷면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는 예가 많다. 55와 56의 와당 뒷면에는 대칼로 음각선을 새긴 흔적이 남아 있다.

59~66은 윤곽선에 따라 1줄의 음각선이 새겨진 4개의 용기된 행인상 연변과 중앙선의 좌우에 2개씩의 꽃술이 표현된 연변이 조합된 것이다(연화복합문2). 꽃술의 끝은 짧게 외절되는 것과 직선으로 마무리된 것이 있다. 연변 사이에는 주문이 아닌 췌기 모양의 간변(間弁)이 있다. 색깔은 주로 황갈색계이며, 태토에 갈색 모래가 섞여 있는 것이 많다. 와당 앞면과 주연부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는 예가 많다. 59와 61은 와당 뒷면에 수키와를 접합한 후, 와당 뒷면 전면(全面)에 점토가 보충된 것 같다.

67~71은 윤곽에 따라 1줄의 음각선을 새긴 작은 행인상 연변과 전체적으로 폭이 좁고 끝이 외반되는 꽃술을 좌우에 1개씩 표현한 연변이 조합된 것이다(연화복합문3). 색깔은 회색계이다. 태토는 모래가 거의 섞여 있지 않은 것과 백색의 작은 모래가 소량 섞여 있는 것이 있다. 와당 앞면과 뒷면에는 모래가 부착된 예가 많다. 67~69는 물손질한 와당 뒷면에 대칼로 음각선을 새긴 흔적이 남아 있다.

72와 73은 용기된 행인상 연변과 끝이 고사리 모양으로 외반한 꽃술이 좌우 1개씩 표현된 연변이 조합된 것이다(연화복합문4). 연변 사이에 Y자 모양(72) 또는 Y자 모양과 주문이 조합된 간변이 배치된다.

58, 74~106은 용기된 연변의 형태가 꽃봉오리가 원형이라고 생각되는 행인상이 아닌, 일반적인 연변에 가까운 예이다.

58은 연변의 외곽선이 서로 공유되고, 양각선으로 표현되는 연변 내에 끝이 외절되는 꽃술이 좌우 1개씩 표현된 것이다(연화복합문5). 색깔은 회색계이며, 태토에는 작은 모래가 섞여 있다.

74~79의 용기된 연변은 선단으로 갈수록 폭이 넓고 용기되며, 끝 부분이 뾰족하다. 양쪽 측면에는 1줄씩의 음각선이 있다. 양각선으로 표현된 연변의 좌우로 1개씩 표현된 꽃술의 끝은 외반하여 윤곽선과 연결되어 있다(연화복합문6). 색깔은 회색계이며, 태토에는 백색 모래가 섞여 있다. 78의 와당과 및 주연부에는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80~101의 용기된 연변은 평면 형태가 오각형에 가깝고, 양쪽 측면에는 1줄씩의 음각선이 있다. 양각선으로 표현된 연변 내에는 역U자형의 꽃술이 좌우 1개씩 표현되어 있다(연변복합문7). 색깔은 황갈색계와 적갈색계가 있고, 태토에는 백색과 갈색의 모래가 섞여 있다. 와당 앞면과 주연부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는 예가 많다. 와당 뒷면에 수키와를 접합하기 위해서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관찰된다. 97과 99의 경우, 수키와 광단면에도 다치구로 굵었다고 판단되는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102는 연변의 윤곽선이 공유되어 있고, 양각선으로 표현된 연변 내에는 끝이 고사리 모양으로 외반한 꽃술이 좌우 2개씩 표현된 것이다(연화복합문8). 색깔은 회색계이며, 태토에는 백색과 갈색의 모래가 섞여 있다.

103~106은 연변의 윤곽선이 공유되어 있고, 양각선으로 표현된 연변 내에 끝이 고사리 모양으로 외반된 꽃술이 좌우 1개씩 표현된 것이다(연화복합문9). 색깔은 회색계이며, 태토에 모래가 섞여 있는 것이 있지만, 그 양은 적은 편이다.

107~109는 용기된 연변과 양각선으로 표현된 연변이 조합된 수막새의 일부로 생각되지만, 파편이 작아서 형식이 불분명하다.

110~121은 4개의 용기된 행인상 연변과 음각선으로 표현된 귀면문이 조합된 것이다(연화복합문10). 연변부의 바깥쪽에는 사선문양대(斜線紋樣帶)가 배치된다.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토에는 갈색 모래가 섞여 있는 예가 많다. 와당 앞면과 주연부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는 예가 있다. 와당 뒷면에는 수키와를 접합하기 위해서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관찰된다. 111의 경우, 수키와를 접합한 다음에 와당 뒷면 전체에 점토를 보충하였는데, 이러한 접합방법이 일반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다 기증 기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114에서는 수키와의 광단면에서도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관찰된다.

122~135는 연화복합문7(80~101)과 비슷한 형태의 용기된 연변과 인동문이 조합된 것이다(연화복합문11).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토에는 백색과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와당 앞면, 주연부와 뒷면에 모래가 부착된 예도 있다. 와당 뒷면에는 수키와를 접합하기 위해서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관찰된다. 122와 128은 수키와를 접합한 다음에 와당 뒷면 전체에 점토를 보충한 예이며, 보충된 점토와 수키와의 접합면에 수키와 내면을 물손질하거나(122) 다치구로 굵은(128) 흔적의 압흔이 남아 있다. 반면 123·127·130·131과 같이 수키와를 접합한 다음에 접합부분 주변에만 점토가 보충되었다고 생

각되는 예도 있다.

136~144는 4개의 행인상 연변과 인동문이 퇴화되었다고 생각되는 삼엽문(三葉紋)이 조합된 것이다. 136~143은 연변부 바깥쪽에 주문 문양대(珠紋紋樣帶)가 돌아간다(연화복합문12).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토에는 백색과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와당 앞면과 주연부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는 예가 있다. 와당 뒷면에는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관찰되고, 수키와 접합시 접합부 주변에만 점토가 보충된 것이 일반적이다. 144는 주문 문양대가 없고, 자방이 연화복합문 12보다 조금 더 크며, 4개의 연자가 있다(연화복합문 13).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토에는 백색과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와당 표면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와당 뒷면에는 대칼로 음각선을 새겼다고 생각되는 흔적이 관찰되고, 와당 뒷면 전체에 점토가 보충된 것 같다.

145~148은 윤곽선이 없는 6개의 행인상 연변과 수지문(樹枝紋)이 조합된 것이다. 와당 앞면 연변부 바깥쪽에 주문 문양대가 있는데 145·148(연화복합문14)과 146·148(연화복합문15)은 주문 수와 형태가 서로 다르다.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토에는 백색과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와당 앞면과 외주부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는 예가 있다. 146의 와당 뒷면과 보충된 점토에는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관찰되며, 와당뿐만 아니라 수키와 내면도 다치구로 굵었을 가능성이 있다.

149·151·152는 윤곽선이 없는 4개의 행인상 연변과 나뭇잎 모양의 안쪽에 인동문이 있는 문양이 조합된 것이다. 형식적으로 앞선 단계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예(關野 163·164)는 행인상 연변에 윤곽선이 있고, 인동문의 좌우로 3개씩 외반하는 가지가 있다. 149(연화복합문16)는 좌우 3개씩 배치된 인동문 가지가 직선적이며, 연변부 바깥쪽에는 내향거치문대(內向鋸齒紋帶)가 있다. 151·152(연화복합문17)의 인동문은 좌우 2개씩의 가지가 있다. 모두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와당 뒷면에는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관찰된다.

### 3) 연화문 수막새

복선연화문 수막새와 연화복합문 수막새가 변화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과 다른 계통으로 생각되는 수막새를 함께 분류, 기술하겠다.

153~171은 행인상 연변이 작아지면서 복선이나 구획선이 없어졌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153~164는 윤곽선이 있는 소형의 행인상 연변이 8개 이상 있는 것이다. 이 중 161~163은 다른 수집품의 유사한 예로 보아 연변수가 8개로 생각된다. 연변 사이의 바깥쪽에는 썰기 모양이, 안쪽에는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토에는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와당 앞면과 주연부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와당 뒷면 하

반부 모서리는 평면이 생기도록 깎여져 있다.

153~160은 다른 수집품의 유사한 예로 보아 9개 내지 12개의 연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다. 행인상 연변 사이에 있는 문양으로는 주문(153·154), 췌기 모양(155·156·157·160), 작은 행인상 모양+주문(159), V자문(158) 등이 있다.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토에는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와당 앞면에 모래가 부착된 예가 있다. 와당 뒷면에는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관찰된다. 와당 뒷면 하반부 모서리는 평면이 생기도록 깎여져 있는 예가 많다.

165는 윤곽선이 있는 소형 행인상 연변과 꽃받침이 조합된 문양 4개가 배치된 것이다.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토에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와당 뒷면 상반부에는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관찰되고, 하반부 모서리는 평면이 생기도록 깎여져 있다.

166은 윤곽선이 있는 8개의 소형 행인상 연변 사이에 변형된 삼엽문계의 문양이 있는 것이다.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토에는 백색과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와당 앞면에는 모래가 부착되어 있고, 와당 뒷면에는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관찰된다.

167~171은 윤곽선이 없는 소형 행인상 연변이 8개 이상 있는 것들이다. 연변 사이에는 주문(167·168)과 췌기 모양(170·171)의 문양이 확인된다.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토에는 갈색 모래가 섞여 있는 예가 많다. 와당 앞면과 주연부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고, 와당 뒷면에는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관찰되는 예가 많다.

172와 173은 8개의 가는 행인상 연변 사이에 V자형 문양이 있는 것이다.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토에는 모래가 거의 섞여 있지 않다.

174와 175는 행인상 연변의 윤곽선이 서로 연결되어 파상문 같이 보이는 것이다.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토에는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와당 뒷면에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확인된다. 174의 와당 앞면에는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175의 와당 뒷면 하반부 모서리는 평면이 생기도록 깎여져 있다.

176~178은 와당 주연부에 연호문대(連弧紋帶)가 있는 점이 공통되는데, 연변의 모양이 서로 다르며, 형식적인 상호관계가 불분명하다. 색깔은 모두 적갈색계이며, 태토에는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176과 177의 와당 뒷면에는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관찰된다.

179·181~183은 굵은 양각선으로 표현한 끝이 뾰족해지는 연변이 배치된 것이다. 색깔은 황갈색계와 적갈색계가 있고, 태토에는 갈색 모래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와당 앞면에는 모래가 부착되어 있고, 와당 뒷면에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관찰된다.

180은 두겹의 양각선으로 표현된 연변 사이에 T자형의 간변이 있는 것이다.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토에는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와당 뒷면에는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관찰된다.

184~189는 선단부로 갈수록 폭이 넓고 용기되어 있으며, 끝이 뽕족해지는 8개의 연변 사이에 Y자형 문양의 간변이 있는 것이다. 184~187, 188과 189는 Y자형 문양 사이에 있는 주문의 수와 위치가 다르다. 색깔은 회색계이며, 태토에는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190과 191은 2개의 자엽(子葉)이 배치된 6개의 연변이 있는 것이다. 연변 사이에는 복선이 퇴화된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직선상(直線狀)의 간변이 있다. 색깔은 갈색계이며, 태토에는 백색과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와당 뒷면과 수키와와의 접합 부분에는 물손질한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는데, 상세한 접합방법은 불분명하다.

192와 193은 구형(球形) 꽃봉오리 같은 10개의 연변이 안쪽과 바깥쪽을 향하도록 교대로 배치한 것이다.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토에는 백색 혹은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와당 앞면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192의 와당 뒷면에는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관찰된다. 193의 와당 뒷면 하반부 모서리는 평면이 생기도록 깎여져 있다.

194는 능형에 가까운 8개의 용기된 연변 사이에 두 개의 썩기 모양이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된 것이다.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토에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와당 뒷면 상반부에는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있고, 하반부 모서리는 평면이 생기도록 깎여져 있다.

195~200은 연변 사이에 썩기 모양의 간변이 있는 수막새인데, 모두 작은 파편이어서 구체적인 문양은 불분명하다. 색깔은 적갈색계가 많다. 199는 색깔이 갈색계이며, 주위에 주문 문양대가 있는 것이 기타 예와는 다르다.

150은 행인상 연변과 복변(複弁)의 연변이 조합된 것이다.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토에는 백색과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와당 앞면, 주연부, 뒷면에 모래가 부착된 예가 있다.

201·202는 적갈색계의 수막새로, 파편이 작아서 상세한 형식은 불분명하다.

#### 4) 기타 문양의 수막새

203~208은 중권문(重圈紋) 수막새이다.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토에는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와당 앞면과 주연부에는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와당 뒷면에는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관찰된다. 205의 경우, 수키와 광단면뿐 아니라 내면에도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남아 있다. 수키와를 접합한 다음에 와당 뒷면 전체에 점토가 얇게 보충되었다고 생각되는 예가 많다.

209~211은 세키노 다다시[關野貞]가 복선문(幅線紋)이라고 명명한 것이다(關野, 1940).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토에는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와당 앞면과 주연부에는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와당 뒷면에는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관찰된다.

212와 213은 세키노 다다시가 와선문(渦線紋)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토에는 백색과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다른 막새에 비하여 와당이 두껍다.

214와 215는 세키노 다다시가 반규문(蟠迤紋)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토에는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주연부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고, 와당 뒷면에는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관찰된다.

216~218은 귀면문 수막새이다. 색깔은 적갈색계이며, 태도에는 갈색 모래가 섞여 있다.

220과 221은 대성산 부근에서 출토된 것으로, 안학궁 출토 수막새와 유사하다.

### 3. 암막새

219는 당초문(唐草紋)이 장식된 암막새이다. 와당 뒷면에는 포목의 흔적이 남아 있고, 조선시대의 것으로 판단된다.

222~224는 대성산 부근에서 출토된 것으로, 안학궁 출토 암막새와 유사하다.

### 4. 착고와

225~228은 귀면을 표현한 착고와이다. 225와 227은 동형품으로 판단된다.

### 5. 평기와

교토대학 종합박물관 소장 야마다[山田] 기증 기와 가운데 평기와는 총 53점으로, 동일한 문양이 거의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집 당시 지표에 흩어져 있는 평기와를 문양별로 수습하였거나 선별 소장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1916년 유입 당시에는 53점 모두 고구려 기와로 인식되었던 듯하며 『고구려시대의 유적』(關野 外, 1929, 62~71)에도 동일한 문양의 평기와가 고구려 기와로 소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고려해 볼 때 유물의 해당시기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개체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구려의 소산이 아니라 하여도, 현재로서는 북한 지역에서 제작, 사용된 삼국시대 이후의 평기와 역시 명확히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보고에서는 기증 유물 전부를 검토, 도면화하여 게재하기로 하였다.

고구려 평기와 연구는 자료 확보의 한계로 말미암아 고고학적인 변화상을 도출해 내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 들어,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 지역에서 고구려의 남진과 관련된 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곳에서

출토된 고구려 시대 평기와의 제작기술적 양상이 확인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기도 일원에서 출토된 고구려 기와 또한 집안과 평양을 중심으로 제작, 사용된 기와와 비교하여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마도 기증 기와에 포함된 평기와 역시 고구려 기와로 볼 수 있는 개체는 소량에 불과할 뿐 아니라 잔존상태도 소편(小片)이 대부분이므로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하여 고구려 기와와 그 이후 시기의 기와로 구분하되, 고구려 기와를 중심으로 관찰 가능한 일부 속성을 통해 제작기법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고구려 평기와

평기와 가운데 고구려 기와로 보이는 것은 229~246의 18점으로, 수키와 1점, 암키와 17점이 확인된다. 기와의 색조는 적색계·적갈색계·황색계로, 함께 수집된 평양기(平壤期) 고구려 수막새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암키와의 경우, 와도분할면이 외면<sup>17</sup>측에 남는 특징으로부터 이외의 평기와와 크게 구분된다. 외면 타날문양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하 상세한 屬性에 대해서는 관찰표를 참조).

229는 외면에 명문(銘文)이 찍힌 수키와로, 인각(印刻)은 지름 약 2.5cm 크기의 원형(圓形)으로 추정되며, 한 글자를 공간 내에 가득 차게 양각한 모습이다(삽도 2-1). 같은 양상의 명문 수키와가 『고구려시대의 유적』 자료(계재번호 397번),<sup>18</sup> 이우치[井內]자료(1976-272번)(삽도 2-2),<sup>19</sup> 도쿄박물관 소장 자료(동북아역사재단-도쿄박물관 자료 39번)(삽도 2-3)<sup>20</sup>에서도 확인되는데, 아마도 기증품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는 평양 토성리(土城里)에

**17** 이 글에서는 평기와 成形 제작과정의 상태를 기준으로 암키와·수키와 동일하게 瓦桶과 닿게 되는 면을 內面, 타날작업이 이루어지는 면을 外面으로 설정, 명명하고자 한다.

**18** 關野貞 外, 1929, 『高句麗時代之遺蹟』 圖版 上冊, 朝鮮總督府, 18·71쪽.

**19** 井內古文化研究室, 1976, 『朝鮮瓦磚圖譜Ⅱ - 高句麗』, PL. 72. 주 18)과 동일한 기와이다.

**20** 동북아역사재단, 2008,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 일제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 제검토와 關東地域 소재 고구려 유물 1』, 301쪽. 이 유물은 이미 田村晃一과 谷豊信이 보고한 바 있다.

田村는 해당 명문와가 樂浪 東寺와 관련된 유물일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谷는 해당 유물이 台帳에는 樂浪郡 시대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의 연구성과에 비추어 고구려 시대의 것임을 설명하였다.

田村晃一, 1983, 「高句麗の寺院址に關する若干の考察」, 『佐久間重男教授退休記念中國史·陶磁史論集』, 579-603쪽; 谷豊信, 2005, 「平壤遷都前後の高句麗瓦に關する覺書-東京國立博物館收藏資料の紹介」, 『MUSEUM』, 東京國立博物館, 13-16쪽.



삼도 2 - '樂(낙)' 명(銘) 인각의 비교

서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단언할 수는 없으나 이상의 세 경우는 같은 글자일 가능성이 크며, '樂(낙)' 으로 판독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다만 글자의 형태, 인각의 범위 내에 글자가 위치한 상태 등으로 볼 때, 각각 다른 범(范)을 사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면의 타날문양은 보이지 않으나 표면이 고르지 않고 요철이 있는 것으로 보아 타날 후 조정(調整)작업을 통해 문양을 지웠을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명문의 내용은 다르나 같은 형태의 인각이 평기와외의 내·외면에 찍힌 예가 장매리(長梅里)·청암리(淸岩里) 사지(寺址)에서 확인된 바 있다.<sup>21</sup> 외면의 타날문양을 그대로 남긴 상태에서 찍거나 내면에 찍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예와는 차이를 보인다.<sup>22</sup> 지금까지 이러한 원형의 인각은 주로 백제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고구려기와에서도 같은 형태의 인각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자료의 증가와 함께 이러한 인각이 어떠한 의도로, 얼마나 널리 제작·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30은 종방향의 평행선문과 사선방향의 선문이 복합된 타날문양의 암키와이다. 외

21 『高句麗時代之遺蹟』자료 388(長梅里 수습)의 경우, 명문을 명확히 읽어내기는 어려우나 사격자문 위에 원형이 인각이 찍혀 있다. 한편 398은 淸岩里寺址에서 수습된 小片으로, 내면의 포목흔 위에 '東'자의 원형 인각이 확인된다. 井內 자료에도 淸岩里寺址 수습유물 가운데 내면에 '東'자의 인각을 찍은 명문와(275)가 보고되어 있으나, 앞의 예와 동일한 范은 아니다. 井內 자료 275는 수습지는 알 수 없으나, '金'자의 인각이 확인된다. 이외에도 淸岩里廢寺址 보고서에는 사격자문과 승문의 타날 위에 원형의 인각이 찍힌 평기와가 보고되어 있으나, 사진상으로 명문을 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關野貞 外, 1929, 70쪽 ; 小泉顯夫, 1940, 「平壤淸岩里廢寺址の調査(概報)」, 『昭和十三年度古跡調査報告』, 朝鮮古跡研究會, 18쪽; 井內古文化研究室, 1976, PL. 73쪽.

22 백종오는 고구려의 명문기와를 印刻銘文瓦와 線刻銘文瓦로 구분하고, 고구려 멸망 이후 발해에서 그대로 계승되어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백종오, 2006,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주류성출판사, 209~211쪽.

면 타날문만으로는 지금까지 고구려 기와로 보고된 예와 비교하여 다소 생소한 모티프이나, 측면 분할방향(외면측의 분할면)과 외면에 태토와는 다른 사립이 부착된 점 등을 감안하여 고구려 기와로 분류되었다. 표면은 회갈색이나 단면은 적색의 색조를 보인다.

231·232는 동일한 타날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의 모티프를 마치 사격자문과 같이 연결한 문양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231은 외면 측의 분할면이 남아 있다.

233·235는 석문(席紋, 섯문·자리문)으로, 이 문양의 기와는 집안(集安)지역에서는 환도산성·국내성·산성자산성, 평양지역에서는 평양성·대성산성 등지에서 수습되었다.<sup>23</sup> 한편 234는 초화문(草花紋)으로 추정되는 좀 더 장식적인 모티프를 석문과 상·하로 배치한 경우이다. 이러한 예는 평양에서 수습된 기와 가운데 여러 점이 보고된 바 있는데,<sup>24</sup> 명문 등을 석문 가운데에 배치하여 타날 후 기와 외면에 마치 별도의 문양대를 이루는 것처럼 표현한 방식도 확인된다. 따라서 소편(小片)으로 남은 233·235의 경우 역시 복합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세 점 모두 외측면의 분할면이 확인된다.

236은 마름모꼴의 모티프를 여러 개 겹쳐 반복적으로 배치한 능형문(菱形紋)으로, 내부에 화문(花紋)과 유사한 장식적 모티프를 첨가하였다. 능형문은 장매리, 원오리사지(元五里寺址), 정릉사지(定陵寺址), 금강사지(金剛寺址)를 비롯한 평양지역에서 주로 수습되고 있으며,<sup>25</sup> 지금까지 집안지역에서 수습된 것으로 보고된 평기와 가운데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외측면의 분할면이 남아 있으며, 측면 가까이에서 확인되는 종방향의 홈은 분할계점의 흔적일 가능성도 있다.

237~246 기와의 타날문양은 다소 특징적인 모티프를 보이는 예로 선문, 격자문, 승문을 외면 타날구의 주된 문양으로 사용하였던 백제·신라와 비교해 볼 때 고대 삼국의 양상 가운데 단연 차별되는 요소이다. 이러한 문양은 고구려 기와 가운데에서도 특히 평양지역의 기와를 중심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도 기증 고구려 기와

2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丸都山城』, 文物出版社, 158~165쪽;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國內城』, 文物出版社, 77~80쪽; 최맹식, 2005, 「고구려기와의 특징」,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박물관·서울특별시, 212, 223쪽; 백종오, 2006, 168~181쪽; 동북아역사재단, 2008, 257쪽.

24 『高句麗時代之遺蹟』의 377, 378, 386, 387, 399번 유물이 해당된다.  
關野貞 外, 1929, 69~71쪽.

25 關野貞 外, 1929; 小泉顯夫, 1940, 「泥佛出土地元五里廢寺の調査」, 『昭和十二年度古跡調査報告』, 朝鮮古跡研究會, 68~71쪽; 백종오, 2006, 168~181쪽.

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문, 격자문, 석문, 능형문 외에 다소 추상적·장식적인 모티프를 사용한 8가지 문양이 확인되고 있으나, 대체로 소편의 상태로 잔존하고 있어 단위문양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피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가운데 몇몇 문양은 다른 수집품에서도 확인되는데, 특히 243은 동일한 타날 문양의 암·수키와 완형(完形)이 보고된 바 있어[『高句麗時代之遺蹟』 게재번호 39(암키와)<sup>26</sup>·고려대학교박물관도록 325쪽의 하단(암키와)<sup>27</sup>·국립중앙박물관 소장번호 本館 8471(암키와)<sup>28</sup>·井內 자료 282(수키와)<sup>29</sup>], 타날구 전체의 문양, 즉 단위문양의 확인이 가능하다. 단위문양의 크기는 폭 8cm, 길이 35cm 이상으로, 타날구 길이에 따른 분류<sup>30</sup>상 전형적인 장판(長板)에 해당된다. 기와 외면의 상·하부에만 확인되는 사격자문은 주문양과 겹치는 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별도의 타날구를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타날구 경계부의 확인을 통해 상·하부에 격자문을 우선적으로 타날한 후 주된 문양을 타날한 것으로 생각된다.<sup>31</sup> 이외에도 고구려 시대의 것으로 보고된 평기와 가운데에는 장판의 타날구로 시문된 완형의 개체가 여러 점 확인된다.<sup>32</sup> 일반적으로 남한 내에서 장판의 타날구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신라 말 고려 초를 즈음하는 시기로 보고 있으며, 원통형 와통(圓筒形瓦桶)의 확산과 더불어 기와 제작 기술이 전국적으로 정형화되는 근거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sup>33</sup> 다만 아직까지 장판 타날구라는 새로운 형태의 타날도구가 등장하는 시·공간적 배경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sup>34</sup>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재로서는 한반도 내에서 장판 타날구 사용의 시작을 고구려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후 고구려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하였던 기술계통의 영향에 따라 오히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와 제작기법에 대한 일련의 변화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문제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고구려 기와 제작의 전개 과정에서 장판 타날구의 사용이 언제부터 시

26 關野貞 外, 1929, 18쪽.

27 고려대학교박물관·서울특별시, 2005,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325쪽; 小泉顯夫, 1940.

28 주 27, 28의 암키와는 동일한 개체로,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9 井內古文化研究室, 1976, PL. 79.

30 이 글의 타날판 구분은 최태선의 短板, 中板, 長板의 3구분법에 따른다.

최태선, 1993, 「平瓦製作法の變遷에 대한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7~19쪽.

31 본 유물의 세부 속성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열람을 통해 확인하였다.

32 關野貞 外, 1929, 18쪽(40번 유물); 井內古文化研究室, 1976, PL. 71, 77, 78, 80(267, 280, 281, 283번 유물). 이 외에도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암키와 2점이 있다.

고려대학교박물관·서울특별시, 2005; 경기도 박물관, 2005, 『우리 곁의 고구려』, 224~225쪽.

33 최태선, 1993, 55~63쪽.

34 조성윤, 2003, 「신라 장판 타날문양 평기와의 경주제작여부에 대하여」, 『이화사학연구』 30집.

작되었는지, 또한 타날구의 차이가 조와집단의 차이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한 후 같은 지역에서 제작, 사용된 평기와의 제작기술적 양상에 대한 부분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장관 타날구 사용 기와를 포함하여 외면 타날문에서 다양한 모티프가 확인되는 평기위가 대체로 적색과 황색의 색조를 띠고 있으며, 태토와 소성 상태에서도 다양한 문양을 보이는 연화복합문과 기타 연화문 수막새와 유사한 예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제시된 와당의 편년안을 고려해 본다면 고구려 평양기의 기와 가운데에서도 다소 늦은 시기로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고구려 기와의 기본적인 제작기법에 대해서는, 수키와는 원통형와통(圓筒形瓦桶), 암키와는 통쪽 와통(瓦桶)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특히 암키와의 경우 기와의 내면에 남는 통쪽의 흔적이 백제나 신라의 그것에 비하여 비교적 좁고, 요철의 볼륨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sup>35</sup> 그러나 243과 동일한 타날문양을 보이는 원형 기와의 경우, 통쪽 각각의 폭이 약 6~8cm로 암키와 한 매당 통쪽 4~5개 정도가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sup>36</sup> 이렇듯 와통을 이루는 통쪽의 폭이 넓다면 그 경계부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파편으로 남아 있을 경우, 원통와통의 구조로 오해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아마다 기증 평기와에서도 통쪽흔이 확인되는 예는 몇 점에 불과하다. 고구려 암키와의 와통 형식에 한층 다양한 양상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자료라 생각된다.

또한 막새와 마찬가지로 암키와 가운데에도 태토(胎土)와는 다른 모래가 외면을 중심으로 부착되어 있는 개체가 다수 확인된다. 이는 모래의 부착 정도 등에 차이가 있으나, 함께 수습된 막새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와가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래를 부착하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려우나, 다음의 몇 가지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제작과정에서 점토를 다루는 와공이 손이나 도구 등에 점토가 붙지 않도록 공방 내 곳곳에서 보편적으로 모래를 사용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기와에도 묻어나게 되었을 가능성, 둘째, 와통에서 성형이 이루어진 후 건조과정에서, 혹은 요(窯) 내에 기와 적재시, 각각의 기와가 서로 붙어 파손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셋째, 이미 다니 도요노부[谷豊信]가 언급한 바와 같이, 대(臺) 위에 기와를 얹기 이전에

**35** 최맹식, 2005, 218쪽 ; 심광주, 2005, 「南韓地域 出土 高句麗 기와에 대한 研究」, 『한국 기와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기와학회, 40~44쪽 ; 백종오, 2006, 189~192쪽.

**36** 심광주는 원형 암키와를 기준으로 모골와통의 크기를 복원한 결과 와통 하나를 만드는 데 대략 58개 정도의 통쪽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심광주, 2005, 40~44쪽.

검토가 달라붙지 않도록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sup>37</sup> 와통에서 성형한 뒤 분할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기와를 다시 어떠한 대 위에 얹는다는 것은 민속례를 기초로 하여 추정되어 온 기존의 제작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이때 평기와를 성형·분할한 후 2차 조정(調整)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정대(調整臺)에 기와를 얹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sup>38</sup> 조정대의 명확한 형태와 사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남한의 홍련봉 1보루(紅蓮峰1堡壘)에서 출토된 승문(繩紋) 기와의 경우, 모래가 부착되지 않은 기와에 비하여 외면에 모래가 부착된 암키와는 상·하·측면을 직각에 가깝게 베어내는 등 2차 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목된다.<sup>39</sup> 이 또한 앞으로 자료의 증가와 더불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한편 239·241 기와의 내면에는 포흔과 함께 횡방향 승문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된다.<sup>40</sup> 이러한 예는 장대리를 포함한 평양지역<sup>41</sup>과 경기도에 소재한 고구려 관련 유적인 호로그루(瓠蘆古壘), 당포성(堂浦城), 무등리1보루(無等里 1堡壘), 아미성(阿未城)에서 출토된 고구려 평기와<sup>42</sup>에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성형 후 원통형의 방망이에 노끈을 감아 기와의 내면을 두드려 정면한 흔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sup>43</sup> 239·241의 경우, 승문으로 단정할 만한 꼬임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으며 추정 승문의 요철 위로 포흔이 뚜렷이 지나감을 알 수 있다.

233·234·236에서는 측면 모서리 가까이에서 분할계점으로 의심해 볼 만한 흔적이

37 谷豊信, 1989, 「四, 五世紀の高句麗瓦に關する若干の考察-墳墓發見の瓦を中心に」, 『東洋文化研究所紀要』 第百八冊,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谷는 '슴' 로 표기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한일 한자 사용의 차이를 감안하여, 臺로 표기하고자 한다.

38 이 경우, 일본의 기와 제작방식 중 一枚作法的 成形作業, 혹은 調整作業에 사용된 凹形作業臺(일본에서는 凹形作業臺로 표기)의 형태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凹形の 作業臺에 대해서는 일본 江戸時代の 『江戸各所圖繪』와 같은 자료에서 실제 형태가 확인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였다.

上原真人, 1978, 「古代末期における瓦生産體制の變革」, 『古代研究』 13·14, 元興寺古代學研究所; 東洋一, 1996, 「平瓦製作における中世の技術革新について」, 『研究紀要』 3, 京都市埋藏文化財研究所.

39 홍련봉 1보루에서 출토된 평기와 중, 표면에 모래를 뿌려 분리에 용이하도록 한 기와가 확인되고 있음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

高麗大學校考古環境研究所·서울特別市, 2007, 『紅蓮峰 第1堡壘 - 發掘調査綜合報告書』.

홍련봉 1보루 출토 기와에 대해서는 高麗大學校考古環境研究所의 배려로 實見이 가능하였다.

40 251번 기와의 내면에서도 비슷한 흔적이 확인되나 실제 다른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고구려 기와로 인식될 만한 특성을 보이고 있지 않아, 고구려 이후 시기의 기와로 분류하였다.

41 井内古文化研究室, 1976, PL. 80(283번); 關野貞 外, 1929, 70쪽(390번).

4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1999, 『漣川瓠蘆高壘』.

43 심광주, 2005, 49~50쪽.

관찰된다. 앞서 241과 동일한 타날문양의 완형 암키와에서도 상·하로 양 측면에 분할 계점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고구려 기와로 분류한 평기와의 내면에는 다양한 압흔이 관찰되나, 제작기술적 의미를 읽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 2) 이후 시기의 평기와

247~281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평기와로 여겨진다. 수키와 2점, 암키와 33점으로, 고구려 평기와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247~250의 기와는 외면 타날구 내에 ‘官(관)’자를 새겨넣은 명문기와로, 그 단위문양은 명문을 사(斜)방향의 평행선문 가운데 배치한 것(247·249·250)과 V자의 집선문 가운데 배치한 것(248)으로 구분된다. 동일한 명문와가 토성리에서 수습된 고구려 기와와 함께 제시된 예가 있기 때문에,<sup>44</sup> 낙랑·고구려 시대 이후에도 평양 토성리 일대에 중앙(中央)과 관련된 관아(官衙) 시설이 연속적으로 소재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256의 경우, 상단 쪽에 ‘大’자의 명문을 배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이외에도 외면 타날문양에 따라 251~257은 격자문계, 258~269는 어골문계, 270~276은 집선문계, 277~279는 수파문계 타날문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문양 내에서도 해당 모티프만을 사용한 단일문과 원래의 모티프를 변형시킨 변형문, 또 다른 모티프와 함께 배치한 복합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280·281과 같은 독특한 문양도 확인된다.

색조는 대부분 회색계이며, 측면의 분할흔적은 관찰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모두 내면 쪽에 분할면이 남아 있다. 대부분의 기와에서 사절흔(湛切痕)<sup>45</sup>이 관찰되며, 연철흔(連綴痕) 또는 윤철흔(輪綴痕)이 확인되는 개체도 포함되어 있다. 분할표지로는 측면과 맞닿은 내면측 모서리를 중심으로 분할계선의 형식만이 확인된다. 266은 내면 하단부를 경사지게 조정하였다. 이렇듯 고구려 이후 시기의 평기와로 구분한 총 35점의 기와는 관찰 가능한 제작기술적 속성에서 앞서 살펴본 고구려 기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

<sup>44</sup> 井内古文化研究室, 1976, PL.72 (268, 269번) ; 이현혜·정인성·오영찬·김병준·이명선, 2008, 『일본에 있는 낙랑유물』, 학연문화사.

<sup>45</sup> 사절흔이라 명명하고 있는 흔적에 대해서는, 민속례를 참조해 볼 때 다무락에서 점토관을 한 켜씩 떼어내는 과정에서 표면을 쓸어 정리하면서 생기는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조언을 최명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평기와 제작과정의 복원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 제작 흔적이 어느 쪽에 해당한다 하여도 판형의 점토를 사용하였음을 대변할 수 있는 속성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평양지역의 기와에 대해서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의 전 시대에 대한 양상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앞으로 자료 증가와 더불어 폭넓은 관심을 통해 각 시기 평기와의 제작기술적 변화상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 고구려 평기와 연구에서도 그 시·공간적인 위치를 규명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IV

### 고찰 - 수막새의 제작기술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한 야마다 기증 기와에는 평양 주변에서 채집된 다양한 문양의 수막새가 포함되어 있다. 그 대부분은 와당 전체의 4분의 1 전후 또는 그 이하의 작은 파편이기 때문에, 이 자료만으로 와당 문양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 대신 와당 단면의 관찰을 통해서 완형품(完形品)에서는 관찰하기 힘든 제작기술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정리를 통해서 알게 된 고구려 수막새 제작기술의 특징을 정리하여, 앞으로 고구려 수막새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

#### 1. 와당과 수기와의 접합기법

평양 주변에서 출토된 고구려 수막새의 와당과 수기와의 접합방법에 대해서는 이우치 이사오[井内功]가 아래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

대략 [고구려(吉井補譯, 이하 같음)] 전기에는 와당 뒷면에 수기위를 바로 접착하는 방법<sup>46</sup>을, 평양성기(平壤城期) 후반 이후의 (고구려)중·후기에는 와당 뒷면에 수기위를

<sup>46</sup> 원문 용어는 '接着法'이다. 이것은 와법에 점토를 채워서 와당을 만든 다음에 소량의 점토를 보충하면서 수기위를 와당 뒷면에 바로 접착시키는 방법이다.

끼우면서 접합시키는 방법<sup>47</sup>을 사용하였던 것 같다. 수키와를 와당 뒷면에 바로 접촉시키는 방법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와당 뒷면에 수키와를 끼우면서 견고히 접합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변화과정은 고구려 와당(의 변화)을 통해서 검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키와를 접합시키는 방법은 음각선을 새기는 방법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즉 접합 부분에 대칼로 음각선을 거칠게 가로와 세로로 새기는 방법과 끝 부분이 포크와 같이 여러 줄로 뾰족하게 갈라진 도구로 정밀히 굽는 방법이다. (井內 編, 1981, 33~34).

이우치가 지적했듯이 접합방법의 차이가 시기차를 반영할 가능성은 다니[谷]도 지적한 바 있다(谷, 1990·2005). 아마다 기증 기와 수막새의 경우도 와당과 수키와 접착 부분의 가공 방법을 기준으로, ①대칼과 같은 도구로 음각선을 새기는 방법(대칼 새기기 기법)과 ②빋과 같은 다치구로 굽는 방법(다치구 굽기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 기와에 남아 있는 흔적을 통해서 두 가지 접합기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 1) 대칼 새기기 기법

아마다 기증 기와 가운데 대칼 새기기 기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예는 연화복합문3 수막새(67~69)이다. 이 수막새의 경우, 모든 와당 뒷면에서 대칼과 같은 도구로 새긴 음각선을 관찰할 수 있다. 각 음각선은 짧은 직선이며, 와당 윤곽을 따라 위치를 옮기면서 새겨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격자 모양으로 새긴 것같이 보이게 된다. 또한 음각선은 와당 뒷면을 물손질 조정된 후에 새겨진 것으로, 소량의 점토를 보충하면서 수키와를 직접 접촉했다고 생각된다(삽도 3-1). 연화복합문1 수막새(49~57)의 경우에도, 와당 뒷면 수키와와의 접합 부분에 대칼 같은 도구로 새겼다고 판단되는 음각선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토성리 A~D류로 분류되는 복선연화문 수막새의 경우, 대칼과 같은 도구로 새겨진 음각선의 일부로 판단되는 흔적이 수키와 접합부 바깥 쪽에서 관찰된 예가 있다(2, 13, 23, 25~28). 이와 같은 흔적을 통해서 와당 뒷면에 대칼 같은 도구로 음각선이 새겨진 후에 소량의 점토를 보충해서 수키와를 접촉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와당 쪽에 남아 있는 수키와의 파면(破面)에 음각선이 보이는 예가 있어(6, 17), 수키와 광단면(廣端面)에도 음각선이 새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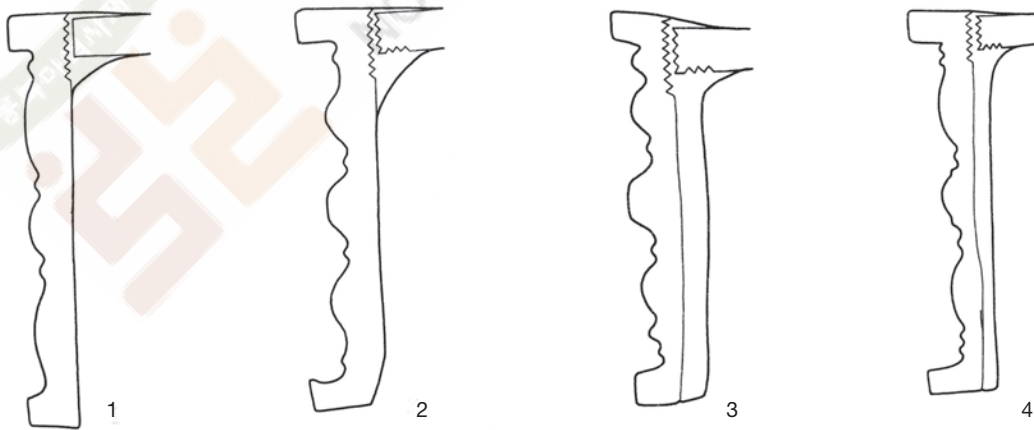
<sup>47</sup> 원문 용어는 '印籠つぎ法'. 이 기법은 와법에 와당 두께 반 정도의 점토를 채운 다음 수키와를 접합하고, 나머지 점토를 보충하는 접합법이다.

이상과 같이 대칼 새김 기법으로 만들어진 수막새는 복선연화문 수막새 가운데에서도 빠른 시기로 판단되는 경우와 연화복합문 수막새의 일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화복합문13 수막새(144)도 외당 뒷면을 대칼 같은 공구로 음각선을 새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수키와를 접합한 다음 외당 뒷면에 많은 점토를 보충한 점에서 앞서 살펴본 기와와 차이가 있으므로 그 계통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 2) 다치구 긁기 기법

평양 주변에서 채집된 수막새의 외당 뒷면에 빗과 같은 다치구로 긁은 흔적이 쉽게 관찰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온 사실이다. 그리고 이번 정리를 통해서 외당 뒷면뿐만 아니라 수키와의 광단면과 내면에도 유사한 흔적이 남아 있는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당과 수키와의 접합 순서와 긁은 흔적의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이하 구체적인 흔적을 제시하면서 외당과 수키와의 접합기법을 복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외당 뒷면을 다치구로 긁은 흔적을 검토해 보겠다. 다치구 긁기 기법은 빗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수키와 접합 부분을 방사선상(放射線狀)으로 긁은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 경우 외당 뒷면의 긁은 부분이 약간 꺼져서 홈이 생긴 예가 적지 않다. 일본에서는 수키와와의 접합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당 뒷면을 강하게 물손질해서 홈이 생긴 예가 있다. 다치구로 긁어서 생긴 홈도 결과적으로 수키와의 접합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수키와를 접합하기 위해서 보충된 점토가 긁은 흔적을 덮고 있는데, 이러한 흔적을 통해 외범 내에 어느 정도까지 점토를 충전해서 뒷면을 조정한 다음에 접합 부분을 다치구로 긁고, 다시 점토를 보충하면서 수키와



삽도 3\_ 외당과 수키와의 접합기법 모식도 (1 대칼 새기기 기법, 2~4 다치구 긁기 기법)

를 접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정리에서는 수키와 쪽을 다치구로 굽었다고 생각되는 예도 찾을 수 있었다. 중권문 수막새인 205는 수키와의 광단면과 내면에서 다치구로 굽은 흔적을 관찰할 수 있는 예이다. 수키와 광단면에는 기와의 곡률(曲率)을 따라 다치구를 이용하며 횡방향으로 굽은 흔적이 관찰되며, 수키와 내면에는 광단면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굽은 흔적이 남아 있다. 연화복합문10인 114에서는 수키와 광단면을 기와의 곡률을 따라 굽은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예를 참조하면서 다른 기와를 관찰한 결과, 와당 뒷면이나 수키와를 고정시키기 위한 보충 점토에 수키와를 다치구로 굽은 흔적이 전사되어 압흔으로 남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예도 찾을 수 있었다. 복선연화문 수막새인 42, 연화복합문 수막새인 123·127·128·146은 수키와와 와당 뒷면의 점토를 보충한 부분에 수키와 내면을 굽은 흔적이 전사된 압흔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다. 171과 201은 와당 뒷면을 다치구를 이용하여 방사선상으로 굽은 흔적과 겹쳐 와당 주연을 따라 굽은 흔적의 압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흔적이 함께 관찰된다. 확실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예가 적기 때문에 수키와 광단면과 내면을 굽는 기법의 시공적(時空的)인 평가는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유사한 예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치구 굽기 기법으로 만들어진 수막새는 수키와를 접착시키기 위해서 보충된 점토의 양과 범위에 따라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첫째는 와당과 수키와가 접착된 부분의 주위에만 점토가 보충된 예이다(삽도 3-2). 대칼 새기기 기법의 예보다는 보충된 점토의 양이 많은데, 보충된 범위는 기본적으로 수키와 접합부 주변으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반규문(蟠通紋) 수막새인 215와 귀면문 수막새인 216의 경우는 다치구로 굽은 흔적이 접합부 바깥쪽의 와당 뒷면에도 보이며, 보충된 점토의 양과 범위가 대칼 새기기 기법의 예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둘째는 와범에 어느 정도까지 점토를 충전하여 수키와를 접합한 다음에 와당 뒷면 전체에 점토가 보충된 예이다(삽도 3-3·4). 복선연화문 수막새의 일부(42·43·45·47), 연화복합문 수막새의 일부(122·127·128·131), 연화문 수막새의 일부(167), 중권문 수막새(203·204·205), 복선문 수막새의 일부(209·210)가 전형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기법으로 만들어진 막새는 단면이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인다(삽도 3-3). 다만 용기된 연변과 귀면문이 조합되는 연화복합문10 수막새의 경우(111)와 같이 단면은 비교적 얇은데도 불구하고 와당 뒷면 전체에 점토가 보충된 예도 있다(삽도 3-4). 또 용기된 연변과 인동문이 조합되는 연화복합문11의 경우, 상술한 두 가지 접합 기법이 모두 확인된다.

이상의 접합기법과는 다른 흔적이 관찰되는 자료도 있다. 연화복합문 수막새인 61과 연화문 수막새인 190·191은 와당 뒷면의 수키와 접합 부분에 물손질의 흔적만이 보이는데, 보충된 점토 때문에 전체적인 조정방법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연화복합문 수막새인 122는 와당 뒷면에 보충된 점토와 수키와의 접착면에 물손질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러한 예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2. 와당에 부착되어 있는 모래에 대해서

고구려 수막새 와당 앞면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이우치 이사오가 지적한 바 있다(井內 編, 1981, 33~34). 또 다니 도요노부는 와당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에도 모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모래의 유무가 시기차를 반영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하였다(谷, 1989·1990·2005). 아마다 기증 기와의 경우도 많은 수막새에서 모래가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아마다 기증 기와 가운데 다니 도요노부의 토성리 A~C류에 해당되는 수막새에는 모래가 부착되어 있는 예가 없다. 한편, 나머지 수막새에는 모래가 부착되어 있는 예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와당 앞면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이우치가 추정한 것같이(井內 編, 1981, 34) 와범에서 와당을 쉽게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와당 주연부와 뒷면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암키와의 외면에도 모래가 부착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막새 제작시 와당이나 수키와를 일시적으로 놓는 작업대 위에 항상 모래가 뿌려져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종래의 연구에 따르면 평양 천도 이전 단계의 집안 출토 기와에는 모래가 부착된 예가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와당에 부착된 모래는 평양 천도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니 도요노부는 낙랑 수막새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는 예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낙랑 기와의 영향일 가능성을 지적하였다(谷, 1989, 292~293). 하지만 평양 천도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와당 문양의 기원문제와 함께 북조(北朝)를 비롯한 중국 각지의 기와에 유사한 예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3. 색깔과 태토에 대해서

고구려 기와의 색깔은 집안 적석층에서 채집된 것이 주로 회색계인 것에 반해, 평양 주변에서 출토된 것은 주로 적갈색계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아마다 기증 기와의 경우, 복선연화문 기와인 토성리 A~D류와 연화복합문1·3·6은 주로 회색계이며, 나머지 수막새는 거의 적갈색계이다. 다만 연화복합문1·2·7과 같이 전형적인 회색계 혹은 적

갈색계가 아니라 황갈색계로 분류되는 색깔의 기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황갈색계로 분류되는 기와는 단면 혹은 표면의 색깔이 적갈색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황갈색 기와는 회색계에서 적갈색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적갈색계로 분류된 수막새에는 와당 문양에 관계없이 단면에 비해 표면의 색깔이 어두운 것(관찰표에서는 '暗赤褐色'으로 표시함)이 많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으나 의도적으로 표면 색깔이 암적갈색이 되도록 소성하는 방법이 어느 단계부터 일반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추정이 타당하다면, 고구려 기와의 색깔 변화는 고구려 기와의 소성기술의 시간적 혹은 집단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이번 정리를 통해서 수막새의 태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차이를 찾을 수 있었다. 복선연화문 수막새 가운데 토성리 A~D류와 연화복합문 및 연화문 수막새의 일부는 약간의 백색 모래가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래가 거의 섞여 있지 않다. 나머지 수막새는 어느 정도 모래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적갈색계의 수막새에는 백색 모래와 함께 갈색 모래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후술하겠으나 이러한 태토의 차이는 와당 문양이나 색깔의 차이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4. 와당 문양과 제작기술 변화의 대응관계

마지막으로 이번에 검토한 고구려 수막새 제작기술의 특징과 변화가 종래 검토되어 온 와당 문양의 형식학적인 변화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 1) 제작기술 변화의 대응관계

먼저 종래의 연구와 이번 검토를 통해서 추정된 제작기술의 변화방향을 정리하고, 각 속성 사이의 대응관계를 확인해 보겠다.

수키와의 접합방법은 대칼 새기기 기법의 사용 시기가 빠르고, 다치구 굽기 기법은 이후에 나타났다고 생각되어 왔다. 와당 앞면과 뒷면에 부착된 모래는 야마다 기증 기와의 경우 토성리 A~C류 수막새를 제외한 거의 모든 수막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막새의 색깔에 대해서는 이번 검토를 통해 회색계에서 황갈색계를 거쳐 적갈색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보았다. 태토는 빠른 시기의 것은 모래가 거의 섞이지 않고, 늦은 시기의 것에는 모래가 섞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였다.

이상과 같이 추정된 각 속성의 시간적인 변화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모래의 유무를 제외한 세 가지 속성 사이의 대응관계를 표 1~3으로 정리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속성 사이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시간

적인 변화를 반영한다고 하면, 아마다 기증 수막새 가운데 대칼 새기기 기법으로 수키와를 접합하고 색깔이 회색계이며 모래가 거의 섞이지 않는 태토를 쓴 것이 빠르고, 다치구 굵기 기법으로 수키와를 접합하고 색깔이 적갈색계이며 태토에 백색과 갈색 모래가 섞여 있는 것이 늦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이상의 제작기술에 관한 여러 속성이 와당 문양의 형식마다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각 형식마다 특정한 속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마다 기증 기와는 출토지를 알 수 없고, 형식마다의 점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의 조합이 시간차를 반영하는지, 제작집단의 차이를 반영하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 이번에는 몇 가지 형식의 수막새에 관해서 와당 문양에 대한 종래의 형식학적 편년안과 제작기술의 변화가 어느 정도 대응하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표 1 \_ 색조와 태토의 대응관계

	砂粒極少	白色	褐色	白色褐色	계
灰色系	41	17	8	4	70
黃褐色系	9	1	7	15	32
赤褐色系	8	3	47	53	111
계	58	21	62	72	213

표 2 \_ 색조와 접합기법의 대응관계

	대칼 새기기	다치구 굵기	기타	계
灰色系	11	0	0	11
黃褐色系	3	8	2	13
赤褐色系	0	58	1	59
계	14	66	3	83

표 3 \_ 태토와 접합기법의 대응관계

	砂粒極少	白色	褐色	白色褐色	계
대칼 새기기	10	3	1	0	14
다치구 굵기	0	3	27	34	64
기타	0	0	1	2	3
계	10	6	29	36	81

표 4 \_ 와당 문양과 제작기술에 관련된 속성의 대응관계

	와당문양	胎土				色調			접합기법			모래
		極少	白色	褐色	白褐	灰	黃褐	赤褐	대갈	다치구	기타	
부선	토성리 A-C	21	2	0	0	23	0	0	5	0	0	0
	토성리 D	8	1	0	0	6	4	0	4	0	0	8
	37-48	5	2	5	0	2	0	11	0	3	0	4
연화복합문	복합문1	7	2	0	0	7	2	0	2	0	0	5
	복합문2	3	0	5	0	2	6	0	0	0	1	5
	복합문3	2	3	0	0	5	0	0	3	0	0	3
	복합문4	2	0	0	0	1	1	0	0	0	0	2
	복합문5	0	1	0	0	1	0	0	0	0	0	0
	복합문6	1	5	0	0	6	0	0	0	0	0	1
	복합문7	0	0	0	22	2	13	7	0	11	0	15
	복합문8	0	0	0	1	1	0	0	0	0	0	0
	복합문9	2	1	1	0	4	0	0	0	0	0	0
	복합문10	0	0	1	11	0	0	12	0	2	0	1
	복합문11	0	0	0	14	0	0	14	0	9	0	6
	복합문12	0	0	0	8	0	0	8	0	5	0	3
	복합문13	0	0	0	1	0	0	1	0	0	0	1
	복합문14	0	0	0	2	0	0	2	0	1	0	1
	복합문15	0	0	0	2	0	0	2	0	1	0	1
	복합문16	0	0	1	0	0	0	1	0	1	0	1
	복합문17	0	1	0	0	0	0	1	0	1	0	1
연화문	153-166	0	0	13	1	0	0	14	0	8	0	8
	167-171	1	0	4	0	0	0	5	0	2	0	4
	172-173	2	0	0	0	0	0	2	0	0	0	0
	174-178	0	0	5	0	0	0	5	0	4	0	2
	179-153	0	0	3	1	0	0	5	0	5	0	3
	184-189	1	0	4	1	6	0	0	0	0	0	2
	190-191	0	0	0	2	0	2	0	0	0	2	0
192-193	0	1	1	0	0	0	2	0	1	0	2	
기타문양	重圈紋	0	0	4	1	1	0	5	0	5	0	4
	輻線紋	0	0	3	0	0	0	3	0	2	0	3
	渦線紋	0	0	0	2	0	0	2	0	0	0	0
	蟠适紋	0	0	0	2	0	0	2	0	2	0	2
	鬼面紋	0	0	3	0	0	0	3	0	0	0	0

## 2) 복선연화문 수막새의 변천과 제작기술의 대응관계

복선연화문 수막새는 고구려 수막새 가운데 비교적 형식학적인 연구가 진행된 편이다. 종래의 연구 성과에 따라 야마다 기증 기와를 분류해 보면, 1~23은 다니 도요노부 [谷豊信]의 토성리 A~C식, 김희찬의 CIb식 혹은 CIIa식, 24~34는 다니의 토성리 D식 (김희찬의 CIIa식?)에 해당된다. 자방에 연자가 있고 외주의 권선이 1줄인 39·40·41은 김희찬의 CIIa식이며, 행인상 연변과 꽃받침이 결합된 장식을 쓴 47·48은 김희찬의 CIIIb식에 해당된다. 42와 43은 김희찬 편년에서는 해당되는 것이 없는데, 자방에 주문이 있기 때문에 CIII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상의 수막새 가운데 토성리 A~C식에 비해서 D식은 행인상 연변에 있는 음각선의 수와 위치가 다르며, 와당 앞면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는 예가 많고, 색깔도 회색 이외에 황갈색계의 것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적한 다니 도요노부는 토성리 D식 수막새가 A~C식 수막새보다 제작시기가 늦다고 추정하였다(谷, 1990, 63). 또 와당과 수키와의 접합방법을 보면, 토성리 D식은 대칼 같은 공구로 음각선을 새긴 다음에 수키와를 직접 접합하는 예가 일반적이지만, 와당 두께가 2cm를 넘은 24와 25는 와당 뒷면에 수키와를 접착한 다음에 와당 뒷면 전체에 점토가 보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김희찬의 CIII식에 해당되는 복선연화문 수막새는 적갈색계의 색깔이 일반적이며, 와당 앞면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는 예가 많다. 또 와당 뒷면에는 다치구로 굵은 흔적이 관찰되는 것이 많다. 특히 42와 47에서는 와당 뒷면에 수키와를 접합한 다음 와당 뒷면 전체에 점토가 보충된 예가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와당 문양의 변화에 따라 제작기술에도 새로운 요소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속성 사이의 변화상에도 기본적으로 모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복선연화문 수막새는 와당 문양이 그 기본적인 구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변화하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제작 집단의 계통에서도 다른 수막새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제작기술적으로 살펴보면 복선연화문 수막새 중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요소가 나타나고, 이들 요소는 다른 문양 형식의 수막새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앞으로 형식을 넘어서 유사한 제작기술의 영향관계가 상세히 검토되면, 다른 형식 수막새와의 시간적 병행 관계가 추정될 뿐만 아니라, 수막새 생산체제의 변화를 밝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3) 연화복합문 수막새와 연화문 수막새의 변천과 제작기술

연화복합문 수막새에 대해서는 최근 김희찬이 자방의 형태와 연변의 형태 변화를 기준으로 하는 편년안을 발표했다(김희찬, 2006b). 그 연구성과에 따르면 I-1·2식에 해

당되는 것이 연화복합문1(49~57) · 2(59~66) · 7(80~101) · 9(103~106), II-1 · 2식에 해당되는 것이 연화복합문4(72~73) · 6(74~79), III식에 해당되는 것이 연화복합문11(122~135) · 13(144), 연화문150 · 153~164 · 166~171, IV-1식에 해당되는 것이 연화복합문3(67~71) · 17(151 · 152), IV-2식에 해당되는 것이 연화복합문10(110~121) · 12(136~143) · 14(145 · 147) · 15(146 · 148) · 16(149)이다.

이 가운데 김희찬 편년과 이번에 검토한 제작기술의 변천이 잘 맞지 않는 것이 용기된 연변과 양각선으로 표현된 연변이 조합된 연화복합문1~9이다. 예를 들면, 김희찬이 IV-1식으로 분류한 연화복합문3 수막새는 색깔이 회색계이며, 외당 뒷면에 대칼과 같은 공구로 음각선을 새겨서 수키와를 접착시킨다. 이러한 제작기술의 특징은 빠른 단계의 복선연화문 수막새와 연화복합문1 수막새에 보이며, 아마도 기증 기와 가운데 빠른 단계에 나타났다고 생각되는 속성들이다. 반면 김희찬이 I-1식으로 분류한 연화복합문7 수막새는 황갈색계와 적갈색계의 예가 많고, 외당 뒷면을 다치구로 긁어서 수키와를 접합한다. 이러한 특징은 이번 분석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늦은 수막새에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속성들이다.

이와 같이 외당 문양의 형식학적인 분석결과와 제작기술의 분석결과가 맞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연화복합문1~9 수막새가 복선연화문 수막새를 주로 사용한 단계에서 다양한 연화복합문과 연화문 수막새를 사용한 단계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연화복합문 수막새를 비롯한 새로운 형식의 수막새가 등장함에 따라 외당 문양뿐만 아니라, 그 제작기술과 생산체제 또한 크게 변화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행기의 자료에는 종래의 수막새에 보이는 요소와 새로운 요소가 결합된 자료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외당 문양과 제작기술의 종합적인 검토와 계통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화복합문7 수막새의 경우, 오각형에 가까운 용기된 연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형태의 연변은 복선연화문 수막새와 연화복합문 수막새의 일부에 보이는 행인형 연변과 형식학적으로 바로 연결하기 힘들고, 오히려 인동문과 조합되는 연화복합문11 수막새의 용기된 연변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제작기술을 보아도 연화복합문7과 11은 기와의 색깔 및 수키와의 접합방법과 같이 공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양자의 계통적인 연속성을 생각해도 큰 모순이 없을 것이다.

연화복합문3 수막새의 경우 세키노[關野]132 · 133 · 135 · 137이나 이우치[井内]23 · 25 · 2와 같이 연변의 특징이 유사한 이범(異范) 수막새를 찾을 수 있다. 각 보고서에 따르면 세키노[關野]132는 갈색, 133은 회색, 135는 회흑색, 137은 적갈색, 이우치[井内]23은 회갈색,<sup>48</sup> 24는 흑청색이라고 보고되어 있으며, 회색계 기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우치25는 대칼 새기기 기법으로 수키와가 접합된 것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물을 관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이와 자료는 색깔과 접합방법으로 보아도 연화복합문3 수막새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보아 연화복합문3 수막새와 유사한 와당 문양의 수막새는 같은 계통의 제작집단이 만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와당 문양이나 제작기술의 일부 특징만으로 연화복합문7 수막새와 연화복합문3 수막새의 시기를 결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제 속성의 조합관계의 차이는 제작집단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 보고 싶다. 유물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좀 더 상세히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연화복합문10~17, 각종의 연화문과 기타 문양 수막새는 색깔이 적갈색계이며, 태도에는 백색이나 갈색 모래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 다치구 굽기 기법으로 와당과 수키와가 접합된다. 이들 자료는 수키와를 접합할 때 점토가 보충된 양과 보충된 범위에는 형식마다 차이가 있다. 또 와당 뒷면에 남아 있는 흔적을 상세히 관찰해보면, 다치구의 구조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와 그 의미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이들 수막새를 세분하기 위해 주목할 수 있는 특징으로, 와당 뒷면 하반부 모서리를 평면이 생기도록 깎았던 수막새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야마다기증 기와 가운데 다양한 와당 문양을 가지는 155·156·159·162·163·165·167·168·175·178·193·194·200 수막새에서 유사한 흔적이 확인된다. 이들 자료는 태도와 색깔도 서로 유사하고, 같은 제작집단의 제품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단계의 수막새 또한 와당 문양의 분석과 함께 제작기술을 상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

48 『朝鮮瓦博圖譜』Ⅱ(井內 編, 1976)에는 기와 색깔에 관한 설명이 없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자료에 대해서는 『井內功寄贈瓦博圖錄』(國立中央博物館, 1990)에 기와 색깔이 기술되어 있다.

## V 맺음말

이상 교토대학 총합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야마다 기증 기와의 정리성과를 보고하였다. 이번 정리에서는 특히 수막새 제작기술의 특징을 검토하고, 그 변천과정을 추정해 보았다. 또한 이번 검토결과와 종래의 와당 문양의 형식학적인 검토 내용을 종합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고구려 수막새의 편년과 계통을 밝힐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번에 지적한 제작기술의 변화는 새로운 제작기술의 도입과 기와 생산체제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왕궁의 이전과 왕도 주변의 사원이나 관아 시설의 건설이 있었을 것이다. 기와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적마다의 양상 분석과 제작기술의 분석을 통한 기와의 시공적인 정리가 필요하겠다. 특히 유적마다의 양상을 밝히기 힘든 현 상황에서는 앞으로 제작기술에 대한 연구의 진행을 기대하고 싶다.

이번 정리를 통해서 야마다 기증 기와는 수량적으로도 종류의 다양성으로도 평양 주변의 고구려 기와의 특징을 생각하는 데 좋은 자료임을 밝힐 수 있었다. 하지만 작은 파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와당 문양을 상세히 검토하지 못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 교토대학 총합박물관 소장품보다 잔존상태가 좋은 구충독부박물관 소장품과 이우치 이사오[井内功] 구장품(舊藏品)이 재정리되어 그 성과가 공개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보고를 마치겠다.

- 이 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의 협력과 지도를 받았다. 감사드립니다.

정인성, 山中一郎, 上原真人, 阪口英毅, 谷豊信, 龜田修一

## | 국문 |

- 경기도 박물관, 2005, 『우리 곁의 고구려』.
- 고려대학교박물관 · 서울특별시, 2005,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 서울특별시, 2007, 『紅蓮峯 第1堡壘 - 발굴조사종합보고서』.
- 國立中央博物館, 1990, 『井內功寄贈瓦散圖錄』(國立中央博物館所藏品圖錄第7輯).
- 김희찬, 2006a, 「고구려 연화문 와당의 형식과 변천 - 구획선 연화문 와당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22집.
- 김희찬, 2006b, 「고구려 연화복합문 와당의 형식과 그 특성」, 『高句麗研究』 23집.
- 동북아역사재단, 2008,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I - 일제 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 재검토와 關東地域 소재 고구려 유물1』.
- 백종오, 2006,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주류성출판사.
- 심광주, 2005, 「南韓地域 出土 高句麗 기와에 대한 研究」, 『한국 기와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기와학회 · 서울특별시.
- 이현혜 · 정인성 · 오영찬 · 김병준 · 이영선, 2008, 『일본에 있는 낙랑유물』, 학연문화사.
- 조성운, 2003, 「신라 장관 타날문양 평기와의 경주제작여부에 대하여」, 『이화사학연구』 30집.
- 최맹식, 2005, 「고구려기와의 특징」,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박물관.
- 최맹식, 2006, 『삼국시대 평기와 연구』, 주류성출판사.
- 최태선, 1993, 「平瓦製作法の 變遷에 대한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국제교류재단, 1997, 『日本所在韓國文化財』 3.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 1999, 『漣川瓠蘆高壘』.

## | 중문 |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集安市博物館, 2004, 『丸都山城』, 文物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集安市博物館, 2004, 『國內城』, 文物出版社.

## | 일문 |

- 樞本龜次郎, 1932, 「山田姫次郎氏蒐集品目録」, 『博物館報』 第3號, 朝鮮總督府博物館.
- 小泉顯夫, 1940, 「泥佛出土元五里廢寺の調査」,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 小泉顯夫, 1940, 「平壤清岩里廢寺址の調査(概報)」, 『昭和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 京都大學文學部, 1963, 『京都大學文學部博物館考古學資料目録 第3部(中國)』.

- 谷豊信, 1989, 「四,五世紀の高句麗の瓦に關する若干の考察—墳墓發見の瓦を中心として」, 『東洋文化研究所紀要』第108冊.
- 谷豊信, 1990, 「平壤土城里發見の古式の高句麗瓦當について」, 『東洋文化研究所紀要』第112冊.
- 谷豊信, 2005, 「平壤遷都前後の高句麗瓦に關する覺書—東京國立博物館收藏資料の紹介」, 『MUSEUM』 No.596.
- 田村晃一, 1983, 「高句麗の寺院址に關する若干の考察」, 『佐久間重男教授退休記念論文集』(田村晃一, 2001, 『樂浪と高句麗の考古學』, 357~380쪽에 재록됨).
- 關口廣次, 1977, 「古代朝鮮における古瓦文様の系譜とその展開—三國時代~統一新羅時代」(1)・(2), 『考古學ジャーナル』 136・138.
- 關野貞外, 1927, 『樂浪郡時代の遺蹟』本文(古蹟調査特別報告 第4冊).
- 關野貞外, 1929,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古蹟調査特別報告 第5冊).
- 關野貞, 1940, 「日本古瓦文様史」, 『日本の建築と藝術』上卷(원 논문은 關野貞, 1930, 「瓦」, 『考古學講座』).
- 東洋一, 1996, 「平瓦製作における中世の技術革新について」, 『研究概要』3, 京都市埋藏文化財研究所.
- 吉井秀夫, 2001, 「日本西日本地域博物館に所藏された高句麗遺物」, 『高句麗研究』12輯, 高句麗研究會.
- 上原真人, 1978, 「古代末期における瓦生産體制の變革」, 『古代研究』13・14, 元興寺古代學研究所.
- 井內功 編, 1976, 『朝鮮瓦磚圖譜』II(高句麗), 井內古文化研究室.
- 井內功 編, 1981, 『朝鮮瓦磚圖譜』VII(總說), 井內古文化研究室.
- 千田剛道, 1993, 「高句麗瓦の計量化分析」, 『第6回 考古學におけるパーソナルコンピュータ利用の現状』.
- 千田剛道, 1996, 「高句麗・高麗の瓦」, 『朝鮮の古瓦を考える』.
- 藤田亮策, 1932, 「故山田嫻次郎氏蒐集品」, 『博物館報』第3號, 朝鮮總督府博物館.
- 藤田亮策, 1933, 「故關口半氏蒐集品につきて・故同上蒐集品目錄」, 『博物館報』第4號, 朝鮮總督府博物館.

K O G U R Y O R E L I C S I N J A P A N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  
미  
편



유미편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고려미술관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시아사학회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주소 | 京都市北袴紫竹上岸町15  
| 전화 | 075-491-1192



## 소장 경위

정 인 성 (영남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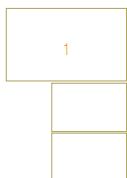
고려미술관은 1988년 10월 25일 일본에서 수집된 한국 관련 고고미술 자료를 연구 및 전시하기 위해 설립된 사립 미술관이다. 창설자 정조문 씨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인들이 조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을 돕기 위해 미술관을 설립했다고 한다. 현재 미술관은 한국 고대에서부터 근대까지의 약 1700여 점의 고고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소장품들은 모두 일본에서 수집된 것인데 마제석검이나 기와, 동경 등의 고고자료는 물론 고려청자나 조선 백자 등의 도자기, 나전이나 화각으로 장식된 목공품, 산수도나 화조도 민화 등의 회화, 불교미술, 민속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장품을 바탕으로 연간 4~5회의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

고려미술관에는 모두 7점의 고구려 유물이 보관되어 있는데 모두가 수막새이다. 이들 자료는 고구려의 전형적인 적색 수막새이지만 문양의 형태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이들 자료 중에서 출토지가 적힌 것이 1점 포함되어 있는데 기와에 '평안남도 대동군토성리출토'라는 목서가 있다. 토성리 출토라고 하면 대개 대동강면 남안의 낙랑토성과 그 주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낙랑토성에서는 고구려 와당이 단 1점도 출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토성리 출토 고구려 기와라는 것은 낙랑토성의 동편 토루의 바깥에서 채집되는 고구려 기와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토성리 채집 기와는 대개 회색이면서 와당의 형태가 집안의 고구려 적석층에서 채집되는 것과 닮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고려미술관에 보관된 기와는 모두가 적색기와로 전형적인 토성동 채집품과는 차이가 있다. 토성동 출토가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유행한 기와임에는 틀림없다. 나머지 기와들도 집안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적색기와는 차이가 있는 평양 기와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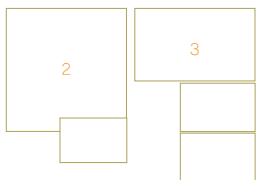
이들 기와는 고려미술관이 구입한 것이지만 정확한 출토지나 채집장소, 원 소장자와 관련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吉井秀夫, 2001, 「西日本 地域 博物館에 所藏된 高句麗遺物」, 『高句麗研究』 12.

篠原啓方, 2005, 「일본소재 고구려유물에 대하여」, 『한국 고대의 고구려』, 고려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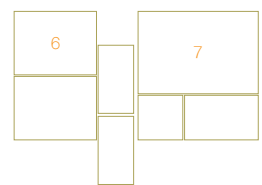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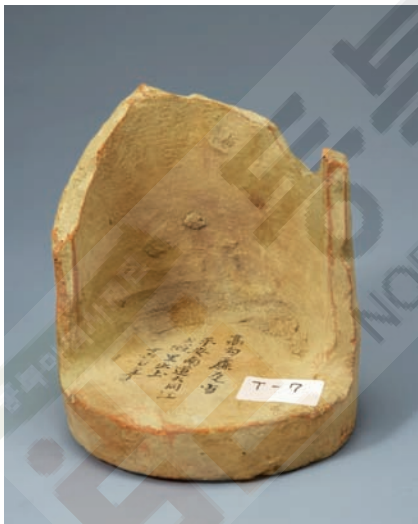




4	5







# 교토대학 부속 인문과학연구소



| 주소 | 京都市左京區北白川東小倉町47

| 전화 | 075-753-6997



## 소장 경위

정 인 성 (영남대학교)

교토대학 부속 인문과학연구소는 1939년에 설립된 (구)인문과학연구소와 동방문화연구소 및 서양문화연구소가 합쳐져 1949년 1월에 설립되었다. 각 연구소의 연구실적을 계승하면서 세계문화에 관한 종합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이후 2000년 및 2006년에 이루어진 제도개편을 통해 현재는 인문학 국제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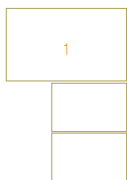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에는 한국과 관련된 고고자료가 다수 보관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에 재직하였던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와 관련된 것이다. 평양의 정백동 219호, 227호, 221호, 도제리 50호 등지에서 출토된 낙랑유물이 그것인데, 이들 고분은 우메하라가 중심이 되어 1933년에 조사된 것이다. 발굴주체는 당시 조선총독부의 외곽단체인 조선고적연구회도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우메하라 스에지,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 가야모토 가메지로[樞本龜次郎] 등이었는데, 정백동 219호와 227호 등은 우메하라가 현장에서 발굴을 담당한 것이다. 당시 다른 연구자들이 조사한 고분의 자료와 유물이 대부분 총독부 박물관(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교토대학으로 옮겨진 것이다. 아마도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구실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메하라는 교토대학을 은퇴하고 텐리[天理]대학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 보존상태가 양호한 유물을 가져갔다고 한다. 이후 텐리대학을 은퇴하면서 이들 유물을 고고학연구실로 옮겨 두었다고 한다. 원래 한덩어리였던 유물이 인문과학연구소와 고고학연구실로 소장처가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반면 이번에 조사한 고구려 평기와와 와당은 어떠한 경로로 교토대학에 소장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와당은 집안의 동대자나 산성자 산성에서 출토되는 것과 유사한데 실제로 산성자(山城子), 고대자(高臺子)라고 주기된 와당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고구려와 관련된 유적 중에서 고대자라는 지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내성의 동북에 위치하는 동대자를 잘못 주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 유물이 낙랑유물과 마찬가지로 우메하라와 관련되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과 종합박물관에 보관된 고구려 자료와 마찬가지로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세키노 다다시와 함께 집안을 조사하면서 반출시킨 유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메하라도 집안지역의 고구려 유적과 평양지역의 고구려 유적을 조사한 바 있기에 쉬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형편이다.

吉井秀夫, 2001, 「西日本 地域 博物館에 所藏된 高句麗遺物」, 『高句麗研究』 12.

篠原啓方, 2005, 「일본소재 고구려유물에 대하여」, 『한국 고대의 고구려』, 고려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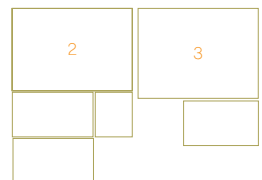






동북아시아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본북미역사재단





4		5	



# 교토 국립박물관

| 주소 | 京都市東山袴茶屋町 527番地  
| 전화 | 075-525-2473



## 소장 경위

정 인 성 (영남대학교)

**교**토 국립박물관은 메이지 22년(1889) 5월에 도서에 관한 일을 관장 하던 관청 부속 박물관을 중지하고 제국박물관, 제국 교토박물관, 제국 나라박물관을 설치하는 관제가 정해짐에 따라 메이지 30년(1897) 5월에 설립된 국립박물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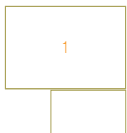
교토 국립박물관에도 한국관련 유물이 다수 보관되어 있는데, 이번 조사와 관련된 고구려 유물은 모두 4점이다. 원래 고구려 수막새 8점이라고 보고된 바 있으나 조사 결과 나머지는 낙랑 와당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점의 고구려 와당 중에서도 1점은 안학궁 출토품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이 고구려 와당인지, 아니면 시기가 좀 더 내려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들 와당은 1984년에 쿠마가야 나오유키[熊谷直之]가 기증한 것으로 확인되나 구체적인 출토지와 입수경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고구려 와당은 문양 형태로 보아 모두 평양에서 채집된 것으로 보인다. 쿠마가야가 기증한 다른 와당도 대개 평양에서 출토된 것이기에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특이한 것은 와당 배면에 콘크리트가 부착된 것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와당 배면의 곳곳에는 톱질을 한 흔적이 관찰되는데 이는 부착된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와당을 주택의 벽면 장식 소품으로 이용하다 이를 떼어내어 보관한 것으로 여겨진다.

吉井秀夫, 2001, 「西日本 地域 博物館에 所藏된 高句麗遺物」, 『高句麗研究』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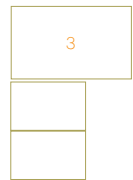
篠原啓方, 2005, 「일본소재 고구려유물에 대하여」, 『한국 고대의 고구려』, 고려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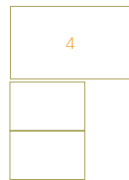




동북아시아역사재단  
동북아시아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 나라 국립박물관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주소 | 奈良市登大路町50番地

| 전화 | 0742-22-7771



# 나라 국립박물관



## 소장 경위

정 인 성 (영남대학교)

나라 국립박물관은 나라 공원의 일각에 위치하며 메이지 22년(1889)에 제국 나라박물관으로 설치된 후 메이지 33년(1900)에 나라 제실박물관으로 개칭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후 1947년에 궁내성으로부터 문부성으로 이관, 1952년에 나라 국립박물관으로 개칭되었다. 당초 고구려 수막새 3점이 소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나라 국립박물관 관계자의 도움으로 고구려와 관련된 지역에서 출토된 모든 자료를 실견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낙랑와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고 결과적으로 5점의 고구려 와당이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출토지에 대한 정보는 2장의 와당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는 고구려 정백리라는 주기가, 다른 하나에는 청암리라는 주기가 확인된다. 고구려 정백리라는 것은 그 위치가 분명치 않지만 대동강 남안에서 채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청암리 사지에서 채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료와 함께 낙랑와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원 소장자는 평양에서 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라 국립박물관의 협조로 이들 자료의 소장 경위를 확인한 결과, 오노 다다마사[小野忠正]가 기증한 사실을 확인했다. 오노는 이 유물과 함께 일본 동북지방의 요몬토기 약 1만 여 점을 기증했다고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진남포에 거주하면서 낙랑과 고구려기와를 수집하고 연구하던 인물로 오노 다다마사가 확인되는 점이다.

도쿄대학에 보관되어 있는 세키노 컬렉션 중에서 오노가 세키노에게 보낸 편지가 여러 통 확인된다. 그 중 하나는 평양에서 낙랑과 관련된 문자 와당을 발견하여 기존 세키노의 문자와 분류안과는 다른 자료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세키노의 요청으로 문자 와당의 탁본을 송부한 편지이다. 또 다른 자료에는 세키노의 문자와 분류가 오노 다다마사의 발견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 스크랩이 확인된다.

세키노에게 편지를 보낸 오노 다다마사가 나라 국립박물관에 낙랑과 고구려 기와를 기증한 사람과 동일인물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만약 그렇다면 평양에서 기와를 연구하던 오노에게는 보다 많은 기와 수집품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여생을 보낸 일본 동북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세키노에게 보낸 편지에는 진남포 용정정 54번지에 오노가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吉井秀夫, 2001, 「西日本 地域 博物館에 所藏된 高句麗遺物」, 『高句麗研究』 12.

篠原啓方, 2005, 「일본소재 고구려유물에 대하여」, 『한국 고대의 고구려』, 고려대학교 박물관.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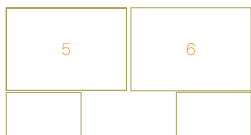






3	4





# 나라 문화재연구소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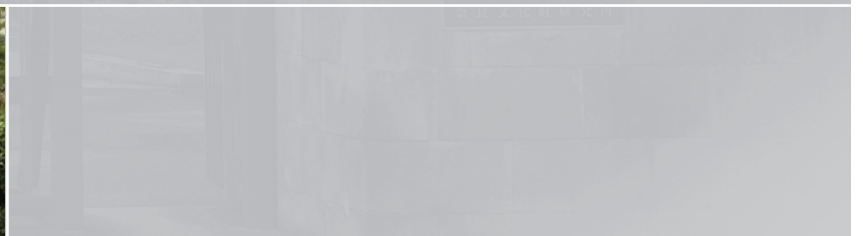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주소 | 奈良市二階町2丁目 9-1

| 전화 | 0742-30-6733



## 소장 경위

정 인 성 (영남대학교)

나라 문화재연구소는 문화청의 전신인 문화재 보호위원회에 부속되는 문화재 조사 연구기관으로서 1952년에 발족했다. 원래는 역사, 건조물, 미술·공예 연구실과 서무실이 있었지만, 평성궁(平城宮) 유적의 보존이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1963년에 평성궁 유적보존 조사부가, 1973년에는 아스카 등원궁(藤原宮) 유적 발굴조사부가 각각 설치되었고, 같은 해에는 아스카 자료관이 설치되었다. 1974년에는 국토 개발에 따른 매장문화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센터가 설치되었다. 그 후 부처의 재편 등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 방침에 근거해 문화청에 부속되던 도쿄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두 개의 연구기관이 2001년 4월에 통합되어 독립 행정법인문화재연구소가 되었다.

사전조사 결과 나라 문화재연구소에는 태왕릉에서 채집된 4점의 문자전이 있다고 확인되었는데, 현지 조사결과 그 모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유물은 전형적인 집안의 태왕릉 출토 문자전과 동일한 것으로 전(博) 249 ~ 252라고 주기되어 있었다. 소장경위를 조사한 결과 이들 자료의 원 소장자는 야마노우치 스가오[山内清男]라는 고고학자이고 원래 도쿄제국대학 이학부 인류학교실의 소장품이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1944년에 미군의 공청(空廳)으로부터 학술자료를 피난시키기 위해서 학교마당에 매립하였던 것을 패전 후에도 방치되어 있었기에 이를 야마노우치가 개인적으로 입수했다고 한다. 야마노우치가 소장하던 자료는 이 외에도 고려, 조선시대의 기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도쿄대학 인류학교실의 한반도 관련 자료, 특히 집안의 고구려 자료를 반입한 사람으로 가장 유력한 것은 1905년과 1912년에 집안 현지를 조사한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이다. 그런데 1905년의 조사에서는 도리이가 태왕릉의 문자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1912년의 조사에서 수집하여 도쿄대학으로 반출했을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도리이는 1912년 겨울에 집안을 조사하였는데 태왕릉에서 문자가 있는 벽돌이 채집되는 정황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문화재연구소에 소장된 문자전은 도리이가 1912년에 도쿄대학 인류학연구실로 반출시킨 것이 야마노우치의 소장품으로 바뀌었던 일괄 유물인 것으로 여겨진다.

조사결과 이들 문자전은 전형적인 태왕릉의 문자전으로 일부에 輯安 洞溝라는 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채집된 시기가 세키노와 도리이가 현지를 조사하던 1910년대임을 알 수 있다. 1920년대에는 공식적인 조사가 없었고 1930년대에는 통구(通溝)로 지명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吉井秀夫, 2001, 「西日本 地域 博物館에 所藏된 高句麗遺物」, 『高句麗研究』 12.

篠原啓方, 2005, 「일본소재 고구려유물에 대하여」, 『한국 고대의 고구려』, 고려대학교 박물관.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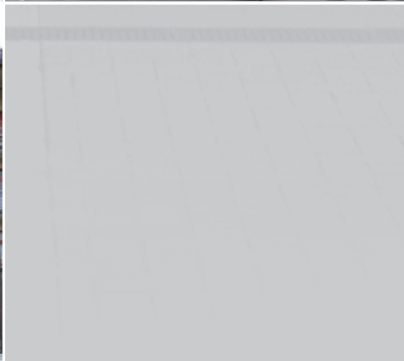
3		4	



# 텐리대학 부속 텐리참고관

| 주소 | 奈良淵天理市守目堂町 250

| 전화 | 0743-63-8414



## 소장 경위

정 인 성 (영남대학교)

텐리[天理]대학 부속 텐리참고관은 다이쇼 14년(1925)에 텐리외국어전문학교가 설립되어 쇼와 24년(1949)에 재단법인 텐리대학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른다. 참고관은 1925년 이래로 세계 각지의 생활 문화 자료·고고 미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전시하는 박물관으로 각지의 자료를 통해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이나 역사를 연구하여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설립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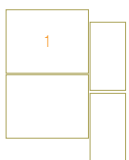
참고관은 쇼와 5년(1930), 텐리외국어학교(텐리대학의 전신) 내에 설치된 해외 사정 참고품실의 활동을 시작으로 한다. 창설자 나카야마 쇼젠·텐리교 2대 수장은, 텐리교를 해외에 넓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말의 습득 뿐만 아니라, 현지의 풍속·습관도 아울러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관을 설립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는 약 30만 점에 달하는 자료가 참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많은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헤세이 13년(2001. 11), 텐리참고관의 신축 건물이 완성되어 새롭게 개관하였다.

원래 텐리참고관에 고구려 자료가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사진으로 보고된 10여 점 정도가 전부였다. 그런데 동양문고에 보관되어 있는 우메하라라고고자료에 텐리대학 소장의 와당 탁본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자료조사를 요청하였다. 현지에서는 담당자의 도움으로 미공개 자료를 포함하여 20점 이상의 고구려 자료를 조사할 수 있었다. 이들 자료는 대개 평양 주변에서 채집된 것으로 출토지에 대한 주기가 있는 것이 많아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이다.

텐리참고관에 이들 유물이 소장된 경위를 밝히는 것은 어렵지만, 전문적인 기와 수집가가 모아두었던 자료를 일괄로 기증받거나 구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담당자의 전언에 의하면 이 외에도 100여 점 이상의 고구려 와전이 보관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 정리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吉井秀夫, 2001, 「西日本 地域 博物館에 所藏된 高句麗遺物」, 『高句麗研究』 12.

篠原啓方, 2005, 「일본소재 고구려유물에 대하여」, 『한국 고대의 고구려』, 고려대학교 박물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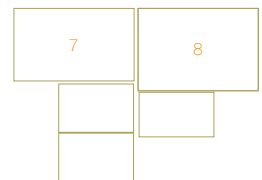
3	4



5	6









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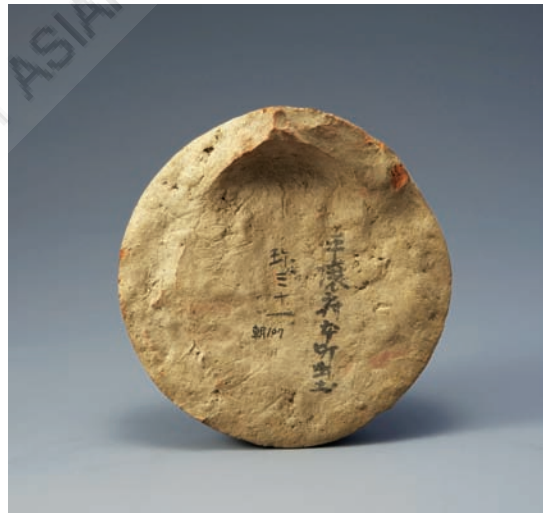
12







13	14



1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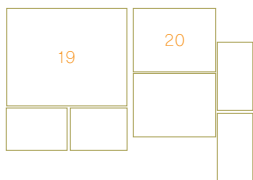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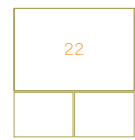


1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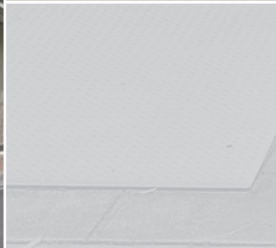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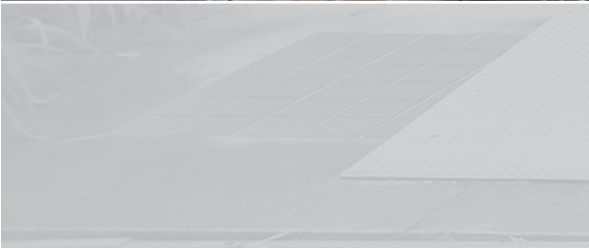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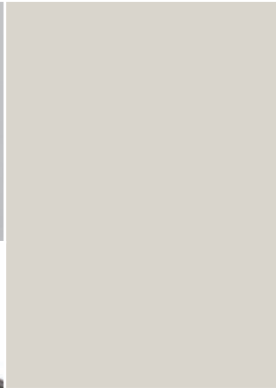






# 테츠카야마대학 부속 박물관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帝塚山大学  
附屬 博物館  
| 주소 | 奈良市帝塚山 7-1-1  
| 전화 | 0742-48-9122



## 소장 경위

정 인 성 (영남대학교)

**테**즈카야마[帝塚山]대학은 1964년에 설립된 사립대학교이다. 오사카의 테즈카야마학원대학교와는 따로 떨어진 법인이었지만, 설치 경위를 보면 자매학교라고 할 수 있다.

1941년 재단법인 테즈카야마학원대학의 창립 25주년 및 기원 2600년을 기념하고, 남자 7년제 고등학교 설립을 계획해 재단법인 테즈카야마학원대학을 창립했다. 그 때 테즈카야마중학교를 개교했지만 1945년 이후에 새로운 고등학교와 단기대학, 그리고 대학이 설립되었다.

1982년에 고고학연구소가 개설되었다가 1997년에 대학의 부속연구소가 되었다가 2007년에는 부속 박물관이 개설되어 지금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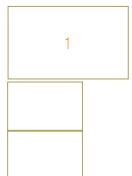
테즈카야마대학 박물관에는 수많은 한국관련 고고자료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이 기와 자료이다. 여기에는 다수의 고구려 기와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와자료는 가타다 다다시[堅田直]가 주도하여 1982년에 고고학연구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골동상에서 일괄로 구입한 것과, 유명한 기와수집가이자 연구자인 이우치 이사오[井内功]로부터 1988년에 구입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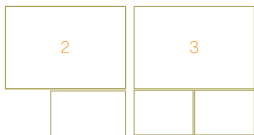
현지 조사결과 이들 기와는 대개 평양에서 출토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우치 자료와 골동상에서 구입된 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일부 자료에는 출토지에 대한 주기가 있으며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아 평양을 중심으로 활약하던 전문 기와수집가가 소장하던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특징적인 것은 와당과 함께 많은 평기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에 평양을 중심으로 와당과 평기와를 동시에 수집한 사람으로는 야마다 자이지로[山田嫻次郎]가 유명하다. 그가 수집하던 자료의 중요성을 간파한 세키노가 설득하여 이를 도쿄대학과 교토대학에 기증한 사실, 그리고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일괄 구입하게 유도한 정황은 확인되나, 테즈카야마 소장자료와의 관련은 분명하지 않다.

증언은 얻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우치 씨나 가타다 씨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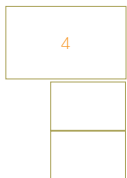
吉井秀夫, 2001, 「西日本 地域 博物館에 所藏된 高句麗遺物」, 『高句麗研究』 12.

篠原啓方, 2005, 「일본소재 고구려유물에 대하여」, 『한국 고대의 고구려』, 고려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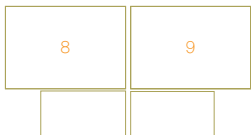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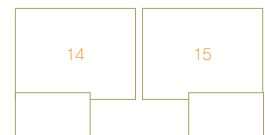


10	11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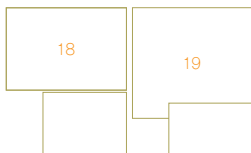




16	17











20	21





22	23





2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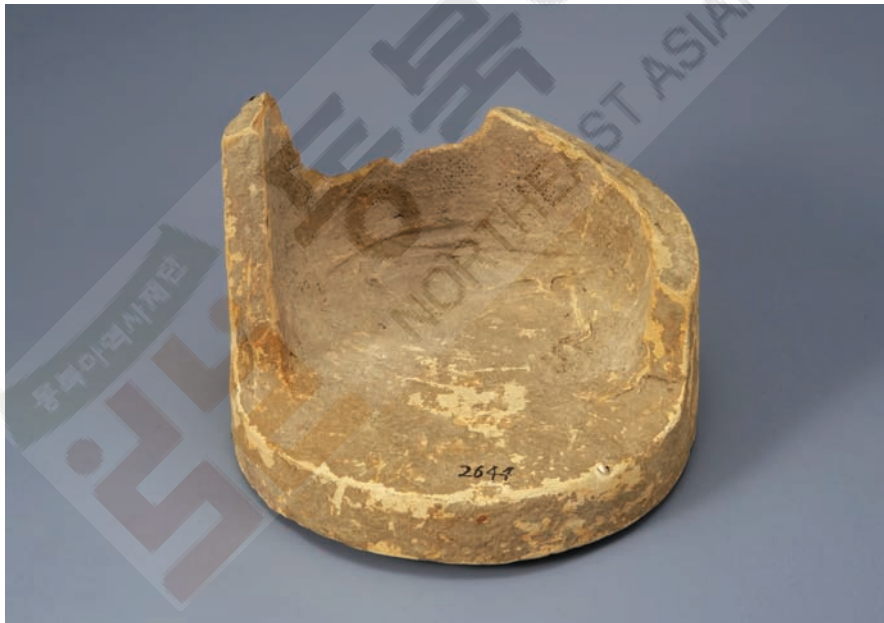


26	27



2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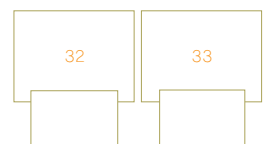






3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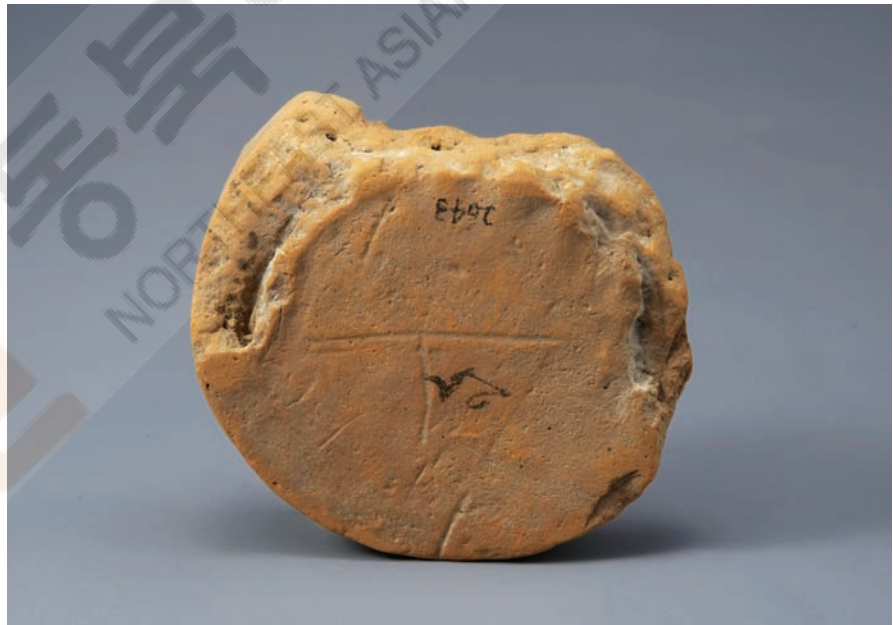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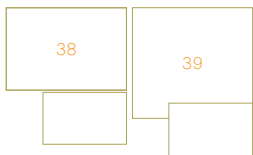
34	35



36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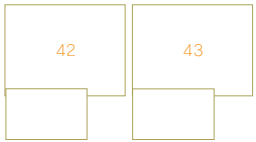






40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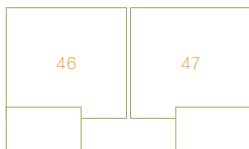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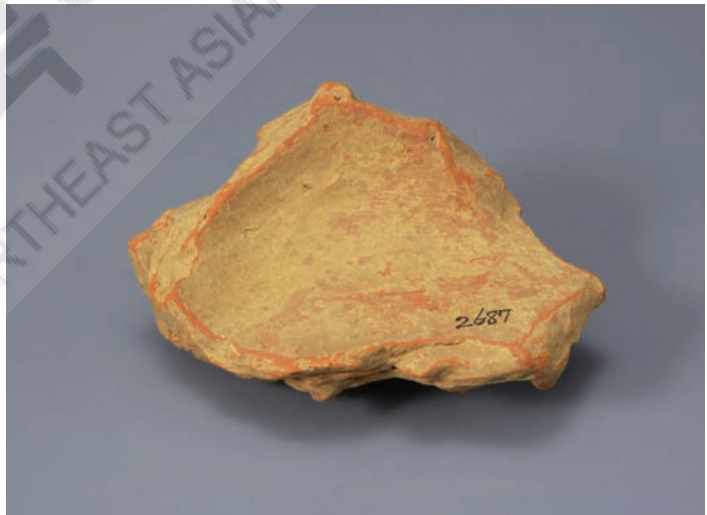


44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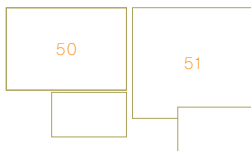






48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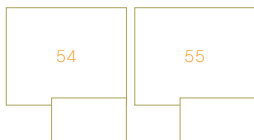




52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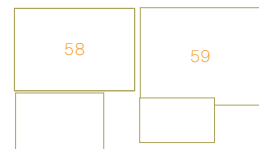








56	57









60	61



62	63







64	65



66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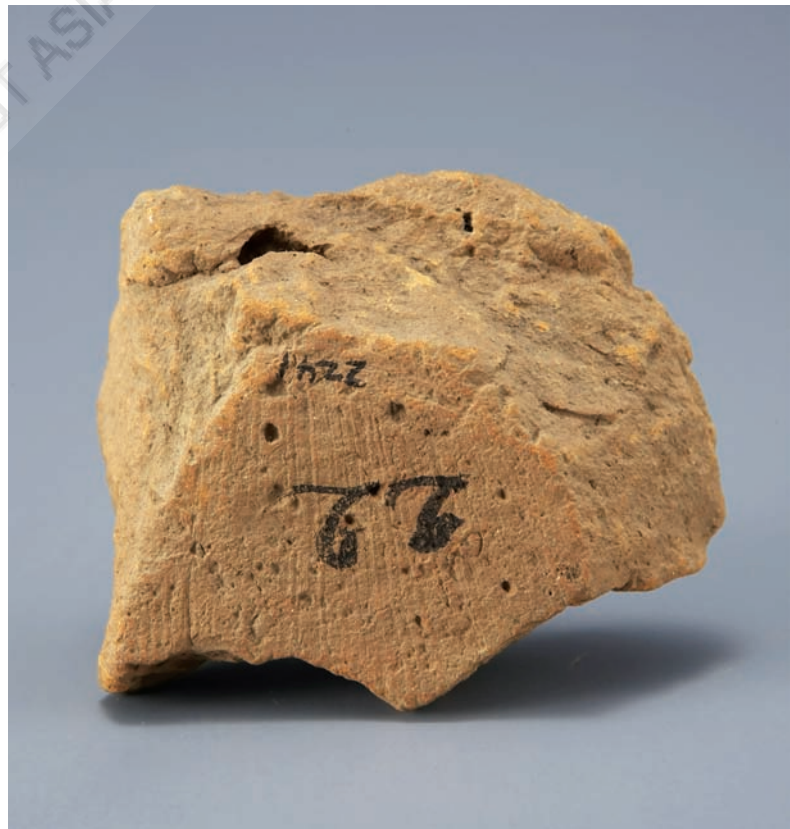




68	69



70	71	
	72	





73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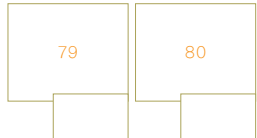
75	76



77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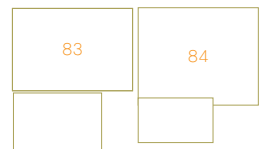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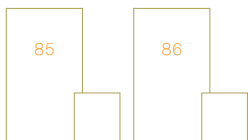


81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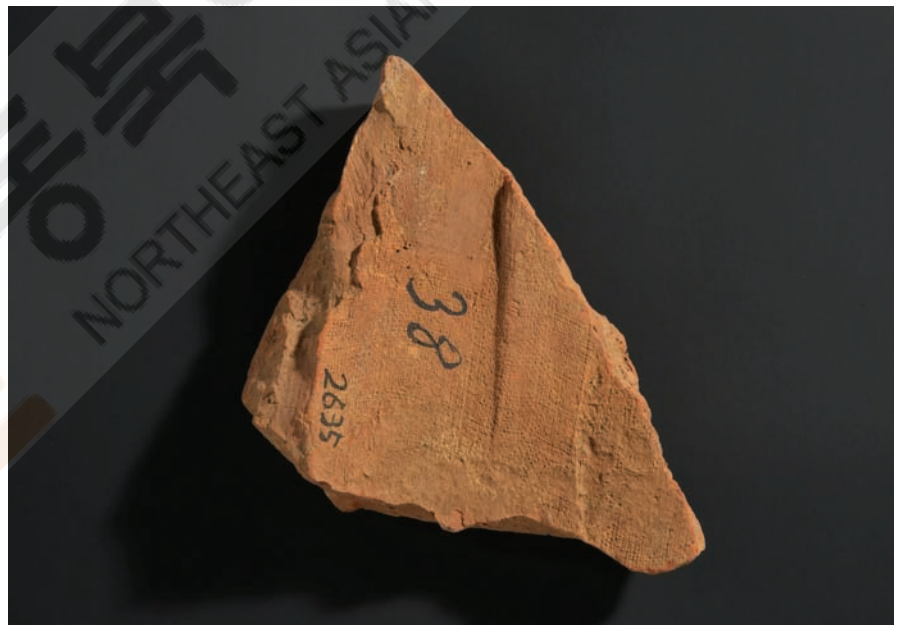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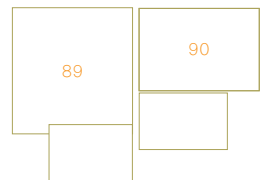




87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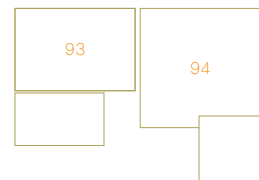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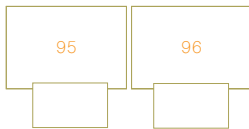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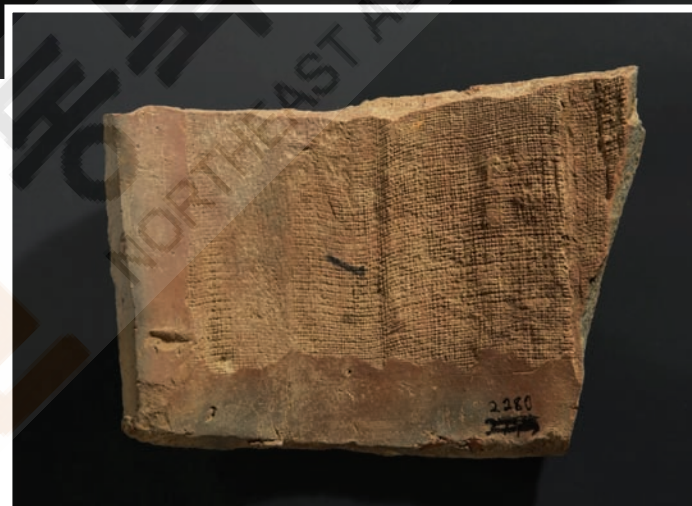


91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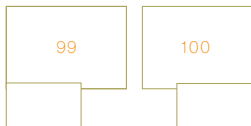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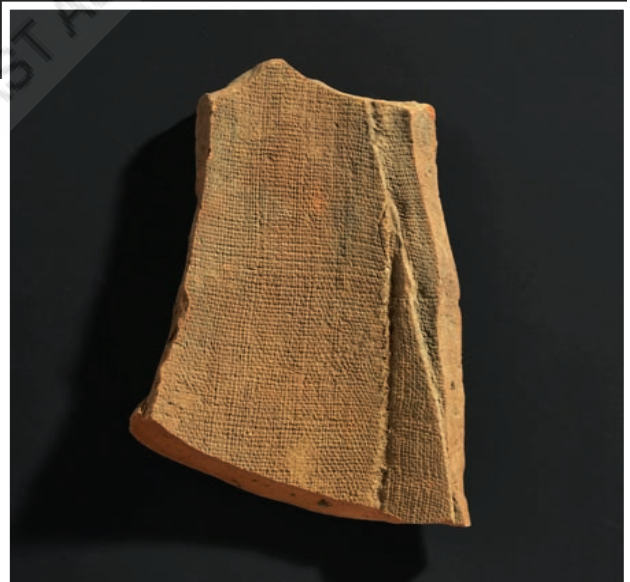






97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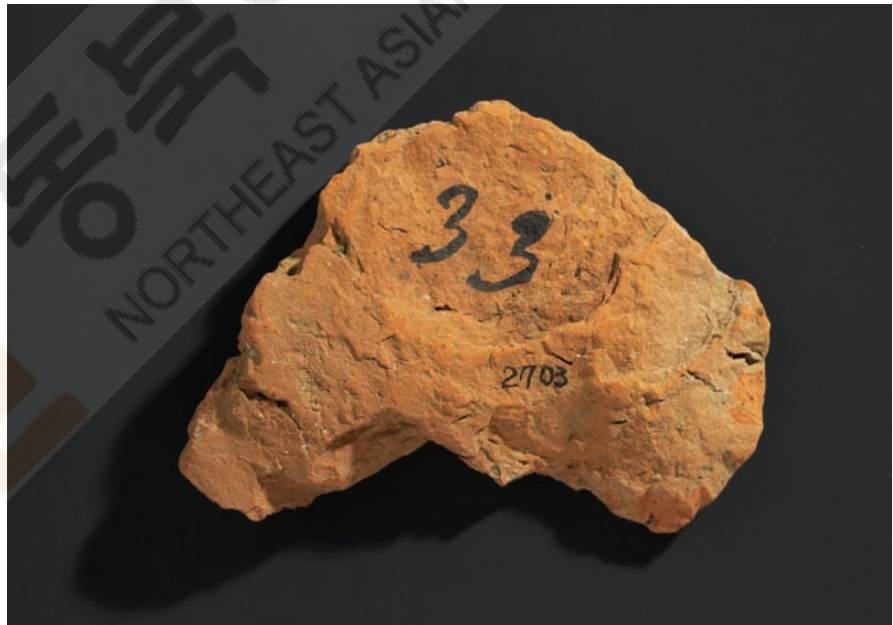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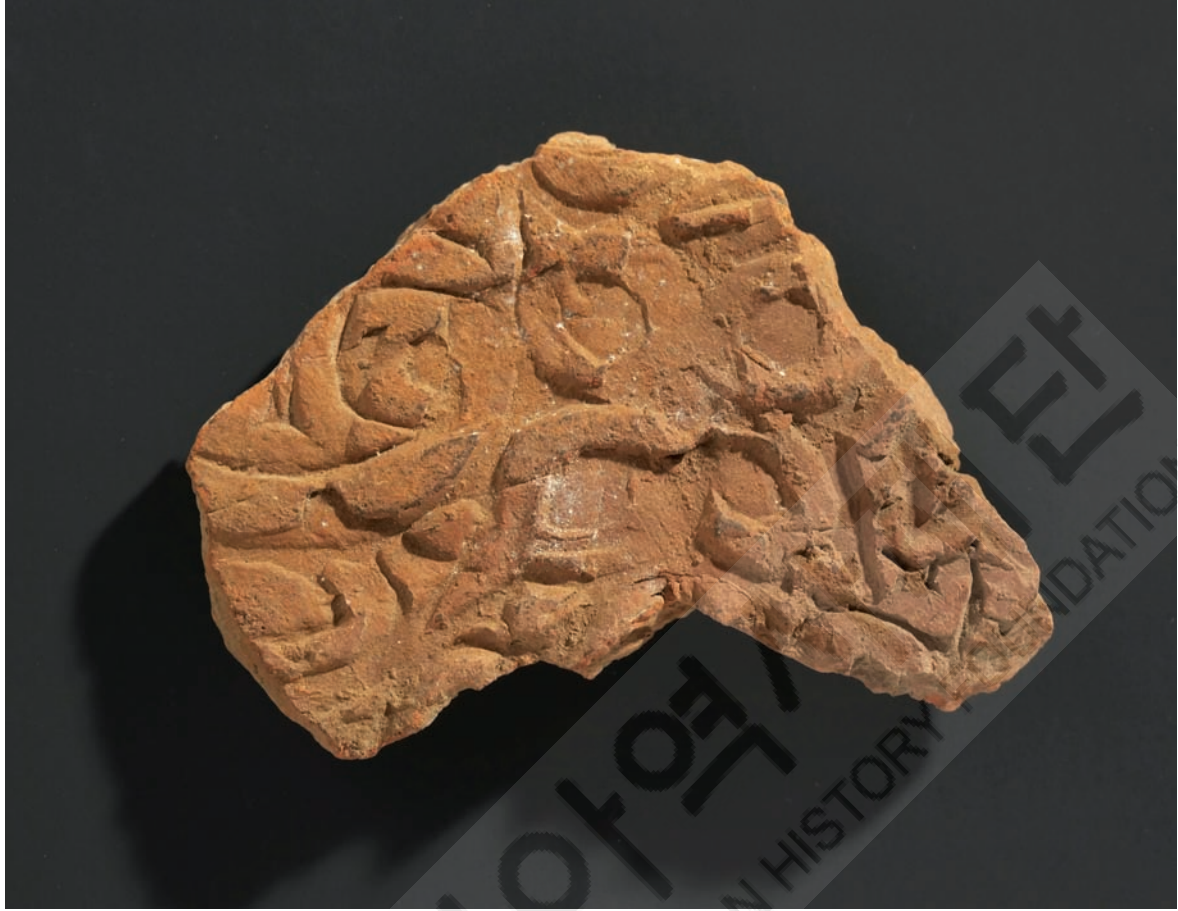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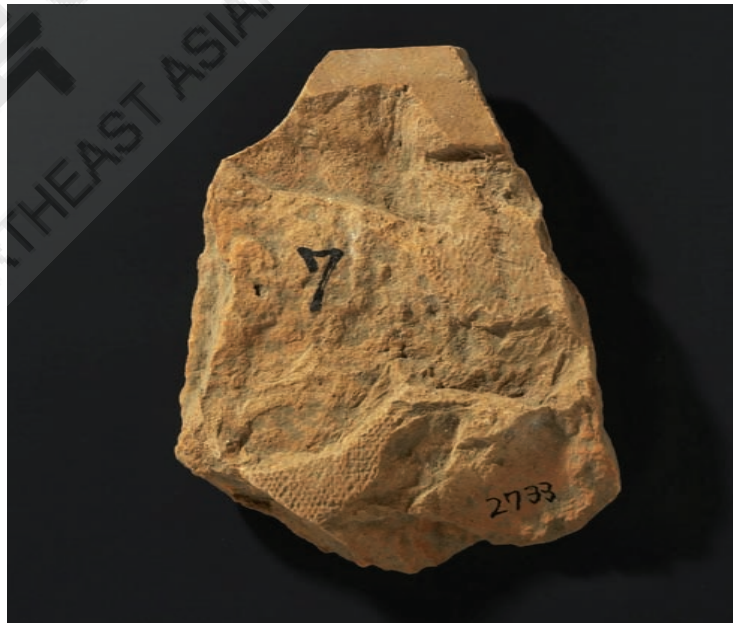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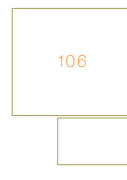


101	102





103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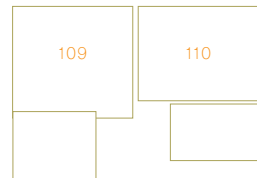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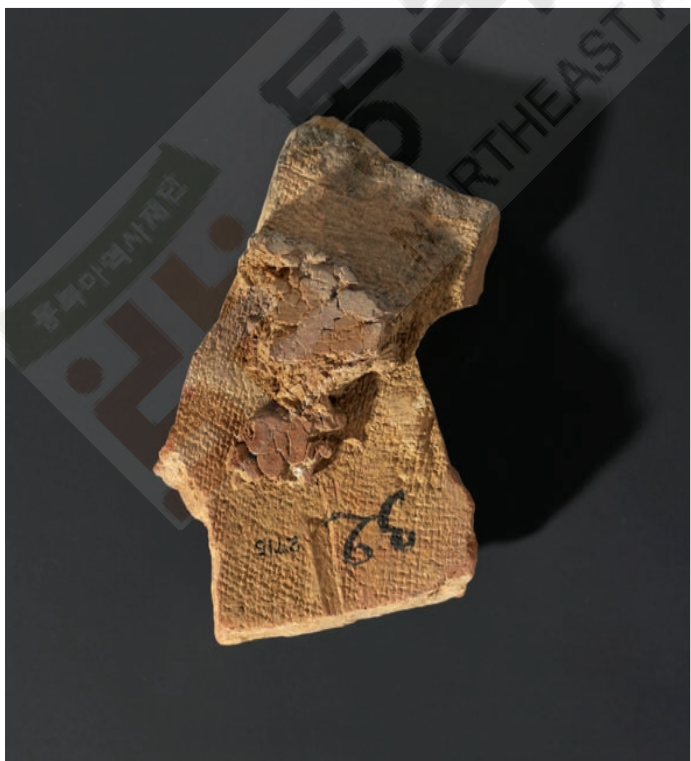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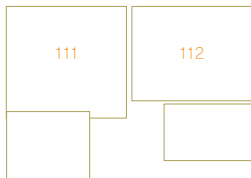


107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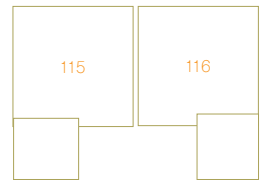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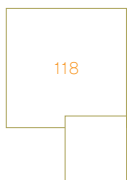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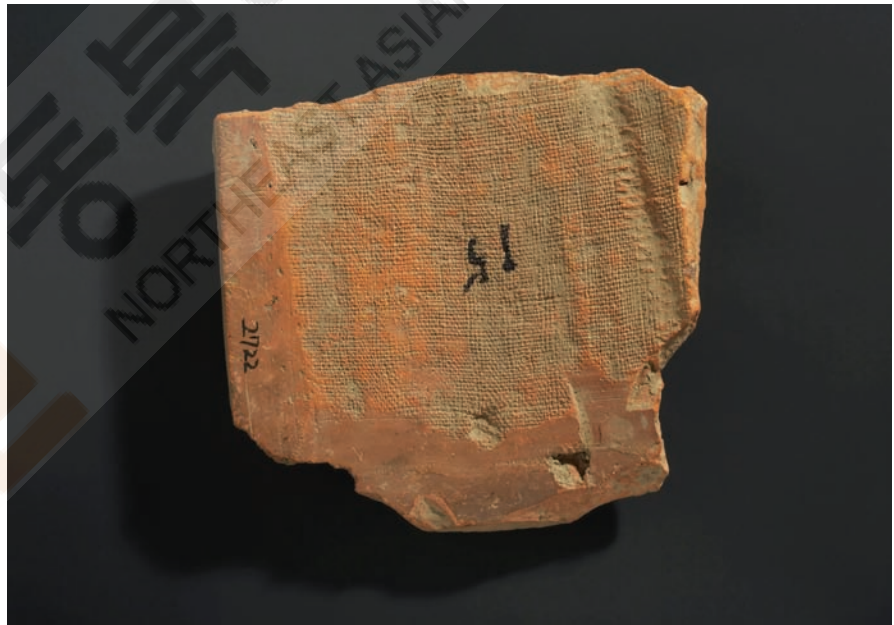
113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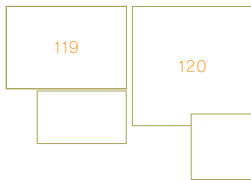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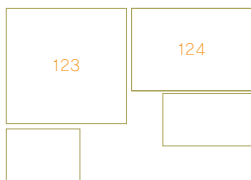




121	122









125	126







127	128



129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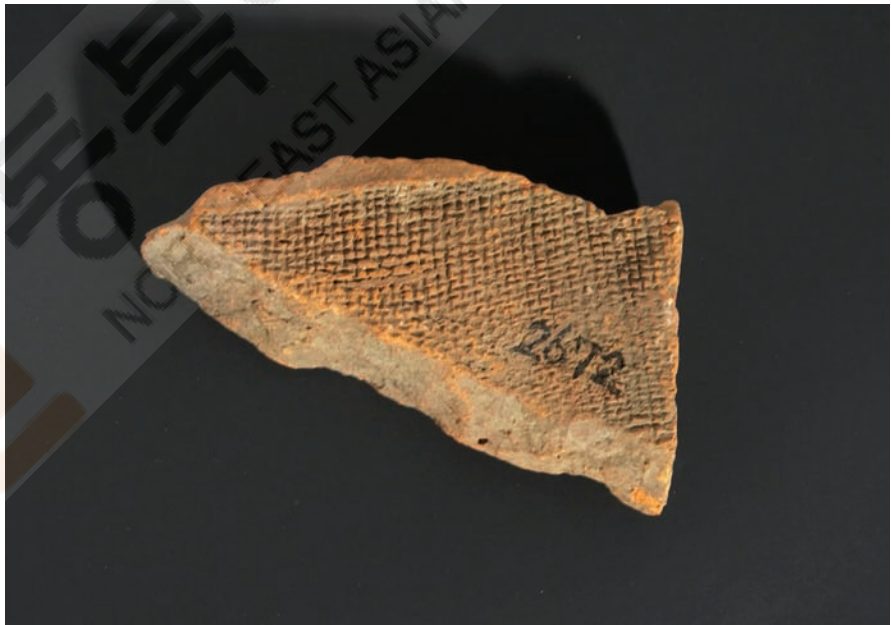
131	132





134





135

K O G U R Y O R E L I C S I N J A P A 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  
물  
설  
명



## 고려미술관

**유물번호 1** 유물번호 T-1101번 직경 15.8 톱 3.45 주연 폭 1.75 주연 높이 1.4 잔존길이 12.95 수키와두께 1.85

특징 조합 연화문 와당. 회색

소성도가 높은 편이고 주연부는 1/2가량 결실되어 있다. 반구형의 자방 둘레로 1조의 원권을 돌렸다. 연잎은 선조와 부조의 연화문이 4엽씩 교차로 배치된 조합 형태이며, 연화문 사이에는 각 1개의 주문을 두었다. 극소량의 세사립이 포함되어있고 보강토 위에 횡방향의 물손질 흔적이 나타난다. 수키와 외면을 종방향으로 조정하였고 수키와내면에는 포흔이 있다. 와당 톱에는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있고 범 분리 과정에서 굽힌 흔적이 남아있다. 뒷면에 실로 메기흔적과 그 위에 물손질 흔적이 남아있다.

**유물번호 2** 유물번호 T-2 직경 15.9 톱 3.3 주연 폭 1.6 주연 높이 1.4 잔존길이 13

특징 연주유복연화문 와당. 적갈색

반구형의 자방에 3조의 침선을 돌려 양감있게 표현하였고, 그 주위로 단사선문을 돌려 배치하였다. 막새면에는 2조의 권선으로 6분할하여 6개의 연잎을 두었고, 그 사이에 주문을 1개씩 배치하였다. 주연부 아래에는 1조의 원권을 돌리고 그사이에 단선문을 배치하여 두르고 있다. 주연부는 1/2가량 결실되어 있다. 수키와 내면에는 포목흔이 관찰되고 수키와 부분의 상단이 결실되었다. 빗모양의 도구로 상처를 내고 와당과 수키와를 부착했다.

**유물번호 3** 유물번호 T-3 직경 15.3 톱 3.35 주연 폭 1.25 주연 높이 1.2 잔존길이 4.6

특징 조합연화문 와당. 황갈색

자방은 반구형이나 일부 박락되었다. 막새면에는 부조연화문과 선조연화문을 각 4엽씩 교차로 배치하고 연화문 사이로 각 1개의 주문을 두었다. 주연부 아래에 1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배면에는 접합흔이 관찰되고 수키와가 박락되었지만, 뒷면에 최소 5치 이상의 빗으로 접합을 위해 상처를 낸 흔적이 있다.

**유물번호 4** 유물번호 T-4 직경 14.5 주연 폭 1.2 주연 높이 0.8 잔존길이 9.4

특징 유복연화문 와당. 적갈색

자방에 7개의 연주문이 배치되었고 그 아래 1조의 원권을 돌렸다. 막새면은 3조의 선으로 6구획하여 각 면에 하나씩 모두 6엽의 연꽃잎을 배치하였고 그 주위에 주문을 두었다. 가장자리에는 2조의 권선이 돌아가고 있다. 수키와 배면에는 포목흔이 남아있다. 주연부의 1/3정도가 결실되었다. 와당 표면에 형성되었던 피막이 박락된 흔적이 있다.

**유물번호 5** 유물번호 T-5 직경 14.1 톱 2.95 주연 폭 1.5 주연 높이 1.3 잔존길이 9.5

특징 조합연화문 와당. 적갈색

반구형의 자방 아래 1조의 원권이 둘러져있다. 막새면에는 부조연화문과 선조연화문을 각 4엽씩 교차로 배치하고 연화문 사이로 8개의 주문을 배치하였으며 그 가장자리로 1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주연부는 1/3가량 결실되었다. 와당면과 수키와를 부착하고 수키와 상면을 회전 물손질하였다.

**유물번호 6** 유물번호 T-6 직경 14.3 톱 3.4 주연 폭 1.4 주연 높이 1.3 잔존길이 17.9

특징 조합연화문 와당. 황갈색

반구형의 자방아래 1조의 원권이 둘러져있다. 막새면에는 부조연화문과 선조연화문을 각 4엽씩 교대로 배치하고 연화문 사이로 8개의 주문을 배치하였으며 그 가장자리로 1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주연부는 1/2이상 결실되었다. 수키와 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유물번호 7** 유물번호 T-7 직경 14.2 톱 2.9 주연 폭 1.25 주연 높이 0.85 잔존길이 15.8 수키와두께 1.5

특징 연주연화인동문 와당. 적갈색

반구형의 자방아래 1조의 원권을 돌렸고 6엽의 연화문사이에 인동문을 배치하였다. 그 주위로 돌아가는 2조의 원권 사이로 주문을 배치하였다. 수키와 접합부 외면에는 보강토흔적이, 수키와 분할면에 2번에 걸친 와도 조정흔이 남아있다. 수키와 내면에 포흔이 남아있고 수키와외면에는 종방향으로 회전 조정흔이 관찰된다.

## 교토대학 부속 인문과학연구소

**유물번호 1** 유물번호|1 직경|15.9 톱|3.4 주연 폭|1.5 주연 높이|0.9 잔존길이|7.1

특징|연화문 와당. 적색. 경질소성. 평양출토

자방은 가운데 1개의 연주문을 중심으로 4개의 방사선형으로 내부가 구획되어 있다. 그 안에 4개의 연주문이 1개씩 배치되었고, 그 주위에 1조의 권선이 배치된다. 막새면에는 2조의 선으로 4구획되었으며 그 안에 4엽의 연꽃잎이 배치되었고, 사이사이에 배치된 삼각선문 안에 연주문을 두었다. 가장자리에는 2조의 원권을 돌렸으며, 수키와 내면에는 포목흔이 관찰된다. 수키와 접합 후 횡방향 물손질이 관찰되며, 수키와 측면과 주연은 도구에 의한 조정흔이 남아있다.

**유물번호 2** 유물번호|2 직경|14 톱|2.3 주연 폭|1.4 주연 높이|0.8 잔존길이|5.5

특징|귀면문 와당. 적색. 산성자 산성 출토

배면 실로메기흔이 관찰된다. 와당면의 1/2정도가 결실 되었다. 막새면의 귀면은 눈, 코, 입을 크게 강조하여 강인함을 느낄 수 있으며 분리사를 표면에 뿌렸다. 또한 접합을 위해 7치구로 와당 배면 주연을 굽어낸 흔적이 있다.

**유물번호 3** 유물번호|3 직경|14.2 톱|2.5 주연 폭|1.3 주연 높이|1.3 잔존길이|8.5

특징|인동문 와당. 황갈색. 동대자 출토

전체의 1/3정도가 결실되었다. 잔존부분 막새면에는 굵은 선으로 5엽의 인동문이 배치되어 있다.

뒷면 밑면에 깎기 조정흔이 관찰되며, 보강토흔이 남아있다. 수키와 내면에 포목흔이 관찰되며 丸瓦측면은 3면으로 깎아낸 흔적이 관찰된다. 와당면의 분리사가 관찰된다.

**유물번호 4** 유물번호|4 직경|가로 上 11.6 톱|세로 14.8 주연 폭|두께 上 1.3, 下 1.7

특징|능형집선문 암기와. 황갈색

내면은 포목흔이 남아있으며, 합철흔도 관찰된다. 단부에는 횡방향의 조정흔이 남아있다.

**유물번호 5** 유물번호|5 직경|가로 上 9~下 12.5 톱|13~13.5 주연 폭|두께 上 2, 下 2.5

특징|사격자문 평와. 황갈색

사격자문 타날판으로 두드려서 성형한 암기와이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관찰되고 분리선을 따라 눈에흔이 남아있다. 와통의 흔적이 관찰된다.

## 교토 국립박물관

**유물번호 1** 직경 17.1 톱 2.2 주연 폭 2 주연 높이 0.4~0.5

특징 연화문 와당, 회색

자방은 둥글고 꽃잎은 6엽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꽃잎 일부가 파손되었다. 꽃잎주위로 1조의 원선이 각각 둘러져있고 꽃잎 사이에 꽃봉오리가 1개씩 배치되어 있다. 와당면의 하단 일부가 결실되었고 주연은 낮으며 주연 위에 연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수키와 접합부에 보강토가 남아 있다. 일주하는지는 모르지만 와당배면 아래쪽 외연을 따라 2조의 홈이 돌아가는데 일반적으로 고구려 와당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유물번호 2** 직경 17.5 톱 2.8 주연 폭 0.8 주연 높이 1.2

특징 조합연화문 와당, 황갈색

자방은 둥근데 주위로 2조의 원권이 배치된다. 꽃잎은 총 8엽으로 4엽의 부조연화문과 4엽의 선조연화문이 교차되어 배치되고 있다. 와당면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수키와 접합부에 보강토가 있으며, 수키와 부착을 위한 경계표시가 있다. 내면일부에 깎기흔이 관찰되며, 무질서한 조정흔이 남아있다.

**유물번호 3** 유물번호 丁甲391-11 通82 직경 19 톱 2.7 주연 폭 1.6 주연 높이 1.4

특징 연화 인동문 와당, 적색

자방은 반구형으로 그 주위로 1조의 원권이 배치되며, 6엽의 연화문과 그 사이에 직선으로 뺀 6개의 인동문이 배치되었다. 주연부 안쪽에 2조의 원권을 두르고 그 사이에 연주문을 넣었다. 뒷면 아랫부분 일부에 콘크리트 부착흔이 남아있으며 수키와 집합부는 콘크리트를 뜯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가 현저하다. 주연은 거의 직각을 이루며 와당면 제작 이후에 부착된 것으로 보인다.

**유물번호 4** 유물번호 丁甲391-10 通79 직경 13.9 톱 3.1 주연 폭 1.21 주연 높이 0.8

특징 연화문 와당, 회색

자방은 낮은 반구형으로 그 위에 양감있는 연주문이 6개 배치되어 있고, 자방 주위에 1조의 원권이 둘러져 있다. 막새면은 2조의 직선으로 분할되어 그 내부에 1개의 연꽃잎과 2개의 주문을 넣었고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을 돌렸다. 주연의 일부가 파손되었다. 접합흔은 관찰되지 않으며, 뒷면은 모래가 부착되었다.

## 나라 국립박물관

**유물번호 1** 유물번호 1355 考 4 직경 16.2 톨 3.5 주연 폭 1.2 주연 높이 1.15

특징 연화문 와당. 회색. 경질소성. 고구려 정백리 출토(소화4.3?)

중방은 방사선형으로 내부를 구획하였고 그 아래 3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막새면을 3조의 선으로 6개로 구획하고 그 안에 6엽의 연화문과 주문을 배치하였다. 막새면 가장자리 일부가 결실되었다. 막새면 뒷면에 보강토가 박락된 흔적이 명료하다. 막새면과 수키와부의 접합상처가 군데군데 확인되며 톨 부분에 횡방향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2** 유물번호 NO4 古瓦8-1, 1928

특징 연화문 와당. 회갈색. 청암리 출토(고구려)

반구형의 자방으로 주위에 1조의 원권을 돌렸다. 2조의 선으로 막새면을 6구획하여 각 면에 연화문을 배치하였고,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이 둘러져있다. 헤리로 수키와 접합면을 군데군데 파낸 흔적이 관찰된다. 수키와 접합 후 와당배면을 대칼로 깨끗하게 손질되었다.

**유물번호 3** 유물번호 1355 考 3

특징 연화문 와당. 적갈색

자방은 반구형이며 방사선형으로 그 내부를 구획하여 자방 중앙에 1개의 연주문을 배치하였고 그 주위로 3조의 원권을 돌렸다. 막새면은 3조의 선으로 6구획하여 각 면에 연화문을 배치하였고 그 양옆으로 주문을 2개씩 배치하였다. 가장자리에는 2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있으며 주연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접합을 위하여 수키와 단부에 여러개의 홈을 낸 흔적이 확인된다.

**유물번호 4** 유물번호 NO3 852 考 248x-337, 1928

특징 조합연화문 와당. 회색. 청암리 출토

자방은 반구형이며 방사선형으로 그 내부를 구획하여 자방 중앙에 1개의 연주문을 배치하였고 그 주위로 2조의 원권을 돌렸다. 막새면에는 4개의 부조와 4개의 선조연화문을 교대로 배치한 조합 형태이다.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있으며 주연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유물번호 5** 유물번호 NO3 852 考 248x-337

특징 연화문 와당. 적갈색

자방에 6개의 연주문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3개 결실). 그 아래 1조의 원권을 돌렸으며 막새면을 2조의 선으로 6구획하여 각 면 안에 연화문을 배치하였다. 연화문 양 옆으로 2개의 주문이 배치되었고 가장자리로 1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있다. 주연부는 모두 결실되었다.

**유물번호 6** 유물번호 1355 考 5

특징 연화문 와당. 회색. 청호리 출토

자방 안에는 7개의 큰 연주문이 팽 차게 배치되었고 그 주위로 1조의 굵은 원권이 돌아간다. 막새면에는 8개의 연꽃잎을 부조로 양감있게 표현하였고 삼각형의 사이 있도 강조된다. 주연부는 낮은 편이다. 수키와 접합면에는 대칼로 접합을 위해 상처를 낸 흔적이 있다.

## 나라 문화재연구소

**유물번호 1** 유물번호 249

특징 문자전, 회갈색, 호태왕릉 부근출토

'安如山固如岳'의 문자가 측면에 양각되어 있다. 석사립 일부 포함된 문자이다. 전면과 뒷면에 목판 굽기 흔적이 남아있고, 측면의 명문부분에 점토살이 밀린 흔적이 일부 관찰된다. 소성전에 단면을 경사지게 깎아 내었다.

**유물번호 2** 유물번호 250 가로 16.1 세로 21.8 두께 2.2~2.15 정면흔 上 2.3, 下 2~2.3

특징 문자전, 회갈색

'安如山固如'의 문자가 측면에 양각되어 있다. 뒷면 박락흔이 있고, 상하방향으로 정성스러운 굽기조정흔이 관찰된다. 고운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고, 부분적으로 석회 고착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3** 유물번호 251 가로 15.5 세로 17.4 두께 2 명문간격 2cm

특징 문자전, 회갈색

'安如山固如岳'의 문자가 측면에 양각되어 있다. 뒷면전체의 반 정도 석회흔이 있고, 깨진 부분에도 석회가 관찰된다. 종방향의 굽기흔이 있다.

**유물번호 4** 유물번호 번호없음 가로 15.5~16 세로 29 두께 2.1~2.2 정면흔 上 2.1, 下 2.4

특징 문자전, 회색(적갈색, 회청색)

'太王陵安如山固如'의 문자가 측면에 양각되어 있다. 뒷면 윗부분에 석회가 관찰된다. 上, 下면에서 목판으로 굽은 흔적이 관찰된다. 속심과 표면의 색조가 다르다.

## 텐리대학 부속 텐리참고관

**유물번호 1** 유물번호<sup>1</sup>(朝100·대동강 칭 四十五) 직경<sup>1</sup>13.7 톱<sup>1</sup>4.3 주연 높이<sup>1</sup>1.6 잔존길이<sup>1</sup>17.2

특징 연화인동문 와당. 적황색. 와질소성

자방 위에 연주문이 5개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로 2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있다. 연꽃잎 4엽과 인동문 4엽을 교차 배치한 복합연화문이다. 연판과 인동문 사이에 주문이 1개씩 배치되어 있고,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있다. 수키와 내면에 포압흔이 분명하고 외면에는 소성전에 문지르기로 조정된 흔적이 뚜렷하다.

**유물번호 2** 유물번호<sup>2</sup>(朝108) 직경<sup>1</sup>15.7 톱<sup>1</sup>2.95 주연폭<sup>1</sup>1.6 주연 높이<sup>1</sup>1.1 잔존길이<sup>1</sup>10.1

특징 연화인동문 와당. 적색. 연질소성. 평천리 출토

자방은 반구형으로 1개의 연주문을 두었으며 자방주위로 1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막새면에 연화문 8엽과 인동문이 배치되어 있는데 연화문 안에는 주문을 넣어 장식했다. 연화문 사이에 벌어진 인동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을 돌렸다. 배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3** 유물번호<sup>3</sup>(朝112) 직경<sup>1</sup>15.4 톱<sup>1</sup>4.5 주연폭<sup>1</sup>1 주연 높이<sup>1</sup>0.7

특징 꺾수문 와당. 회색

자방 중앙에 1개의 연주문이 있고, 그 주위로 1조의 원권을 돌렸다. 그 아래 자방을 중심으로 2조의 원권을 두르고 그 사이에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막새면에는 8개의 꺾수문이 연속되고 있고, 주연 아래 2조의 원권 사이에 주문이 돌아가고 있다. 배면 톱부분에는 약간의 깎기흔이 확인된다. 수키와 단부에 흠을 내어 접합하였으며 보강토를 두껍게 발랐던 것이 파악되었다.

**유물번호 4** 유물번호<sup>4</sup>(朝606) 직경<sup>1</sup>17.4 톱<sup>1</sup>3.3 주연 높이<sup>1</sup>1.2 잔존길이<sup>1</sup>8.7

특징 귀면문 와당. 적색. 대동군 주암면 출토

코와 입, 눈을 크게 표현하여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인 선처리가 또렷하여 강인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수키와가 결실되었으나 접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유물번호 5** 유물번호<sup>4-1</sup>(朝111) 직경<sup>1</sup>17.3 톱<sup>1</sup>3.8 주연폭<sup>1</sup>1.3 주연 높이<sup>1</sup>1.1 잔존길이<sup>1</sup>17.4

특징 귀면문 와당. 적색. 주암리 출토

코와 입, 눈을 크게 표현하여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인 선처리가 또렷하여 강인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배면에는 무질서한 조정흔이 관찰되며 포흔도 관찰된다. 수키와 외면에는 소성전에 문지르기 조정된 흔적이 남았다.

**유물번호 6** 유물번호<sup>5</sup>(朝96) 직경<sup>1</sup>16.9 톱<sup>1</sup>2.85 주연폭<sup>1</sup>1.3 주연 높이<sup>1</sup>1.1 잔존길이<sup>1</sup>5.45

특징 유복선연화문 와당. 회색. 토성리 출토

반구형의 자방 위에 1개의 연주문을 두고 자방 아래로 2조의 원권을 돌렸다. 막새면에는 2조의 복선으로 4분할되었고, 그 안에 1개의 연판과 2개의 주문을 넣어 총 4엽의 연꽃잎과 8엽의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가장자리에 2조의 원권을 두르고 복선으로 자방과 연결된다. 수키와와 와당면의 접합법은 알 수 없으나 와당 배면에는 접합후의 깎기 조정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7** 유물번호<sup>6</sup>(朝104) 직경<sup>1</sup>16.9(16.6) 톱<sup>1</sup>3.4 주연폭<sup>1</sup>1.15 주연 높이<sup>1</sup>1.7 잔존길이<sup>1</sup>7.6

특징 연화문 와당. 회색

둥근자방은 굵은 침선을 돌려 가운데가 돋보이며, 자방 아래로 1조의 원권을 돌렸다. 막새면에는 4엽의 부조연판과 4엽의 선조 연판이 교차 배치된 조합 연화문 형태이다. 부조 연판 양쪽에는 연꽃 줄기인 듯한 문양이 선조로 시문되어 있고, 복선의 변형된 형태로 보인다. 주연아래에 1조의 원권을 돌렸다. 대갈로 상처를 내어 수키와를 접합한 흔적이 뚜렷하고 소성전에 와당 배면을 굵기 조정된 흔적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8** 유물번호<sup>7</sup>(朝97) 직경<sup>1</sup>14.3 톱<sup>1</sup>2.9 주연폭<sup>1</sup>1.1 주연 높이<sup>1</sup>1.25 잔존길이<sup>1</sup>7.95

특징 유복선연화문 와당. 회갈색. 동대원리 출토

반구형의 자방 위에 7개의 연주문을 두고 자방아래 1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다. 막새면에는 3조의 복선으로 6분할하여 각 분할면에 1개의 연판과 그 좌우로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가장자리에는 2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다. 수키와 접합 후 배면 조정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유물번호 9** 유물번호 8(朝103) 직경 15.2 톱 3.8 주연폭 1.45 주연 높이 1.1

특징 1 연주연화문 와당. 적색. 대동군 조왕리 출토

반구형의 자방은 가운데 1개의 주연을 두고 있고, 중간부분에는 침선을 돌린 형태이다. 자방 주위로 1조의 굵은 원권이 돌아간다. 막새면에는 부조의 연판사이에 선조의 꽃봉오리형을 시문한 조합 연화문형태이다. 총 8엽의 잎은 교차 배치되어있고 가장자리에는 2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그사이에 주연을 시문하였다. 배면에는 수키와 중심 분할선이 확인되고, 최소 5치구로 수키와 접합을 위한 상처를 내었다. 접합 후 와당 배면은 깎기 조정했다. 수키와는 박락되었다.

**유물번호 10** 유물번호 9(朝92) 직경 높이 9.3, 가로 19.4 톱 3.3 주연폭 1.65 주연 높이 1.32 잔존길이 17.8

특징 1 귀면문 반원막새. 적색. 대동군 상오리 출토

내면에 귀면문을 선조로 시문하였고 그 양 옆에 초화문을 시문하였다. 주연부 안쪽에는 1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다. 수키와의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 있으나 외면은 소성전에 상·하 방향으로 문지르기 조정했다.

**유물번호 11** 유물번호 10 직경 높이 9.6, 가로 20.1 톱 2.7 주연폭 1.4 주연 높이 1.1 잔존길이 18.1

특징 1 귀면문 반원막새. 황회색. 평양시내 南町출토

반원막새 내면 가운데 변형된 형태의 귀면문을 선각으로 표현하였다. 그 양옆은 운기문이 선조로 표현되어 있고, 주연부 아래에는 1조의 원권을 돌렸다. 배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수키와 접합후 최소 3치구 이상인 도구로 조정한 흔적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2** 유물번호 11(朝601) 직경 14.5 톱 2.6 주연 높이 0.7

특징 1 연화문와당. 적색. 대동군 평천리채집

자방은 반구형이고 그 아래 1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다. 그 주위로 4개의 주문이 배치되어 있고, 막새면에는 4엽의 연꽃잎을 두어 그 사이에는 선조의 인동문을 배치하였다. 주연아래에는 1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있다. 배면에는 최소 5치구 이상의 도구로 수키와 접합상처를 내었다.

**유물번호 13** 유물번호 12(朝98) 직경 15.8 톱 2.4 주연폭 1.6 주연 높이 1.2 잔존길이 11.4

특징 1 연화귀면문 와당. 적색. 대동군 주암리 채집

반구형의 자방 중앙에 1조의 원권을 두르고 그 아래에는 연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그 밖으로 삼각문을 8개 시문하였고, 막새면에는 연꽃잎과 괴수문을 4개씩 교차 배치한 복합문 형태이다. 주연부 아래에는 2조의 원권을 돌렸고 그 사이 단사선문을 전체적으로 두른 형태이다. 배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4** 유물번호 13(朝689) 직경 16.1 톱 3.325 주연폭 1.2 주연 높이 1.3

특징 1 인동문 와당. 황갈색. 평양 원암리 채집

중앙에 반구형의 자방을 두고 주연에 1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다. 막새 면에는 10엽의 인동문이 선조로 시문되어 있고, 각 인동문의 옆에는 10개의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을 두른 형태이다. 배면에는 수키와를 부착하기 위해 굵어 상처를 낸 후 보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턱깎기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5** 유물번호 14(朝107) 직경 15.9(15) 톱 2.8 주연폭 1.1 주연 높이 1.1 잔존길이 6.75

특징 1 전지문 와당. 황갈색. 평양 채집

반구형의 자방 주위로 1조의 원권을 돌렸다. 막새면에는 가지가 얽혀있는 형태로 선조의 전지문이 시문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부조의 꽃봉오리형태 6엽이 시문되어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있다. 수키와부가 박락되었다.

**유물번호 16** 유물번호 15(朝105) 직경 16.3(15.8) 톱 3.25 주연폭 1.4 주연 높이 1.3

특징 1 전지문 와당. 황갈색. 대동군 평천리 채집

반구형의 자방아래 5각의 연화문이 시문되고, 그 주위로 4, 5회 정도 얽혀 있는 5개의 가지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전지문 사이에는 5개의 초형문이 표현되었다. 배면에는 다치구의 접합흔이 관찰되며 굵기흔도 보인다. 접합을 위한 상처가 확인된다.

**유물번호 17** 유물번호 16(朝99) 직경 15.7 톱 2.6 주연폭 1.3 주연 높이 1.4

특징 1 보상화 사엽거지문 와당. 적갈색

자방 가운데가 움푹 패인 독특한 형태이다. 그 주위로 1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막새면에는 부조. 연판과 화려한 선조의 보상화문이 4엽씩 교차

배치된 복합문이다. 각 꽃잎사이에는 큰 삼각문이 시문되어 있고, 가장자리에는 작은 삼각문이 시문되어 있다. 주연부가 일부 결실되었다. 와당의 배면이 전체적으로 박락되어 제작기법과 관련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유물번호 18** 유물번호|번호없음(朝91) 직경|높이 8.5, 가로 15.7 톱|3.3 주연폭|1 주연 높이|1.1

특징| 변형 귀면문 반월막새, 적갈색, 경질소성

굵은 선조로 귀면문을 양감있게 표현하였다. 주연부 아래에는 단사선문을 두르고 그 사이에 주문을 배치한 형태이다. 막새면이 일부 결실되었고, 배면에는 다치구로 접합을 위한 상처를 낸 흔적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9** 유물번호|번호없음(朝608)

특징| 용면문 와당, 황갈색, 대동군 주암리 채집

전체적으로 눈, 코, 입을 크게 표현하여 강한 인상을 주는 용면문 와당이다. 주연부 아래에 1조의 원권을 돌렸고, 주연부가 전체적으로 결실되었다. 와당면 전면에서 분리사가 관찰된다.

**유물번호 20** 유물번호|번호없음(朝601)

특징| 연화문 와당, 황갈색, 대동군 평천리 출토

자방은 반구형으로 주위에 1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있다. 원권 주위로 4개의 주문이 배치되어 있고, 막새면에는 4엽의 부조연판이, 그 양 옆에는 선조의 인동문이 시문되었다.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유물번호 21** 유물번호|번호없음 직경| (15.7) 톱| 3.45 주연폭| 1.25 주연 높이| 1.2

특징| 용면문 와당, 적색, 경질소성, 유물검색주기:2008A68

눈, 코, 입을 크게 강조하여 강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수키와 접합부에는 다치구에 의한 접합상처가 관찰된다.

**유물번호 22** 유물번호|번호없음 높이| 14.2 폭| 16.5~17.1 대륜높이| 0.6~6

특징| 금동제투조관 전체복원둘레 55cm, 복원대 제외한 둘레 46cm, 철제테폭 0.7cm, 길이:15cm, 철제테 연결공 5개 지름 3mm

## 테즈카야마대학 부속 박물관

**유물번호 1** 유물번호 2259 직경 14.7 톱 2.8 주연폭 1.2 주연 높이 1 잔존길이 6.15

특징 연화문 와당, 황갈색

막새면에 부조연꽃잎을 배치하고 그 사이에 선조의 꽃잎을 배치한 형태이다. 연꽃잎은 모두 8개이다. 자방은 반구형으로 1조의 원권을 돌렸다. 주연부 전체에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배면에는 포흔 및 깎기흔적이 관찰되며 보강토위로 손누름흔이 남아있다. 잔존하는 수키와에는 종방향의 물손질이 남아있다. 굽은 세사립이 일부 함유된 점토이다.

**유물번호 2** 유물번호 2260 직경 14.1 톱 2.9 주연폭 1.2 주연 높이 1.2

특징 연화문 와당, 황갈색

반구형의 자방 주위로 1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다.

막새면에 8개의 꽃잎이 배치되고 각 꽃잎주위는 선조를 돌렸다. 각 연꽃잎 사이에 8개의 주문이 장식되었으며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을 돌렸다. 주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다치구로 수키와 접합면에 상처를 내었다.

**유물번호 3** 유물번호 2263 직경 14.7 톱 2.8 주연폭 1.4 주연 높이 1.35

특징 연화문 와당, 황갈색

반구형의 자방 주위로 1조의 원권을 돌렸다. 막새면에 8개의 꽃잎이 배치되었는데 각 꽃잎 주위에 선조를 돌렸다. 각 연꽃잎 사이에 8개의 주문이 배치되었으며,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주연은 1/4정도 결실되었으며 단면이 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치구로 접합부에 상처를 만들었다.

**유물번호 4** 유물번호 九五 직경 <15> 톱 2.75 주연폭 1.15 주연 높이 1 잔존길이 7.8

특징 연화문 와당, 황갈색

반구형의 자방 주위로 1조의 원권을 돌렸다. 막새면에 8개의 연화문이 배치되고, 그 사이로 변형 인동문 8개가 교대로 배치되는 형태이다. 주연부 안쪽에는 1조의 원권이 둘러져 있으나 일부 파손되었다. 배면에는 포흔이 남아있고 톱부분에 횡방향의 물손질이 남아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점토이다. 수키와 외면에는 문지르기 조정흔이 남아있다.

**유물번호 5** 유물번호 1606 직경 16.1 톱 3.15 주연폭 1.7 주연 높이 1.1 잔존길이 8.2

특징 초화문 와당, 황갈색, 경질소성

반구형의 자방 주위로 연호문을 두른 형태이다. 막새면에 가지가 얽혀 있는 매듭 문양 5개를 규칙적으로 배치하였고, 그사이에 초화문을 배치하였다. 주연부 일부가 파손되었다. 배면에 포흔은 관찰되지 않으며 횡방향의 문손질이 남아있다. 톱부분은 횡방향의 거친 굽기흔이 관찰되며, 잔존하는 수키와에는 종방향의 깎기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6** 유물번호 2238 직경 17.9 톱 (2.9) 주연폭 1.4 주연 높이 0.95

특징 변형귀면문 와당, 회갈색

전체 1/2 정도가 결실되었다. 중방은 반구형으로 주위에 1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주연부 안쪽으로 1조의 원권이 돌아가는 형태이다. 배면에 일부 물손질이 관찰되고 접합흔이 남아있다. 수키와 접합면이 전사되어 남아있으며, 단면은 층상구조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점토이다.

**유물번호 7** 유물번호 夕18 직경 16.5 톱 2.5 주연폭 1.3 주연 높이 0.7

특징 연화문 와당, 적색, 연질소성

막새전면에 회전흔이 관찰된다. 반구형의 자방 주위로 1조의 원권을 두르고, 그 주위로 11개의 작은 물방울 모양의 연꽃잎을 배치한 형태이다. 연화문 외곽을 따라 테두리를 두르고, 그 주위에 연호문이 배치된다.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주연 외면에는 종방향의 물손질이 남아있다. 배면에는 다치구로 굽은후 접합흔이 남아있다.

**유물번호 8** 유물번호 七2240 직경 <17> 톱 2.2 주연폭 0.7 주연 높이 0.7

특징 귀면문 와당, 회갈색

와당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자방은 반구형으로 주위에 1조의 원권을 돌렸다. 막새면에 귀면문이 선조로 표현되어 배치되었고, 가장자리에는 1

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주연부전체에 횡방향 물손질이 관찰된다. 배면에는 깎기흔 및 거친 물손질이 관찰되며 일부 종방향 물손질도 관찰된다. 턱쪽에는 2단으로 깎기흔이 관찰된다. 잔존하는 수키와 윗면에는 종방향 물손질흔이 관찰되며 내면에는 포흔 및 모골흔이 남아 있다. 와당면에는 분리사가 관찰된다.

**유물번호 9** 유물번호|1603 직경|14.3 턱|3.5 주연폭|1.35 주연 높이|1.35 잔존길이|13.1

특징 연화문 와당. 적색

자방 중간에 1조의 침선을 돌리고 그 주위로 1조의 원권을 두른 형태이다. 연화문은 4개의 부조와 4개의 선조가 교대로 배치되어있는 조합 연화문 형태이고 연꽃잎 사이 사이에 총 8개의 연주문이 있다. 주연은 일부 결실되었으며, 주연아래 1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배면에는 포흔이 관찰되며 수키와접합부에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와당 배면에는 깎기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유물번호 10** 유물번호|2285 직경|14.6 턱|3.7 주연폭|1.7 주연 높이|1.4

특징 연화문 와당. 적갈색

자방 주위에는 1줄의 원권이 돌아간다. 원권을 중심으로 부조와 선조의 연화 조합문이 4개씩 교대로 배치된다. 각 연화문 사이로 8개의 주문을 넣었다. 주연부는 약간의 파손이 있으나 거의 완형이며, 그 아래 1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배면에는 깎기흔이 관찰되며 수키와 접합흔이 일부 전사되어 남아있다. 다치구로 접합면을 파 낸 흔적이 관찰된다. 와당배면은 거칠게 물손질 되었다.

**유물번호 11** 유물번호|2284 직경|13.3 턱|3.75 주연폭|1.3 주연 높이|1.1

특징 연화문 와당. 황갈색

자방은 둥근 형태인데 중간에 1조의 원권을 두르고 그 아래에도 1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원권을 중심으로 부조와 선조의 연화 조합문이 4개씩 교대로 배치된다. 각 연화문 사이로 8개의 주문이 배치된다. 주연부는 1/4정도 파손되었으며, 점토층이 확인된다. 주연 아래로 1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문양면에 와범흔이 남아있다. 배면에는 수키와 접합흔이 일부 전사되어 남아있으며 보강토가 확인된다. 턱부분에는 종방향의 깎기흔이 관찰된다. 수키와의 접합면 외면을 따라 낸 홈자국이 와당면에 전사되어 있다.

**유물번호 12** 유물번호|1602 직경|14.2 턱|2.3 주연폭|1.25 주연 높이|7.25

특징 연화문 와당. 적색

자방은 둥근형태인데 중간에 1조의 원권을 두르고 그 아래에도 1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원권을 중심으로 부조와 선조의 연화 조합문이 4개씩 배치되고, 그 사이도 각 8개의 주문이 배치된다. 가장자리에는 한 줄의 원권을 돌렸다. 주연은 층을 이루며 윗면에는 횡방향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배면에는 조정한 및 물손질흔이 남아있으며 수키와 접합부에도 접합흔 및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3** 유물번호|2253 직경|14.1 턱|3.1 주연폭|1.35 주연 높이|1.3 잔존길이|7.6

특징 연화문와당. 황갈색

자방 아래 한줄의 원권을 돌렸다. 연판은 조합문으로 각 4엽의 부조연판과 선조 연판이 교차되어 배치된다. 각 연판사이에는 8개의 주문이 배치되며,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주연은 층을 이루며 그 윗부분으로 횡방향의 물손질이 관찰된다. 배면의 수키와 접합부에는 보강토가 확인되며 수키와내면에는 모골흔 및 포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4** 유물번호|2287 직경|14.6 턱|3.4 주연폭|1.5 주연 높이|1.3 잔존길이|5.3

특징 연화문 와당. 황갈색

둥근 자방아래 한줄의 원권을 두른 형태이다. 연판은 조합문으로 각 4엽의 부조연판과 선조연판이 교차되어 배치된다. 연판사이에는 8개의 주문이 배치되며,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주연부는 1/4정도가 결실되었으며, 주연 윗부분으로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남아있다. 배면에는 보강토가 남아 있으며 손누름흔도 관찰된다.

**유물번호 15** 유물번호|1607 직경|13.7 턱|3.3 주연폭|1.15 주연 높이|1.4 잔존길이|7.3

특징 연화인동문 와당. 적색

둥근 자방 위에 2조의 원권이 돌아가는데, 원권 사이에 4개의 연주문이 배치되고 자방 아래에도 1줄의 원권이 돌아간다. 문양은 각 4엽의 연판과 인동문을 교대로 배치한 복합 연화문형태이다. 인동문과 연판사이에는 8개의 주문이 배치되며,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주연부 일부가 파손되었다. 배면에는 실로메기흔 및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잔존하는 수키와는 내면에 포흔이 관찰되며 외면에는 종방향의 깎기흔이 확인된다. 수키와접합 보강토가 남아있으며 그 위에는 물손질 및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6** 유물번호 2266 직경 15.4 주연폭 1.3

특징 | 인동연화문 와당. 황갈색

와당면의 1/2 정도가 결실되었다. 자방 주위로 1조의 원권을 돌렸다. 막새면에 각 6엽의 연화문과 인동문이 교차되어 배치된 복합연화문이다. 막새 가장자리에 2조의 원권을 둘러 그 사이에 연주문을 배치하였고, 주연 윗부분에는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배면은 일부가 박락되었으며 추구조가 확인된다.

**유물번호 17** 유물번호 2698 직경 15.5 톱 1.4 주연폭 1.3 주연 높이 1.6 잔존길이 8.1

특징 | 인동연화문 와당. 적색

주연 및 와당 일부가 결실 되었다. 반구형의 자방 주위로 1조의 원권을 돌렸다. 와당면은 각 6엽의 연화문과 직선적으로 뺨은 변형된 인동문이 교차되어 12개의 문양이 배치된 복합연화문이다. 와당면 가장자리에는 2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그 사이에 주문을 배치한 형태이다. 주연부 윗부분에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남아있으며 층을 이루고 있다. 배면에는 포흔이 관찰되며 보강토 위에는 손누름흔이 남아있다. 잔존한 수키와 외면에는 종방향의 조정흔이 관찰된다. 와당면이 수평으로 1/2정도 박락되었다.

**유물번호 18** 유물번호 2682 직경 15.6 톱 2.9 주연폭 1.15 잔존길이 4.2

특징 | 연화귀면문 와당. 황갈색

와당면의 1/2가량이 결실된 수막새이다. 종방은 반구형으로 중간에 1조의 원권을 두르고 그 주위에 8각 테두리를 돌렸다. 4개씩의 연화문과 귀면문을 교차되게 배치한 복합연화문이다. 귀면문은 선의 처리방법이 매우 또렷한 편이다. 주연부에서 층이 보이며 그 윗부분에는 횡방향의 깎기흔이 관찰된다. 배면에는 수키와 접합흔 및 조정흔이 남아있다. 다치구로 접합상처를 내었음이 확인된다.

**유물번호 19** 유물번호 2245 직경 8 톱 3.6 주연폭 1.4 주연높이 1.3

특징 | 귀면문 와당. 황갈색

와당면의 1/2정도만 남아있어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다. 잔존하는 입부분만 보아도 강인한 인상을 알 수 있다. 주연 윗부분에는 횡방향의 깎기흔이 관찰된다. 단면은 층을 이룬다.

**유물번호 20** 유물번호 2247 직경 16.6 톱 2.8 주연폭 1.4 주연높이 1.1 잔존길이 12.9

특징 | 귀면문 와당. 황갈색

와당면의 1/2정도가 결실된 귀면문 와당이다. 눈과 입, 코를 강조하여 고구려 특유의 강인함이 엿보인다. 배면에는 굽기흔 및 수키와 접합부 누름흔이 관찰되며, 보강토가 남아있다. 잔존하는 수키와 내면에서 포흔이 관찰된다. 와당면 전체에서 분리사가 확인된다.

**유물번호 21** 직경 14.5 톱 4.3 주연폭 1 주연높이 1.1 잔존길이 8.3

특징 | 연화문 와당. 적색

자방은 반구형으로 주위에 1조의 원권을 돌렸다. 막새면은 2조의 굵은 선에 의해 6분할되고, 각 내부는 6개의 연꽃잎과 각 2개씩의 주문이 배치된 형태이다. 가장자리는 1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주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는데 높이가 낮고 무문이다. 주연 윗부분으로 종방향의 굽기흔이 관찰된다. 배면에는 보강토가 남아있으며 그 위에 굽기흔도 관찰된다. 수키와 접합흔이 박락된 주연부 아래에서 전사되어 남아 있다

**유물번호 22** 유물번호 2627 직경 13.8 톱 2.1 주연폭 1.05 주연 높이 1.2

특징 | 연화문 와당. 적색

와당면의 1/2 정도가 결실되었다. 자방은 반구형으로 6개의 연주문이 표현되어 있다. 막새면은 2조의 굵은 복선으로 6분할되고, 각 내부에는 6개로 추정되는 연꽃잎과 그 사이에 2개씩의 주문이 배치된 형태이다. 가장자리는 1조의 원권을 두르고 주연부는 무문이다.

**유물번호 23** 유물번호 2296 직경 15.1 톱 3.3 주연폭 1.5 주연 높이 1.4

특징 | 연화문 와당. 황갈색(속심은적색)

3조의 원권이 둘러진 자방을 가진다. 막새면은 2조의 굵은 복선에 의해 6부분으로 구획되고, 각 내부에는 6개의 연꽃잎과 각 2개씩의 주문을 배치했다. 가장자리는 원권을 돌렸고 주연부는 무문이다. 주연부는 일부 결실되었으며 윗부분에 종방향의 굽기흔이 남아있고 일부 횡방향의 굽기흔도 남아있다. 단면은 층을 이룬다.

**유물번호 24** 유물번호 2624 직경 15.8 톱 3.15 주연폭 1.75 주연 높이 1.3 잔존길이 8.1

특징 | 연화문 와당. 적색

등근 지방에는 2조의 원권을 돌렸다. 막새면은 2조의 굵은 복선에 의해 6분할 되고 그 내부에는 6개의 연꽃잎과 각 2개씩의 주문을 배치했다. 주연부 아래에는 1조의 원권을 돌렸다.

단면은 층상구조를 보이며, 배면의 보강토 위에는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수키와 주연부에 2단의 깎기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25** 유물번호 | 2252 직경 | 17 톨 | 2.6 주연폭 | 1.35 주연 높이 | 1.5 잔존길이 | 7.1

특징 | 연화문 와당. 적색

지방은 방사선형으로 내부가 구획된다. 지방 주위에는 3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있다. 막새면은 3조의 복선에 의해 6분할되고, 각 내부에 6개의 연꽃잎과 2개씩의 주문을 배치했다.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을 돌렸으며 주연부는 깊고 무문이다. 주연부의 층상구조가 관찰되고 있다. 주연부 윗부분과 접합된 수막새부분에 깎기흔이 관찰된다. 배면에는 보강토가 남아있으며, 그 위에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배면전체에 무질서한 깎기흔 및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단면은 층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유물번호 26** 유물번호 | 2251 직경 | 18 톨 | 3.25 주연폭 | 1.3 주연 높이 | 1.3

특징 | 연화문 와당. 적색

반구형의 지방은 방사선형으로 내부를 6분할하였고 그 아래로 3조의 원권을 돌렸다. 막새면에는 3조의 복선을 시문하여 6분할 하였고 각 내부에 1엽의 연꽃잎과 2개의 주문을 배치한 유복선와당 형태이다. 주연부 아래로 1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다. 주연윗부분에 횡방향의 굽기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27** 유물번호 | 26?? 직경 | 15 톨 | 3.25 주연폭 | 1.65 주연 높이 | 1.4

특징 | 연화문 와당. 적색

지방은 중앙의 방격을 중심으로 방사선형으로 내부구획되고, 그 아래 1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있다. 막새면은 2조의 복선에 의해 6분할되는 유복선 연화문 형태이다. 내부에는 5개의 연꽃잎을 양감있게 표현하여 배치했다. 주연의 일부가 결실 되었다. 배면에 수키와 접합흔이 관찰되며, 수키와는 부분 결실되었다.

**유물번호 28** 유물번호 | 3ㅏ(?) 직경 | 17.1 톨 | 3.1 주연폭 | 1.2 주연 높이 | 1.9 잔존길이 | 6.6

특징 | 연화문 와당. 적색

지방은 반구형으로 1조의 원권이 둘러지고, 내부는 방사선형으로 구획되어 있다. 막새면은 양감이 강한 4개의 연화문과 용기선으로 표현된 4개의 연화문이 교차배치된 조합연화문 형태이다. 연판사이에 8개의 주문을 배치하였고 주연은 깊으며 무문이다. 주연은 층을 이루며 단짜기 조정이 되어 있다. 수키와 단부에 상처를 내고 와당면에 접합했음을 알 수 있다.

**유물번호 29** 유물번호 | 2623 직경 | 13.9 톨 | 3.15 주연폭 | 1.0 주연 높이 | 1.6

특징 | 연화문 와당. 황갈색

지방은 반구형으로 1조의 원권을 돌렸다. 막새면은 3조의 선으로 6분할 되어 각 내부에 단판연화문이 배치되어 있다. 주연부는 깊고 일부가 결실되었다. 수키와 접합면이 전체적으로 박락되었다.

**유물번호 30** 유물번호 | 2644 직경 | 15.3 톨 | 2.5 주연폭 | 1.5 주연 높이 | 1.3 잔존길이 | 11.85

특징 | 연화문 와당. 황갈색

가운데에 1개의 연주문을 배치한 지방은 윗부분이 잘려 편평한 형태를 보인다. 지방 주위로 1조의 원권을 두르고, 막새면에는 부조의 연꽃잎과 선조의 꽃잎을 4개씩 교차배치하여 조합연화문을 이루고 있다. 연화문 사이에는 각 1개씩의 주문을 8개 배치했고,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을 돌리고 있다. 주연의 윗부분에 횡방향의 굽기흔이 관찰되며, 일부 결실 되었다. 배면에는 수키와 접합흔 및 포흔이 남아있다. 보강토 위에는 굽기흔이 남아있으며, 단면은 층상구조를 보인다. 수키와 외면은 일부 박락되어 있다.

**유물번호 31** 유물번호 | 12 직경 | 15 톨 | 3.1 주연폭 | 1.25 주연 높이 | 1.1 잔존길이 | 4.15

특징 | 연화문 와당. 적색

반구형의 지방 가운데 1개의 연주문을 두었다. 지방 주위로 1조의 원권이 둘러지고, 막새면에는 부조의 연꽃잎과 선조의 꽃잎을 교차배치시켜 총 8엽의 조합연화문을 이루고 있다. 연화문 사이에는 8개의 주문을 각 1개씩 배치했고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을 돌리고 있다. 주연의 윗부분에 종·횡방향의 굽기흔이 남아있다. 배면에는 다치구로 접합을 위해 낸 상처가 확인된다. 일부보강토가 확인된다.

**유물번호 32** 유물번호 12 직경 15.7 톱 3.15 주연폭 1.9 주연 높이 1.5 잔존길이 9.7

특징 합연화문 와당. 회갈색

자방 주위로 주위로 2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막새면에는 부조의 연판 4개와 화려한 선조의 연화문 4개가 교차 배치된 조합연화문형태를 이룬다. 주연부에는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관찰되고 있다. 배면에는 보강토가 남아 있으며, 그 위에 깎기흔이 보여진다. 잔존하는 수키와에는 종방향으로 조정흔적이 확인되며, 수키와 분할면은 2중의 자름면이 확인된다. 수키와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 있다.

**유물번호 33** 유물번호 134 직경 16 톱 3.2 주연폭 1.5 주연 높이 1.7

특징 합연화문 와당. 회갈색

등근 자방 주위로 2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있다. 문양은 부조의 연판 4개와 화려한 선조의 연화문 4개가 교차 배치되어 시문된 조합연화문이다. 주연의 1/4 정도가 결실되었으며 잔존하는 주연의 윗부분에 일부 횡방향의 깎기흔이 확인된다. 단면은 층상구조를 보이고 있다. 배면에는 무질서한 깎기 및 긁기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34** 유물번호 2265 직경 14.8 톱 3.85 주연폭 1.6 주연 높이 1.6 잔존길이 4.31

특징 조합연화문 와당. 적갈색

반구형의 자방은 가운데에 1개의 연주문을 배치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방사선이 내부를 4분할한 내면에 각 1개씩 4개의 연주문을 두었다. 자방 아래로 1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다. 문양은 각 5엽의 부조연판과 단조로운 선조의 연판이 교차배치된 조합연화문이다. 각 연잎의 사이에는 1개의 주문이 총 10개가 배치되고, 가장자리에 1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있다. 주연의 윗부분에는 깎기흔이 관찰된다. 배면에는 깎기흔이 관찰되고, 수키와를 붙이기 위한 분할선이 관찰된다. 수키와가 박락되었으나 접합을 위한 상처의 형태를 확인 할 수 없다.

**유물번호 35** 유물번호 2270 직경 14.9 톱 3.25 주연폭 1.5 주연 높이 1.9 잔존길이 7.9

특징 조합연화문 와당. 적갈색

자방 가운데 1개의 연주문이 배치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방사선형으로 내부가 구획되어 있다. 자방의 내면에 각 1개씩 4개의 연주문을 배치하였다. 자방 아래로 1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있다. 문양은 각 5엽의 부조연판과 단조로운 선조의 연판이 교차배치된 조합연화문이다. 각 연잎의 사이에는 1개의 주문이 총 10개가 배치되었고 가장자리에 1조의 원권을 돌렸다. 주연의 윗부분에는 깎기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36** 유물번호 2271 직경 15.2 톱 4 주연폭 1.5 주연 높이 1.1~1.4 잔존길이 11

특징 조합연화문 와당. 적갈색

자방위에 1개의 연주문을 가운데 두고 방사선형으로 내부를 구획하여 그 내부에 각 1개씩 연주문을 두었다. 자방 아래로 1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으며, 막새면에는 5+5엽의 부조연판과 단조로운 선조의 연판이 교차배치된 형태이다. 각 연잎의 사이에는 주문이 1개씩 배치되어 있고, 가장자리에 1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다. 주연 내부에 깎기흔이 관찰되고, 배면에 포흔이 보인다.

**유물번호 37** 유물번호 2269 직경 (15.2) 톱 4 주연폭 1.45 주연 높이 1.5

특징 조합연화문 와당. 적색

자방 중앙에 1개의 연자를 두고 방사선형으로 내부를 구획했다. 그 안에 각 1개씩 4개의 연주문을 배치, 자방주위로 1개의 원권을 돌렸다. 막새면에는 부조연화문과 선조연화문을 5개씩 배치한 조합연화문형태를 이룬다. 연화문 사이에는 각 1개씩의 주문을 배치하고 있고, 가장자리에 1조의 원권을 돌렸다. 단면은 층상구조를 보인다. 배면에는 분할중심선이 보이고, 수키와 접합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38** 유물번호 2643(25) 직경 14.8 톱 3.5~4.1 주연폭 1.35~1.6 주연 높이 1.4 잔존길이 5.1

특징 연화문 와당. 적색

자방은 가운데가 약간 일그러졌다. 방사선형으로 내부를 4분할 하여 각면마다 연주문을 넣었다. 막새면은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부조의 연화문과 선조의 연화문을 5개씩 교차배치한 조합연화문형태임을 알 수 있다. 연잎 사이마다 주문이 배치되었으며, 주연부 아래로 1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배면 톱부분에 전체적으로 깎기흔과, 보강토 위 긁기흔이 나타나고, 수키와 부착면에는 다치구로 낸 상처가 확인된다.

**유물번호 39** 유물번호 1505(54) 직경 (16.8) 톱 3.61 주연폭 1.65 주연 높이 1.75 잔존길이 4.3

특징 연화문 와당. 적색

자방 중앙에 1개의 연자를 두고 자방 주위로 2조의 원권을 돌렸다. 막새면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4개의 양감 있는 부조 연화문과 4개의 선조 연화문이 교차 배치된 조합연화문형태임을 알 수 있다. 주연내부에는 층이 관찰되고 배면에 무질서하고 거친 깎기흔이 보인다. 충전토 위에

손누름흔과 단면층이 나타난다. 주연 윗부분은 종방향 깎기흔이 있으며, 일부 횡방향 깎기흔도 보인다.

**유물번호 40** 유물번호|2217六四 직경|6.7 톱|2.5 주연폭|0.95 주연 높이|1.1 잔존길이|7.9

특징|연화인동문 와당. 황갈색

잔존하는 막새면에는 6개의 연화문과 그 사이에 변형된 인동문이 교대로 배치되었다. 자방은 주위에 1조의 원권을 돌렸으며 주연부 아래에도 1조의 원권을 돌렸다. 배면에는 포흔과 모골흔이 있으며 보강토에 조정흔이 보이고, 수키와 분리면은 2단이다. 수키와부에 종방향 굽기 조정흔이, 주연윗부분에는 횡방향 깎기흔이 있다.

**유물번호 41** 유물번호|2220五五 직경|14.5 톱|2.25 주연폭|2.45 주연 높이|0.7 잔존길이|4.25

특징|연화인동문 와당. 황갈색

자방을 중심으로 1조의 원권을 두르고 그 밖에 4개의 주문을 배치 하고 있다. 문양은 4개의 연화문에서 인동문이 말려 나온 형태로 복합 연화문 형태이다. 주연 아래에는 1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있다. 주연 안쪽부분 깎기흔과 배면에 보강토, 손누름흔, 깎기흔이 관찰되고 있으며, 톱 뒷면에 깎기흔이 관찰된다. 다치구로 수키와 접합부에 상처를 내었음이 인정된다.

**유물번호 42** 유물번호|二10 직경|14.9 톱|2.4 주연폭|1.35 주연 높이|0.8 잔존길이|4.15

특징|연화인동문 와당. 적색

자방 아래에 두른 1조의 원권 밖으로 4개의 주문을 배치하고 있다. 막새면에는 4개의 연화문을 두고 연화문 양옆으로 인동문이 뺨어 나와 말려있는 형태이다. 주연부 아래로 1조의 원권이 둘러져 있으며 주연 일부가 결실되었다. 배면에 접합흔과 무질서한 깎기흔이 보인다. 톱 배면 깎기, 주연윗부분 횡방향깎기,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43** 유물번호|2652 직경|9.2 톱|2.5 주연폭|1.7 주연 높이|0.9

특징|연화문 와당. 적색, 연질소성

1/4정도만 잔존한 형태이다. 잔존부분에 연화문이 부조로 3개 배치되어 있고 자방 아랫부분에 주문이 연화문사이로 배치되어 있다. 가장자리에는 연판 사이마다 큰 삼각문이 있고, 주연부 아래에 1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있다. 수키와부는 결실되었으며, 배면에는 톱부분 깎기흔과 굽힌 자국이 보인다. 와당면에 분리가 부착되었다.

**유물번호 44** 유물번호|2272 직경|9.2 톱|2.5 주연폭|1.7 주연 높이|0.9

특징|조합연화문 와당. 적갈색

자방에는 방사선형으로 내부를 구획하여 각면에 연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막새면에 양감이 강한 연화문과 용기선으로 된 연화문을 5개씩 번갈아 배치하였고 그 사이마다 주문을 두었다. 가장자리는 1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으며 주연은 깊고 무문이다. 배면에는 보강토 충전후 조정흔이 관찰되고, 배면 중심 분할선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45** 유물번호|2622 직경|15.1 톱|2.25 주연폭|1.35 주연 높이|1.1 잔존길이|8.65

특징|유복선연화문 와당. 적색

전반적으로 와당면의 문양이 희미하다. 자방의 아래에는 2조의 원권을 돌렸고 막새면은 2조의 복선으로 6분할하여 각 면에 연꽃잎과 2개의 주문을 배치하였다. 가장자리에는 2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으며, 주연은 깊은 편이다. 주연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배면에는 톱부분 깎기흔과 접합흔이 관찰된다. 와당면에는 분리가 부착되었다.

**유물번호 46** 유물번호|2653 직경|15 톱|3.5 주연폭|1.3 주연 높이|1.7

특징|조합연화문 와당. 황갈색

와당면은 1/2정도 결실되어 있다. 부조의 연화문 사이에 선조의 연꽃줄기를 교대로 배치한 조합문 형태이다. 잔존하는 자방위에 연주문을 두었고 그 아래로 2조의 원권이 돌아가다. 주연부 아래에는 1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다. 와당단면에는 충구조가 확인된다.

**유물번호 47** 유물번호|2697 직경|14.3 톱|2.55~2.75 주연폭|1.1 주연 높이|1.9 잔존길이|3.75

특징|유복선연화문 와당. 적색

와당면 1/4 정도가 결실되어 있다. 자방은 반구형으로 그 아래 1조의 원권이 둘러져 있고, 와당면은 3조의 복선으로 8분할되었으며, 내부에 가는 연화문을 배치하였다. 주연부 아래는 2조의 원권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며, 주연은 무문이다. 단면이 충구조가 확인되며, 주연윗부분 돌

레에는 깍기 조정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48** 유물번호 2687 직경 12

특징 연화문 와당, 적색

와당면 1/4정도 잔존한다. 막새면에는 중판의 연꽃잎이 배치되었는데 그 둘레로 1조의 굵은 선조가 둘러져 있다. 연잎의 사이에는 작은 삼각문이 시문되었고 가장자리로 1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있다. 주연부는 파손이 심해 관찰이 어렵다. 수키와 접합부가 관찰되고 보강토로 메운 후 배면을 깍기한 흔적이 보이고, 주연윗부분에는 굵기 조정흔과 중층의 단면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49** 유물번호 2683二十七 직경 14.7 주연폭 1.15 주연 높이 1.1 잔존길이 6.25

특징 인동문 와당, 황갈색

와당면 1/2정도 결실. 전체적인 문양을 알 수 없으나 막새면을 가득 채우는 화려한 인동문이 장식된 형태로 추정된다. 수키와 안쪽면에는 포목흔이 있고, 보강토위에는 문지르기흔이 관찰되며, 단면은 층구조이다. 주연 둘레에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나타나고 있다.

**유물번호 50** 유물번호 2688二十七 직경 9.9 주연폭 1.8 주연 높이 1.6

특징 연화문 와당, 적색

와당면 1/4정도 잔존. 전체적인 문양은 알 수 없으나 연꽃잎이 복잡하게 겹쳐진 중판 연화문 형태로 추정된다. 주연부는 두꺼우나 파손이 심해 확인이 어렵다. 배면이 층을 이루면서 전면이 박락되었다.

**유물번호 51** 유물번호 2694 직경 14 톱 4.2 주연폭 1.1 주연 높이 1.5

특징 연화문 와당, 적색

와당면이 1/4 정도 잔존한다. 자방의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막새면에는 3조의 복선으로 면을 분할하여 연화문을 배치하였다.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을 돌려 마무리 하였으며, 주연부는 깊고 무문이다. 주연부에 점토퍼 부착흔이 확인되고, 배면에 굵기흔이 보인다.

**유물번호 52** 유물번호 2695 직경 15.6 톱 2.45 주연폭 0.9~1.1 주연 높이 1

특징 연화문 와당, 회황색

와당면의 1/2정도가 결실되어 있다. 자방주위로 2조의 원권이 둘러져 있으며 자방 위에 1개의 연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막새면은 3조의 가는 복선으로 구획되어 그 안에 연화문과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주연은 비교적 얇고 무문이다. 단면은 층을 이루고 배면깍기흔, 주연윗부분 굵기 조정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53** 유물번호 2625 직경 13.1 톱 3.3 주연폭 1.55 주연 높이 1.1 잔존길이 6.2

특징 연화문 와당, 적색

와당면 1/4 정도 잔존한다. 자방의 형태는 알 수 없고 2조의 복선으로 막새면을 분할하여 각 면에 연화문과 주문을 배치하였다.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있으며 주연부는 비교적 두껍고 무문이다.

**유물번호 54** 유물번호 2685 직경 13.7 주연폭 1.3 주연 높이 1.6

특징 보상화문 와당, 회갈색

와당면 1/2 이상 결실. 문양이 희미하지만 보상화문 와당임을 알 수가 있다. 막새면 전체가 화려한 보상화문으로 채워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자리에 2조의 원권이 둘러져 있다. 배면에는 다치구로 긁어낸 접합흔과 전체적으로 무질서한 깍기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55** 유물번호 2693 직경 6.7 주연폭 1 주연 높이 1.5

특징 유복선연화문 와당, 적색

와당면의 1/4 정도 잔존한다. 막새면은 3조의 선으로 구획되어 그 안에 연화문과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그 가장자리에 2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으며, 주연부는 비교적 깊으며 무문이다. 와당 단면은 층을 이루고 접합흔, 깍기흔, 주연윗부분 횡방향 굵기흔이 관찰된다. 접합상처는 와당 배면과 수키와 단부에 모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물번호 56** 유물번호 2692 직경 7.5 톱 2.95 주연폭 1.4 주연 높이 1

특징 연화문 와당, 적갈색

와당면의 1/4 정도 잔존한다.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막새면은 1조의 단선으로 구획하여 연화문과 주문을 두고있고,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을 돌려 마무리 하였다. 배면 깎기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57** 유물번호 2696 직경 <14.2> 톱 2.95 주연폭 1.4 주연 높이 1.9

특징 유복선연화문 와당. 적갈색. 미산리 출토

와당면 1/4 정도 잔존한다.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자방은 반구형으로 1조의 원권이 둘러져 있다. 막새면은 4조의 가는 복선으로 분할되어 연화문과 주문을 배치하였다. 가장자리에는 2개의 원권을 두르고 있고, 주연부는 무문이다. 단면은 층구조이고 배면에는 분리사가 확인된다.

**유물번호 58** 유물번호 2689 직경 <15.8> 톱 1.7 주연폭 1 주연 높이 0.8

특징 보상화문 와당. 적색

전체 1/4 정도 잔존한다.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는 없으나 반구형의 자방을 중심으로 1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고 막새면에는 굵은 선조로 화려한 보상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이 돌아간다. 단면층이 확인되며, 배면에는 무질서한 깎기흔과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주연윗부분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있다. 낙랑시대라고 추정되었으나 전형적인 고구려 기와이다.

**유물번호 59** 유물번호 2684 직경 11.6

특징 연화문 와당. 회색. 임원면 채집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고 자방과 주연부는 완전히 박락되었다. 막새면에는 구획하는 선없이 연화문을 배치하여 연화문 양 옆으로 연꽃 줄기를 표현하였다. 단면은 층구조이다.

**유물번호 60** 유물번호 2276六0 직경 13.2 톱 3.1 주연폭 1.35 주연 높이 1.1 잔존길이 3.4

특징 연화문 와당. 적색

자방 중간에 1조의 침선을 돌려 중앙을 돌보이게하고 자방 아래로 1조의 원권을 돌렸다. 4엽의 양감있는 복판연화문을 넣고 옆에는 꽃봉오리를 측면에서 바라본 연잎문양을 선조로 시문하였다.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으며, 주연부는 일부 결실되었다. 다치구로 접합상처를 냈으며 보강토가 부착되어 있다. 배면에 깎기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61** 유물번호 2292三三 직경 <17> 톱 3.5 주연폭 1.3 주연 높이 1.3

특징 복합연화문 와당. 적갈색

전체 1/2정도 결실되었다. 잔존 부분 중 자방은 반구형이고 그 주위로 1조의 원권을 돌렸다. 막새면에는 중판의 연잎 사이는 선조의 보상화문이 시문되었다. 주연부 아래는 1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있다. 단면은 층 구조를 이루며, 배면에 접합흔, 깎기흔이 보인다. 주연윗부분은 횡방향 깎기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62** 유물번호 2289 직경 15.05 톱 (2.2)

특징 연화문 와당. 황갈색

반구형자방 위에 5개의 연주문을 두고 그 아래로 2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다. 잔존하는 막새면에는 2조의 복선으로 면을 분할하여 가운데에는 연잎을 하나씩 배치한 형태이다. 가장자리에 1조의 원권이 있으며, 주연부는 모두 박락되었다. 배면에는 접합흔이 관찰되지만 접합상처의 형태는 알 수 없다. 주연윗부분에 횡방향 조정흔이 보인다. 뒷면은 무질서한 깎기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63** 유물번호 2261 직경 <14> 주연폭 1.2 주연 높이 0.9 잔존길이 11.1

특징 연화문 와당. 회갈색

와당면 1/2정도 결실. 잔존면의 자방은 반구형이고 그 주위로 1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있다. 막새면에는 선조의 연잎이 시문되어있고, 연잎 가운데 큰 주문이 하나씩 배치되어 있다. 연잎 사이에는 주문이 1개씩 놓여져있고, 가장자리는 1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있다. 수키와 내면에는 선명한 포목흔이 관찰되고 부분적으로 보강토가 남아있다. 와당단면은 층 구조를 이룬다.

**유물번호 64** 유물번호 2248 직경 <14.8> 톱 1.6 주연폭 1 주연 높이 1 잔존길이 8

특징 유복선연화문 와당. 적갈색

와당면 1/2 이상 결실되어 있다. 반구형의 자방 위에 연주문이 배치되어 있고 원권이 둘러져 있다. 막새면은 3조의 선으로 구획되어 각면에

연화문을 배치하였으며, 양 옆으로 주문이 배치되어있다. 가장자리에는 2조의 원권이 둘러져 있고, 주연은 무문이다. 주연 윗면 횡방향 문지르기흔이 있고, 주연내면에 층과 깎기흔이 보이며, 와당 단면에 층이 나타난다.

**유물번호 65** 유물번호 2278 직경 14.3 주연폭 1.3 주연 높이 1.3 잔존길이 6.3

특징 1 연화문 와당. 적색

1/2 정도 결실되어 있다. 반구형의 자방으로 그 아래 1조의 원권이 둘러져 있고 막새면에는 양감이 느껴지는 연화문과 선으로 구획된 연화문 교차 배치되어 있다. 그 사이 주문이 새겨져 있고 가장자리는 1조의 원권이 둘러져 있다. 주연은 깊고 무문이다. 와당면의 배면에는 보강토와 깎기흔이 모두 관찰된다.

**유물번호 66** 유물번호 2293 二十 직경 (8.5) 톱 (1.7)

특징 1 연화문 와당. 적색

주연부 전체가 결실되어 있다. 마모가 심하여 문양이 반 이상 지워졌다. 자방은 편평하게 약간 돌출되어 있고 2조의 굵은 원권이 새겨져 있으며 굵은 2조의 선으로 막새면을 6구획하여 각 내부에 연화문이 배치되어있다. 주문은 낮다. 단면층이 관찰되며, 내면에 보강토의 흔적이 보인다.

**유물번호 67** 유물번호 2298 직경 (14.6) 톱 3 주연폭 1 주연 높이 1 잔존길이 8

특징 1 연화문 와당. 연적색

1/2 이상 결실되어 있다. 반구형의 자방으로 작은 1조의 원권안에 1개의 연주문이 배치되었고 그 주위로 연자가 배치되었는데, 그 주위로 1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다. 막새면은 2조의 선으로 6구획하여 각 면안에 연화문과 양 옆으로 2개의 주문이 각각 배치되어있다. 주연 위에 문지르기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68** 유물번호 2290 직경 (7.7) 톱 3.2 주연폭 1.3 주연 높이 1.5

특징 1 연화문 와당. 황적색. 청암리 채집

1/2 이상 결실되어 있다. 전체적인 모양은 알 수 없지만 자방은 원권으로 둘러져 있고 막새면은 2조의 선으로 구획되어 그 안에 연화문과 주문이 배치되었다.

**유물번호 69** 유물번호 2224 二十二 직경 (8.8) 주연폭 두께 6.25

특징 1 귀면와. 적갈색

눈알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결실되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유물번호 70** 유물번호 2244(22) 직경 (8.05) 톱 (3.05) 주연폭 1.3 주연 높이 1.2

특징 1 귀면문 와당. 적색

귀면의 입부분만 잔존하여, 전체적인 와당의 형태는 알 수 없다.

**유물번호 71** 유물번호 2242(22) 직경 가로(6) 톱 세로(8.4) 주연폭 두께(4)

특징 1 귀면문 와당. 적갈색

1/4 이상 결실되어 있다. 귀면의 눈 부분만 잔존하여 전체적인 와당의 형태는 알 수 없다.

**유물번호 72** 유물번호 2241(22) 직경 (7.25) 톱 (3.7)

특징 1 귀면문 와당. 적색

상당부분 결실되어 크게 강조된 눈부분만 잔존한다. 와당배면에 실로메기흔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상 귀면와는 모두 '22'라고 주기되어 있다.

**유물번호 73** 유물번호 2636 직경 (16.5) 톱 (1.9) 주연폭 1.6 주연 높이 1 잔존길이 9.7

특징 1 연화문 와당. 황갈색

1/2 정도 잔존한다. 잔존하는 막새면에는 자방을 중심으로 연화문이 시문되어 있고 2엽의 연화문이 양감있게 표현되었다. 연판 밖으로 굵은 선조를 돌리고 있으며 그 사이로 주문이 각 1개씩 배치되어 있다. 주연부 아래에는 1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다. 수키와부분 접합단부에는 이중

짜기흔이 관찰된다. 수키와 접합면에는 보강토가 두껍게 부착되었다.

**유물번호 74** 유물번호|2650 직경|(12.5) 톱|(1.9/2.7)

특징|연화문 와당. 적색

반구형의 자방위에 세 개의 연주문이 남아있고 그 아래 1조의 원권을 중심으로 8엽의 연화문을 배치하였다. 연화문은 부조의 연잎 주위로 2조의 굵은 선각과 1조의 선각을 넣은 것을 교차 배치하였으며 연잎 사이마다 삼각문을 시문하였다. 가장자리에는 2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고 주연부는 모두 결실된 상태이다.

**유물번호 75** 유물번호|2642 직경|(16) 톱|3.6 주연폭|1.6 주연 높이|1.6

특징|연화문 와당. 적색

막새면의 가운데 반구형의 자방이 있고 주위로 1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다. 잔존 막새면에는 2엽의 부조 연판과 3엽의 선조 연판을 교대로 배치한 조합 연화문 형태이다. 가장자리에는 1조의 원권을 두르고 있다. 단면은 층구조를 이루며 수키와는 박락되었다. 수키와 접합흔이 확인된다.

**유물번호 76** 유물번호|2640 직경|(16.3) 톱|(2.3) 주연폭|1.7 주연 높이|0.7 잔존길이|8

특징|귀면문 와당. 적색

1/2정도 결실되어 있다. 잔존 막새면의 문양은 변형된 귀면문 형태이다.

**유물번호 77** 유물번호|2681 직경|(10.4) 톱|(2.5)

특징|복합연화문 와당. 황갈색

1/3정도 잔존되어 있다. 상당부분 결실된 상태이지만 연화문 사이에 귀면문이 배치된 복합형태임을 알 수 있다. 가장자리에는 2조의 원권을 두르고 그 사이로 단사선문을 전체적으로 돌렸다. 주연부는 거의 결실되었다. 와당배면은 전체적으로 깎기 조정되었다.

**유물번호 78** 유물번호|1999(51) 직경|17 톱|2.9 주연폭|1.8 주연 높이|0.3 잔존길이|7

특징|연화문 와당. 회색

반구형의 자방을 중심으로 막새면에는 끝부분이 뾰족한 6엽의 양감있는 연잎을 배치하고 연화문 사이에는 복선이 변화한듯한 꽃봉오리 모양이 시문되어 있다. 주연부는 낮으며 주연위에 주문을 시문하였다. 와당 배면의 외면을 따라 2조의 홈이 돌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유물번호 79** 유물번호|2639 직경|가로(10.65) 톱|세로(1.5) 주연폭|두께1.5

특징|석문평와. 적색

표면전체에 복합 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배면에는 포목흔과 합철흔이 관찰된다. 고려키와로 판단된다.

**유물번호 80** 유물번호|2662(39) 직경|(8.85) 톱|(11.9) 주연폭|1.8

특징|귀면문평와. 적갈색

마모가 심해 문양확인이 어려우나 초엽문으로 추정된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실로떼기흔이 확인되며, 측면에는 밖에서 안으로 와도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81** 유물번호|2637 직경|(5.45) 톱|(6.75) 주연폭|1.4

특징|적황색

잔존면적이 작아 문양확인이 어렵다. 내면에 포흔과 모골흔이 관찰되며, 와당접합부에 상처를 낸 것이 특징이다. 와당면에 부착했던 수키와 편이다.

**유물번호 82** 유물번호|2674(19) 직경|(12.8) 톱|(13.25) 주연폭|2

특징|수목문평와. 적갈색

수목문 평기와로 추정된다. 굵은 선조로 나뭇가지모양을 표현하였다. 내부에 포목흔과 모골흔이 관찰되며, 상하방향의 문지르기 조정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83** 유물번호 2661 직경(14.7) 톱(9.1) 주연폭 1.65/2.5/2.2

특징 수목문평와. 적갈색

2차 타날되어 문양확인이 어려우나 수목문 평기와로 추정된다. 내면에 포흔과 모골흔이 확인된다.

**유물번호 84** 유물번호 2666(46) 직경(11.5) 톱(9.15) 주연폭 1.65

특징 수목문평와. 적색

수목문 평기와 편이다. 측면에는 밖에서 안으로 와도흔 있다. 배면에 포목흔이 보이며, 일부 문지르기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85** 유물번호 2673(18) 직경(15.8) 톱(10.7) 주연폭 1.4/2.4

특징 태사격자문 평와. 적색

큰 마름모꼴의 문양 내부에 복잡한 문양을 시문하였으나 문양의 형태는 확인하기 어렵다. 내면에 포목흔이 관찰되며 부분적으로 포흔 조정흔이 종방향으로 보인다. 하단면에는 이중짜기흔이 나타난다.

**유물번호 86** 유물번호 2677—三 직경(7.9) 톱(14.3) 주연폭 2

특징 태사격자문 평와. 적색

큰 마름모꼴의 문양 내부에 복잡한 문양을 시문하였으나 문양의 형태는 확인하기 어렵다. 배면에 포흔이 관찰되며 합철흔이 보인다. 밖에서 안으로 와도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87** 유물번호 2663—二六 직경(8.15) 톱(9.4) 주연폭 2/1.8

특징 승문타날 평와. 적색

고구려유적에서 흔히 채집되는 문양인 승문타날 기와이다. 꼬은 노끈문양이 선명하게 전사되어 있다. 측면 단면에 2단짜기흔이 있다. 배면에 포흔이 관찰되며 모골흔 보인다.

**유물번호 88** 유물번호 2635(38) 직경(13.2) 톱(12.5) 주연폭 2.3

특징 태사격자문 평와. 적색

태사격자문의 일종인 평기와이다. 2조의 선으로 이루어진 큰 마름모꼴 내부에 수목문이 배치된 복합문형태의 기와이며, 배면에는 문지르기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89** 유물번호 2676(32) 직경(9.3) 톱(8.95) 주연폭 1.75

특징 연화문 평와. 적색

표면에 선조로 연화문이 시문된 듯하나 분리가 부차되어 분명하지 않다. 밖에서 안으로의 와도흔이 관찰되며, 포흔, 모골흔이 보인다.

**유물번호 90** 유물번호 2657(11) 직경(8.45) 톱(8) 주연폭 1.5

특징 보상화문 평와. 적색

2조의 복선으로 이루어진 큰 마름모꼴 내부에 보상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내면에 포흔이 관찰되며, 밖에서 안으로 와도흔이 보인다.

**유물번호 91** 유물번호 2255 직경가로 14.8 톱세로(15.5) 주연폭 두께 2

특징 적색 수기와

승문타날 후 목판조정되어 문양이 지워졌다. 내면에는 포흔이 선명하다. 분할면은 2단조정 되었고 와당과의 접합단부는 각기조정되었다.

**유물번호 92** 유물번호 2253 직경(10.5) 톱(10.6) 주연폭 1.6

특징 무문 평와. 적색

포목흔이 있으며, 분할면에는 와도흔이 관찰된다. 타날흔은 물손질로 전부 지워졌다.

**유물번호 93** 유물번호 2227(44) 직경(14.2) 톱(10.6) 주연폭 2

특징 종선문 평와. 적색

전체적으로 종선문 타날이며 크게 2조의 직선을 교차시킨 문양이다. 분할면에 와도흔이 관찰되며, 내면에 포목흔이 있다.

**유물번호 94** 유물번호 | 2229 직경 | (9) 톱 | (5.3) 주연폭 | 2.1

특징 | 종선문 평와. 적색  
종선문타날이다. 포흔과 문지르기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95** 유물번호 | 2257(36) 직경 | (16) 톱 | (7) 주연폭 | 2.2

특징 | 적색 평와  
문양의 전체모양을 알 수 없으며 표면에 분리사가 부착되었다. 분할면에 와도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96** 유물번호 | 2280(1) 직경 | (19.2) 톱 | (13.5) 주연폭 | 1.5

특징 | 사격자문 평와. 적색  
격자문 타날 암키와이다. 분할면에는 2단짜기흔이 확인된다. 내면 하단에 문지르기흔과 종방향으로 늘어선 모골흔이 관찰된다. 부분적으로 분리사가 부착되어 있다.

**유물번호 97** 유물번호 | 2258(23) 직경 | (8.2) 톱 | (10.2) 주연폭 | 1.8

특징 | 어린문 평와. 적색  
표면에 어린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98** 유물번호 | 2256 직경 | (8.8) 톱 | (6.3) 주연폭 | 1.65

특징 | 적색평기와  
잔존면이 적고, 마모가 심하여 문양확인이 어렵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모골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99** 유물번호 | 2254 직경 | (10.3) 톱 | (6.3) 주연폭 | 1.25

특징 | 적색무문 평기와  
수키와 내면의 타날흔은 물손질로 지워졌다.

**유물번호 100** 직경 | (9.3) 톱 | (11.5) 주연폭 | 1.5

특징 | 적색 평기와  
승문타날 후 물손질되어 표면 문양이 지워졌다. 표면 상단에 문자를 압인했다.

**유물번호 101** 유물번호 | 2732(7) 직경 | (17.2) 톱 | (11.5) 주연폭 | 1.5

특징 | 사격자문 평와. 적색  
표면에는 사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다. 내면에 포흔과 함침흔 모골흔이 관찰된다. 점토편 접합흔도 관찰된다.

**유물번호 102** 유물번호 | 2726(6) 직경 | (17.2) 톱 | (14.4) 주연폭 | 2.2

특징 | 태사격자문 평와. 적색  
표면의 전체적인 문양은 사격자문이다. 내면에는 포흔과 점토 접합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03** 유물번호 | 2703(33) 직경 | (9) 톱 | (5.4) 주연폭 | 1.2

특징 | 초엽문 적색 평기와  
초엽문 암키와 편이다.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04** 유물번호 | 2733(7) 직경 | (12.8) 톱 | (10.9) 주연폭 | 2.1

특징 | 수목문 평와 회갈색  
수목문으로 추정된다. 단부에는 와도흔이 관찰되며 단면은 이중짜기흔이 나타난다. 부분적으로 포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05** 유물번호 | 2724(35) 직경 | (9.3) 톱 | (12.5) 주연폭 | 1.6

특징 | 격자문평와 적색

굵은 직선을 교차 배치시킨 격자문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모골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06** 유물번호 2707(41) 직경<sup>1</sup>(9) 톱<sup>1</sup>(6.2) 주연폭<sup>1</sup>1.3

특징<sup>1</sup> 수목문 적색 평기와

수목문 평기와로 보인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관찰되며 측면에는 와도흔이 보인다.

**유물번호 107** 유물번호 2723 직경<sup>1</sup>(8.7) 톱<sup>1</sup>(9.6) 주연폭<sup>1</sup>2.4/1.7

특징<sup>1</sup> 사격자문 적색 평기와

사격자문이 타날된 와편이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08** 유물번호 2711(34) 직경<sup>1</sup>(9) 톱<sup>1</sup>(13.9) 주연폭<sup>1</sup>1.3

특징<sup>1</sup> 적색 평기와

잔존면이 작아 문양확인이 어려우나, 수목문으로 추정된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09** 유물번호 2715(32) 직경<sup>1</sup>(6.3) 톱<sup>1</sup>(11) 주연폭<sup>1</sup>1.6

특징<sup>1</sup> 적색 평기와

굵은 선조로 시문되어 있는데, 수목문의 일종인듯하나 잔존면이 작아 확인이 어렵다.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10** 유물번호 2701(19) 직경<sup>1</sup>(13.9) 톱<sup>1</sup>(11) 주연폭<sup>1</sup>2.5

특징<sup>1</sup> 적색 평기와

잔존부분이 작고 표면 마모가 심하여 문양확인이 어려우나 보상화문 인듯 하다. 내면에는 포흔과 모골흔이 보인다.

**유물번호 111** 유물번호 2717(25) 직경<sup>1</sup>(8) 톱<sup>1</sup>(12.5) 주연폭<sup>1</sup>1.7

특징<sup>1</sup> 적색 평기와

표면마모가 심하여 문양확인이 어려우나, 사격자문과 수목문이 포함된 복합문인듯하다. 측면에는 밖에서 안으로 와도흔이 관찰된다. 배면에는 포압흔이 선명하다.

**유물번호 112** 유물번호 2706(33) 직경<sup>1</sup>(7.2) 톱<sup>1</sup>(6.7) 주연폭<sup>1</sup>1.2

특징<sup>1</sup> 화염문 적색 평기와

잔존부분이 작아 정확한 문양확인이 어려우나 굵은 선조로 화염문의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13** 유물번호 2720 직경<sup>1</sup>(13.3) 톱<sup>1</sup>(16) 주연폭<sup>1</sup>2

특징<sup>1</sup> 세격자문 평와, 적색

표면의 문양은 사격자문으로 확인되며, 측면에는 와도흔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포압흔과 모골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14** 유물번호 2719 직경<sup>1</sup>(15.7) 톱<sup>1</sup>(11.2) 주연폭<sup>1</sup>2.2

특징<sup>1</sup> 격자문 평와, 적색

문양은 격자문으로 보이며,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되는데, 굵은 포를 쓴듯하다. 하단에는 이중깎기흔이 관찰된다. 모골흔이 선명하다.

**유물번호 115** 유물번호 2728(24) 직경<sup>1</sup>(11.9) 톱<sup>1</sup>(12.7) 주연폭<sup>1</sup>2.5

특징<sup>1</sup> 격자문 평와, 적색

격자문 타날이지만 부분적으로 문양이 지워졌다. 내면에 포목흔이 측면에는 와도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16** 유물번호 2721(1) 직경<sup>1</sup>(13.7) 톱<sup>1</sup>(20.6) 주연폭<sup>1</sup>1.9

특징<sup>1</sup> 사격자문 평와, 적색

표면에는 사격자문이 시문되어있다. 내면에는 조밀한 포흔이 관찰되며, 단면, 측면에는 이중 깎기흔이 보인다. 모골흔이 선명하다. 단판타날이다.

**유물번호 117** 유물번호 1654(34) 직경 14) 톱(15.5) 주연폭 1.5

특징 복합집선문 평와

적색 표면에는 전체적으로 복합집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되고 있다.

**유물번호 118** 유물번호 2718(43) 직경 12.6) 톱(19.2) 주연폭 2.5

특징 수목문 평와. 적색

전체적으로 표면 문양은 수목문이 시문되어 있다. 내면에는 조밀한 포흔이 나타나고, 측면에는 와도흔이 보인다. 선단내면에 깎기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19** 유물번호 2722(15) 직경 16.4) 톱(16.1) 주연폭 2.4

특징 격자문 평와. 적색

표면의 문양은 전체적으로 사격자문과 격자문 타날이 함께 보이며,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측면에 이중 와도흔이 보이고 배면측면에 깎기흔이 관찰된다. 선단내면에 깎기흔이 나타난다.

**유물번호 120** 유물번호 1844(44) 직경 12.1) 톱(14.9) 주연폭 1.6

특징 평기와. 적색

표면에는 전체적으로 사격자문과 선문이 섞인 복합문이 나타나고 있다.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되는데 포흔을 지운듯한 흔적도 나타난다.

**유물번호 121** 유물번호 1617(44) 직경 11.3) 톱(15.4) 주연폭 1.95

특징 평기와. 적색

표면의 문양은 복합선문이다.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22** 유물번호 1640(42) 직경 11) 톱(10.5) 주연폭 1.3~1.8

특징 수목문 평와. 적색

전체적으로 표면에 수목문이 시문되어있고, 내면에는 포흔이 확인되고 있다. 모골흔도 뚜렷하다.

**유물번호 123** 유물번호 2712(28) 직경 12.1) 톱(9.3) 주연폭 1.95

특징 수목문 평기와. 적색

표면에는 굵은 선조로 여러 문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듯 한데 잔존부분이 작아서 문양확인이 어렵다.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24** 유물번호 2708(31) 직경 12.6) 톱(11.2)

특징 수목문 평기와. 적색

수목문인듯 하지만 잔존부분이 작아서 확인이 어렵다. 선단 내면 깎기흔이 관찰된다. 내면에 포압흔이 선명하다.

**유물번호 125** 유물번호 1613(11) 직경 11.5) 톱(10.7)

특징 능형집선문 평와. 적색

전체적으로 능형집선문이 시문되어있다.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되며, 측면에는 와도흔이 나타나고 있다.

**유물번호 126** 유물번호 1649(7) 직경 11.3) 톱(10)

특징 능형문 평와. 적색

전체적으로 능형문이 시문되어있다.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되며, 측면에는 와도흔이 나타나고 있다.

**유물번호 127** 유물번호 2727(12) 직경 11.5) 톱(8)

특징 적색 태사격자문 평기와

전면에 태사격자문이 시문되었으나 문양이 일부 지워져 있다.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28** 유물번호 2708(42) 직경<sup>1</sup>(12.1) 톱<sup>1</sup>(9.3)

특징<sup>1</sup> 적갈색 평기와

표면에 2차조정되어 문양이 흐리다.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29** 유물번호 2729(13) 직경<sup>1</sup>(11.1) 톱<sup>1</sup>(10.7)

특징<sup>1</sup> 적색 평기와

표면에 사격자문이 시문되었으나 문양이 지워졌다.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30** 유물번호 1621(2) 직경<sup>1</sup>(9.5) 톱<sup>1</sup>(7.5)

특징<sup>1</sup> 적색 수목문 평기와

잔존부분 전면에 큰 수목문이 겹쳐서 시문되어있다. 측면에는 와도흔이 관찰된다. 모골흔이 남아있다.

**유물번호 131** 유물번호 1637(9) 직경<sup>1</sup>(7.7) 톱<sup>1</sup>(8.1)

특징<sup>1</sup> 적색 능형문 평기와

전체적으로 표면에 큰 마름모꼴의 모양이 여러겹의 선조로 겹쳐져 시문되어있다.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32** 유물번호 2725(11) 직경<sup>1</sup>(12.5) 톱<sup>1</sup>(9)

특징<sup>1</sup> 적색 사격자문 평기와

표면에 전체적으로 굵은 선조의 사격자문이 시문되어있다.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되며, 모골흔이 보인다.

**유물번호 133** 유물번호 1647(36) 직경<sup>1</sup>(8) 톱<sup>1</sup>(8.7)

특징<sup>1</sup> 적색 수목문 평기와

전체적으로 굵은 선조가 교차 배치되어 큰 마름모꼴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34** 유물번호 2704(25) 직경<sup>1</sup>(9.7) 톱<sup>1</sup>(7.2)

특징<sup>1</sup> 적색 평기와

잔존부분의 면적이 작아 정확한 문양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수목문이 시문되어 있는듯하다. 내면에는 포흔과 모골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35** 유물번호 26721

특징<sup>1</sup> 적색 평기와

잔존면이 작아 문양 확인이 어려우나, 수목문으로 추정된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관찰된다.

##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Ⅱ

### 일제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 재검토와 關西地域 소재 고구려 유물 1

초판 1쇄 인쇄 2009년 6월 4일

초판 1쇄 발행 2008년 6월 25일

편 동북아역사재단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9

ISBN 978-89-6187-120-4-9391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